Tsuzuki Educational Group Present

10th ASIAN TV DRAMA CONFERENCE

2015.11.4(wed)~8(sun)

CURRENT TRENDS
AND
POPULARITY FACTORS
BY COUNTRY

KOFIC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AIE Kyushu

AITP

목 차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개회사1 1
2.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장 개회사2 5
3. ATP(전일본TV프로그램 방송제작사연맹) 이사장 인사말 9
4. AIE(지역기업연합회 큐슈연계기구) 회장 인사말 11
5. 후쿠오카현 지사 축사 13
6. 기타큐슈시 시장 축사 17
7. 행사 개요 및 일정 21
8. 참가단체 소개 33
   1)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34
   2) 문화체육관광부 36
   3) 한국방송작가협회 37
   4)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39
   5) 후쿠오카현 40
   6) 기타큐슈시 42
   7) 츠즈키학원 44
   8) AIE(지역기업연합회 큐슈연계기구) 46
   9) ATP(전일본TV프로그램 방송제작사연맹) 48
   10) 일본방송작가협회 50
   11) 중국드라마제작산업협회 52
   12) 북경TV예술가협회 54
   13) 상해미디어그룹(SMG) 56
   14) GMA 네트워크 58
   15) 미디어콥 60
   16) 브로드캐스트 타이 텔레비전 62
   17) 베트남TV TVAd 64
9. 참가자 소개 65
   1) 한국 참가자 67
   2) 일본 참가자 91
   3) 중국 참가자 113
   4) 필리핀 참가자 125
   5) 싱가폴 참가자 129
   6) 태국 참가자 133
   7) 베트남 참가자 137
   8) 모더레이터 141
10. 한국어 컨퍼런스 자료 145
11. 일본어 컨퍼런스 자료 187
12. 중국어 컨퍼런스 자료 225
13. 영어 컨퍼런스 자료 257

目　次

1. 文化体育観光部長官　開会の辞1 2
2. 韓国文化産業交流財団　理事長　開会の辞2 6
3. ATP(全日本テレビ番組製作社連盟)　理事長　挨拶 9
4. AIE(地域企業連合会九州連携機構)　会長　挨拶 11
5. 福岡県知事　祝辞 14
6. 北九州市長　祝辞 18
7. 行事概要および日程 24
8. 参加団体紹介 33
   1)　韓国文化産業交流財団 34
   2)　文化体育観光部 36
   3)　韓国放送作家協会 37
   4)　韓国ドラマ制作社協会 39
   5)　福岡県 40
   6)　北九州市 42
   7)　都築学園 44
   8)　AIE(地域企業連合会九州連携機構) 46
   9)　ATP(全日本テレビ番組製作会社連盟) 48
   10) 日本放送作家協会 50
   11) 中国ドラマ制作産業協会 52
   12) 北京テレビ芸術家協会 54
   13) 上海メディアグループ(SMG) 56
   14) GMAネットワーク 58
   15) メディアコープ 60
   16) ブロードキャスト タイ テレビジョン 62
   17) ベトナムテレビTVAd 64
9. 参加者紹介 65
   1)　韓国参加者 67
   2)　日本参加者 91
   3)　中国参加者 113
   4)　フィリピン参加者 125
   5)　シンガポール参加者 129
   6)　タイ参加者 133
   7)　ベトナム参加者 137
   8)　モデレ-タ- 141
10. 韓国語カンファレンス資料 145
11. 日本語カンファレンス資料 187
12. 中国語カンファレンス資料 225
13. 英語カンファレンス　資料 257

目　录

1. 文化体育观光部长官开幕词1.....3
2. 韩国文化产业交流财团董事长开幕词2.....7
3. ATP(全日本电视节目制作社联盟) 理事长致辞.....10
4. AIE(地区企业联合会九州连带机构)会长致辞.....13
5. 福冈县知事祝词.....15
6. 北九州市长祝词.....19
7. 活动概要及日程.....27
8. 出席团体介绍.....33
   1) 韩国文化产业交流财团.....35
   2) 文化体育观光部.....36
   3) 韩国广播作家协会.....38
   4) 韩国电视剧制作社协会.....39
   5) 福冈县.....41
   6) 北九州市.....43
   7) 都筑学院.....45
   8) AIE(地区企业联合会九州连带机构) 47
   9) ATP（全日本电视节目制作公司联盟）.....49
   10) 日本广播作家协会 51
   11) 中国电视剧制作产业协会.....53
   12) 北京电视艺术家协会.....55
   13) 上海文化广播影视集团有限公司(SMG).....57
   14) (株)GMA网络.....59
   15) 新传媒.....61
   16) 泰国广播电视台.....63
   17) VTV TVAd.....64
9. 出席人员介绍.....65
   1) 韩国出席人员.....67
   2) 日本出席人员.....91
   3) 中国出席人员.....113
   4) 菲律宾出席人员.....125
   5) 新加坡出席人员.....129
   6) 泰国出席人员.....133
   7) 越南出席人员.....137
   8) 仲裁员.....141
10. 韩语研讨会资料.....145
11. 日语研讨会资料.....187
12. 汉语研讨会资料.....225
13. 英语研讨会资料.....257

Contents

1. Opening Message1.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4
2. Opening Message2. KOFICE....8
3. Greetings. Chairman, ATP....10
4. Greetings. President, AIE....13
5. Congratulatory Message. The Governor of Fukuoka Prefecture....16
6. Congratulatory Message. The Mayor of Kitakyushu....20
7. Overview & Schedule of the Event....30
8. Introduction of Group Participants....33
   1)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35
   2)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36
   3) Korean TV & Radio Writers Association....38
   4) Corea Drama Production Association....39
   5) Fukuoka Prefecture....41
   6) Kitakyushu....43
   7) Tsuzuki Gakuen....45
   8) Kyushu Associations of Independent Entrepreneurs....47
   9) Association of All Japan TV Program Production Companies....49
   10)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of Japan....51
   11) China Television Drama Production Industry Association....53
   12) Beijing TV ArtistsAssociation....55
   13) Shanghai Media Group....57
   14) GMA NETWORK INC....59
   15) Media Corp....61
   16) Broadcast Thai Television....63
   17) VTV TVAd....64
9. Introduction of Participants....65
   1) Korea....67
   2) Japan....91
   3) China....113
   4) Philippines....125
   5) Singapore....129
   6) Thailand....133
   7) Vietnam....137
   8) Moderator....141
10. Reference in Korean....145
11. Reference in Japanese....187
12. Reference in Chinese....225
13. Reference in English....257

개 회 사 1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입니다.

'제10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콘퍼런스가 1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많은 애정과 수고로 함께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이 국가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타국가의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국가 간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TV 드라마의 현황과 인기요인'을 분석하고 논의하게 될 이번 콘퍼런스는 국가 간의 공통적인 문화적 특성과 드라마 인기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를 함께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국가 간 드라마 관계자들의 네트워크가 더욱 견고하게 구축되어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지식과 노하우를 교환하고 더 나아가 문화 교류와 융합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콘퍼런스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아시아 드라마의 위상을 높이는 데 더욱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노력들이 모여 전 세계인이 공감하고 좋아할 수 있는 좋은 드라마가 제작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열정을 다해 이번 콘퍼런스를 준비하고 실행해주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관계자 여러분과 일본 주최 측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1월 4일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 종 덕

開会の辞 1

皆様　はじめまして。
大韓民国　文化体育観光部　長官　キム・ジョンドクと申します。

「第10回　アジアドラマカンファレンス」の開催を、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

このカンファレンスが10周年を迎えるまでの間、多くの愛情を注ぎ、多大なご苦労をされてきた関係者の皆様方に感謝の意を表します。

最近ではデジタルネットワークの発展により、世界中の視聴者が国境を超え、リアルタイムで海外のコンテンツを視聴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しかし依然として、国家間に言語や文化の壁が存在し、互いに共感を得られるコンテンツを製作しにくい状況であります。

アジア各国の「テレビドラマの現況と人気の要因」を分析し議論する今回のカンファレンスは、国家間の共通した文化的特性と、ドラマの人気要因について討論し、これらの内容を融合する法案を模索する良い機会になるでしょう。

今回のカンファレンスを通して、国家間のドラマ関係者の方々の繋がりがより堅く築かれると共に、ドラマ制作に関する知識とノウハウを交換しながら、文化交流と融合が更に拡大されます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カンファレンス終了後にも、交流を持続的に行い、アジアドラマの水準をより高めることに、今まで以上にご尽力いただけますようお願いすると共に、皆さんの努力が実り、全世界の人々が共感し愛される素晴らしいドラマが制作されますことを望んでおります。

最後になりましたが、本日ご参席いただきた国内外のご来賓の皆様方に、改めて深く感謝の意を表します。情熱を注ぎ今回のカンファレンスを準備し開催してくださいました韓国文化産業交流財団の関係者の方々と、日本の主催者の皆様方にも感謝申し上げます。

2015年 11月 4日
大韓民国　文化体育観光部　長官
キム・ジョンドク

The 10th Asian TV Drama Conference

开 幕 词 1

大家好！

我是大韩民国文化体育观光部金钟德。

我在此对第10届亚洲电视剧研讨会的召开表示衷心的祝贺！向十年来为了本研讨会一直以拳拳之心和辛勤的付出，共同携手至今的各位业界精英表示诚挚的谢意！

近来，由于数字网络的发展，全世界的观众可以不受国界的限制，实时收视其他国家的内容，但是文化和语言的差异依旧是形成各国之间共鸣的最大绊脚石。

本次研讨会将分析和讨论亚洲各国的"电视剧现状和受欢迎的原因"，它将成为找出各国共通的文化特性和电视剧受欢迎的原因，并寻找实现他们两者融合之方案的绝好机会。

期待通过本届亚洲电视剧研讨会，使各国业界人士之间的联系网络构建得更加坚实稳固，交流电视剧制作相关的知识和宝贵经验，进而使文化交流和融合的机会得到更大的拓展。

希望大家在研讨会之后，仍通过持续不断的交流，为提高亚洲电视剧的地位付出更多的努力。也期待大家共同努力，创造出全世界人都能形成共鸣的、都会喜爱的电视剧。

最后，向前来参加本次大会的各位来宾再次表示深深的谢意！同时向热诚筹备并执行本次研讨会的韩国文化交流财团所有成员及日本主办方全体表示深深的感谢！

2015年 11月 4日

大韩民国文化体育观光部长官

金钟德

Opening Message 1

Distinguished scholars, honorable guests, and ladies and gentlemen,
I'm Jongdeok Kim,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Republic of Korea.

May I begin by extending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the 10thAsian TV Drama Confere nce on its 10th anniversary, and I also would like to acknowledge all parties concerned for t heir tremendous time and effort in organizing this conference to date.

In recent years, advance in digital network has enabled audience all over the world to enjo y various contents of other countries real-time, regardless of geography. However, language b arriers and differences in cultures still are the biggest obstacles to the production of the mat erials that can lay foundations for a shared Asian identity.

This conference, which will examine and discuss 'the national trends of TV dramas and pop ularity factors' in Asian countries, will us a good opportunity to look at the common cultural features among those countries, to come up with the common popularity factors of dramas, and to explore possible ways to blend them together.

I hope that this conference will in the future evolves into an even closer and stronger inte rnational network in the drama field, allowing you to exchange your knowledge and know-ho w in drama production, and resulting in even more opportunities for cultural exchanges and amalgamation of different cultures.

Before I close, please allow me to express my very best wishes for continued success at th e conference, and let us determine to work even harder to ensure that this continued excha nge grows into the one that enhances and improves the Asian dramas. I hope your all effort will result in dramas of high quality that will be welcomed and shared by all audience acros s the world.

Last but not least, may I once again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ll of you here, andm y special thanks must go those of you at th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 ange and at the Japanese host for your unsparing efforts and hard work in organizing this c onference.

4 November 2015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Republic of Korea
Jongdeok Kim

개 회 사 2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0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각국의 작가, 제작자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한·중·일의 드라마 작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본 컨퍼런스는 올해로 1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는 그동안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명실상부 아시아 최고 규모의 드라마 전문 컨퍼런스로 발돋음하였으며, 작가, 제작사, 배우 등 드라마 제작의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제 10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는 "TV 드라마의 국가별 트렌드와 인기 요인"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각 국가의 TV 드라마의 실태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문화산업은 창의성과 보편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양질의 콘텐츠'가 성장의 중심이자 핵심동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아시아 각 국이 서로 협력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공동 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컨퍼런스가 아시아 드라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상생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제 10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의 개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이곳 일본 큐슈에서 새로운 감성과 스토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4일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이 팔 성 이사장

開会の辞 2

皆様はじめまして。

開会に先立ちまして、ご多忙の中「第10回　アジアドラマカンファレンス」にご参席いただきました、各国の作家の皆様、製作者の方々および全ての関係者の皆様方に、感謝申し上げます。

2006年に韓国、中国、日本のドラマ作家を中心として始まったこのカンファレンスは、今年で10周年という意味深い年を迎えました。

アジアドラマカンファレンスは、ベトナム、タイ、フィリピン、シンガポール、至るまで、名実共にアジア最高規模のドラマ専門カンファレンスとして成長し、作家、製作会社、俳優などドラマ製作のすべての関係者が共に参加する祝祭の場を築きあげました。

「第10回アジア ドラマ カンファレンス」は“TVドラマの国家別トレンドと人気要因”という主題に基づき、アジア各国のTVドラマの実態を共有し、今後の発展方向を共に模索する趣旨で開催されました。

現在の文化産業は、創意性と普遍性の全てを含む‘良質のコンテンツ’が成長の中心であり、核心動力になる時代であります。 今回のカンファレンスを通して、アジア各国が互いに協力し、良質のコンテンツを共同製作できる良い機会となることを望みます。

本カンファレンスが、アジアのドラマ産業の国際競争力を高め、共生ベルトを構築するための基盤になることができるよう、ご参席の皆様方には惜しみない声援をお願いする次第であります。

只今より「第10回アジアドラマカンファレンス」の開会を宣言いたします。伝統と現在が共存するこの地、日本の九州で、新しい感性とストーリーを発見されますことを期待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015年 11月 4日
韓国文化産業交流財団
理事長 イ・パルソン

开 幕 词 2

大家好!

首先，对百忙之中前来参加第十届亚洲电视剧会议的各国作家、制片人及所有相关人员表示衷心的感谢。

2006 年由韩、中、日三国电视剧作家为中心开始的亚洲电视剧会议，到今年迎来了具有非凡意义的第十个年头。

十年间，亚洲电视剧会议已经向越南、泰国、 菲律宾、新加坡等国家参加的、 名副其实的亚洲最大规模的专业性电视剧会议迈进，并成为了作家、制片人、演员等所有电视剧制作相关人员共同参与的庆典。

第十届亚洲电视剧会议以“各国电视剧发展趋势及流行因素”为主题，旨在共享各国电视剧实际状况，共同探索今后的发展方向。

当今的文化产业，是既代表创意性又代表普遍性的“优质内容”成为发展的中心和核心动力的时代。希望本次会议能成为亚洲各国相互合作，共同制作优质内容的难得契机。

为了使本次会议成为提升亚洲电视剧产业的国际竞争力、构建共存纽带的基础，恳望大家毫无保留的支持。

以此，将宣布第十届亚洲电视剧会议的开幕，希望在这个传统与现代共存的日本九州市，发现新的感性和故事。

谢谢大家!

2015 年 11 月 4 日

韩国文化产业交流财团

董事长 李八成

Opening Message 2

Distinguished Delegates, Ladies and Gentlemen,

First and foremo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the writers, producers and b eyond, who are working behind the scenes, for taking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 to par ticipate and share the 10th Asian TV Drama Conference.

The conference was initiated by drama writers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n 2006, a nd it celebrates its meaningful 10th anniversary this year. The Asian TV Drama Conference ha s stood as the largest professional drama conference in Asia, covering the countries including Vietnam, Thailand, Philippines and Singapore; and it has become the a festival for everyone involved in drama productions, such as writers, production companies, and actors.

With the theme of 'National Trends and Popularity Factors of TV dramas', the 10th Asian T V Drama Conference provides a platform for sharing issues and ideas about the status quo of TV dramas in each Asian countries, and attempts to explore future directions and prospec ts for TV dramas together.

Today's cultural industry requires 'the contents of high quality' that feature both creativity and universality, and in today's world, these contents of fine quality are center and core ele ments of growth. I hope this conference offers a good opportunity for Asian countries to col laborate and co-produce those contents of high quality.

Please show your unstinting interest and support in the conference becomingthe cornersto ne forenhancing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Asian drama industry and for the develo pment of areas for win-win cooperation.

On that note, I now declare the 10th Asian TV Drama Conference open. I hope you can fi nd the new sensibility and new stories here in Kyushu, where traditional and modern charact eristics coexist in unity.

Thank you very much!

4 November, 2015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KOFICE)

Chairman, Palseung Lee

인 사 말

제10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일본측 주최자로써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아시아 각국에서 많은 작가, 프로듀서 분들을 기타큐슈시에 모시고 컨퍼런스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 큐슈 북부는 고대부터 아시아 특히 한반도나 중국의 관문으로서 경제·문화의 활발한 교류를 해온 지역입니다. 이번 제10회를 기념하며 기타큐슈시에서 드라마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KOFICE(한국 문화 산업 교류 재단)여러분들께는, 지난 10년간 주최자로써의 의지와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막대한 정성과 노력을 가지고 이번 큐슈 개최를 실현시켜주신 코바야카와 회장님 등 AIE-큐슈(지역 기업 연합회 규슈 연계 기구)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국가별 TV 드라마의 트렌드 및 인기 요인"입니다. 각국 드라마의 트렌드 요인을 파악하면서 각 나라의 작가 및 제작자가 향하고 있는 테마가 부각되는 것은 물론 아시아 사람들이 원하는 드라마와는 어떤 것인가, 아시아의 정석은 무엇인가와 같은 현대적인 주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방송계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급격히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가나 지역을 넘어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회의를 만드신 한국의 신현택 회장님과 일본의 이치카와 신이치 선생님의 선견지명에 새삼 놀라고 있습니다.

두 분의 뜻은 "아시아는 하나", "아시아를 넘어 할리우드와 경쟁하는 킬러 콘텐츠 제작"을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두분 뜻을 계승하는 회의가 되길 바랍니다.

더욱이 올해는 회의 일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예년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주최자와 실행 위원회, 각국의 작가, 제작자 및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발전을 기원하며 저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전일본TV프로그램 방송제작사 연맹
이사장 쿠라우치 히토시

挨　拶

「第10回アジアドラマカンファレンス」、日本側主催者の一人として、ひと言ご挨拶を申し上げます。今回、アジア各国から大勢の脚本家、プロデューサーの方々を、この北九州市にお迎えして開催できますことは、誠に喜ばしい限りです。

ここ九州北部は、古代よりアジアとりわけ韓半島や中国の玄関口として、経済・文化の盛んな交流を行ってきた地域です。北九州市でのドラマカンファレンスの開催は、第10回目という節目にふさわしい文化交流の場となりました。

先ずは、李理事長をはじめとするKOFICE（韓国文化産業交流財団）に対して、10年間に渡って主催されてきたご意志とご尽力に心よりの敬意を評するとともに厚く御礼を申し上げます。

同時に、多大なるご熱意とご尽力をもって今回の九州開催を実現された小早川会長はじめAIE-九州（地域企業連合会　九州連携機構）に対しましても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

さて、今回のテーマは「国家別テレビドラマのトレンド及び人気要因」であります。各国のドラマのトレンド要因が明らかになることで、それぞれの国の脚本家やプロデューサーが向きっているテーマが浮き彫りになるのはもちろん、アジアの人びとが求めるドラマとはなにか、アジアのスタンダードとは何か、といった今日的なテーマを理解する機会にもなると考えます。

現在、放送界はアジアを中心にして急激に国際化の時代を迎え、国や地域を越えての交流が盛んになってきています。

その意味で、この会議を提唱されたお二人、韓国のシン・ヒョンテク会長と日本の市川森一先生の『先見の明』に、あらためて感服しております。

お二人の志とは、「アジアはひとつ」、「アジアの地を、ハリウッドと競えるコンテンツ製作エリアにする」というものでした。今回もそしてこれからも、お二人のご遺志を受け継ぐ会議でありたいと願っています。

今回は会議日程も増えたことで、例年にも増して濃密で熱心な議論が交わされることを期待して止みません。最後に、主催者と実行委員会、そして各国の脚本家、制作者、ならびに本日ご出席の皆様の益々のご発展を祈念しまして、私のご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全日本テレビ番組製作社連盟
理事長　倉内均

致　辞

作为第十届亚洲电视剧研讨会的日本主办方代表，在此向大家问好。很荣幸能够邀请来自亚洲各地的诸位编剧及制片人到北九州市并主办研讨会。

自古以来，北九州市作为通往亚洲，尤其是韩半岛和中国的关口，一直开展了经济与文化方面的活跃的交流。为纪念第十周年而在北九州市主办电视剧研讨会，会在重要时机奏响文化交流的新乐章。

首先，对KOFICE（韩国文化产业交流财团）各位在过去十年间展现的作为主办方的意志与努力，借此机会表示由衷的感谢与诚挚敬意。

与此同时，对以真诚和努力来实现在北九州市召开本次研讨会的小早川会长及AIE-九州（地区企业联合会九州联系机构），也表示衷心的谢意。

本届的主题是《各国电视剧的发展趋势与受欢迎的原因》。通过这次机会，我们能够掌握各国电视剧的潮流因素，从而突出各国编剧及制片人所指向的主题，同时也能够理解现代化的主题，即何种电视剧为亚洲大众所需、亚洲的定式为何等。

如今，电视界以亚洲为中心，正急速迎接着国际化时代，其交流已超越国界和地区，呈现日益活跃的趋势。

在这一意义上，对创办这一研讨会的韩国申铉泽会长和日本市川森一先生的先见之明表示如实的赞叹。

两位的意图在于“一个亚洲”与“超越亚洲、能与好莱坞进行竞争的产品制作”。希望本研讨会今后也能继承两位的意愿。

加之，今年的研讨会日程也有所增加，但愿在本次研讨会能进行比以往更有深度的议论。

最后，由衷希望主办方与实行委员会、来自各国的编剧与制片人以及在座各位前途无量，永远昌盛。谢谢。

全日本电视节目制作社联盟

理事长　仓内均

Greetings

I would like to welcome everyone here as the Japanese host of the 10th Asian Drama Conference. I am extremely pleased to host this conference at Kitakyushu with so many writers and producers from many different Asian countries.

Northern Kyushu has been a thriving cultural and economic gateway to Asia, especially Korea and China, since ancient times. Thus, the 10th Asian Drama Conference taking place here in Kitakyushu is even more meaningful, and I hope it will be a forum of cultural exchange in this critical time.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KOFICE for their hard work and effort in hosting the conference for the past 10 years.

I would also like to thank President Kobayakawa and the AIE-Kyushu for their efforts to host the conference here in Kyushu.

This year's theme is "CURRENT TRENDS AND POPULARITY FACTORS BY COUNTRY" I believe this conference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trends and themes that writers and producers of each nation are developing, as well as discussing modern themes such as what kind of Dramas do Asians want and what is the standard of Asian TV Dramas.

Currently, the Television industry is rapidly being internationalized with Asia in the center and communication is lively across all borders and regions.

I am amazed at the foresight of President Shin and Shinichi ICHIKAWA.

Both of these leaders believe that "Asia is One" and wish to "Create killer contents that could rival Hollywood". I hope that there will be more conferences that succeed these visions.

This year's conference takes place longer than last year, and I hope this would help for ev en more insightful and deep discussions. Lastly, I would like to hope for a bright future for all our hosts, organizing committees, writers, producers and everyone who participated today.

Association of All JapanTV Program Production Companies

Chairman, Hitoshi KURAUCHI

인 사 말

이곳에서 제 10 회「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를 개최함에 있어 주최자를 대신하여 모든 관계자 모든 분들의 지도와 지원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 컨퍼런스를 제안하고 영상산업의 교류와 네트워크에 의한 경쟁력 있는 발전을 목표로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어주신 일본방송작가협회장 고 이치가와 신이치 선생 (1941 – 2011),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장 고 신현택 선생 (1945 -2011), 이 두 분이 공유한「할리우드를 따라잡고 추월하자」는 "위대한 꿈"은 구체적인 "형태"가 되어, 이제 제 10 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두 분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10 년 전에는 아시아 영상산업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아시아 크리에이터 여러분 사이에 깊은 신뢰관계가 쌓이고 실천적인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여러 아시아 국가에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였으며, "표현자"로서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제공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즉 각국 역사문화 이질성의 상호이해, 생활문화의 공감 그리고 관광에 의한 교류 인구의 확대 등은, 원대한 사명을 바탕에 두고 차근차근 이루어졌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큐슈에서도 본 컨퍼런스를 통한 확실한 성과가 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가해주신 해외 방송국에서 키타큐슈에서 로케이션을 실시하고, 이렇게 촬영한 작품을 통해서 비춰진 일본문화가 좋은 반응을 불러, 해당 국가로부터의 관광객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기쁘게도, 이 곳 큐슈에서 우리 생활문화의 결정체인 "결혼식"을 올리려는 젊은 커플도 눈에 뜨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세계화와 통신기술의 고도화는 단숨에 세계의 거리감각을 줄이고, 그와 더불어 사회의 발전 속도도 해마다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00 년 이후에는 더욱 급속한 시간 단축이 이루어져, 30 년 전에는 10 년이 걸리던 것을 2~3 년 만에 전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5 년의 시간이면 기존 30 년 분의 작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되지 않을까요.

위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들도 그리고 이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소프트 파워에 의한 컨퍼런스를 중심축으로 두면서 관련 비즈니스 환경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컨퍼런스의 지속적 개최를 약속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이번 제 10 회 컨퍼런스는 개최 준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 착오를 반복하겠지만 여러분의 이해와 가르침을 통해 개선해나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회의 개최에 특별협찬을 해주신 츠즈키학원 그리고 개최지인 기타큐슈 시, 무나카타 시를 비롯한 각 지역 관계기관단체 여러분, 차세대 육성을 위해 협찬해주신 세키가구 등, 협력과 지원을 해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일반사단법인 지역기업연합회 큐슈 연계기구
회장 코바야카와 아키노리

挨　拶

ここに、第 10 回「アジアドラマカンファレンス」を開催するに際し、主催者を代表して、今回の開催準備における関係者全ての皆様のご指導ご支援に対し心より深く感謝申し上げる次第であります。

先づは、このカンファレンスをご提案頂き、映像産業の交流とネットワークによる競争力ある発展をめざす新しい歴史の 1 ページを開いて頂きました日本放送作家協会会長 故市川森一先生（1941－2011）、韓国文化産業交流財団理事長 故 シン・ヒョンテク先生（1945－2011）、そのお二人が共有された「ハリウッドに追いつけ追い越せ」の“大いなる夢”は、今、確かなる“カタチ”となって第 10 回を迎えました。ここに、皆様と共にお二人に改めて敬意を表し喜びを分かち合いたいと存じます。

アジアの映像産業が“集まる”ことや“場”を創ること、そのものが大きな事業であった 10 年前。その後、アジアのクリエーターの皆さんの深まる信頼関係と実践的な情報交換は新たな価値をアジア諸国に発信し、“表現者”として新たな文化的価値を提供してこられた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それは、各国の歴史文化の異質性の相互理解、生活文化の共感、そして、観光による交流人口の拡大等、限りない使命の大きさを前に、着実な前進を果していることを実感してきました。

この九州でも、明らかに本カンファレンスの成果として、ご参加頂いた海外のテレビ局による、ここ北九州におけるロケの実施、あるいは、それらの作品を通じての日本文化の発信が大きな反響を呼び起し、その国からの観光客の飛躍的拡大を実現しています。喜ばしいことは、わが国の生活文化の結晶である“結婚式”を、ここ九州で挙げるために訪れる若いカップルも目を見張る勢いで伸びてきていることです。

さて、情報の世界化と通信技術の高度化は、世界の距離感覚を一挙に縮めると共に、社会の伸展の速度も年毎に加速されて参る気がいたします。とりわけ、2000 年以降は、その時間軸が更に急速に短縮され、30 年程前では、10 年の歳月を要していたものが 2～3 年で展開することも可能となりました。多分、今後は 5 年も経てば、従来の 30 年分の仕事ができる計算とな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そういう中にあって、私達自身も、このアジアドラマカンファレンスも“変化”を求められています。それは、現在のソフトパワーによるカンファレンスを中核として堅持しつつも、関連としてのビジネス環境を拡充することであります。これこそ、このカンファレンスの継続的開催を約束してくれるものであると信じています。

その第一歩としてのこの第 10 回のカンファレンスは、開催への準備から運営に至るまで幾つか試みの仕掛けをさせて頂きました。まだまだ充分ではありませんので、試行錯誤を繰り返すこととは思いますが皆様のご理解とご指導を頂きながら改善を重ねて参りたいと存じます。

末尾となりましたが、本会の開催へ特別協賛を頂きました都築学園様、そして、開催地の北九州市様、宗像市様をはじめとする各地元関係機関団体の皆様、次世代育成のためご協賛頂きました関家具様等、ご協力ご支援頂きました多くの関係者の皆様へ満腔の感謝を捧げご挨拶といたします。

一般社団法人 地域企業連合会 九州連携機構
会長 小早川明徳

致　辞

在此，我替举办“第十届亚洲电视剧研讨会”的主办方向不辞辛劳筹备本次会议的相关人士所给予的指导和支持表示深深的感谢。

最初提议举办本会议并设定通过影视产业的交流网络增强竞争力的目标，从而开启了历史新篇章的日本电视作家协会会长已故市川森一先生（1941-2011），韩国文化产业交流财团理事长已故申铉泽先生（1945-2011）。两位所共同倡导的“超越好莱坞”这一“伟大梦想”已经有了具体的“形态”，也迎来了本次第十届会议。在此，与在座的各位一起再次向两位先生表达最崇高的敬意并分享喜悦之情。

十年前，亚洲影视产业要打造一个“聚集的平台”已经是很大的工程。此后，我认为亚洲的各位创作者之间深深的信赖关系与实质性的信息交换已经将新的价值传播到所有亚洲国家，也作为“描述者”一直提供着新的文化价值。那正是对于各国历史文化差异性的相互理解，生活文化的共鸣以及在观光旅游业上的交流人口增多等，也切身感受到了秉着巨大的使命感，在踏踏实实地前进。

在九州，同样也作为本次会议的成果，通过外国电视台对北九州的拍摄或其作品，日本文化的影响力也在不断扩大并获得巨大的反响，游客数量也在剧增。另一可喜的变化是，越来越多的年轻夫妇选择在九州举办结婚典礼，在这里做下他们人生中最重要的决定。

信息全球化与通信技术的先进化一下子缩小了人们对距离的感知，社会的发展不断加速。尤其是 2000 年后，时间轴更是急速缩短。30 年前觉得要花费 10 年时间的事情，如今 2-3 年就已全面展开。也许在未来 5 年的时间里，过去要花费 30 年的工程也会获得成功。

在此背景下，我们也需要亚洲电视剧会议进行“改变”。正是凭借现今的软实力，不断扩大以会议为中心的相关商务环境。我相信这才是使本会议持续召开的保障。

作为这一过程的第一步，本次第十届会议从筹备到执行阶段进行了几个新的尝试。由于尚未成熟也许会有执行误差，也希望得到各位的谅解与指导。

最后，向特别赞助本次会议的都筑学园以及召开地北九州，和包括宗像市在内的各地区相关机构团体代表，以及为赞助培育新一代的关家具等给予了合作与支持的相关人士表示感谢。

一般社团法人 地区企业联合会 九州连带机构

会长 小早川・明德

Greetings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ll of you for your guidance and support in organizing the 10th TV Drama Conference of Asia on behalf of the host.

First of all, please join me paying tribute to the two amazing people, Shinichi Ichikawa (1941 – 2011), the late president of the Japanese Broadcast and Writers Association, and Sin Hyuntaek (1945 – 2011), the late chairman of the board of the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who opened a new chapter in history by initiating this conference with the goal of creating competitive development in the audiovisual industry and network. Their "ambitious dream", 'Let's catch up with Hollywood and outdo it.', has definitely taken "form" and been specified, resulting in our celebration of its 10th conference.

Setting up "a place to gather" for the people in the Asian audiovisual industry itself was a huge project 10 years ago. However, since then, Asian creators, have developed a relationship of trust and shared practical information, which has allowed us to deliver and exchange new values in various Asian countries, and to provide new cultural values to other Asian countries, as a cultural ambassador. We have witnessed that mutual understanding of each countries' history, cultural differences, sympathy for each other's living cultures,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visitors through tourism are the result of our steady but continued effort to achieve our big missions.

You can also find the visible results that this conference has made, here in Kyushu. Thanks to the conference, foreign broadcasting companies who attended the conference went on locations, and Japanese culture shown through the lens of their works has been well received in other countries. This resulted in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tourists. To our delight, the number of young couples who visit Kyushu for the fruit of our living culture, weddings, is remarkably increased, too.

The globalization of information and the acceleration of communication technology have shortened the distance among countries in the world, and society has been developed at great speed every year. Since 2000, in particular, this allowed us to complete a project within two or three years that would have taken ten years thirty years ago. This suggests that work can be done within five years in the future, which would take us thirty years to complete at the moment.

In this context, a change in this Asian TV Drama Conference, as well as in ourselves is required. A 'change' in this context means the expansion of relate business environment while putting the conference having soft power at the center. I b elieve this will enable us to continue the success of the conference.

As the first step toward this, there has been a few attempts at the 10th Asian TV Drama conference, from the initial plan to the management. We might undergo trial and error, but we will improve it by your understanding and suggestions.

Lastly, my special thanks go to the Tszuki School which has sponsored this conference, and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Kitakyushu and Munakata, where are having the conference, and Crash & Nest Café , who sponsors for the fostering of the next generation, and everyone else who has been involved.

Kyushu Associations of Independent Entrepreneurs
President, Akinori Kobayakawa

축 사

아시아 각국•각 지역에서 활약하는 방송작가, 프로듀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기념할만한 제 10회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가 성대하게 개최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쿠오카현에 와 주신 국내외의 많은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지역기업연합회 큐슈연계기구의 코바야가와 회장님을 비롯, 10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이 사업을 지탱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후쿠오카는 오랜 옛날부터 아시아의 현관으로서, 일본과 대륙과의 교류창고로서 큰 역할을 짊어져 왔습니다.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아시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후쿠오카에서, 각국의 드라마 제작관계자가 모여 드라마라는 영상 콘텐츠의 매력을 더욱더 고취시키기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매우 뜻 깊게생각합니다.

특히 관광진흥적인 면에서 볼 때, 드라마•영화를 활용한 인바운드관광의 추진이 주목받고 있어, 영상콘텐츠는 지역 관광진흥에도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후쿠오카현에는 춘하추동, 계절마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로케지로서도 최적입니다. 이를 계기로 여러분의 멋진 영상을 통하여 후쿠오카현의 매력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기회가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각국의 상호이해가 보다 깊어지고 아시아 드라마가 더욱더매력을 드높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5년 11월
후쿠오카현 지사
오가와 히로시

祝　辞

アジア各国・地域で活躍する放送作家、プロデューサーの皆様をお招きし、記念すべき「第10回アジアドラマカンファレンス」が盛大に開催されますことを、心からお慶び申し上げます。そして、国の内外から大勢の皆様、ようこそ福岡県にお越しいただきました。心から歓迎申し上げます。また、地域企業連合会九州連携機構の小早川会長をはじめ、10年もの長きにわたり、この事業を支えてこられたすべての皆様に、改めて深く敬意を表し、感謝申し上げます。

ここ福岡は、古くから、アジアのゲートウェイとして、日本と大陸との交流窓口として大きな役割を担って参りました。地理的にアジアに近く、歴史的にもアジアとの深い関わりを持つ福岡で、各国のドラマ制作関係者が集い、ドラマという映像コンテンツの魅力をさらに高めていくための国際会議を開催できますことは、大変意義深いと思っております。

特に観光振興の面では、ドラマ・映画を活用したインバウンド観光の推進が注目されており、映像コンテンツは地域の観光振興にも大きな力を持っています。福岡県には、春夏秋冬、四季折々に魅力を感じていただける見所がたくさんあります。ロケ地としても最適です。これを契機に、皆さんの素晴らしい映像を通じて、福岡県の魅力が世界に向けて発信されていく機会が増えます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今度も、アジアドラマカンファレンスの活発な活動を通じて、各国の相互理解がより深化し、アジアドラマが益々魅力を高めますことを心から祈念いたします。

2015年 11月

福岡県知事　小川洋

祝　词

对于能够请到活跃在亚洲各国各地区的各位编剧、制作人来共同举行本次具有纪念意义的《第十届亚洲电视剧研讨会》表示由衷的高兴。并且对于来到福冈县的国内外各位来宾表示真切的欢迎。

另外，向包括地区企业联合会九州联系机构会长小早川以及十年以来一直给予本事业支持的所有人士再次表示深深的谢意。

福冈县从很久以前就是亚洲的玄关，并且作为日本与大陆交流的窗口而担任着重要角色。在地理位置上接近亚洲，历史上也与亚洲有很深关系的福冈县，各国电视剧制作有关人士集聚在一起为使电视剧这一影像内容更具魅力而举行国际会议可谓意义深远。

特别是从振兴旅游业的层面上看，巧妙运用电视剧•电影来促进旅游业正备受关注，而且影像内容对地区旅游业的振兴也拥有巨大促进作用。福冈县拥有许多能够感受春夏秋冬四季魅力的景点。同时也是外景拍摄的最佳选地。以此为契机，希望通过各位精彩的影像来增加让世界广泛了解福冈县魅力的机会。

也通过这次亚洲电视剧会议的积极活动，真心祝愿各国间增深相互之间理解，进而使亚洲电视剧更弘扬其魅力。

2015 年 11 月

福冈县知事 小川 • 洋

Congratulatory Message

I am pleased to have this grand '10th Asian TV Drama Conference' with writers and producers who have actively worked in various countries in Asia. I would like extend my warmest welcome to all of you gathered here in the Fukuoka prefecture. Also,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and thanks toMr. Kobayakawa, the president oftheKyushu Connection Organization, and those of youwho have supported this projectfor the last 10 years.

Fukuoka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Asia as the entrance to Asia, and as theinterchange warehouse of Japan and the continents. Fukuoka is geographically close to other countries in Asia and it also has developed a deep historical relationship with other countries in Asia.I am thus grateful to have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here in Fukuoka with all of you in drama and movie fieldto exploreaudiovisual contents, and to make dramas more attractive.

From the viewpoint of tourism promotion, visual contents have a big impact on local tourism businesses, given that theinbound tourism that uses dramas and films has received attention. Fukuoka prefecture has many attractions that people can feel and appreciate during each season, highlighting each season'sdistinctive characteristics. It is also a great place to film. I'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spread the word about Fukuoka's attractiveness to the world through your great audiovisual works.

I do hope this active Asian TV Drama Conference enables you to deepen mutual understanding and to enhance and develop the appeal of Asian dramas.

November, 2015

The Governor of Fukuoka Prefecture, Hiroshi Ogawa

축 사

기념할만한 제10회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가 성대하게 개최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영화의 거리 기타큐슈시에 와 주신, 동아시아에서 맹활약 중이신 방송작가 및 프로듀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타큐슈시는 오랜 옛날부터 교통의 요지이자 아시아의 현관이었던 까닭에 대륙으로부터 새로운 문화의 유입이 잦았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아시아에 근접해 있어, 사람들은 이를 생활 속에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삶을 윤택하게 하는 자양분으로서 소중히 키워 왔습니다.

1989년부터는 일본 전국에 앞장서서 필름 커미션을 조직하였으며, 올해 3월까지 지원한 드라마와영화촬영 수는 192편에 이릅니다. 기타큐슈시는 '바다, 산, 전원 풍경에서부터 현대도시공간까지 다양한 로케이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를 촬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외 영화감독으로부터도 '시가지부터 자연까지 아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본의 이미지가 모두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365일•24시간 본 시에서의 로케를 지원하는 필름 커미션의 스텝들도 일본 제일이라고 평가될만큼 정열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이 엑스트라나 자원봉사자로 드라마와 영화 만들기에 참여하는, 시 전체가 로케를 즐기는 '영화의 거리'입니다.

본 컨퍼런스를 계기로 부디 본 시에서의 로케이션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이 제작하는 멋진영화들을 통해 기타큐슈시의 매력적인 로케이션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많은 분들께서 방문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드라마 제작자 분들과의 교류가 깊어지고, 매력 넘치는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아시아, 나아가 세계로 널리 알려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5년 11월

기타큐슈시장 기타하시 켄지

祝　辞

記念すべき「第10回アジアドラマカンファレンス」が盛大に開催されますことを、心からお慶び申し上げます。 そして、映画の街・北九州市にお越しいただいた、東アジアでご活躍される放送作家及びプロデューサーの皆さまを心から歓迎申し上げます。

ここ北九州市は、古くより、交通の要衝やアジアとの玄関口であったことから、大陸からの新しい文化の流入がありました。地理的にも、アジアに近接しており、人々はそれを暮らしの中に迎え入れ、人生に潤いをもたらすものとして大事に育んできました。

1989年からは、日本全国に先駆けて、フィルム・コミッションに取り組み、今年の3月までのドラマや映画撮影の支援数は192本に上ります。本市には、「海、山、田園風景から現代都市空間まで多様なロケーションがあるだけではなく、明治、大正、昭和そして現在まで全ての時代が撮影できる」という特徴があります。海外の映画監督からも「市街地から自然までアジアの人々がイメージする日本の全てがある」との評価をいただきました。また、365日・24時間本市でのロケをサポートするフィルム・コミッションのスタッフの日本一と評価される情熱があります。そして何より、多くの市民が、エキストラやボランティアとして、テレビドラマや映画づくりに参加し、市全体でロケを楽しむ「映画の街」です。

本カンファレスを契機に、ぜひ、本市でのロケを検討していただ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皆さま方の製作される素晴らしい映像を通して、北九州市の魅力的なロケーションが世界に向けて発信され、多くの方に訪れていただく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今度も、アジアドラマカンファレンスにより、アジアのドラマ製作者の方々の交流が深まり、魅力あるドラマが次々にアジアそして世界へ発信されることを心より祈念いたします。

2015年11月
北九州市長　北橋健治

祝　词

我对于值得纪念的《第十届亚洲电视剧研讨会》隆重地举行表示由衷的高兴。并且对于活跃在亚洲地区的各位编剧及制作人能够来到被称为电影之城的北九州市表示衷心的欢迎。

北九州市由于从很久以前就是交通要道和亚洲的玄关，所以大陆新文化的流入一向很频繁。并且由于地理位置上也接近亚洲，因此人们在日常生活中很自然地接受新文化的流入并把它作为生活的养分来重点培养。

从 1989 年开始，北九州在日本全国首个组建了电影委员会，截止今年三月，电影委员会所支援拍摄的电视剧和电影共达 192 部。北九州市具有以下特征，即“不仅拥有大海、山、田园风景及现代都市空间，而且能够进行明治、大正、昭和及现代所有时代的拍摄”。北九州市还得到了海外电影导演的如下评价：“从市区到自然，集聚了亚洲人对日本的所有印象”。

另外，365 天、24 小时支援本市外景拍摄的电影委员会的工作人员也是充满着可以被评价为日本之最的热情。最重要的是，许多市民作为群众演员或志愿者参与电视剧或者电影的制作，整个市都是能够享受电影外景的‘电影之城’。

以本会议为契机，请务必考虑本市的外景，希望通过各位制作的精彩电影，让北九州市充满魅力的外景在世界上广为人知，并期待更多人的到访。

这次也真心祈愿通过亚洲电视剧会议，加深亚洲电视剧制作人们之间的交流，使充满魅力的电视剧继续在亚洲乃至世界广泛传播。

2015 年 11 月

北九州市长　北橋・健治

Congratulatory Message

May I begin by extending my congratulations to this remarkable, magnificent event, 「The 10thAsian TV Drama Conference」. I'd like to welcome all the writers and producers who are actively engaged in East Asia and who came to visitKitakyushu,the street of movies.

Kitakyushu has been a long-time major transportation point andthe entrance gate to Asia, allowing a continued influx of new cultures. As Kitakyushu is geographically close to Asia, people could have embraced new culture into their daily live and have cherished it as a nutritious element to make their lives better.

Since 1989, Kitakyushu hasorganized Film Commissions, and the number of dramas and movies it hassupported reached 192 as of March this year. Kitakyushu's big feature is that 'it not only has diverse locations such as seas, mountains, rural landscapes, and modern city areas, but also every era such as Meiji period, Taishō period, and Shōwa periodcan be filmed'.One foreign movie director praise Kitakyushu that it has 'all the visuals Asian people consider Japanese, from city to nature'. Besides, the Film Commission's staff, who support filming in this city for 24 hours and 365 days, are passionate enough to have been evaluated as the best staff in Japan.

Above all things, the whole city is 'the street of movie', where a lot of people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making dramas and movies as extras and volunteers.

Taking this conference as an opportunity, I'd like you to considerfilming in this city, and I'm looking forward to having lots of people visiting here afterthe word ofKitakyushu's attractive location spreads out into the world through your fantastic works.

I do hope that theAsian TV Drama Conferencewill enableAsian drama and film makers to develop their network, and that captivating Asian dramas continuously move forward to attract more audience throughout the region and beyond Asia to the world.

November 2015

The Mayor of Kitakyushu, Kenji Kitahashi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 10 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 주　　제 : TV 드라마의 국가별 트렌드와 인기 요인

◎ 일　　자 : 2015. 11. 4. (수) ~ 11. 8 (일)

◎ 장　　소 : 리가 로얄 호텔 고쿠라, 스테이션 호텔 고쿠라 등

◎ 주　　최 :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사)지역기업연합회 큐슈연계기구
(사)전일본테레비방송제작사연맹

◎ 공동주최 : 후쿠오카현, 북큐슈시

◎ 특별협찬 : 츠즈키 학원

◎ 협　　찬 : 무나가타시, 서일본산업무역컨벤션협회, 세키가구
큐슈본격소주협의회, Sho-Chu 프로젝트

◎ 협　　력 :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일본방송작가협회, 중국드라마제작산업협회, 북경 TV 예술가협회,
상해미디어그룹(SMG), (주)GMA 네트워크, 브로드캐스트 타이 텔레비전,
Mediacorp, VTV TVAd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큐슈경제산업국, 큐슈운영국,
큐슈총합통신국,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사가현,
나가사키현, 오이타현, 쿠마모토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후쿠오카시, 쿠마모토시, 큐슈경제연합회, 큐슈관광추진기구
북큐슈상공회의소, 북큐슈시관광협회, 서일본공업클럽
북큐슈필름커미션

2. 세부일정

일시	시간	내용
11. 4(수)	08:00~17:00	해외 참가자 공항 도착 및 HOTEL Check In
	17:30~18:00	관객 입장
	18:00~18:27	**환영만찬 & 시상식 1 부** 18:00~18:07 오프닝 퍼포먼스 <큐슈남성 댄스팀> 18:07~18:12 MC 오프닝 멘트 + 내빈소개 / 오프닝 영상 상영 18:12~18:17 개회사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18:17~18:22 환영사 <ATP 쿠라우치 히토시 이사장> 18:22~18:27 축사 1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박창식 회장>
	18:27~18:40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 10 주년 기념 시상식** 일본 - 수상 : 배우, 감독 중국 - 수상 : 배우, 감독 한국 - 수상 : 배우, 감독
	18:40~20:30	**환영만찬 & 시상식 2 부** 18:40~18:45 축사 2<츠즈키학원 츠즈키 아스카 이사장> 18:45~18:50 축사 3<한국방송작가협회 이금림 이사장> 18:50~18:55 축사 4 <키타큐슈 키타하시 겐지 시장> 18:55~19:06 K-POP 축하공연 <스윙걸즈> 19:06~19:10 건배제의 <후쿠오카현 핫토리 세이타로 부지사> 19:10~20:30 만찬
11. 5(목)	06:30~10:00	조식
	10:00~10:30	컨퍼런스 참가자 등록
	10:30~11:00	**컨퍼런스 개회** - 컨퍼런스 소개 영상 - 참여 작가 및 제작자 소개 - 컨퍼런스 모더레이터 소개 (김찬석 청주대학교 교수)
	11:00~12:00 (60')	**세션 1 : 한국 작가** 한국방송작가협회 - 정윤정 작가 <미생> - 영상 10 분, 발표 10 분, 토론 40 분
	12:00~14:00	중식(리가 로얄호텔 고쿠라) 및 휴식
	14:00~14:30	일본 큐슈 지역 PR 타임
	14:30~15:30 (60')	**세션 2 : 중국 작가** 북경 TV 예술가협회 - 리우이 작가 <전세계 인기드라마 스토리패턴이 중국 드라마 창작에 주는 시사점> - 영상 5 분, 발표 15 분 토론 40 분
	15:30~16:00	**Coffee Break**
	16:00~17:00 (60')	**세션 3 : 베트남 제작자** VTV TVAd - 응우옌 안 부 마케팅 책임자 < 베트남 TV 드라마 트렌드와 인기 요인> - 영상 총 8 분, 발표 10 분, 토론 42 분
	17:00~18:00 (60')	**세션 4 : 일본 작가** 일본시나리오작가협회 - 코시미즈 야스히로 작가 <파트너> - 영상 10 분, 발표 10 분, 토론 40 분
	18:00~18:20	회의 평가 및 단체 사진 촬영
	18:20~20:00	석식 (리가 로얄호텔 고쿠라)

일시	시간	내용
11. 6(금)	06:30~09:30	조식
	09:30~10:00	컨퍼런스 참가자 등록
	10:00~11:00 (60')	**세션 5 : 한국 제작자** 팬 엔터테인먼트 - 윤고운 본부장 <한국드라마 트렌드의 핵, '복합장르'에 관하여> - 영상 15 분, 발표 10 분, 토론 35 분
	11:00~12:00 (60')	**세션 6 : 중국 제작자** 중국드라마제작산업협회 - 스셩티엔 프로듀서 <중국 드라마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_ 독창성> - 영상 10 분, 발표 10 분 토론 40 분
	12:00~14:00	중식(리가 로얄호텔 고쿠라) 및 휴식
	14:00~14:30	일본 큐슈 지역 PR 타임
	14:30~15:30 (60')	**세션 7 : 일본 제작자** 일본 방송 협회(NHK) - 카가타 토오루 프로듀서 <일본의 아침은 아침드라마로부터 시작된다~55 년의 역사와 현재~> - 영상 10 분, 발표 10 분 토론 40 분
	15:30~16:00	**총평 및 폐회**
	16:00~16:30	**Coffee Break**
	16:30~18:00	**B2B**
	18:00~20:00	석식 (이노치노타비 박물관)
11.7(토)	06:30~08:30	조식
	09:00~10:15	리가 로얄호텔 고쿠라 출발 -> 코노미나토 이동
	10:15~10:30	코노미나토 -> 오오시마 이동
	10:30~12:30	오오시마 내부 견학
	12:30~14:40	점심
	14:40~15:00	오오시마->코노미나토 이동(배편)
	15:00~17:00	무나가타시 견학
	18:00~18:40	공연 관람(이치카와 고사기)
	18:40~19:00	이동
	19:00~20:30	무나가타시 환영 리셉션
	20:30	호텔 이동 후 휴식(겐카이 로얄 호텔)
11.8(일)	06:30~08:30	겐카이 로얄 호텔 출발
	09:30~11:15	무나가타시 드라마 촬영지 답사
	11:15~12:20	이동(점심)
	12:20~	후쿠오카 공항 도착 후 출국

※ 상기 프로그램은 주최측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行事概要

◎ 行 事 名:第 10 回アジアドラマカンファランス

◎ テ ー マ:TV ドラマの国家別トレンドと人気要因

◎ 日　　時:2015. 11. 4.(水)～ 11. 8.(日)

◎ 場　　所:リガロイヤルホテル小倉、ステーションホテル小倉など

◎ 主　　催:(一社)地域企業連合会 九州連携機構(AIE)、(一社)全日本テレビ番組製作社連盟(ATP)、(財)韓国文化産業交流財団(KOFICE)

◎ 共　　催:福岡県、北九州市

◎ 特別協賛:都築学園

◎ 協　　賛:宗像市、西日本産業貿易コンベンション協会、関家具
九州本格焼酎協議会、Sho-Chu プロジェクト

◎ 協　　力:日本放送作家協会、韓国放送作家協会、韓国ドラマ製作社協会
中国ドラマ製作産業協会、北京中北テレビ芸術家協会、
SMG 上海メディアグループ、㈱GMA ネットワーク(フィリピン)、
Media Corp(シンガポール)、Broadcast Thai Television、VTV TVAd

◎ 後　　援:文化体育観光部(韓国)、九州経済産業局、九州運輸局、
九州総合通信局、日本貿易振興機構、佐賀県、長崎県、大分県、
熊本県、宮崎県、鹿児島県、福岡市、熊本市、九州経済連合会、
九州観光推進機構、北九州商工会議所、北九州市観光協会、
西日本工業倶楽部、北九州フィルムコミッション

2. 詳細日程

日時	時間	内容
11. 4(水)	08:00~17:00	海外参加者空港に到着及びホテルにチェックイン
	17:30~18:00	観客入場
	18:00~18:27	**歓迎の晩餐 & 授賞式 1部** 18:00~18:07 オープニングパフォーマンス < 九州男性ダンスチーム > 18:07~18:12 MC オープニングメント+ 来賓紹介/オープニング映像上映 18:12~18:17 開会の辞 <韓国文化産業交流財団> 18:17~18:22 歓迎の辞 <ATP 倉内 均 理事長> 18:22~18:27 祝辞 1 <韓国ドラマ制作社協会パク・チャンシク会長>
	18:27~18:40	**アジアドラマカンファレンス 10 周年記念 授賞式** 日本 - **授賞** : 俳優、監督 中国 - **授賞** : 俳優、監督 韓国 - **授賞** : 俳優、監督
	18:40~20:30	**歓迎の晩餐 & 授賞式 2 部** 18:40~18:45 祝辞 2 <都築学園 都築亜寿香理事長> 18:45~18:50 祝辞 3 <韓国放送作家協会 イ・クムリム理事長 > 18:50~18:55 祝辞 4 < 北九州市 北橋 健治 市長> 18:55~19:06 K-POP 祝賀公演 < Swing Girls > 19:06~19:10 乾杯 - 福岡県 服部 誠太郎 副知事 19:10~20:30 晩餐
11. 5(木)	06:30~10:00	朝食
	10:00~10:30	カンファレンス登録
	10:30~11:00	カンファレンス開会 - カンファレンス開会映像 - 参加作家制作者の紹介及び挨拶 - モデレーター挨拶(キム・チャンソク チョンジュ大学校教授)
	11:00~12:00 (60')	**セッション 1 : 韓国 作家** 韓国放送作家協会-ジョン・ユンジョン作家＜未生＞ - 映像 10 分, 発表 10 分, 論議・討論 40 分
	12:00~14:00	昼食(リーガロイヤルホテル小倉)および休憩
	14:00~14:30	日本九州地域紹介
	14:30~15:30 (60')	**セッション 2 : 中国 作家** 北京 TV 芸術家協会 - リ・ウイ作家 <全世界の人気ドラマストーリー・パターンが中国ドラマ創作への示唆点> - 映像 5 分, 発表 15 分, 論議・討論 40 分
	15:30~16:00	**Coffee Break**
	16:00~17:00 (60')	**セッション 3 : ベトナム制作者** VTV TVAd - グエン アン ブ 製作者 < ベトナム TV ドラマ トレンドと人気要因 > - 映像 8 分, 発表 10 分, 論議・討論 42 分
	17:00~18:00 (60')	**セッション 4 : 日本 作家** 日本シナリオ作家協会 - 輿水泰弘 作家＜相棒＞ - 映像 10 分, 発表 10 分, 論議・討論 40 分
	18:00~18:20	会議評価及び記念写真撮影
	18:20~20:00	夕食 (リーガーロイヤルホテル小倉)

日時	時間	内容
11. 6(金)	06:30~09:30	朝食
	09:30~10:00	カンファレンス登録
	10:00~11:00 (60')	**セッション 5 : 韓国 制作者** Pan Entertainment - ユン・ゴウン < 韓国ドラマのトレンドの核、'複合ジャンル'に関して > - 映像 15 分, 発表 10 分, 論議・討論 35 分
	11:00~12:00 (60')	**セッション 6 : 中国 制作者** 中国ドラマ制作産業協会- シ·ションチエン Producer <中国ドラマ産業の発展ための、必修条件一一 独創性> - 映像 10 分, 発表 10 分, 論議・討論 40 分
	12:00~14:00	昼食(リーガーロイヤルホテル小倉)
	14:00~14:30	日本九州地域紹介
	14:30~15:30 (60')	**セッション 7 : 日本 制作者** 日本放送協会(NHK) - 加賀田透 Producer < 日本の朝は朝ドラマから始まる~55 年の歴史と現在~> - 映像 10 分, 発表10.分, 論議・討論 40 分
	15:30~16:00	**総評および閉会**
	16:00~16:30	**Coffee Break**
	16:30~18:00	**B2B**
	18:00~20:00	夕食 (いのちの旅博物館移動)
11.7(土)	06:30~08:30	朝食
	09:00~10:15	リーガーロイヤルホテル小倉 -> 神湊移動
	10:15~10:30	神湊 → 大島へ
	10:30~12:30	大島内見学
	12:30~14:40	昼食 (大島民宿)
	14:40~15:00	大島 → 神湊へ (市営渡船)
	15:00~17:00	宗像市内見学
	18:00~18:40	公演観覧(市川本古事記)
	18:40~19:00	移動
	19:00~20:30	宗像市歓迎レセプション
	20:30	ホテル移動後、休憩(玄海ロイヤルホテル)
11.8(日)	06:30~08:30	玄海ロイヤルホテル出発
	09:30~11:15	宗像市内見学
	11:15~12:20	移動(昼食)
	12:20~	福岡空港到着

※ 上記のプログラムは主催側の事情により、変更になる可能性もございます。

1. 活动概要

○ 会议名称：第10届亚洲电视剧研讨会

○ 会议主题：各国电视剧的发展趋势与受欢迎的原因

○ 会议日期：2015年11月4日（星期三）～ 11月8日（星期日）

○ 会议地点：日本北九州小仓丽嘉皇家酒店、小仓站酒店（Station Hotel Kokura）

○ 主办单位：(财)韩国文化产业交流财团、(社)地区企业联合会九州连带机构、
(社)全日本TV放送制作社联盟

○ 共同主办：福冈县、北九州市

○ 特别赞助：都筑学院

○ 赞助单位：宗像市、西日本产业贸易会展协会、关家具、九州本格烧酒协会、
Sho-Chu工程

○ 协助单位：(社)韩国电视剧制作公司协会、(社)韩国广播电视作家协会、
(社)日本广播电视作家协会、中国电视剧制作产业协会、
北京电视艺术家协会、上海文化广播影视集团有限公司(SMG)、
(株)GMA网络、泰国广播电视台、Mediacorp、VTV TVAd

○ 后援单位：文化体育观光部(韩国)、九州经济产业局、九州运输局、九州综合通信局、
日本贸易振兴机构(JETRO)、佐贺县、长崎县、大分县、 熊本县、宫崎县、
鹿儿岛县、福冈市、熊本市、九州经济连合会、九州观光推进机构、
北九州商工会议所、北九州市观光协会、西日本工业具乐部、
北九州电影委员会

2. 具体日程

日期	时间	内容
11. 4 (周三)	08:00~17:00	海外参与者到达机场及登记入住
	17:30~18:00	参加人员入场
	18:00~18:27	**欢迎晚会 & 颁奖典礼 第一部** 18:00~18:07 开场表演 <九州男性舞蹈队> 18:07~18:12 MC 开场白 + 介绍来宾 / 播放开场视频 18:12~18:17 开幕词 <韩国文化产业交流财团> 18:17~18:22 欢迎词 <ATP 倉内均 董事长> 18:22~18:27 祝词 1 <韩国电视剧制作社协会 朴昌植 会长>
	18:27~18:40	**亚洲电视剧研讨会 10 周年纪念颁奖典礼** 日本 – 获奖 : 演员、导演 中国 – 获奖 : 演员、导演 韩国 – 获奖 : 演员、导演
	18:40~20:30	**欢迎晚会 & 颁奖典礼 第二部** 18:40~18:45 祝词 2<都筑育英学院 都筑·明日香 董事长> 18:45~18:50 祝词 3<韩国广播作家协会 李锦琳 董事长> 18:50~18:55 祝词 4 <北九州 北橋·健治 市长> 18:55~19:06 K-POP 庆祝表演 <摇摆少(Swing Girls)> 19:06~19:10 敬杯酒 <福冈县 服部·征太郎 副知事> 19:10~20:30 晚餐
11. 5 (周四)	06:30~10:00	早餐
	10:00~10:30	会议登记
	10:30~11:00	**会议开幕** - 会议召开视频 - 作家、制作者介绍及问候(PPT 资料介绍) - 仲裁员问候 (金赞锡 清州大学 教授)
	11:00~12:00 (60′)	**会议 1 : 韩国 编剧** 韩国广播作家协会 - 郑允贞<未生> - 视频欣赏 10 分钟, 演讲 10 分钟, 讨论 40 分钟
	12:00~14:00	午餐(小仓丽嘉皇家酒店)及休息
	14:00~14:30	日本九州地区 PR 时间
	14:30~15:30 (60′)	**会议 2 : 中国 编剧** 北京电视艺术家协会 – 刘益 <各国受欢迎电视剧情节模式对中国电视剧创作的启示> - 视频欣赏 5 分钟, 演讲 15 分钟, 讨论 40 分钟
	15:30~16:00	**Coffee Break**
	16:00~17:00 (60′)	**会议 3 : 越南 制片人** VTV TVAd - Anhvu NGUYEN 营销负责人 <越南的电视剧发展趋势和受欢迎因素> - 视频欣赏 8 分钟, 演讲 10 分钟, 讨论 42 分钟
	17:00~18:00 (60′)	**会议 4 : 日本 编剧** 日本剧本作家协会 - 奥水泰弘<相棒> - 视频欣赏 10 分钟, 演讲 10 分钟, 讨论 40 分钟
	18:00~18:20	评议及拍摄纪念照片
	18:20~20:00	晚餐(小仓丽嘉皇家酒店)

日期	时间	内容
11. 6 (周五)	06:30~09:30	早餐
	09:30~10:00	会议登记
	10:00~11:00 (60')	**会议 5 : 韩国 制片人** Pan 娱乐 - 尹高云 本部长 <关于韩国电视剧发展趋势的核心——"复合题材"> - 视频欣赏 15 分钟, 演讲 10 分钟, 讨论 35 分钟
	11:00~12:00 (60')	**会议 6 : 中国 制片人** 中国电视剧制作产业协会 – 施生田 <中国电视剧产业发展呼唤原创力> - 视频欣赏 10 分钟, 演讲 10 分钟, 讨论 40 分钟
	12:00~14:00	午餐(小仓丽嘉皇家酒店)及休息
	14:00~14:30	日本九州地区 PR 时间
	14:30~15:30 (60')	**会议 7 : 日本 制片人** 日本广播电视协会(NHK) - 加贺田透 <日本的早晨从早间电视剧开始——55 年的历史和今天> - 视频欣赏 10 分钟, 演讲 10 分钟, 讨论 40 分钟
	15:30~16:00	**总评及闭会**
	16:00~16:30	**Coffee Break**
	16:30~18:00	**B2B**
	18:00~20:00	晚餐 (北九州市立自然史·历史博物馆)
11. 7 (周六)	06:30~08:30	早餐
	09:00~10:15	从小仓丽嘉皇家酒店出发，抵达神湊
	10:15~10:30	从神湊出发，抵达大岛 (列车租赁)
	10:30~12:30	大岛内部参观
	12:30~14:40	午餐(大岛民宿)
	14:40~15:00	从大岛出发，随船抵达神湊
	15:00~17:00	宗像市参观
	18:00~18:40	观看表演(市川本古事记)
	18:40~19:00	移动
	19:00~20:30	宗像市欢迎招待会
	20:30	抵达酒店后休息(玄海皇家温泉酒店)
11. 8 (周日)	06:30~08:30	离开玄海皇家温泉酒店
	09:30~11:15	宗像市电视剧摄影地现场考察
	11:15~12:20	移动 (午餐)
	12:20~	到达福冈机场回国

※ 此节目内容如有变动以现场为准。

1. Program outline

◎ Title : The 10th Asian TV Drama Conference

◎ Theme : National Trends and Popularity Factors of TV dramas

◎ Date : Wednesday 4 November 2015 ~ Sunday 8 November 2015

◎ Venues : RIHGA Royal Hotel Kokura, Station Hotel Kokura, etc

◎ Host :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KOFICE),
Kyushu Associations of Independent Entrepreneurs (AIE),
Association of All Japan TV Program Production Companies (ATP)

◎ Co-host : Fukuoka Prefecture, Kitakyushu

◎ Special sponsor : Tsuzuki Gakuen

◎ Sponsor : Munakata, West Japan Industry and Trade Convention Association,
Seki furniture Co., Ltd, Kyushu old style shochu association,
Sho-Chu Project

◎ Cooperation : Corea Drama Production Association, Korea TV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of Japan,
China Television Drama Production Industry Association,
Beijing TV Artists Association, Shanghai Media Group, GMA Network,
Broadcast Thai Television, Media Corp, VTV TVAd

◎ Support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yushu Bureau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Kyushu District Transport Bureau,
Kyushu Bureau of Telecommunications,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 Saga Prefecture, Nagasaki Prefecture,
Ōita Prefecture, Kumamoto Prefecture, Miyazaki Prefecture,
Kagoshima Prefecture, Fukuoka, Kumamoto, Kyushu Economic
Federation, Kyushu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The Kitakyushu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Kitakyushu City
Tourist Association, West Japan Industrial Club,
Kitakyushu Film Commission

2. Details of the Time Table

Date	Time	Details
11.4(Wed)	08:00~17:00	Foreign participants arrive at Airport& Hotel Check In
	17:30~18:00	Entrance
	18:00~18:27	**Welcoming party (dinner) & Awards Section 1** 18:00~18:07 Opening Performance <Dancing team of Kyushu> 18:07~18:12 Opening of MC + Introduction for participanting and conference opening video 18:12~18:17 Opening Speech, KOFICE 18:17~18:22 Welcome Speech Hitoshi KURAUCHI, Chairman of ATP 18:22~18:27 Congratulatory Speech 1 Changsik PARK, Chairman of CODA
	18:27~18:40	**The 10th Asian TV Drama Conference Anniversary Awards** Japan - Winner : Actress, Director China – Winner : Actor, Director Korea – Winner : Actor, Director
	18:40~20:30	**Welcoming party (dinner) & Awards Section 2** 18:40~18:45 Congratulatory Speech 2 Asuka TSUZUKI, Chairman of Tsuzuki Gakuen 18:45~18:50 Congratulatory Speech 3 Kumlim LEE, Chairman of KTRWA 18:50~18:55 Congratulatory Speech 4 Kengi KITAHASHI, Kitakyushu City 18:55~19:06 K-POP Performance <Swing Girls> 19:06~19:10 Proposal for a toast Seitarou HATSUTORI, Vice-governor of Fukuoka prefecture 19:10~20:30 Dinner
11.5(Thu)	06:30~10:00	Breakfast
	10:00~10:30	Registration
	10:30~11:00	**Opening** - Conference opening footage - Introduction and greetings for participating writers and producers - Introduction for Moderator (Professor Chansouk KIM)
	11:00~12:00 (60')	**Session 1 : Korea Writer** KTRWA – Yoonjung JUNG <Misaeng> - Video materials (10 min), Presentation (10 min), Debate (40 min)
	12:00~14:00	Lunch(Rihga Roayal Hotel Kokura)
	14:00~14:30	Introduction of Kyushu
	14:30~15:30 (60')	**Session 2: China writer** BTAA – Li LIU <The discursive patterns that can be found in popular drama story lines around the world and their implications for Chinese dramas> - Video materials (5 min), Presentation (15 min), Debate (40 min)
	15:30~16:00	**Coffee Break**
	16:00~17:00 (60')	**Session 3 : Vietnam producer** VTV TVAd –Anhvu NGUYEN Marketing Manager <Trend of TV Drama and Popularity Factors in Vietnam> - Video materials (8 min), Presentation (10 min), Debate (42 min)
	17:00~18:00 (60')	**Session 4 : Japan Writer** Japan Writers Guild – Koshimizu YASUHIRO <Partner> - Video materials (10 min), Presentation (10 min), Debate (40 min)-
	18:00~18:20	Evaluation of Conference & Ceremonial photo shoot
	18:20~20:00	Dinner (Rihga Roayal Hotel Kokura)

Date	Time	Details
11.6(Fri)	06:30~09:30	Breakfast
	09:30~10:00	Registration
	10:00~11:00 (60')	**Session 5 : Korea Producer** PAN Entertainment – Gowoon YUN <On 'Hybrid Genres': Core Trends in Korean Dramas> - Video materials (15 min), Presentation (10 min), Debate (35 min)
	11:00~12:00 (60')	**Session 6 : China Producer** CTPIA – shengtian SHI <Creativity and originality for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TV drama industry> - Video materials (10 min), Presentation (10 min), Debate (40 min)
	12:00~14:00	Lunch(Rihga Roayal Hotel Kokura)
	14:00~14:30	Introduction of Kyushu
	14:30~15:30 (60')	**Session 7 : Japan Producer** NHK –Toru KAGATA <Morning dramas that start the morning in Japan ~ its 55-year history and present ~ > - Video materials (10 min), Presentation (10 min), Debate (40 min)
	15:30~16:00	**Closing**
	16:00~16:30	**Coffee Break**
	16:30~18:00	**B2B**
	18:00~20:00	Dinner (Museum of INOCHINOTABI)
11.7(Sat)	06:30~08:30	Breakfast
	09:00~10:15	Departure Hotel
	10:15~10:30	Transfer KONOMINATO -> OSHIMA, Train (SHIOKAZE)
	10:30~12:30	Tour of OSHIMA
	12:30~14:40	Lunch (OSHIMA)
	14:40~15:00	Transfer OSHIMA -> KONOMINATO, Ferry
	15:00~17:00	Tour of MUNAKATA City
	18:00~18:40	Performance (story of KOJIKI)
	18:40~19:00	Move
	19:00~20:30	Welcome Reception of MUNAKATA City
	20:30	HOTEL (Genkai Royal)
11.8(Sun)	06:30~08:30	Departure Hotel (Genkai Royal)
	09:30~11:15	Tour of MUNAKATA City
	11:15~12:20	Transfer to Airport, Lunch in the car
	12:20~	Arrival airport

※ The above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by the organizers.

Introduction of Group Participants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아시아 국가 간의 다양한 영역의 문화산업교류를 통하여 각국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민간교류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3년 6월에 설립되었다. 아시아 각국간 대중문화교류와 문화산업협력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외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해외통신원 운영, 문화교류행사, 해외기자단 초청, 학술행사 개최, 조사연구, 해외 영상물교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현재 전세계 30여 개국에서 통신원이 현지의 대중문화 핫이슈와 한국 대중문화 소식에 대해 전해오고 있고, 일본, 중국, 대만, 홍콩은 물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등등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와 교류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중문화교류사업의 대상을 아시아를 포함한 미주, 유럽, 중동 등 세계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韓国文化産業交流財団

韓国文化産業交流財団はアジア国家間の多様な領域の文化産業交流を通じて、各国の文化に対する正しい認識と理解を図り、相互協力のための民間交流における窓口の役割を目的として、2003年6月に設立された。アジア各国間の大衆文化交流と文化産業の協力基盤造成のために、海外文化産業ネットワークの構築、海外通信員の運用、文化交流の行事、海外機関の招請、学術行事の開催、調査研究、海外映像物交流など多様な事業を繰り広げている。

現在、全世界 30カ国の通信員から現地の大衆文化の最新情報と韓国の大衆文化の最新情報を伝えており、日本、中国、台湾、香港はもちろんのこと、ベトナム、タイ、インドネシア、マレーシア、フィリピン、インドなどアジアの国々と交流を行いながら、大衆文化交流事業の対象をアジアから欧米, ヨーロッパや中東などへ拡大している。

韩国文化产业交流财团

韩国文化产业交流财团作为亚洲各国家间民间交流窗口成立于2003年6月，成立目的在于通过亚洲各国家间各个领域的文化产业交流促进各国文化之正确认识和理解及相互合作。财团成立后为了促进亚洲各国家间大众文化交流和文化产业合作，致力于海外文化产业网络之构筑、海外通信员运用、文化交流活动、海外记者团邀请、举办学术活动、调查研究、海外映像物交流等各种各样的工作。

目前驻在世界30多个国家的通信员双向传递着当地大众文化新闻和韩国大众文化新闻，财团通过这些事业与日本、中国、台湾、香港、越南、泰国、印尼、马来西亚、菲律宾、印度等亚洲大部分国家缔结了交流关系而将大众文化交流事业的对象扩大为包括亚洲、美洲、欧洲、中东等世界各地。

KOFIC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KOFICE) was founded in June 2003 to pursue accurate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individual countries' culture through cultural and industrial exchanges in diverse areas among Asian countries and also serve as the window for exchanges for mutual cooperation in private sector. KOFICE is carrying out a variety of projects involving cultural exchanges among Asian countries in order to create the basis on which popular culture can be exchanged and cooperation to be pursued in culture industries.

Currently, correspondants from 30 different countries are sharing the local's hot issue and popularity of Korean Wave world widely. Through these active movements, KOFICE formed a great friendship with Japan, China, Taiwan, Hong Kong, Vietnam, Thailand,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etc. For further culture exchange, KOFICE is extending the relationship to America, Europe and Mideast.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전부터 전해져 온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며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돕고, 우리나라의 체육이 발전할 수 있게 정책을 세우고, 우리 문화와 관광 정보를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림으로써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文化体育観光部

文化体育観光部は以前から伝わってきた韓国の文化を保存し、発展させることで多くの人たちに韓国の文化を知らせる役割をしている。また、文化芸術創作活動を支援しながら、韓国の体育が発展できるように政策を立てたり、韓国の文化と観光情報を世界の各国に知らせることで、世界の中で、大韓民国の競争力を高めると努力している。

文化体育观光部

韩国文化体育观光部将流传已久的韩国文化保存下来并继承发展，起到向人们传播韩国文化的作用，还为文化艺术创作活动提供援助，制定相应政策使韩国体育得以发展，并通过向其它各国宣传韩国传统文化与旅游信息，来提高韩国在国际社会中的竞争力。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reserves and develops our traditional culture as well as promoting it, assisting creative activities in culture and arts, making policies that improves sports activities in Korea, and ultimately enhancing the competitive edge of Korea by informing our culture and tourism worldwide.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는 1957년 12월 친목단체로 출발하여 1962년 2월 15일 한국방송극작가협회로 창립한 뒤 1970년 2월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88 년 4 월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하였다. 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비롯한 제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방송문예의 향상·발전 및 교류를 통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회는 주요사업으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회원의 저작권을 위임 받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 관리업무 외에도, 방송문예와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각 집필장르별 연구회를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 작품집과 기타 도서의 출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방송작가·방송기구 또는 문화 관계 인사와 교류 및 '방송작가상' 등 협회상 제정, 회원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회원 및 후진 양성을 위한 연수 등 교육사업 등도 활발히 시행중이다.

특히 1988년 7월 신인 방송작가 육성 및 발굴, 방송작가 아카데미즘 진작 등을 위해 '한국방송작가교육원'을 개원하여 운영중으로 명실상부한 방송작가의 등용문이자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5년 10월 현재 드라마, 예능, 라디오, 번역, 구성다큐 장르의 작가 2,873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韓国放送作家協会

韓国放送作家協会は、1957年12月に親睦団体として発足した。1962年2月15日に韓国放送劇作家協会の名称で創立した後、1970年2月に現在の名称に変更、著作権信託管理業務の遂行のため1988年4月に社団法人として再出発した。当作家協会は、放送作家の著作権をはじめとする諸般の権益を保護すると共に、放送文芸の向上・発展および交流を通じて民族文化の暢達に寄与することを設立目的としている。

当協会の主要事業として、会員の権益保護のため、会員から著作権の委任を受け管理する著作権信託管理業務の他に、放送文芸と育成に向けた様々な活動を展開している。各執筆ジャンル別研究会を支援運営し、放送作品集とその他図書の出版事業も進めている。また海外の放送作家・放送機構、あるいは文化関係者との交流および'放送作家賞'などの協会賞制定、会員に対する各種福祉事業、会員および 後進育成のための研修など、教育事業なども活発に施行中である。

特に1988年7月には、新人放送作家の育成および発掘、放送作家アカデミズムの振興のための'韓国放送作家教育院'を開院し、名実共に放送作家の登竜門であり専門教育機関としての地位を築いた。2015年10月現在、ドラマ、芸能、ラジオ、翻訳、構成ドキュメンタリージャンルの作家2,873名が会員として加入している。

韩国广播作家协会

韩国广播作家协会在1957年12月从亲睦团体出发，直到1962年2月15日韩国广播编剧协会创立之后，1970年2月更名为现在的韩国广播作家协会。为了开展著作权信托管理业务，1988年4月以社团法人重新亮相。协会成立的目标是通过包括广播电视作家的著作权在内的各项权益保护，同时通过广播电视文艺的提升、发展及交流，为民族文化繁荣作贡献。

协会主要业务除了为保护会员权益，开展著作权信托管理业务之外，还开展旨在培育广播电视文艺的丰富多样的活动，以各种不同的创作题材支援运营本研究会，还有广播电视作品集和其他图书出版业务。此外，外国广播电视剧作家、广播电视机构或与文化业界人士间的交流、制定“广播电视作家奖”等协会奖、对会员的各种福利业务、会员及后备军培养为目的的研修等教育业务等等，这些业务都在积极实施中。

尤其是1998年7月，为了新人广播电视作家的培养及发掘，提振广播电视作家学院派风气等，设立了韩国广播电视作家教育院。韩国广播电视作家教育院的设立和运营，确立了作为广播电视作家名副其实的龙门和专门教育机关的位置。截止2015年10月，电视剧、综艺、广播、翻译、构成、记录片等题材的各类作家2837名加入会员。

Korea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KTRWA)

Started from a form of a friendly social gathering in December 1957, the Korea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KTRWA) was officially established in 15 February 1962, with ‘Korea Television and Radio Play Writers Association’ as its title, which later in February 1970 was changed into the current name, the Korea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Later in April 1988 it was launched again as an incorporated association in order to obtain license of trustee for copyright and its management. KTRWA aims to protect all rights including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copyrights, and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national culture through the development and exchanges of art and literature in television and radio.

In addition to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as a trustee, which manage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elps members protect their creative rights, KTRWA has carried out various events in order to foster and develop art and literature in television and radio. For example, it has supported and run research groups of each genre, and has involved in the publishing books such as work collections. It has also actively communicated with radio and television writers, broadcasting institutes, and professionals in this field in other countries; it has made the ‘KTRWA Awards’; and has also involved in a number of welfare programs and training programs to foster the next generation writers.

Opened in 1988 in order to discover and train the next generation writers and to enhance academism among them, the KTRWA Academy has clearly established itself as the gateway to becoming radio and television writers, and as the professional education institute. 2,873 writers are registered as a member, covering areas of drama, entertainment, radio, translation and informative TV programs and TV documentaries as of October 2015.

(사)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2006년 9월 출범하였으며, 영상제작사들의 모임으로서 한류 중심에 서 있는 한국 드라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드라마제작환경 개선과 이를 통한 영상제작사들의 국내, 외 경쟁력 제고 및 균형 있는 발전과 윤리의식 확립을 이룩하며 회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社) 韓国ドラマ制作社協会

2006年9月に発足し、映像制作社の集まりとして韓流の中心にある韓国ドラマ産業の発展のため、ドラマ制作環境改善とこれを通した映像制作社の国内外の競争力の向上およびバランスの取れた発展と倫理意識確立を成し、会員の権益保護と福祉増進をはか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社）韩国电视剧制作社协会

该协会是2006年成立的影视制作公司协会， 该协会的宗旨是为韩流中心的韩国电视 剧产业的发展，改善电视剧制作环境，提高影视制作企业的国内外竞争力，带动均衡发展，确立伦理 意识，保护会员权益，促进福利。

Corea Drama Production Association (CODA)

Established in September 2006, as a group of Drama Production, CODA leads to develop the industry of Korean drama which is in center of the Korean Wave through the improvement of Drama production environment. Moreover, CODA focuses to enhance the drama productio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balance. The goal is to establish ethical standards and protect the rights and welfare of members.

후쿠오카현

후쿠오카현은 오랜 옛날부터 아시아의 교류 거점으로서 번성해 왔습니다. 현재도 육해공의접점으로 국내 27 개도시, 해외 21 개도시와 항공편으로 연결되어 있고, 4 개의 커다란 항, 신칸센, 고속도로가 정비되어 있어 서일본의 중심으로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큐슈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제조업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문화의 교류 역사를 배경으로 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모든 나라와의 유대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많은 식문화가 후쿠오카현에서 생겨났습니다. 해외에서도 인기 높은 돈코츠 라면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미슐랭 가이드 후쿠오카•사가판이출판될 정도로, 후쿠오카는 먹거리가 맛있고 선술집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더불어 야경으로 빛나는 기타큐슈의 공업단지, 후쿠오카 돔과 후쿠오카 타워 등 근대적인 후쿠오카의 풍경과, 3 개의 특징 있는 바다에 둘러싸여, 산과 강, 일본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명소가 무수히 많아, 다채로운 촬영을 꾀할 수 있습니다. 나무배를 타고 야나가와 강의 풍경을 즐기는 야나가와노카와쿠다리(柳川の川下り)와 수험생에게 인기 있는 다자이후텐만구(太宰府天満宮) 등 독특한 관광지도 있습니다.

福岡県

福岡県は、古くからアジアとの交流拠点として栄えてきました。現在も、陸・海・空の結節点で、国内 27 都市、海外 21 都市と空路で結ばれており、4 つの大きな港、新幹線、高速道路が整備され、西日本の中心として成長を続けております。また、北九州地域を中心に、先端製造業も盛んです。

何より、人・文化の交流の歴史を背景として、韓国をはじめ、アジア諸国とのつながりを深く感じることができます。そして、日本の多くの食文化がここ福岡県で生まれました。海外でも人気の高い豚骨ラーメン発祥の地でもあります。昨年、ミシュランガイド福岡・佐賀版が出版されるほど、福岡といえば、食べ物がおいしく、酒処としても有名であります。

同時に、夜景に映える北九州の工業群、福岡ドームや福岡タワーなど近代的な福岡の風景があり、三つの特徴ある海に囲まれ、山や川、日本らしさを感じられる見所が数多くあり、多彩なロケーションを有しております。街中の掘を舟で巡る柳川の川下りや受験生に大変御利益のあるとされる太宰府天満宮など、ユニークな観光地もあります。

福冈县

福冈县是从很久以前就作为亚洲交流的据点而发展繁荣起来的。目前也是作为陆海空的连接点和西日本的中心而持续地发展，福冈县与国内 27 个城市、海外 21 个城市都有航线连接，并且集聚了四个大海港、高铁、高速路。另外，以北九州地区为中心的尖端制造业也正繁荣发展。

最重要的是以与人和文化的交流历史作为背景，能深深的感受到它与包括韩国在内的所有亚洲国家之间的纽带关系。并且日本的许多饮食文化都源自福冈县。它也是文明海外的猪骨拉面的发祥地。甚至在去年米其林指南福冈•佐贺版都对福冈美食和简易酒吧做了刊登，可见其美食的有名程度。

这里有无数独具日本特色的景点，例如被三个各具特色的海洋包围，与夜景一起闪耀的北九州工业园、福冈巨蛋、福冈塔等具有近代特色的福冈风景，山河名胜等，因此在这里能够完成丰富多彩的拍摄。能够乘着木船享受山谷与江景的柳川河下行(柳川の川下り)以及考生们青睐的太宰府天满宫等独特的景点也在此。

Fukuoka Prefecture

Fukuoka prefecture has been thriving asthe point of interchangeand transit in Asia for a long time. At the time of writing, Fukuoka is connected to 27 cities in Japan and 21 cities abroad through flights. Fukuoka also has 4 big ports, Shinkansen, and highways, which allows it to continue its development as the center of West Japan. In addition, its manufacturing industry, with Kitakyushu at its center, is thriving.

Ties with all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ing people and the history of cultural exchange at its background, can be found, too. Diverse aspects of Japanese culinary culture originated inFukuoka. Fukuoka is the birthplace of Tonkotsu Ramen, which is popular in other countries. Fukuoka is very famous for delicious food and lots of pubs that Michelin and Sagatedition was published.

Moreover, a variety of filming can be done here, because Fukuokaoffers a modern landscape on the one hand, as can be seen in Kitakyushu's industrial complex,Fukuoka Dome, and Fukuoka tower; and, on the other, it also allows you to get the Japanese taste from diverse attractions that are surrounded by three different seas having distinctive features, mountains, and rivers. Fukuoka also has its unique tourist spots, such as Yanagawanokawakudari, where you can enjoy the landscape of the Yanagawariver on a wooden boat, and Dazaihutenmangu which is popular among examinees.

기타큐슈시

기타큐슈시는 일본열도의 서단, 큐슈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중국, 한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일본 유수의 중공업 도시로, 또 국제무역항으로서 발전을 이루었고, 현재도 서일본 최대규모의 산업집적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제조기술의 도시이며, 또 항만•공항•철도•고속도로 등 교통기반이 충실한 국제물류거점도시입니다.

시가지에는 비즈니스•상업지역과인접하여 공원과 친수(親水)공간이 정비되어 있어, 도회적인 번화함과 휴식 공간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시는 210Km 에 달하는 장대한 해안선이 바다와 접해있고, 시의 약 40%를삼림이 차지하고 있는, 풍부한 자연의 혜택을 받은도시입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환경」과 「경제」가 양립하는 「클린성장도시」로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 환경 수도」를 목표로 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쿠라소고기와 계절마다 즐길 수 있는 산해진미 등 먹거리도 풍부하고, 고쿠라성, 모지항 레트로지구, 일본 3 대 카르스트 대지인 히라오다이등, 연간 1,000 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올 7 월에는 일본의 근대화를 지탱해 온 관영 야와타제철소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결정되어, 새로운 관광 매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北九州市

北九州市は、日本列島の西端、九州の最北端に位置し、中国、韓国に近い地理的特性を有しています。近代以降、日本有数の重工業都市として、また国際貿易港として発展を遂げ、現在でも西日本最大規模の産業集積と技術力を誇るモノづくりのまちであり、また港湾・空港・鉄道・高速道路など交通基盤が充実した、国際物流拠点都市です。市街地にはビジネス・商業エリアに隣接して、公園や親水空間が整備され、都会的にぎわいと憩いの空間を共に享受することが出来ます。さらに、本市は 210km に及ぶ長大な海岸線で海に面し、市域の約 40%を森林が占める、豊かな自然に恵まれたまちです。

さらに、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から「環境」と「経済」が両立する「グリーン成長都市」として、アジア地域で初めて選定されるなど、「世界の環境首都」を目指した取り組みを進めています。

また、小倉牛や四季おりおりの海山の幸などグルメも豊富であり、小倉城、門司港レトロ、日本3大カルスト台地の平尾台など、年間 1,000 万人を超える観光客が訪れる観光のまちでもあります。

本年7月には、日本の近代化を支えた官営八幡製鐵所の世界文化遺産の登録が決定し、新たな観光の魅力として注目されています。

北九州市

北九州市位于日本列岛的西端、九州市的最北端；具有与中国和韩国相近的地理特性。近代以来，北九州市发展为日本屈指可数的重工业城市兼国际贸易港。现在它也是西日本最大规模的产业聚集地和以技术能力闻名的制造技术业城市。另外，北九州还是贯通港湾、机场、铁路、高速路的国际物流据点城市。市区与商务•商业区邻接，配有公园和亲水空间，因此是能够同时享受到都市繁华与休闲的空间。并且本市还拥有长达 210km 长的海岸线和约占本市面积 40%的森林，是一个享有丰富自然恩泽的城市。

另外，本市被经济合作与发展组织（OECD）指定为亚洲地区第一个<环境>与<经济>相辅相成的城市，并且一直为成为<世界环境首都>的目标而努力着。而且在本市还有小仓牛和每个季节都可以享受到的山珍海味等丰富的美食。本市的小仓城(小倉城)、莫吉港复古地区(門司港レトロ）与日本三大喀斯特地形之一的平尾台等也是每年客流量超过 1000 万人的观光地。

今年七月，一直支撑日本近代化的国营八幡钢铁厂（位于北九州市旧区）被决定注册为世界文化遗产，因此其新的旅游观光魅力正受到关注。

Kitakyushu

Located in the northern most part of Kyushu, Kitakyushu is geographically close to China and Korea. In modern times it has developed intoa heavy industrial cityand as an international trade port of Japan, and now it is a city of manufacturing, which allows western Japan to boast about being one of the biggest industrial agglomerationswith great skills and power. Kitakyushu is the logistic hub city with a great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which includes ports, airports, railroads, and highways. Since city area is adjacent to the businessand commercial district, its parks and waterfront areas are well set up, which gives us places to rest and chances to enjoy the city's prosperity. A 210km coastline is adjacent to this city and approximately 40% of the city is composed of forest. This city benefits from an abundance of nature.

Kitakyushuhas been chosen by the OECD as the"Clean growing city", consisting of both "environment" and "economy", in Asia for the first time,, and it continues to improve with the goal of becoming "the world capit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foodin Kitakyushu, including seasonal delicacies and Kokura beef. Kitakyushu is also a city of tourism, havingmore thanten million tourists visiting every year places such as Kokurajo, Mojiko Retro District, and Hiraodai, one of Japan's three karst earths.

In July this year, Yawataseitetsusyo, which holds Japan's modernization, was registered as World Cultural Heritage, receiving attention as an attractive new tourist spot.

츠즈키학원

사람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특별한 개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개성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강점이자 장점이 되기도 하죠.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처럼,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은 천재성이나 자질은 초등/중등 교육 단계에서 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등 교육 단계에서는 이 개성을 한층 더 강화하여, 특정 분야에 전문화, 학문화, 사회화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목표는 학생들이 전문성에 집중하여, 사회적 목표와 진정한 직업적 소명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개개인이 지닌 독창성과 창의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설립 취지는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평생 학습'으로, 비단 학교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평생 자아실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都築学園

人にはそれぞれ生来その人特有の個性を賦与されており、個性とは他と区別される特徴的長所、美点、得意面等を意味し"第一義的特性"といいます。

「三つ子の魂百まで」や「栴檀は二葉より芳し」の格言にあるように、初等、中等教育の段階までは生得的性格、資質、天賦の才等を指して言うことが多いのですが、高等教育の段階においては、さらに進化し、「個性」すなわち「専門性」として、より高度化、社会的、学問的な専門領域や専門分野を「個性」として位置づけています。

専門性に集中、特化する教育を基本とし、高度専門職、そして天職として自己の人生の社会的使命を自覚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さらには、「個性」の持つ独自性のみが可能とする独創性、独創力に最も高い価値を置いています。

「個性の伸展による人生練磨」は学校教育のみに終わることなく、生涯を通して自己実現を達成していく建学の精神です。

都筑学院

每个人都有自己天生独有的个性。因此个性也是与他人区分的优势和长处。

俗话说“三岁看八十，七岁看终生”，因此很多人认为天赋或资质都是在初等、中等教育阶段被发掘。但我们却认为，在高等教育阶段可以继续强化个性、在特定领域进一步专业化、学问化、社会化。

我们学园的目标是让学生集中于专业性，并领悟社会性目标与真正的职业使命。同时，我们高度重视每个人所拥有的独创性和创意性。

我们学园的设立宗旨是“符合个人特性的终生学习”，不只局限于学校的教育，更追求终生的自我实现。

Tsuzuki Gakuen

All people are born endowed with innate special talents specific to the individual, and individuality is in this sense those strengths and attractive qualities that mark a person as separate from others, and are unique.

Many would take this as referring to genius and disposition manifested at a primary and secondary level of education, as implied in the saying 'the child is father to the man', and the Japanese saying “梅檀は二葉より芳し”, that true talent is visible from a very young age, but we regard individuality at higher levels of education as going beyond this, with individuality as specialization, advancement academically and socially in specialized areas and fields.

We aim to have our students recognize their destiny in society and true expert vocation as individuals by focusing on specialization and specific learning as the basis for their education. Furthermore we place the highest value upon originality and creativity enabled by the uniqueness of each person's individuality.

Our founding spirit, 'Lifelong Improvement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ity' means education not finishing with school, but a continuous attainment of self-realisation throughout life.

지역기업연합회 큐슈연계기구 (AIE)

AIE 지역기업연합회 큐슈 연계기구는 사회적, 지역적 과제에 특화된 사업을 전개하는 경제단체로, 2013년 4월에 후쿠오카 현 중소기업경영자협회 연합회로부터 분리되어 창립하였다. 활동의 목적은 크게 '지역경제의 활성화' 와 '사회활력의 창출' 이다. 지역진흥사업과 국제교류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사회・국제적인 과제에 해당하는 17개 단체의 위탁운영하고 있다. 기업개발사업으로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 새로운 관광산업, 콘텐츠 산업, 소프트 사업의 육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진흥사업: 후쿠오카 현 고령자 능력활용 센터, 큐슈인턴십 추진협의회, 후쿠오카 산업진흥협의회, 큐슈경제포럼, '큐슈의 여성' 네트워크, 큐슈현인회의소, Agri Hope큐슈·후쿠오카, 후쿠쥬카이(후쿠오카 관리자OB회)

●국제교류사업: 후쿠오카·싱가폴 우호협회, 후쿠오카·말레이시아 우호협회, 큐슈 브루나이 클럽, 후쿠오카·필리핀 우호협회, 큐슈 일본홍콩협회, 큐슈·터키협회, 서일본·캄보디아 우호협회, 후쿠오카현청년해외협력단을 지원하는 모임, 큐슈국제학생지원협회

●기획개발사업: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드라마틱 고사기, 후쿠오카Miraifesta, 후쿠오카현 시민교육상, 한국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규역청 시찰연수

一般社団法人 地域企業連合会 九州連携機構 (AIE)

AIE地域企業連合会九州連携機構は、平成25年4月に福岡県中小企業経営者協会連合会から、社会的、地域的課題に特化した事業を展開する経済団体として分蘖して創立された。

活動の目的は大きく、「地域経済の活性化」と、「社会活力の創出」がある。地域振興事業と国際交流事業においては、地域・社会・国際的な課題に取り組む17団体※の運営受託を行っている。企画開発事業では、日本の歴史や文化、新しい観光産業、コンテンツ産業、ソフト産業の育成を目指し、活動している。

●地域振興事業:福岡県高齢者能力活用センター、九州インターンシップ推進協議会、福岡産業振興協議会、九州経済フォーラム、「九州の女」ネットワーク、 九州賢人会議所、アグリホープ九州・福岡、福寿会

●国際交流事業:福岡・シンガポール友好協会、福岡・マレーシア友好協会、九州ブルネイダルサラームクラブ、福岡・フィリピン友好協会、九州日本香港協会、九州・トルコ協会、西日本・カンボジア友好協会、福岡県青年海外協力隊を支援する会、九州国際学生支援協会

●企画開発事業:アジアドラマカンファレンス、ドラマティック古事記、FUKUOKAみらいフェスタ、福岡県市民教育賞、韓国釜山・光陽湾経済自由区域庁視察研修

地区企业联合会九州连带机构（AIE）

AIE 地区企业联合会九州连带机构是于2013年4月，由福冈县中小企业经营者协会联合会分离出来而成立，是开展社会性、区域性课题专业项目的经济团体。

活动的目从大的方面说，是“激活区域经济”和“创造社会活力”。在区域振兴项目和国际交流项目方面，受托经营17家属于区域、社区、国际性的课题的团体。在企业开发项目方面，以培育日本的历史和文化、新兴观光产业、内容产业、软件工程、体育项目为目的。

●区域振兴项目：福冈县老年人能力活用中心，九州实习推进协会，福冈产业振兴协会，九州经济论坛，“九州女性”网络，九州贤人会议所，Agri Hope九州·福冈，福寿会

●国际交流项目：福冈·新加坡友好协会，福冈·马来西亚友好协会，九州文莱俱乐部，福冈·菲律宾友好协会，九州日本香港协会，九州·土耳其协会，西日本·柬埔寨友好协会，支援福冈县青年海外合作团的聚会，九州国际学生支援协会

●企划开发项目：亚洲电视剧会议，《戏剧性的民间故事记》，福冈Miraifesta，福冈县市民教育奖，韩国釜山·镇海经济自由区域厅及光阳万卷经济自由区域厅考察培训

AIE

(Kyushu Associations of Independent Entrepreneurs)

Kyushu Associations of Independent Entrepreneurs (AIE) is an economic organization that carries out projects specific to the society and region. It was established in April 2013, separated from the Small & Medium Entrepreneurs' Companionship Society of Fukuoka prefecture. The big aim of the organization is to 'revive the local economy' and to 'energize the society'. Regarding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and 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s it carries out, it is commissioned to manage 17 organizations dealing with the region, society, and international projects. As for the business development projects, it aims to promote the history and culture of Japan, new tourist business, contents business, and softindustry.

●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Fukuoka PrefectureCenter for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the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Kyushu Internship, Industrial promotion Council of Fukuoka, Kyushu Economic Forum, 'Women in Kyushu' network, Smart Senior Council Kyushu, Agri Hope Kyushu · Fukuoka, Fukuju Kai

● 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s: Fukuoka · Singapore Friendship Association, Fukuoka · Malaysia Friendship Association, Kyushu-Brunei Darussalam Club, Fukuoka · Philippines Friendship Association, Kyushu Japan Hong Kong Society, Kyushu · Turkey Society, West Japan · Cambodia Friendship Association, Fukuoka Supporting Organization of 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 Kyushu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ing Association

● Design and development projects: Asian Drama Conference, Dramatic Kojiki, FukuokaMiraifesta, Fukuoka Prefecture Citizen, Education Prize, Busan · Jinhae Free Economic Zone, Authorityand 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observation and training

전일본TV프로그램방송제작사연맹 (ATP)

ATP (전일본TV프로그램방송제작사연맹)은 122개 제작사가 가입 한 단체로, 설립 33 년의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송국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ATP 회원사의 기획, 제작, 또는 제작 협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루는 장르도 드라마, 다큐멘터리, 엔터테인먼트, 정보 프로그램 등 폭넓고 뛰어난 기획력과 제작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모인 일본 대표의 제작사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공동 제작의 매칭, 일본 국내에서 해외 방송사와 제작사에 의한 취재, 촬영 등의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아시아 각국과의 드라마, 다큐멘터리,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의 공동 기획, 제작을 목표로 한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全日本テレビ番組製作会社連盟（ATP）

ATP（全日本テレビ番組製作社連盟）は122 社の製作会社が加盟する団体で、設立33年の実績を誇っています。

日本のテレビ局で放送される番組の多くがATP 加盟会社の企画、制作、または制作協力によるものです。手がけるジャンルもドラマ、ドキュメンタリー、エンターテイメント、情報番組と幅広く、優れた企画力と制作力を持つ才能が結集した、日本を代表する最強の制作会社団体と言えます。

国際共同製作のマッチング、また日本国内における海外のテレビ局、制作会社による取材、ロケ等々のコーディネイトにも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ます。

とりわけ現在、アジア各国とのドラマ、ドキュメンタリー、エンターテイメント番組の共同での企画、制作に向け、積極的に事業を展開しています。

全日本电视节目制作公司联盟（ATP）

ATP(社团法人全日本电视节目制作公司联盟)作为有122个制作公司加盟的团体，始终以成立33年的历史为自豪。

日本电视台播出的大多数节目都是由ATP的加盟制作公司企划、制作，或是合作完成的。涉及电视剧、纪录片、娱乐、咨询节目等多种题材，集结了企划能力出众的人才，可以说是代表日本的实力最强的制作公司团体。

国际共同制作的互助及日本国内进行的与海外电视台和制作公司的采访活动、外景拍摄等等的规划协调方面，也积极响应。

尤其是现在，正积极开展亚洲各国的电视剧、纪录片、娱乐节目的共同企划制作业务。

ATP

(Association of All Japan TV Program Production Companies)

ATP (Association of All Japan TV Program Production Companies) is an organization with 122 television production companies, having the 33 years history.

Majority of the TV programs aired by Japanese television broadcasting stations are planned, designed, produced and co-produced by the ATP member companies. Dealing with an array of genres, including drama, documentary, entertainment, and an information program, ATP is the most influential organization of production companies, armed with talent of excellent initiatives and outstanding production capability.

ATP has actively engaged in coordinating co-productions, activities carried out in Japan by production companies and foreign broadcasting companies, locations, and so forth.

In particular, ATP is currently actively working on collaboration and co-production of dramas, documentaries, entertainment programs among Asian countries.

일본방송작가협회

라디오, TV 등 방송매체에서 활동하는 방송작가가 모여, 회원 상호의 친목을 돈독히 하면서 방송문화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문화단체이다. 현재, 약 1000명의방송작가가 소속되어 있으며, 문화단체로서는 세계에서도 유수의 회원 수를 자랑하고 있다. 문화 사업을 주축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방송작가 협회는 현재, 전국에 5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라디오 드라마와 TV드라마 각본의 전국 공모 콩쿠르나 공개 강좌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1959년 9월 18일: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근의 전파문화, 전파행정의 눈부신 발전에 대하여 라디오 및 TV 작가의 사회생활과 더불어, 능력과 권익을 옹호하고 더 나아가 그 친목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임의단체로서 설립. 창립 당시회원은 364명.
●1960년 3월 오사카지부설립, 9월 주부지부설립.
●1961년 1월 규슈지부설립.
●1962년 4월 사단법인일본방송작가협회로서 발족, 10월 홋카이도지부에 이어서 주고쿠지부 설립.
●1966년 3월 1일, 협동조합일본방송작가조합(현재일본극작가연맹) 설립. 지금까지 방송작가협회의 사업이었던 회원의 저작권권리보호, 복리후생 등 회원자신의 이익에 관한 활동은 조합으로 이전되고, 이후 방송작가협회는 방송문화향상을 위한 사업에 전념함.
●2012년 4월 1일, 일반사단법인일본방송작가협회로바뀜.

日本放送作家協会

ラジオ・テレビ等、放送メディアで活動する放送作家が集まり、会員相互の親睦を深めながら放送文化の向上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文化団体である。現在、およそ1000人の放送作家が所属し、文化団体としては世界でも有数の会員数を誇っている。日本放送作家協会は文化事業を主軸とした活動を行っている。全国には5つの支部があり、ラジオドラマ、テレビドラマ脚本の全国公募コンクールや公開講座をはじめとした種々の活動を行っている。

●1959年(昭和34年)9月18日:「わが国における、ここ数年の電波文化、電波行政のめざましい発展に対して、ラジオ・テレビ作家の社会生活並びに職能、権益を擁護し、併せてその親睦をはかる」目的で任意団体として設立。創立当初の会員は364名。
●1960年(昭和35年)3月に大阪支部設立, 9月に中部支部設立。
●1961年(昭和36年)1月に九州支部設立。
●1962年(昭和37年)4月、社団法人日本放送作家協会として発足, 10月に北海道支部、続いて中国支部設立。
●1966年(昭和41年)3月1日、協同組合日本放送作家組合(現・日本脚本家連盟)設立。 これまで放作協の事業であった会員の著作権権利擁護、福利厚生など会員自身の利益になる, 活動は組合に移され、以降、放作協は放送文化向上のための事業に専念する。
●2012年(平成24年)4月1日、一般社団法人日本放送作家協会へ移行。

日本广播作家协会

本团体是把活跃在广播电台，广播电视台等广播媒体中的编剧作家们召集在一起，以加深会员间的和睦，及提高放送文化为目标的文化团体。目前，已有约1000名所属编剧作家，所属成员数在世界范围内都可以说是值得炫耀的文化团体。日本广播作家协会以文化产业为核心运行中。在全国有五个支部，以关于广播电视剧与电视电视剧剧本在全国征文及公开讲座等多种活动进行中。

●1959年 9月 18日："我们国家近来的文化广播，广播总局的闪耀发展，呼应电台及电视作家的社会生活，能力及权益，更是为了促进相互友谊"为目标的自发成立团体，创立时成员为364名。
●1960年 3月 大阪支部设立，9月 中央支部设立。
●1961年 1月 九州支部设立。
●1962年 4月 团体法人 日本放送作家协会 起步，10月 北海道支部设立，中国支部设立。
●1966年 3月 1日，协同组合日本放送作家组合(现日本编剧联盟)设立。到现在为止，广播作家协会的成员的版权保护，报酬待遇等成员自身利益相关活动已经良好展开，之后广播作家协会将专注于发展广播文化发的事业。
●2012年 4月 1日，一般团体法人变更为日本广播作家协会。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of Japan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of Japan is an organization composed of t elevision and radio writers with a purpose of mutual friendship and improvement of broadcast culture. With approximately 1,000 writers as the member, it is a major orga nization even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The main activities of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of Japan involve cultural enterprise. With 5 branches nationwide, i ts activities include the national competition or seminar regarding the script of TV/ra dio drama.

●September 18th, 1959: Established with 364 original members under the purpose: 'To further the friendship between radio/TV writers and their skills and social privileges regarding the rapid development of recent radio-wave enterprise/administration.'
●March, 1960: Osaka Branch established. September, Jubu Branch established.
●April, 1962: Launched as an Incorporated Association -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October, 1962: Hokkaido, China Branch established.
●March 1st, 1966: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Cooperative Union (Current Writers Guild of Japan) established. The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benefit of members - including copyright protection and welfare benefit – are transferred to the Union, with the sole purpose of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being the improvement of broadcast culture.
●April 1st, 2012: Changed to a General Incorporated Association -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중국드라마제작산업협회

중국드라마제작산업협회(CTPIA)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 드라마제작기구의 연합단체조직이다. 또한, 중국드라마제작사와 정부, 방송사뿐만 아니라 전세계 업계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교량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드라마제작산업협회는 현재 중국 드라마제작업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약 400여개의 기업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드라마 생산량 및 황금 시간대 방송량이 중국 전체 방송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드라마제작산업협회는 "중국(심천) 글로벌 드라마 프로그램 페어(fair)"를 기획하고 진행했으며, "중국 및 해외 드라마 페어"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헌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및 해외 드라마산업 발전 정상포럼"을 주최하고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 글로벌 영상 박람회", "베이징 TV프로그램 페어" 및 "상하이 TV페스티벌"의 주요 후원자이자 참가자이다.

"교류, 협력, 윈윈(Win-Win)"은 중국드라마제작산업협회와 전세계 업계와의 우호적인교류를 위한 취지이자 목적이다. 전세계업계들이 중국드라마제작기구와 함께 더 깊은 교류와 서로 간의 더욱 많은 협력을 바탕으로 드라마의 중국시장 및 글로벌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中国ドラマ制作産業協会(CTPIA)

中国ドラマ制作産業協会(以下、CTPIA)は中華人民共和国全土のドラマ制作機関の連合団体組織だ。また中国ドラマ制作会社と政府、放送会社だけでなく世界中の業界との協力を導き出す架け橋としての役割を担っている。

CTPIAは現在、中国ドラマ制作業界で最もパワーがあり影響力のある約400の企業を会員として保有しており、そのドラマ生産量とゴールデンタイムの放送量は中国全体の放送量の9割を占めている。

CTPIAは「中国(深圳)国際ドラマ番組フェア」を企画進行し「中国と海外のドラマフェア」のプラットフォームづくりへの寄与だけでなく「中国と海外のドラマ産業発展サミットフォーラム」を主催し進行している。また、「中国グローバル映像博覧会」「北京テレビ番組フェア」および「上海テレビフェスティバル」の筆頭スポンサーかつ参加者だ。

CTPIAは世界中の業界との友好的な交流を目指し、「交流、協力、Win-Win(共存)」がその趣旨であり目的だ。中国ドラマ制作機関とのより緊密な交流と協力により、ドラマの中国および海外市場が開拓されることを願う次第だ。

中国电视剧制作产业协会

中国电视剧制作产业协会是中华人民共和国全国电视剧制作机构的联合社团组织，是中国电视剧企业与政府沟通，与播出机构交流、与世界各国同仁合作共赢的桥梁。

中国电视剧制作产业协会目前拥有近400家会员，他们都是中国电视剧制作业最具实力和影响力的企业，其电视剧的产量和黄金时段播放量均占到全国总量的90%。

中国电视剧制作产业协会是“中国(深圳)国际电视剧节目交易会”的策划者和实施者;是“中外电视剧推介交易”平台的搭建者和服务者；是“中外电视剧产业发展高峰论坛”的倡导者和操作者;也是“中国国际影视博览会”“北京电视节目交易会”“上海电视节”的主要支持者和参与者。

“交流、合作、共赢”是中国电视剧制作产业协会与世界各国同仁友好交往的宗旨和目的；欢迎各国同仁与中国电视剧制作机构作进行深入交流，希望彼此有更多的合作，共同开发电视剧的中国市场和国际市场。

China Television Drama Production Industry Association (CTPIA)

China Television Drama Production Industry Association (CTPIA for short) is a society of TV drama production organizations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working as bridges between Chinese producers and the government, broadcasters as well as the profession all over the whole world.

There are nearly 400 members in the association, who are the most powerful and influential backbones of the television industry in China, taking up two thirds of both TV drama production and broadcasting at prime time.

CTPIA is not only the mastermind and organizer of China (Shenzhen) International TV Drama and TV Program Fair, but also has been devo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Chinese and Foreign TV Drama Introduction Platform. While working on China TV Drama Industry Development Summit Forum, CTPIA is also the main supporter and participant of China International Film & TV Programs Exhibition, Beijing TV Program Market & Exhibition and Shanghai TV Festival.

For the purpose of communication, cooperation and win-win situation, CTPIA has been making friendly exchanges with the profession in the world, and is always expecting deeper communication and more cooperation opportunities to explore domestic and overseas markets of TV drama.

북경TV예술가 협회

북경 TV예술가협회(이하 '북경TV협회'로 약칭)는 중국 수도 북경에 있는 영상업계 종사자들의 단체이며, 중국 정부와 영상업계간 다리를 놓아주고 유대를 돈독히 한다. 영상 진행, 온라인 영상, 뉴미디어업체 및 종사자의 '연락, 조율, 서비스'와 '업계 교육, 업계 자율, 업계 서비스, 업계 관리' 등의 일을 맡고 있다. '북경TV협회는 현재 회장단인 쑨샹둥 회장, 장롄성 상임부회장, 사무총장이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북경TV협회는 설립 후 30 년 동안 회원수가 계속 증가하여 단체, 개인 회원을 합해 총 2만 여 명이 영상미디어의 각 예술장르에 분포되어있다. 본 협회는 회칙에 의거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사람을 근본으로 삼아 회원들간에 화목하게 지내고 우수한 작품의 제작을 장려하며 문화예술의 번영을 추진한다. 또한 이론연구, 인재육성, 표창심사, 정보서비스, 지적재산권 보호, 온라인 영상서비스에 힘쓰고 있다. 아시아, 호주, 유럽 등 여러 나라와 영상예술 분야에서 광범위한 교류와 심도 있는 협력을 진행하며 상호이해와 우호를 증진하였다. 북경TV협회는 각종 업무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17회 '북경 영상 춘연상'행사를 개최했으며, 올림픽조직위원회와 손잡고 2008년 북경올림픽문화영상대회를 개최했다. 중국대학생 영상축제 4회, 대학생 TV작품대회 10회를 개최했으며, 중국수도시나리오포럼을 개최하고 북경대학생영화제에 참여했다. 회원들을 조직해 국가 '오개일공정상', '중국 TV 금응상', '전국 덕예쌍신 TV예술종사자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많은 우수 영상작품 및 영상예술 인재를 등용시켰다. 북경TV협회는 2012년 5월 8일에 중국 최초의 영상회원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중국수도영상법률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영상업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北京TV芸術家協会

北京TV芸術家協会（以下、「北京TV協会」と略称）は中国の首都である北京にある映像業界関係者の団体で、中国政府と映像業界の間の架け橋となり、つながりを強くする役割を担っている。映像進行、オンライン映像、ニューメディア会社及び関係者の「連絡、調整、サービス」と「業界教育、業界自律、業界サービス、業界管理」などの業務を担当している。TV協会は現在、会長団である孫向東会長、張連生常任副会長、事務総長が全般的な業務を管理している。北京TV協会は設立後30年間、会員数が増加し続け、現在では団体と個人会員を合わせ計2万人以上が映像メディアの各芸術ジャンルにいる。本協会は会則に従って業務を行い、人を根本として会員同士が親しくなり、優秀な作品の制作を奨励し、文化芸術の繁栄を推進する。また理論研究や人材育成、表彰審査、情報サービス、知的財産権の保護、オンライン映像サービスに力を入れている。アジア、オーストラリア、ヨーロッパなどあらゆる国と映像芸術分野で広範囲にわたる交流と深い協力を行い、相互理解と友好を増進した。北京TV協会は各種業務で注目すべき成果を収めた。17回「北京映像春燕奨」行事を開催して、オリンピック組織委員会と手を組み2008年北京オリンピック文化映像大会を開催した。中国大学生映像祭典を4回、大学生TV作品大会を10回開催して、中国首都シナリオフォーラムを開催して北京大学生映画祭に参加した。会員たちを組織して国家「五個一工程賞」、「中国TV金鷹奨」、「全国徳芸双馨TV芸術従事者賞」審査委員として参加することで多くの優秀映像作品及び映像芸術の人材を登用した。北京TV協会は2012年5月8日に中国最初の映像会員法律サービスのプラットフォームである「中国首都映像法律サービスセンター」を設立して会員の合法的な権利と利益を保護して、映像業界の健康で調和の取れた発展を促進している。

北京电视艺术家协会

北京电视艺术家协会（以下简称：“北京视协”）是中国首都北京影视行业人民团体，是中国政府与影视行业的“桥梁和纽带”，履行影视、网络视频、新媒体单位及从业者的“联络、协调、服务”和“行业教育、行业自律、行业服务、行业管理”等职能。

北京视协成立近30年来，会员队伍不断壮大发展，团体会员和个人会员总计两万多人，遍布传媒影视各个艺术门类。协会依据会章开展工作，做到以人为本，建会员“温馨之家、推精品力作、促文艺繁荣”，在理论研究、人才培养、评奖表彰、信息服务、知识产权保护、网络视频服务，与亚洲、澳洲、欧洲等众多国家在影视艺术方面进行了广泛交流与探讨合作，北京视协各项工作取得瞩目成绩。如举办了17届北京影视春燕奖，与奥组委合作，举办08年北京奥运文化影像大赛，开展四届的中国大学生电视节暨10届中国大学生电视作品大赛；举办中国首都编剧论坛；参与北京大学生电影节；组织会员参评国家“五个一工程”奖、中国电视金鹰奖、全国德艺双馨电视艺术工作者等，推出众多影视精品及影视艺术人才。

北京视协于2012年5月8日创建了中国首家影视会员法律服务平台——“中国首都影视法律服务中心”，维护会员的合法权益，促进影视行业的健康和谐发展。

Beijing TV Artists Association

Beijing TV Artists Association (Beijing TV Association) is an organization of media industry in Beijing, the capital of China, and function as a bridge between Chinese government and media industry. The organization is in charge of liaison, negotiation, education, autonomy, service and management of media process, online media and new media services. Beijing TV Association is currently headed by Chairman Sun Xiangdong and Zhang Liansheng, a standing vice president and secretary general.

Beijing TV Association grew in size since its establishment 30 years ago and now have total of 20,000 members in various fields of media industry. The organization processes its work in accordance with its regulation, promoting friendships between its members and creation of quality work, prompting the prosperity of cultural art. It also promotes theoretical studie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creening for commendations, information servic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and servicing online media. The organization developed mutual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with various countries in Asia, Australia and Europe via mutual support and exchange of media. Beijing TV Association distinguished itself in various field of service. It hosted the 17th Beijing Spring Swallow Awards event, and also hosted 2008 Beijing Olympic Cultural Media Competition with the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It also hosted 4 Chinese College Students Media Festivals, 10 Graduate Students TV media competitions, China Capital Scenario Forum and participated in Beijing Graduate Student Film Festival. With organized members, it participated in national The Best Works Awards, China TV Golden Eagle Awards and National Art & Virtue TV Art Professional Awards as juror.

In May 8th, 2012, Beijing TV Association established China Capital Media Legal Service Center, the first media legal service platform in China to protect the right of its members and promote healthy, harmonious advancement of media industry.

상해미디어그룹 (SMG)

SMG(상해미디어그룹)는 상해문화방송영화 TV 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방송, TV, 신문 잡지,인터넷 등을 포괄한 사업을 하는 멀티미디어그룹이다. 영화 TV 센터는 상해 문광 미디어그룹의 주요 부서로서 새로운 모습을 중국 전지역과 해외 영화 TV 시장에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이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프로그램 배급, 편성 및 창작에 대한 미디어그룹의 통일적인 관리경영 시장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센터는 새로운 체제와 구조 및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법으로 TV 프로그램 시장을 규칙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미디어산업의 발전과 중국영화 TV 창작의 번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영화 TV 센터 산하에는 구매부, 드라마편성부, 제작부와 상해녹화공사 등의 부서와 회사가 있으며 미디어그룹이 운영하는 7 개 채널에 방송되는 영화 TV 프로의 구매, 편성, 홍보 및 배급 업무와 더불어 현동(炫動) 애니메이션 위성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제공과 편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上海メディアグループ（SMG）

SMG(Shanghai Media Group)は上海文化放送映画TVグループに所属し放送、TV、新聞雑誌、インターネットなどを包括した事業をするマルチメディアグループです。映画TVセンターは上海文広メディアグループの重要な部署としての新しい姿を中国全地域と海外の映画TV市場に公開しました。これはドラマ、映画、アニメーションの購買と販売、審議および創作に対するメディアグループの統一的な管理経営市場戦略を打ち出しています。

センターは新しい体制や構造および科学的で効率的な管理方法としてTVプログラム市場を規則的、健全に発展させ、メディア産業の発展と中国映画TV創作の繁栄のために努力します。映画TVセンター傘下には購買部、審議部、製作部と上海録画公社などの部署と会社があり、メディアグループが運営する7つのチャンネルで放送される映画TVプログラムの購買、審議、広報、および発行業務とあわせて炫動アニメーション衛星チャンネルの放送プログラム提供と審議業務を担当しています。

上海文化广播影视集团有限公司(SMG)

SMG(Shanghai Media Group) 属于上海文化广播影视集团，是一家集广播，电视，报刊，网络等于一体的多媒体集团。影视剧中心作为上海文广新闻媒体集团的重要职能部门，以全新的姿态出现在全国乃至海外影视节目市场，它体现了传媒集团在电视剧，电视电影，动画片等节目购销，编播和创作，生产方面统一管理，统一经营，整体发现的战略思路。

中心将以崭新的体制和机制，科学，规范的运作模式，努力为电视节目市场规范有序，健康发展做出努力。同时，也将为传媒集团内容产业的发展和中国影视剧创作的繁荣做出贡献。影视剧中心下设采购部，编播部，制作部和上海录像公司。在承担传媒集团下属七个频道的影视剧节目购买，编播，推广和发行的同时，还承担了炫动卡通卫视频道的节目提供和编播业务。

Shanghai Media Group

Shanghai Media Group is a multimedia group under Shanghai Media & Entertainment Group with a wide array of businesses including broadcasting, television, newspaper and internet. Film & TV Drama Center which introduced itself to all regions of China and foreign film/TV markets is a major section of SMG, conducting integrated management and marketing strategy regarding syndication, scheduling and productions of TV dramas, films and animations.

Film & TV Drama Center is aiming to bring regular and healthy advancement in TV program market, media industry, Chinese films and TV contents creation by incorporating new system and streamlined management. Film & TV Drama Center consists of various departments and firms including Purchasing Department, Drama Scheduling Department, Production Department and Shanghai Recording, and is in charge of managing the purchasing of TV program, scheduling, promotion and syndication for 7 channels run by SMG, and also provision and scheduling of animation program for satellite channel.

(주)GMA 네트워크

㈜ GMA 네트워크는 필리핀 전국에 47 개소의 VHF, 13 개소의 UHG 텔레비전 방송국과 23 개소의 라디오 방송국을 보유한 필리핀의 주요 방송업체이다.

GMA 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네트워크 이외에도 영화제작, 음반 출판 및 유통, 방송 프로그램의 확보와 배급, 국제 채널 운영, 제작 디자인, 인재 육성, 오디오-비주얼 제작과 홍보, 뉴 미디어 등 다양한 영상관련 산업을 진행하고 있다.

GMA 는 필리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상을 수여한 업체이다. 현 시점에서 GMA 는 필리핀 내에서는 피바디상 저널리즘 부문 우수상을 수여한 유일한 업체이며, 2005 년에는 아시안 텔레비전 어워드에서 올해의 지상파 방송국 상을 획득했다.

㈱GMAネットワーク

㈱GMA ネットワークは、フィリピン全土に 47 か所の VHF、13 か所の UHG テレビ放送局と、23 か所のラジオ放送局を持つ、フィリピンの主要な放送事業者である。

GMA は、テレビおよびラジオのネットワーク以外にも、映画制作、レコードの発売および流通、番組の確保および配給、国際チャンネルの運用、制作デザイン、人材の育成、オーディオビジュアルの制作および広報、ニューメディアなど、さまざまな映像関連事業を行っている。

GMA は、フィリピン国内において最も多くの賞を受賞した事業者である。これまでのところフィリピンで唯一、ピーボディ賞のジャーナリスト部門を授賞した事業者であり、2005 年にはアジア・テレビジョン・アワードで地上波放送局賞を獲得した。

(株)GMA网络

(株) GMA 网络是拥有菲律宾全国 47 个 VHF、13 个 UHG 电视台和 23 个广播电台的菲律宾主要电视企业。

GMA 在电视盒广播网络之外，进行电影制作、音像出版及流通、广播电视节目的确保和发行、国际频道运营、制作设计、人才培养、视听系统制作与宣传、新媒体等多种音像关联业务。

GMA 是菲律宾过年获奖最多的企业，目前，GMA 是菲律宾国内唯一获得 coveted Peadody 奖的企业， 2005 获亚洲电视剧奖“今年最佳电视地面站奖”。

GMA NETWORK INC.

GMA Network, Inc. is the leading broadcasting company in the Philippines operating a network of 47 Very High Frequency (VHF) and 13 Ultra High Frequency (UHG) television stations, as well as 23 radio stations throughout the country.

Apart from its television and radio networks, GMA also owns a wide array of media-related businesses including film production, record publishing and distribution, program acquisition and syndication, international channel operation, production design, talent development, audio-visual production, marketing and promotions, audio-visual production, and new media.

GMA is the most awarded television station in the country. By far, GMA is the only Philippine media company to have won the coveted Peabody Awards for excellence in journalism, and the Best Terrestrial Television Station of the Year (2005) from the Asian Television Awards.

미디어콥 (MediaCorp)

미디어콥(MediaCorp)은 싱가포르의 매스 미디어 기업으로, TV, 라디오, 신문, 잡지, 디지털 및 OOH미디어(out-of-home media)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1936년부터 방송사업을 시작했으며 1963년에 처음으로 TV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미디어콥은 싱가포르 방송미디어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콥은 영어, 만다린어, 말레이시아어, 타밀어(Tamil) 4개 언어에 걸쳐 50개 이상의 제품과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모든 성인이 매주 그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TV-on-demand 및 고화질 TV 외에도 OTT(over the top) 서비스등을 포함하는 뉴디지털 스페이스의 선구자입니다.

미디어콥은 싱가포르를 뛰어넘어, 아시아지역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락 프로그램 및 영화 공동제작, 잡지 발행과 더불어 처음으로 아시아인이 소유한 유일의 영어뉴스채널인 채널뉴스아시아인터내셔널(Channel NewsAsia International)도 공동제작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콥의 지역 재무 및 전략적 파트너로는 인도네시아 최대 연예뉴스 예능 사이트 KapanLagi Network가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콥은 말레이시아 전자 및 네트워크 게임 발행업체인 Cubinet Interactive의 대주주이자 국제 명품 구매사이트 리본즈(Reebonz) 및 베트남 국제 언론사의 주주 중 하나입니다.

미디어콥이 제작한 프로그램은 아시아 TV 방송 대상을 포함해 많은 세계무대에서 상을 수상했습니다. 미디어콥의 바람은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즐거움을 주며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mediacorp.s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メディアコープ（MediaCorp）

メディアコープ社は、シンガポールの総合メディア企業で、テレビチャンネルやラジオチャンネルを運営し、新聞・出版やOHHメディア(out-of-home media)も手掛けている。

メディアコープ社は、ラジオ放送を1936年に、テレビ放送を1963年に開始して、シンガポールの放送業界のパイオニア的役割を果たした。今日、メディアコープ社は、50以上のプロダクトとブランドを4つの言語（英語、標準中国語、マレー語、タミル語）で持っており、実質的にはシンガポールのすべての大人に毎週接していることになる。インターネットテレビオンデマンド、HDテレビ放送、またOver-the-Top(OTT)インタラクティブTVサービスなどを含む新デジタルスペースの先駆けでもある。

メディアコープ社はシンガポールばかりでなく、テレビドラマや映画、雑誌出版の共同制作者としても積極的にアジアで取り組んでおり、チャンネルニュースアジアインターナショナルというアジア初の英語のチャンネルの運営にも携わっている。アジアでの戦略的なパートナーシップには、インドネシアでも大手のライフスタイルやニュース、エンタメサイトを持つKapanLagiネットワークがある。メディアコープ社は、マレーシアのデジタルゲーム会社であるCubinet Interactive社の大部分の株を持ち、最近急成長しているブランド品のオンライン販売サイトReebonz、またベトナムのテレビInternational Media Corporationの大株主でもある。

メディアコープ社の制作した作品は、アジアテレビアワードなど、多くの国際的な賞も獲得している。メディアコープ社のミッションは、創造力を生かして、人々に仕え、楽しませ、豊かにすることである。さらに詳しくはmediacorp.sgを参考してください。

新传媒

新传媒是新加坡的媒体集团，业务遍及电视，广播，报纸，杂志，码和户外媒体，堪称是最全面的媒体平台。

从 1936 年开拓广播业务，到 1963 年首次播放电视节目，新传媒可以说是新加坡广播媒体的先驱。今天，新传媒拥有超过 50 种横跨四种主要语言：英语、华语、马来语和淡米尔语的品牌及产品。

新传媒的数码服务相当多元化，除了网上电视点播与高清电视，还有互动电视服务。新传媒在亚洲区域非常活跃，通过联合摄制娱乐节目及电影，杂志发行，以及亚洲新闻台国际，这个亚洲首创的英语新闻台之一，把触角延伸到国外。

新传媒的区域财务与策略性伙伴就包括印度尼西亚最大时尚新闻娱乐网站 KapanLagi Network。新传媒也是马来西亚电子及网络游戏发行商 Cubinet Interactive 的大股东及国际奢华品牌购物网站瑞宝仕和越南国际媒体公司的股东之一。

新传媒所制作的节目，曾荣获多个国际奖项，包括亚洲电视广播大奖。新传媒的愿景是挥洒无限的创意来触动人心、娱乐人群、丰富人生。欲知更多详情，请浏览 mediacorp.sg

Media Corp

Media Corp is a Singapore-based media company with a complete range of platform s, spanning television, radio, newspapers, magazines, digital and out-of-home media.

It pioneered the development of Singapore's broadcasting industry, with the broadcast of Radio in 1936 and Television in 1963. Today, MediaCorp has over 50 products and brands in four languages (English, Mandarin, Malay and Tamil), reaching out to virtually all adults in Singapore every week.

Initiatives in the new digital space include Internet TV-on-demand, High Definition TV broadcast and Over-the-Top (OTT) interactive services.

Beyond Singapore, MediaCorp is an active regional player through co-productions in TV dramas and movies, magazines publishing, as well as Channel NewsAsia International, one of the first Asian-owned English news channels.

Our strategic collaborations in the region include *Kapanlagi Network*, an Indonesian digital native company which owns several leading lifestyle, news and entertainment websites. MediaCorp has majority share in *Cubinet Interactive*, a Malaysian digital games publisher, and owns a stake in *Reebonz*, one of the region's fastest growing luxury online retailers as well as Vietnam television's *International Media Corporation*.

Winner of numerous international awards and accolades including Asian Television Awards' Terrestrial Broadcaster of the Year, MediaCorp's mission is to engage, entertain and enrich audiences by harnessing the power of creativity.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mediacorp.sg.

브로드캐스트 타이 텔레비전

"우리가 제작한 드라마 및 TV 프로그램은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할 뿐 아니라 사회의 윤리와 도덕성을 다시 일깨웁니다"

브로드캐스트 타이 텔레비전(BROADCAST THAI TELEVISION)은 태국의 선두미디어회사들 중 하나로, 25년 전 설립되어 식견있는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곧 종합엔터테인먼트 서비스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브로드캐스트 타이 텔레비전은 현재까지 60여 편이 넘는 많은 드라마 및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작하며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브로드캐스트 타이 텔레비전은 태국 시청자들에게 처음으로 애니메이션을 선보인 회사로서, 제작자들은 생산성과 창의성, 재미를 겸비한 작품으로 시청자들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브로드캐스트 타이 텔레비전은 현대 TV 산업에 맞춰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HD (고화질) 시스템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만족도를 보장해드리고자 합니다.

ブロードキャスト タイ テレビジョン

『私たちが制作したドラマやテレビ番組は視聴者を楽しませるだけでなく社会の倫理やモラルの喚起を促します』

BROADCAST THAI TELEVISION(ブロードキャスト タイ テレビジョン)はタイの草分け的メディアのうちの1社で、25年前の設立以来、顧客のニーズに合わせて様々なサービスを提供するなかで、総合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サービス企業として急成長を遂げました。BROADCAST THAI TELEVISIONは現在まで約60本を超える多くのドラマシリーズおよびアニメシリーズを制作し多数の賞に輝きました。

BROADCAST THAI TELEVISIONはタイの視聴者に初めてアニメーションを公開した会社であり、制作者は生産性と創意性、面白さの三拍子がそろった作品で視聴者を満足させています。

またBROADCAST THAI TELEVISIONは現代のテレビ産業に足並みを合わせて様々なジャンルのコンテンツをHD（高画質）システムで提供することで視聴者の満足度を高める所存です。

泰国广播电视台

"我们制作的电视剧及电视节目不仅为了愉悦观众,
而且还力求反应良好的道德和伦理的社会回归"

泰国广播电视台是泰国居于领先地位的传媒公司之一，成立于 25 年前,且已迅速成为一站式综合娱乐服务公司。公司提供多方面的服务，旨在满足最挑剔的客户。制作了许多电视剧，有 60 多个主题，获得多个奖项，还有动画系列。

泰国广播电视台是第一个向泰国观众推介动画作品的公司，制作团队以具有生产性、创意性、趣味性的作品来满足观众的要求。

泰国广播电视台还顺应现代 TV 产业的发展，以高画质制作系统，提供多类题材的高画质内容，并以此保证收视满意度。

Broadcast Thai Television

"Our Drama and TV Program that we have produced are not only for entertaining
but they also reflect the good morals and ethics back on to the societies"

Broadcast Thai Television is one of leading media companies in Thailand. The company was established 25 years ago, and has rapidly become a one-stop entertainment service, providing a wide range of services designed to meet the most discerning clients. They have produces many TV drama series, with over 60 titles and several awards and animation series.

They were the first animation company to introduce animation to the Thai audience, and their TV programmers are produced to meet the satisfaction of the audience with productivity, creativity and fun combined.

Broadcast Thai Television also offer a wide genre of TV content with a high definition system that covers the modern TV industry and assures satisfaction.

베트남 TV TVAd

베트남 TV(VTV)는 베트남 유일의 국영방송사이며, 케이블과 위성 채널뿐만 아니라 유료방송까지 모두 7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방송국이다.

TV 광고&서비스 센터(TVAd)는 VTV 소속 부서로, TV 프로그램(드라마, 버라이어티, 다큐멘터리, 만화, 영화, 스포츠 등)과 포맷의 구입, 판매, 현지화를 비롯 해 광고시간 판매, 스폰서 모집과 같은 VTV 의 전반적인 경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ベトナムTV TVAd

ベトナムTV(VTV)は、ベトナム唯一の国営放送局であり、ケーブルや衛星チャンネルだけでなく、有料放送まで計7つのチャンネルを保有しているベトナムで最大の放送局である。
TV広告＆サービスセンター(TVAd)はVTVの中の所属部署で、TV番組(ドラマ、バラエティ、ドキュメンタリー、漫画、映画、スポーツなど)とフォーマットの購入、販売、現地化をはじめして広告時間販売、スポンサー募集などVTVの全般的な経営業務を担当している。

VTV TVAd

越南电视台(VTV)是越南唯一的国营电视台，除有线频道和卫星频道外，加上付费频道，共有7个频道，是越南最大的电视台。

电视广告与服务中心(TVAd)是越南国家电视台VTV的所属部门，负责电视节目（电视剧、综艺、纪录片、动画片、电影、体育等）的制作及版权的购买、出售、本地化以及广告时间出售、招赞助商等VTV整体经营业务。

VTV TVAd

Vietnam Television (VTV) is the only national broadcaster and the biggest TV station of Vietnam with 7 free-to-air channels along with a number of pay channels as well as cable and satellite systems.

Television Advertising and Services Center (TVAd) is one of VTV divisions, acting as the sole representative for VTV in all business matters including acquiring, selling or localizing TV programs (Dramas, entertainment shows, documentaries, animations, , feature films and sport etc), formats; selling commercial air time, getting sponsors and other transactions.

Participants' Profiles

- Korea -

Writers



Kumlim LEE	
이금림	
リ・クンリム	**(F) Drama**
E-Mail : silkwood48@gmail.com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작가	韓国放送作家協会 **理事長/脚本家**	**韩国广播作家协会** 理事长/编剧	KTRWA Chairman/Writer

주요작품	- MBC『물보라』, KBS TV 소설『강이 되어 만나리』,『복희 누나』 - KBS『빛과 그림자』,『사랑 할 때까지』,『푸른 안개』 외 다수
수상경력	- 1999 한국 방송대상 TV 극본상 - 2012 YWCA 좋은 드라마상『복희 누나』
主な作品	- MBC『水しぶき』, KBS TV小説『川になって会おう』『ポッキ姉さん』 - KBS『光と影』『愛するまで』『青い霧』 ほか多数。
受賞経歴	- 1999年 韓国放送大賞TV脚本賞 - 2012年 YWCA いいドラマ賞『ポッキ姉さん』
主要作品	- MBC『水花』, KBS TV小说『像江水相遇』,『富希姐姐』 - KBS『阳光和影子』,『等到恋爱时候』,『蓝色浓雾』外多数
得奖经历	- 1999 韩国放送大奖TV剧本奖 - 2012 YWCA 好电视剧将『富希姐姐』
Major Works	- MBC『Spray』, KBS TV Novel『As the River Flows』,『Bok-hee』 - KBS『Lights and Shadows』,『Until We Fall in Love』,『Blue Mist』 and more.
Awards	- 1999 Korea Broadcasting Awards, Best TV Script『Eun-sil』 - 2012 YWCA Good TV Series『Bok-hee』



Sunsik CHOI	
최순식	
チェ・スンシク	**(M) Drama**
E-Mail : ssdrama@hanmail.net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韓国放送作家協会 **脚本家**	**韩国广播作家协会** 编剧	KTRWA Writer

주요작품	- SBS『돌아와요 순애씨』,『불량커플』,『사랑은 아무나하나』 - KBS2『울랄라부부』
수상경력	- SBS 최우수작품상 - PD 협회장상/한국평가협회장상
主な作品	- SBS「カムバック!スネさん」,「不良カップル」,「愛は簡単じゃない」 - KBS2「ウララ・カップル」
受賞経歴	- SBS最優秀作品賞 - PD協会長賞/韓国評価協会長賞
主要作品	- SBS《回来吧，顺爱》、《不良情侣》、《不是谁都能爱》 - KBS2《乌拉拉夫妇》
得奖经历	- SBS 最佳作品奖 - PD 协会会长奖/韩国评价学会会长奖
Major Works	- SBS『Please Come Back, Soon Ae』,『Bad Couple』,『Can Anyone Love』 - KBS2『Ohlala Couple』
Awards	- SBS Best drama - Korean Producers & Directors' Association President Award/Korea Assessment Association Presidet Award



	Younghee HONG
	홍영희
	ホン・ヨンヒ **(F) Drama**
	E-Mail : seeui99@hanmail.net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韓国放送作家協会 **脚本家**	韓国广播作家协会 编剧	KTRWA Writer

주요작품	- KBS 일일드라마『가족을지켜라』,『사랑은 노래를 타고』,『별도달도 따줄게』 - KBS 전원드라마『산너머 남촌에는』 - KBS TV소설『아름다운 시절』,『인생화보』,『민들레』 - 미니시리즈『컬러』,『순수』,『밀월』,『겨울의 환』 그 외 일일극 다수
수상경력	- 1994년 상해 드라마 페스티벌 대상 (단막극)
主な作品	- KBSホームドラマ「家族を守れ」,「愛は歌に乗って」,「星も月もあげる」 - KBS 田園ドラマ「山向こうの南村には」 - KBS テレビ小説「美しい時代」,「人生画報」,「一途なタンポポちゃん」 - ミニシリーズ「カラー」「純粋」「蜜月」「冬の幻」その他ホームドラマ多数
受賞経歴	- 1994年 上海ドラマフェスティバル大賞(短編ドラマ部門)
主要作品	- KBS 每日电视剧《守护家族》、《乘着歌声的爱情》、《愿为你摘星揽月》 - KBS 乡村电视剧《山那边的南村》 - KBS TV小说《美丽的时节》、《人生画报》、《蒲公英》 - 迷你系列《色彩》、《纯粹》、《蜜月》、《冬日之环》及每日剧多部
得奖经历	- 1994年 上海戏剧节大奖 (独幕剧)
Major Works	- KBS Soap opera 'Save the Family', 'Melody of Love', 'Moon and Stars for You' - KBSDrama of people living in farming villages 'Hometown Over the Hill' - KBS TV Novel 'Beautiful days' 'Album of Life' 'Dandelion' - Mini series 'Color', 'Sunsu/pureness', 'Milwol / honeymoon', 'Illusion of Winter' and many other soap operas
Awards	- 1994 Shanghai Drama Festival: Grand Prize (One act play category)



	HyunjueJANG
	장현주
	チャン・ヒョンジュ **(F) Drama**
	E-Mail : hyunjue76@hanmail.net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韓国放送作家協会 **脚本家**	韓国广播作家协会 编剧	KTRWA Writer

주요작품	- MBC『밤을 걷는 선비』,『커피프린스1호점』 - SBS『파라다이스목장』
主な作品	- MBC『(仮題)夜を歩くソンビ』,『コーヒープリンス1号店』 - SBS『パラダイス牧場』
主要作品	- MBC《夜行书生》,《咖啡王子一号店》 - SBS《天堂牧场》
Major Works	- MBC 'Scholar Who Walks the Night', 'The 3st Shop of Coffee Prince' - SBS 'Paradise Ranch'



Yoonjung JUNG	
정윤정	
チョン·ユンジョン	**(F) Drama**
E-Mail : nell0522@hanmail.net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韓国放送作家協会 脚本家	韩国广播作家协会 编剧	KTRWA Writer

주요작품	- tvN금토드라마 『미생』(2014) - Mnet/ tvN 뮤직드라마 『몬스타』(2013) - MBC 『아랑사또전』(2012)
수상경력	- 2015 코리아드라마어워즈 작품상 <미생> - 2015 케이블TV 방송대상 대상 <미생> - 2015 서울 드라마어워즈 미니시리즈 최우수작품상 <미생> - 2015 대한민국 국회대상 콘텐츠상 <미생>
主な作品	- tvN 金土ドラマ『ミセン -未生-』(2014) - Mnet/ tvNミュージックラマ『モンスター ～私だけのラブスター～』(2013) - MBC『アラン使道伝 -アランサトデン』(2012)
受賞経歴	- 2015 コリアドラマアワーズ作品賞＜未生＞ - 2015 ケーブルTV放送大賞＜未生＞ - 2015 ソウルドラマアワーズミニーシリーズ最優秀作品賞＜未生＞ - 2015 大韓民国国会大賞·コンテンツ賞＜未生＞
主要作品	- tvN 周五六电视剧 《未生》(2014) - Mnet/ tvN音乐电视剧《Monstar》(2013) - MBC《阿郎使道传》(2012)
得奖经历	- 2015 韩国电视剧奖 作品奖《未生》 - 2015 有线电视放送大奖 大奖《未生》 - 2015 首尔电视剧奖 迷你系列 最佳作品奖《未生》 - 2015 大韩民国 国会大奖 文化产业奖《未生》
Major Works	- tvN drama for Fridays and Saturdays: 'Misaeng'(2014) - Mnet/ tvN: 'Monstar'(2013) - MBC: 'Arang and the Magistrate'(2012)
Awards	- 2015 Korea Drama Awards Best drama <Misaeng> - 2015 Cable TV Broadcasting Awards Grand Prize <Misaeng> - 2015 Seoul International Drama Awards BestMiniseries <Misaeng> - 2015 Korea Assembly Grand Awards ContentsPrize <Misaeng>



Eunhee JOU			
주은희			
ジュ・ウンヒ		**(F) Drama**	
E-Mail : puro1@hanmail.net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韓国放送作家協会** **脚本家**	**韓国广播作家协会** 编剧	KTRWA Writer

주요작품	- SBS 드라마 스페셜『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퀸』 - SBS『엄마의 노래』,『진주귀걸이』 외 다수
主な作品	- SBS ドラマスペシャル『父、ある日突然』,『クイーン』 - SBS『母の歌』『真珠のイヤリング』 ほか多数
主要作品	- SBS特别剧『爸爸, 有一天突然』,『皇后』 - SBS『妈妈之歌』,『珍珠耳环』外多数
Major Works	- SBS Special『Suddenly, Father』,『Queen』 - SBS『Mother's Song』,『Pearl Earring』 and more.



Woonkyung KIM			
김운경			
キム・ウンギョン		**(M) Drama**	
E-Mail : kyk8848@hanmail.net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교육원장	**韓国放送作家協会** **脚本家**/教育院长	**韩国广播作家协会** 编剧/教育院長	KTRWA Writer/Director of Education Institute

주요작품	- MBC 짝패, 서울의달 - SBS 옥이이모 - KBS2 파랑새는있다 - JTBC 유나의거리외 다수
수상경력	- 1995 한국방송작가상 <서울의 달>
主な作品	- MBC『チャクペ -相棒-』,『(仮題)ソウルの月』 - SBS『(仮題)オギおばさん』 - KBS2『(仮題)青い鳥はいる』 - JTBC『(仮題)ユナの街』ほか多数
受賞経歴	- 1995 韓国放送作家賞『(仮題)ソウルの月』
主要作品	- MBC《同伙》,《首尔的月亮》 - SBS《玉姨妈》 - KBS2《青鸟还在》 - JTBC《宥娜的街》等多部
得奖经历	- 1995《首尔的月亮》获韩国广播电视作家奖
Major Works	- MBC 'The City of Violence', 'The Moon of Seoul' - SBS 'Auntie Ok' - KBS2 'A Bluebird Has It' - JTBC 'Yoo-na's Street', etc
Awards	- 1996 Korean Radio & TV Writers Award <The Moon of Seoul >



Eunhee KIM	
김은희	
キム・ウンヒ	**(F) Drama**
E-Mail : mozart1973@hanmail.net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韓国放送作家協会 脚本家	韩国广播作家协会 编剧	KTRWA Writer

주요작품	- KBS『겨울연가』,『낭랑 18세』,『눈의 여왕』 - KBS『밤이면 밤마다』,『아가씨를 부탁해』 - KBS『총리와 나』 외 다수
主な作品	- KBS『冬のソナタ』,『ランラン18歳』,『雪の女王』 - KBS『ラブ・トレジャー～夜になればわかること～』,『お嬢さまをお願い!』 - KBS『総理と私』ほか多数
主要作品	- KBS『冬日恋歌』,『新娘18岁』,『雪之女王』 - KBS『每天夜晚』,『拜托小姐』 - KBS『总理和我』外多数
Major Works	- KBS『Winter Sonata』,『Sweet 18』,『The Snow Queen』 - KBS『When It's At Night』,『My Fair Lady』 - KBS『The Prime Minister and I』 and m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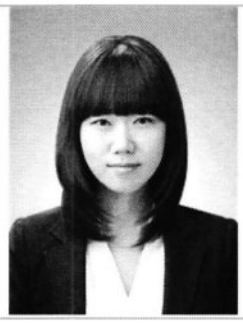
Haelin KIM	
김혜린	
キム・ヘリン	**(F) Drama**
E-Mail : haelin5@hanmail.net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韓国放送作家協会 脚本家	韩国广播作家协会 编剧	KTRWA Writer

주요작품	- MBC『김약국의 딸들』,『칼 울음소리』 - KBS『모정의 강』,『은아의 뜰』,『분이』 - MBC 베스트 극장『빨간 아오자이』,『남자만 넷』,『봄봄』 외 다수
수상경력	- 1991년 MBC 베스트극장 극본 공모 1회 당선『두 개의 브롯지』
主な作品	- MBC『キム薬局の娘たち』,『刀の鳴き声』 - KBS『母情の川』,『ウナの庭』,『プニ』 - MBC ベスト劇場『赤いアオザイ』,『男ばかり4人』,『春春』ほか多数
受賞経歴	- 1991年 MBC ベスト劇場脚本公募1回当選『2つのブローチ』
主要作品	- MBC『金药局的女儿们』,『刀哭声』 - KBS『母情之江』,『银儿的小院』,『粉儿』 - MBC 最佳剧场『红色奥黛』,『只有四个男人』,『春春』外多数
得奖经历	- 1991年MBC"最佳剧场"首届剧本公开招募入选『两个开场白』
Major Works	- MBC『Daughters of Pharmacist Kim』,『Crying of the Sword』 - KBS『River of the Maternal Love』,『Eun A's Garden』,『Bun』 - MBC Best Theater『Red Aozai』,『JustFour Men』,『Spring』 and more.
Awards	- 1991 Win at Script Contest for MBC Best Theater『Two brooches』



Jisook KIM			
김지숙			
キム・ジスク		(F) Drama	
E-Mail : jazz4703@naver.com			
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권부 부장	韓国放送作家協会 著作権部部長	韩国广播作家协会 著作权部部长	KTRWA Department of Copyright Director



Sunmi KIM			
김선미			
キム・ソンミ		(F) Drama	
E-Mail : ddolize@hanmail.net			
한국방송작가협회 월간방송작가 편집자	韓国放送作家協会 月刊放送作家 編集者	韩国广播作家协会 月刊广播作家 编辑人	KTRWA Korea TV & Radio Writers Journal editor



	Kiyoung KWON
	권기영
	クォン·ギヨン **(F) Drama**
	E-Mail : voler@hanmail.net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韓国放送作家協会 **脚本家**	**韩国广播作家协会** 编剧	KTRWA Writer

주요작품	- KBS 드라마시티 및 드라마스페셜 다수 - SBS미니시리즈 『사랑에 미치다』『보스를 지켜라』『내 연애의 모든 것』 - KBS 미니시리즈『너를 기억해』
主な作品	- KBS ドラマシティーおよびドラマスペシャル多数 - SBSミニシリーズ『愛に狂う』『ボスを守れ』『私の恋愛のすべて』 - KBS ミニシリーズ『(仮題)君を覚えている』
主要作品	- KBS 电视城及电视短剧等 - SBS迷你系列《为爱疯狂》,《守护老板》,《我恋爱的一切》 - KBS 迷你系列《记得你》
Major Works	- Numerous episodes of KBS Drama City and KBS Drama Special - SBS mini series 'Crazy For You', 'Protect the Boss', 'All About My Romance' - KBS mini series 'I Remember You'



	Aeri NAM
	남애리
	ナム・エリ **(F) Drama**
	E-Mail : aerinam@hanmail.net

작가	作家	编剧	Writer

주요작품	- SBS 라디오드라마 <당신을 들꽃이라 부를때>, <동행> - KBS 라디오<안녕하세요 황인용·강부자입니다> 외
수상경력	- 1984 MBC 라디오드라마<김자옥의 사랑의 계절>공모 최우수 당선
主な作品	- SBS ラジオドラマ『あなたを野花と呼ぶとき』,『同行』 - KBS ラジオ『こんにちは ファン·イニョン カン·ブジャです』他
受賞経歴	- 1984 MBC ラジオドラマ『キム·ジャオクの愛の季節』公募最優秀賞受賞
主要作品	- SBS 电台连续剧《叫你野花的时候》,《同行》 - KBS 电台《你好我们是黄任荣和江富子》
得奖经历	- 1984 MBC 广播电台连续剧《金子玉爱的季节>征召最优秀当选
Major Works	- SBS Radio Drama "When I Call You a Wildflower", "Company" - KBS Radio "Hello, This is Hwang In-yong and Kang Boo-ja"
Awards	- MBC Radio Drama Competition Grand Prize "Kim Ja-ok's Season of Love"



	Eunju PARK			
	박은주			
	パク・ウンジュ		**(F) Drama**	
	E-Mail : silverju2094@naver.com			
	㈜ 뉴컴 작가	(株)ニューコム **脚本家**	(株) NEWCOM 编剧	NEWCOM Inc. Writer
주요작품	- KBS <100년의 기업 – 포숑, 할리데이비슨, 깁슨, 라이카 편>, <영상포엠 내마음의 여행> 등			
主な作品	- KBS『100年の企業』フォション、ハーレーダビッドソン、ギブソン、ライカ編、『映像ポエム 心の旅』など			
主要作品	- KBS纪录片《100年老店》之《馥颂》、《哈雷戴维森》、《吉普森》、《莱卡》篇，电视诗歌《我的心灵之旅》 等			
Major Works	- KBS <Companies Lasting A Century –Fauchon, Harley-Davidson, Gibson, Leica Camera>, <Video Poem - a trip of my mind>, etc			



	Jieun PARK			
	박지은			
	パク・ジウン		**(F) Drama**	
	E-Mail : rrna777@naver.com			
	㈜ 뉴컴 작가	(株)ニューコム **脚本家**	(株) NEWCOM 编剧	NEWCOM Inc. Writer
주요작품	- KBS <100년의 기업 – 포숑, 할리데이비슨, 깁슨, 라이카 편>, <영상포엠 내마음의 여행> 등			
主な作品	- KBS『100年の企業』フォション、ハーレーダビッドソン、ギブソン、ライカ編、『映像ポエム 心の旅』など			
主要作品	- KBS纪录片《100年老店》之《馥颂》、《哈雷戴维森》、《吉普森》、《莱卡》篇，电视诗歌《我的心灵之旅》 等			
Major Works	- KBS <Companies Lasting A Century –Fauchon, Harley-Davidson, Gibson, Leica Camera>, <Video Poem - a trip of my mind>, etc			



	Jaebeom PARK
	박재범
	パク・ジェボム **(M) Drama**
	E-Mail : penshot@naver.com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 韓国放送作家協会 脚本家 / 韓国广播作家协会 编剧 / KTRWA Writer
주요작품	- KBS2 블러드 (2015) - OCN 신의 퀴즈 (2014) - KBS2 굿닥터 (2013)
수상경력	- 2013 제6회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작가상
主な作品	- KBS2 ブラード(2015) - OCN 神のクイズ(2014) - KBS2 グッドドクター(2013)
受賞経歴	- 2013 第6回コリアドラマアワーズ・作家賞
主要作品	- KBS2《血液》(2015) - OCN《神的测试》(2014) - KBS2《好医生》(2013)
得奖经历	- 2013年 第6届韩国电视剧奖 作家奖
Major Works	- KBS2 Blood (2015) - OCN Quiz Of God (2014) - KBS2 Good Doctor (2013)
Awards	- 2013 6th Korea Drama Awards Writer prize



	Jisul ROH
	노지설
	ノ・ジソル **(F) Drama**
	E-Mail :hegyboom@hanmail.net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 韓国放送作家協会 脚本家 / 韓国广播作家协会 编剧 / KTRWA Writer
주요작품	- KBS TV 베스트극장『못한 여자 했던 남자』외 - SBS TV 추석특집극『깜근이 엄마』 - 미니시리즈『닥터챔프』,『여인의 향기』
主な作品	- KBS TV ベスト劇場『(仮題)できない女、してた男』ほか - SBS TV 旧盆特集劇『(仮題)カムグニのママ』 - ミニシリーズ『ドクター・チャンプ』『女の香り』
主要作品	- KBS TV 最佳剧场《剩女和结过婚的男人》 - SBS TV 仲秋特辑剧《混血儿的妈妈》,(或者《明根的妈妈》) - 迷你系列《医生冠军》,《女人的香气》
Major Works	- KBS TV Bestseller Theater 'The woman who didn't do it, the man who did it', etc - SBS TV special drama for the Korean Thanksgiving Day 'Kamgeun's Mom' - Mini series 'Dr. Champ', 'Scent of a Woman'



	Eunkyoung YOON			
	윤은경			
	ユン・ウンキョン		**(F) Drama**	
	E-Mail :ggang74@hanmail.net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韓国放送作家協会 **脚本家**	韩国广播作家协会 编剧	KTRWA Writer

주요작품	- KBS『겨울연가』,『낭랑 18세』,『눈의 여왕』 - KBS『밤이면 밤마다』,『아가씨를 부탁해』 - KBS『총리와 나』 외 다수
主な作品	- KBS『冬のソナタ』,『ランラン18歳』,『雪の女王』 - KBS『ラブ・トレジャー～夜になればわかること～』,『お嬢さまをお願い!』 - KBS『総理と私』ほか多数
主要作品	- KBS『冬日恋歌』,『新娘18岁』,『雪之女王』 - KBS『每天夜晚』,『拜托小姐』 - KBS『总理和我』外多数
Major Works	- KBS『Winter Sonata』,『Sweet 18』,『The Snow Queen』 - KBS『When It's At Night』,『My Fair Lady』 - KBS『The Prime Minister and I』and more.

Participants' Profiles

- Korea -

Producers



	Changsik PARK			
	박창식			
	パク・チャンシク		**(M) Drama**	
	E-Mail : pcs963963@naver.com			
	한국드라마 제작사협회회장 새누리당 국회의원	**韓国ドラマ制作会 社協会会長 セヌリ党国会議員**	韩国电视剧 制作社协会会长 新国家党议员	CODA Chairman Member of the Saenuri Party

약력	- 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전(前) 김종학프로덕션 대표이사 - 현)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등
주요작품	- SBS『모래시계』,『추적자』 - MBC『태왕사신기』,『이산』,『베토벤 바이러스』,『풀하우스』등
プロフィール	- ドラマ製作社協会会長, キム・ジョンハクプロダクション前代表取締役 - (現)19代セヌリ党国会議員、セヌリ党広報企画本部長 - ピョンチャン冬季オリンピック及び国際競技大会支援特別委員会 委員 など
主な作品	- SBS『砂時計』,『追跡者』 - MBC『太王四神記』,『イ・サン』,『ベートーベンウイルス』,『Full House』など
简历	- 电视剧制作社协会会长，前金钟学制作董事长 - 19届新国家党议员， 新世界党宣传计划本部长 - 新世界党院内部代表、新世界党文化艺术TF委员长等
主要作品	- SBS《沙漏》、《追踪者》 - MBC《太王四神记》、《李算》、《贝多芬病毒》、《浪漫满屋》等
Profile	- Chairman of CODA, Former CEO of KIMJONGHAK Production - A member of 19th Saenuri Party, Manager of The promotion and planning Division - Member of Special Committee for PyeongChang and Other International Soprts Event
Major Works	- SBS『Sandglass』,『The Chaser』 - MBC『The Legend』,『Yi San』,『Beethoven Virus』,『Full House』and more



Jehyun AHN	
안제현	
アン・ジェヒョン	**(M) Drama**
E-Mail : ahnjehyun@hotmail.com	

㈜삼화네트웍스 대표이사	㈱三和ネットワークス 代表取締役	(株)三和网络 代表理事	SAMHWA NETWORKS CEO

주요작품	- KBS 『가족끼리 왜이래』 『참 좋은 시절』 『제빵왕 김탁구』, JTBC 『무자식 상팔자』 - SBS 『세번 결혼하는 여자』, MBC 『구가의 서』, 후난위성TV 『봉신 封神)』외 다수
수상경력	- 2014 아시아 레인보우 TV 어워드 사극부문 작품상 『구가의 서』 - 2010 대한민국 콘텐츠어워드 방송영상그랑프리 대통령상 『제빵왕 김탁구』
主な作品	- KBS『家族同士で何するの』,『本当に良い時代』,『製パン王キム·タック』, JTBC『子なしが最高』 - SBS『3度結婚する女』, MBC『九家(クガ)の書』,『湖南衛星TV『ボンシン(封神)』他多数 』ほか多数。
受賞経歴	- 2014 アジアレインボーテレビアワード史劇部門作品賞『九家(クガ)の書』 - 2010大韓民国コンテンツアワード放送映像グランプリ大統領賞『製パン王キム·タック』
主要作品	- KBS『家人之间为何这样』『真是好时节』『面包王金卓求』, JTBC『无子女便是福』 - SBS 『三次结婚的女子』, MBC 『九家之书』, 湖南卫视『封神』外多数
得奖经历	- 2014 亚洲彩虹奖史剧部门作品将『九家之书』 - 2010 大韩民国Contents Award 放松影视最优秀奖总统将『面包王金卓求』
Major Works	- KBS『What Happens to my family』,『Wonderful Days』,『King of Bakery, Kim Takgu』JTBC『Childless Comfort』 - SBS『The Woman Who Married Three Times』, MBC『Gu Family Book』, HunanTV『The Gods』and more
Awards	- 2014 Asia Rainbow TV Awards, Best Historical Drama『Gu Family Book』 - 2010Korea Contents Awards, President's Citation『King of Bakery, Kim Takgu』



Hajung BYUN	
변하정	
ピョン・ハジョン	**(F) Drama**
E-Mail : byun@ihq.co.kr	

㈜아이에이치큐 관계자/대리	(株)iHQ 関係者/代理	(株) IHQ 关系人/代理	IHQ, Inc. Assistant manager

주요작품	- MBC <우리 결혼했어요 세계판> 시즌1,2 사업기획 및 해외판매
主な作品	- MBC『私たち結婚しました 世界版』シーズン1、2 事業企画および海外販売
主要作品	- MBC《 我们结婚了国际篇》1,2季 业务企划及海外销售
Major Works	- Established the business plan for, and was in charge of overseas sales of, MBC <We Got Married Global Edition> Season 1 and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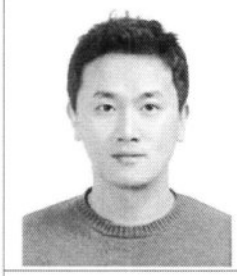
Miae CHO				
조미애				
チョ·ミエ			**(F) Drama**	
E-Mail : newchomiae@daum.net				
㈜ 뉴컴 제작가/대표이사	(株)ニューコム 制作者/代表理事	(株) NEWCOM 制片人 / CEO	NEWCOM Inc. Producer / CEO	

주요작품	- KBS<연예가중계>,<영상포엠 내마음의 여행>,<100년의 기업>등 - SBS<실리콘밸리의 한국인들>,<니코틴과의 전쟁>,<백암중대 80일간의 기록>등
수상경력	- 2008 KBS 우수제작사, 교육부장관 감사장 - 2011 KIPA 우수작품상/ 2013 KIPA 작가상
主な作品	- KBS『芸能街中継』『映像ポエム 心の旅』『100年の企業』など - SBS『シリコンバレーの韓国人たち』『ニコチンとの戦い』『白岩中隊 80日間の記録』など
受賞経歴	- 2008 KBS 優秀制作会社、教育部長官 感謝状 - 2011 KIPA 優秀作品/ 2013 KIPA 作家賞
主要作品	- KBS《演艺街直播 》、电视诗歌《我的心灵之旅》，《百年老店》等。 - SBS《硅谷里的韩国人》，《与尼古丁的战争》，《白岩中队80天记录》等
得奖经历	- 2008 KBS 优秀制作公司、教育部长官 感谢奖 - 2011 KIPA 优秀作品奖/2013 KIPA 作家奖
Major Works	- KBS <Entertainment Weekly>, <Video Poem - a trip of my mind>, <Companies Lasting A Century>, etc - SBS <Koreans in Silicon Valley>, <War on nicotine>, <80 days' record of Baekam company (troop)>, etc
Awards	- 2008 KBS Best Production Company, Letter of appreciation from the Minister of Education - 2011 KIPA Best Work / 2013 KIPA Writer Pr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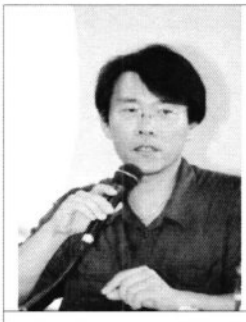
Jaehee CHUNG				
정재희				
チョン·ジェヒ			**(F) Drama**	
E-Mail : jhchung@taewonent.co.kr				
태원엔터테인먼트 제작가/대표이사	Taewon Entertainment プロデューサー/ 代表理事	泰元娱乐 制片人 / CEO	Taewon Entertainment Producer / CEO	

주요작품	- 아이리스1&2 , 아테나, 트라이앵글, 달콤한 패밀리등
수상경력	- 아이리스 국무총리상, 백상 제작사상
主な作品	- ドラマ「IRIS－アイリス-」1～2、「ATHENA－アテナ－」「甘いファミリー」など
受賞経歴	- 「IRIS－アイリス-」:国務総理賞、百想芸術大賞(プロデューサー賞)
主要作品	- 《爱丽丝》1&2 、《雅典娜》、《三角（Triangle）》、《甜蜜的家庭》等
得奖经历	- 《爱丽丝》获国务总理奖及百想艺术大奖 制片人奖
Major Works	- 'Iris 1&2', 'Athena', 'Triangle', 'Sweet Family', etc
Awards	- 'Iris': Prime Minister's Award, Paeksang Arts Awards (Best Producer)



Kiyong HWANG			
황기용			
ファン・キヨン		(M) Drama	
E-Mail : kiyonghwang@naver.com			
㈜아이에이치큐 제작본부장	㈱iHQ 本部長	（株）iHQ 制作本部长	iHQ Inc General Manager

주요작품	- SBS『피노키오』,『뿌리 깊은 나무』 - MBC『고맙습니다』 - KBS『아이언맨』,『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主な作品	- SBS『ピノキオ』,『根の深い木』 - MBC『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KBS『アイアンマン』,『優しい男』
主要作品	- SBS『匹诺曹』,『根深的木』 - MBC『谢谢』 - KBS『钢铁人』,『世上找不到的善良男子』
Major Works	- SBS『Pinocchio』,『Deep Rooted Tree』 - MBC『Thank You』 - KBS『Iron Man』,『The Innocent Man』



Chungmin KIM			
김정민			
キム・ジョンミン		(M) Drama	
E-Mail : raskorea@hanmail.net			
SBS 드라마본부 제작자/부장	SBS ドラマ本部 制作者/部長	SBS 电视剧本部 制片人/部长	SBS Drama Division Producer/Director

주요작품	- SBS "나만의 당신", "천만번 사랑해", "미워도좋아", "천국의 아이들" 등
主な作品	- SBS『私だけのあなた』『千万回愛してます』『憎くても好き』,『(仮題)天国の子どもたち』など
主要作品	- SBS《只属于我的你》,《爱你千万次》,《讨厌也喜欢》,《天国的孩子们》等
Major Works	- SBS 'You're Only Mine', 'Loving You a Thousand Times', 'Cannot Hate You', 'Children of Heaven', etc



Hojoon KIM	
김호준	
キム・ホジュン	**(M) Drama**
E-Mail : maestralle@mbc.co.kr	

㈜문화방송 제작자 / 차장	(株)文化放送(MBC) プロデューサー/次長	(株)文化广播 制片人 / 次长	MBC Producer/ General Manager

주요작품	- 2012 <무신>, <아랑사또전> 제작프로듀서 - 2013 <여왕의교실> 제작, <제왕의딸수백향>, <오로라공주> 제작프로듀서 - 2014 <대장금2> 기획, <트라이앵글> 제작프로듀서, <오만과편견> 제작 - 2015 <여자를울려> 제작프로듀서
主な作品	- 2012「武神」「アラン使道伝－アランサトデン－」制作プロデューサー - 2013「女王の教室」制作、「帝王の娘 スベクヒャン」「オーロラ姫」制作プロデューサー - 2014「チャングムの誓い2」企画、「トライアングル」制作プロデューサー、「傲慢と偏見」制作 - 2015「女を泣かせる」制作プロデューサー
主要作品	- 2012《武神》,《阿郎使道传》制作总监。 - 2013《女王的教室》制片,《帝王的女儿守百香》,《欧罗拉公主》制作总监。 - 2014《大长今2》企划,《三角 (Triangle) 》制作总监 ,《傲慢与偏见》制片。 - 2015《让女人哭泣》制作总监。
Major Works	- 2012 'God of War', 'Arang and the Magistrate': Executive producer - 2013 'The Queen's Classroom', 'King's Daughter, Soo Baek Hyang', 'Princess Aurora': Executive producer, - 2014 'Dae Jang Geum 2': Managing and planning, - 2014 'Triangle', 'Pride and Prejudice': Executive producer - 2015 'Make a Woman Cry': Executive producer



Minji KIM	
김민지	
キム･ミンジ	**(F) Drama**
E-Mail : efumocf@naver.com	

㈜에이스토리 제작자/팀장	(株)Aストーリー 制作者/チーム長	(株) A Story 制片人/组长	A Story Producer/Deputy Director

주요작품	- SBS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나는 전설이다>, <여인의 향기> 제작 - tvN <후아유> 제작 - MBC <메디컬 탑팀> 제작 - KBS <오늘부터 사랑해> 제작
主な作品	- SBS『僕には愛しすぎる彼女』『私は伝説だ』『女の香り』制作プロデューサー - tvN『君を守る恋～Who Are You～』 - MBC『メディカル･トップチーム』制作プロデューサー - KBS『(仮題)今日から愛してる』制作プロデューサー
主要作品	- SBS《对我而言，可爱的她》,《我是传说》,《女人的香气》制作总监 - tvN《你是谁》制作总监 - MBC《医学团队》制作总监 - KBS《今天开始我爱你》制作总监
Major Works	- SBS 'She's So Lovable', 'I Am Legend', 'Scent of a Woman' - tvN 'Who Are You?' - MBC 'Medical Top Team' - KBS 'From today I Love You'



Hyokyung LEE			
이효경			
イ·ヒョギョン		(F) Drama	
이관희프로덕션 제작자/이사	イ·グァンヒプロダクション 制作者/理事	LKH Production 制片人/理事	LKH Production Producer/Managing Director

주요작품	- MBC 엄마(2015), JTBC 맏이, SBS 패션왕 외 다수
수상경력	- 2000년 <육남매> 제 27회 한국방송대상 외주제작부문 우수작 수상
主な作品	- MBC『ママ』(2015)，JTBC『約束のない恋』，SBS『ファッション王』ほか 多数
受賞経歴	- 2000年『６人きょうだい』第27回 韓国放送大賞　外注制作部門優秀賞受賞
主要作品	- MBC《妈妈》(2015), JTBC《老大》, SBS《时尚王》等多部作品
得奖经历	- 2000年《六个孩子》获 第 27届 韩国广播电视大奖 外包制作部分优秀奖
Major Works	- MBC: 'Mother'(2015), JTBC: 'Firstborn', SBS: 'Fashion King'
Awards	- 'Brothers and Sisters' (2000): the 29th Korea Broadcasting Awards (Best Outsourcing Production Work)



Myungsook LEE			
이명숙			
イ·ミョンスク		(F) Drama	
E-Mail : myso2@hanmail.net			
주식회사 예인이앤엠 대표이사/제작자	(株) Yein E&M 代表理事/ プロデューサー	(株) Yein E&M CEO/制片人	Yein E&M CEO/Producer

주요작품	- 동그라미가족, 물병자리, 시티홀, 스타일, 닥터챔프, 천일의약속, 다섯손가락, 루비반지, 왔다장보리, 뻐꾸기둥지
수상경력	- "고추루트를 찾아서" 한국방송위원회 대상 프로그램 기획부문 수상 외 다수
主な作品	- ドラマ―「円満家族」「みずがめ座～AQUARIUS～」「シティーホール」「ドクター·チャンプ」「千日の約束」「蒼のピアニスト」「ルビーの指輪」「私はチャン·ボリ！」「カッコウの巣」
受賞経歴	- 「トウガラシのルーツを求めて」放送委員会大賞番組(企画部門)受賞ほか多数
主要作品	- 《圆满家族》、《水瓶座》、《市政厅》、《风格》、《医生冠军》、《千日的约定》、《五个手指头》、《红宝石戒指》、《来了！张宝利》、《杜鹃之巢》
得奖经历	- 《辣椒寻根》(或《寻找辣椒的足迹》)获韩国广播电视委员会大奖（节目企划部分）
Major Works	- 'Circle Family', 'Aquarius', 'The City Hall', 'Style', 'Dr. Champ', 'A Thousand Days' Promise', 'Five Fingers', 'Ruby Ring', 'Jang Bo-ri is Here!', 'Two Mothers'
Awards	- 'Looking for the pepper route': Korea Broadcasting Commission Grand Prize (Program planning category), among many others



Samyong LEE			
이삼용			
イ・サンヨン		(M) Drama	
E-Mail : samxlee@naver.com			
로고스필름(주) 감사/제작자	(株) ロゴスフィルム 監事/制作者	Logos Film 审计员/制片人	Logos Film Auditor/Producer

약 력	- 2015 ~ 로고스필름(주) 감사 - 2013 ~ 2015 로고스필름(주) 대표이사
주요작품	- 2013 KBS 월화드라마 <굿닥터>, JTBC 월화미니시리즈 <그녀의 신화> - 2014 SBS 주말극장 <기분좋은날>
プロフィール	- 2015 ~ (株) ロゴスフィルム 監事 - 2013 ~ 2015 (株) ロゴスフィルム 代表取締役
主な作品	- 2013 KBS 月火ドラマ< グッドドクター >, JTBC 月火ミニーシリーズ<彼女の神話> - 2014 SBS 週末劇場<気分良いの日>
简历	- 2015 ~ Logos Film 审计员 - 2013 ~ 2015 Logos Film 董事长
主要作品	- 2013 KBS 月火剧《好医生》, 2013 JTBC 月火迷你系列《她的神话》 - 2014 SBS 周末剧场《心情好的日子》
Profile	- 2015 ~ Logos Film Auditor - 2013 ~ 2015 Logos Film CEO
Major Works	- 2013 KBS <Good Doctor>, JTBC <Her Legend> - 2014 SBS <Glorious Day>



Hwanmin OH			
오환민			
オ·ファンミン		(M) Drama	
E-Mail : beangood@naver.com			
FNC엔터테인먼트 제작자/총괄프로듀서	FNCエンターテイメント 制作者/総括プロデューサー	FNC娱乐 制片人 /总编导	FNC Entertainment Producer/Executive Producer

주요작품	- SBS "내게 거짓말을 해봐", "식객", "강남엄마 따라잡기" 프로듀서 - KBS "학교2015-후아유", "칼과꽃", "각시탈" 제작총괄 - MBC 미니시리즈 "뉴 하트" 프로듀서 - EBS "씨네마 천국" 연출 외 다수
主な作品	- SBS『私に嘘をついてみて』『食客』『江南(カンナム)ママの教育戦争』プロデューサー - KBS『Who are you-学校2015』『剣と花』『(仮題)Bridal Mask』制作総括 - MBC ミニシリーズ『ニューハート』プロデューサー - EBS『シネマパラダイス』演出 ほか 多数
主要作品	- SBS《对我说谎试试》、《食客》、《追赶江南妈妈》编导 - KBS《Who Are You-学校2015》、《刀与花》、《新娘面具》制作总监 - MBC 迷你系列《赤子之心》编导 - EBS《天堂剧院》导演等多部
Major Works	- SBS "Lie to Me", "Gourmet", "Catch a Kang Nam Mother" (Producer) - KBS "Who Are You: School 2015", "The Blade and Petal", "Bridal Mask" - MBC mini series "New Heart" (Executive Producer) - EBS " Cinema Paradiso" (Executive Producer, Director)



	Donghui PARK			
	박동휘			
	パク・ドンフィ		**(F) Drama**	
	E-Mail : pdhui0924@naver.com			
	㈜김종학프로덕션 프로듀서	キム・ジョンハク プロダクション プロデューサー	金钟学制作 制片人	KIMJONGHAK Production Producer
주요작품	- MBC『여왕의 꽃』,『화정』,『마의』,『더킹투하츠』 - KBS2『복면검사』,『힐러』 - JTBC『순정에 반하다』			
主な作品	- MBC『女様の花』,『華政』,『馬医』,『キング～Two Hearts』 - KBS2『覆面検事』,『ヒーラー 』 - JTBC『純情に惚れた』			
主要作品	- MBC《女王之花》、《华政》、《马医》、《爱上王世子》 - KBS2《蒙面检察官》、《治愈者》 - JTBC《陷入纯情》			
Major Works	- MBC『Queen's Flower』,『Splendid Politics』,『The King's Doctor』,『The King 2 Hearts』 - KBS2『Masked Prosecutor』,『Healer』 - JTBC『Falling for Innocence』			



	Jaesam PARK			
	박재삼			
	パク・ゼサム		**(M) Drama**	
	E-Mail : jspark@dreamenm.com			
	㈜드림이앤엠 대표이사/제작자	(株) Dream E&M 代表理事/制作者	Dream E&M 董事长/制片人	Dream E&M CEO/Producer
주요작품	- MBC 미니시리즈 <내생애봄날> - KBS 주말특별기획 <왕가네식구들> - KBS 미니시리즈 <태양은가득히>, <천명> 외 다수			
主な作品	- MBCミニーシリーズ＜私の生涯の春の日＞ - KBS 週末特別企画＜ワン家の家族たち＞ - KBSミニーシリーズ＜ 太陽はいっぱいに＞、＜天命＞そのほか多数			
主要作品	- MBC 迷你系列 《我人生的春天》 - KBS 周末特别企划《王家一家人》 - KBS 迷你系列《阳光满溢》、《天命》之外多数			
Major Works	- MBC <My spring Days> - KBS <Kings Family> - KBS <The Full Sun>, <Cheonmyeong> among many others			



	Jongwoo PARK			
	박종우			
	パク・ジョンウ		**(M) Drama**	
	E-Mail : john@kbsmedia.co.kr			
	KBS미디어 드라마부 제작자/제작팀장	KBSメディア ドラマ部 制作者 /制作チーム長	KBS传媒及电视剧部 制片人/制作组组长	KBS Media Drama Department Producer/ Production Chief

약 력	- 2015년 KBS 드라마 어셈블리 제작팀장 - 2014년 KBS 드라마 왕의 얼굴 제작팀장
プロフィール	- 2015年 KBSドラマ『(仮題)アセンブリー』制作チーム長 - 2014年 KBSドラマ『王の顔』制作チーム長
简历	- 2015年 KBS 电视剧《Assembly》制作组组长 - 2014년 KBS 电视剧《王的面孔》制作组组长
Profile	- 2015: KBS drama 'Assembly' Production chief (production manager) - 2014: KBS drama 'The King's Face' Production chief (production manager)



	Sangju PARK			
	박상주			
	パク・サンジュ		**(M) Drama**	
	E-Mail : sha6dy@gmail.com			
	한국드라마 제작사협회 사무국장	**韓国ドラマ 制作会社協会 事務局長**	韓国电视剧 制作社协会 事务局长	CODA Director

약 력	-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국장 - 한국드라마프로듀서협회 사무국장
주요작품	- SBS『떼루아』
プロフィール	- (財) 韓国大衆文化芸術産業総連合副局長 - 韓国プロデューサー協会事務局長
主な作品	- SBS『テロワール』
简历	- 社团法人韩国大众文化艺术产业总联合副局长 - 韩国电视剧制作人协会事务局长
主要作品	- SBS『Terroir』
Profile	- Deputy Directorof Korean Federation of Pop Culture and Art Industry (KFPCAI) - Director of Korean Drama Producer's Union
Major Works	- SBS『Terroir』



	Sangyoon SHIN 신상윤 シン·サンユン		**(M) Drama**	
	E-Mail : syshin@hotmail.com			
	㈜삼화네트웍스 대표이사	㈱三和ネットワークス 代表理事	(株)三和网络 董事长	SAMHWA NETWORKS CEO

주요작품	- KBS『가족끼리 왜이래』,『참 좋은 시절』,『제빵왕 김탁구』 - JTBC『무자식 상팔자』 - SBS『세번 결혼하는 여자』, MBC『구가의 서』, 후난위성TV『봉신 封神)』외 다수
수상경력	- 2014 아시아 레인보우 TV 어워드 사극부문 작품상『구가의 서』 - 2010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방송영상그랑프리 대통령상『제빵왕 김탁구』
主な作品	- KBS『家族同士で何するの』,『本当に良い時代』,『製パン王キム·タック』 - JTBC『子なしが最高』 - SBS『3度結婚する女』, MBC『九家(クガ)の書』ほか多数, 湖南衛星TV『ボンシン(封神)』ほか多数
受賞経歴	- 2014 アジアレインボーテレビアワード史劇部門作品賞 『九家(クガ)の書』 - 2010 大韓民国コンテンツアワード放送映像グランプリ大統領賞『製パン王キム·タック』
主要作品	- KBS『家人之间为何这样』,『真是好时节』,『面包王金卓求』 - JTBC『无子女便是福』外多数 - SBS『三次结婚的女子』, MBC『九家之书』, 湖南卫视『封神』外多数
得奖经历	- 2014 亚洲彩虹奖史剧部门作品将『九家之书』 - 2010 大韩民国Contents Award 放松影视最优秀奖总统将『面包王金卓求』
Major Works	- KBS『 What Happens to my family』,『Wonderful Days』,『King of Bakery, Kim Takgu』 - JTBC『Childless Comfort』 - SBS『The Woman Who Married Three Times』, MBC『Gu Family Book』, HunanTV『The Gods』and more
Awards	- 2014 Asia Rainbow TV Awards, Best Historical Drama『Gu Family Book』 - 2010Korea Contents Awards, President's Citation『King of Bakery, Kim Takgu』



Kiwon Son

손기원

ソン・ギウォン

(F) Drama

E-Mail : kiwon@kjhpro.com

김종학 프로덕션 대표이사	キム・ジョンハク プロダクション 代表理事	金钟学制作 董事长	KIMJONGHAK Production CEO

주요작품	- KBS『복면검사』,『힐러』,『빅맨』, SBS『너의 목소리가 들려』,『추적자』 - MBC『화정』,『여왕의 꽃』,『마의』, JTBC『순정에 반하다』 외 다수
수상경력	- 2013 제49회백상예술대상 TV부문드라마작품상『추적자』 - 2013 방송통신위원회방송대상우수상『추적자』 - 2012 문화체육관광부표창장 - 2012 MBC프로그램제작상특별상
主な作品	- KBS『覆面検事』,『ヒーラー』,『ビッグマン』, SBS『君の声が聞こえる』,『追跡者』 - MBC『華政』,『女王の花』,『馬医』, JTBC『純情に惚れた』ほか多数。
受賞経歴	- 2013年 第49回百想芸術大賞TV部門ドラマ作品賞『追跡者』 - 2013年 放送通信委員会放送大賞・優秀賞『追跡者』 - 2012年 文化体育観光部表彰 - 2012年 MBC番組制作賞・特別賞
主要作品	- KBS『蒙面检察官』,『治愈者』,『大人物』, SBS『能听见你的声音』,『追寻者』 - MBC『华政』,『女王之花』,『马医』, JTBC『陷入纯情』外多数
得奖经历	- 2013 第49回百想艺术大奖TV部门作品奖『追寻者』 - 2013 放松通信委员会放松大奖优秀奖『追寻者』 - 2012 文化体育观光部表彰 - 2012 MBC节目制作奖特别奖
Major Works	- KBS『Masked Prosecutor』,『Healer』,『Big Man』, SBS『I Can Hear Your Voice』,『The Chaser』 - MBC『Queen's Flower』,『Splendid Politics』,『The King's Doctor』, JTBC『Falling for Innocence』 and more
Awards	- 2013 The 49th Paeksang Arts Awards, Best Program『The Chaser』 - 2013 Broadcasting Awards, Excellence Award - 2012 Citation from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2012 MBC Program Production Reward Special Reward



Weonseop SONG

송원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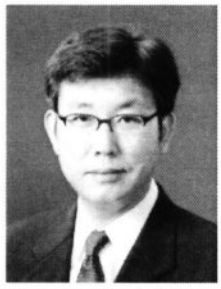
ソン・ウォンソプ

(M) Drama

E-Mail : song.weonseop@jtbc.co.kr

드라마하우스 제작자/기획팀장	ドラマハウス 制作者・企画 チーム長	戏剧之家 制片人/策划组长	Drama House Producer/Deputy Director of Policy Planning Office

주요작품	- 사랑하는 은동아(JTBC) CP - 라스트 (JTBC) 제작
主な作品	- 『(仮題)愛しのウンドン』(JTBC) CP - 『(仮題)ラスト』(JTBC) 制作
主要作品	- 《亲爱的恩东啊》(JTBC) CP - 《最后》(《Last》) (JTBC) 制作
Major Works	- CP: JTBC 'Beloved Eun-dong' - Producing: JTBC 'Last'



	Changbeom YOON			
	윤창범			
	ユン・チャンボム		**(M) Drama**	
	E-Mail : happyoon@kbsmedia.co.kr			
	KBS & KBS 미디어 제작자/제작본부장	KBS & KBSメディア 制作者/制作本部長	KBS & KBS MEDIA 制片人/制作本部长	KBS & KBS MEDIA Proucer/Executive Managing Director of Production Office
주요작품	- <왕과비> <명성황후> <무인시대> <서울 1945> 등 연출 - <왕의얼굴>, <어셈블리>, <부탁해요 엄마> 제작			
수상경력	- 2007 제19회 한국방송프로듀서상 '올해의 프로듀서상' - 2007 제43회 백상예술대상 TV작품상(서울1945) - 2007 제34회 한국방송대상 대상(방송예술)			
主な作品	- 『王と妃』『明成(ミョンソン)皇后』『武人時代』『ソウル1945』など演出 - 『王の顔』『(仮題)アセンブリー』『(仮題)お願いよ ママ』制作			
受賞経歴	- 2007 第19回 韓国放送プロデューサー賞「今年のプロデューサー賞」 - 2007 第43回 百想芸術大賞 TV作品賞(『ソウル1945』) - 2007 第34回 韓国放送大賞賞 大賞(放送芸術)			
主要作品	- 《王与妃》,《明成皇后》,《武人时代》,《首尔1945》等导演 - 《王的面孔》,《Assembly》,《拜托了,妈妈》 制作			
得奖经历	- 2007 第19届韩国广播电视制作人奖 "年度制作人奖" - 2007 第43届百想艺术大奖 电视作品奖《首尔1945》 - 2007 第34届韩国放送大奖 (放送艺术)			
Major Works	- Directing: 'The King and Queen', 'Empress Myeongseong', 'Age of Warriors', 'Seoul 1945', etc - Producing: 'The King's Face', 'Assembly', 'All About My Mom'			
Awards	- The 19th Korea PD Awards in 2007: 'Producer of the Year' - The 43rd Paeksang Arts Awards in 2007: 'Best TV Drama' (Seoul 1945) - The 34th Korean Broadcasting Prize: 'Grand Prize' (Broadcasting&Arts)			



	Gowoon YUN			
	윤고운			
	ユン·ゴウン		**(F) Drama**	
	E-Mail : dolcevita96@hanmail.net			
	팬엔터테인먼트 제작자/드라마기획 본부장	PANエンタテインメント 制作者/ドラマ企画 本部長	Pan娱乐 制片人/电视剧 企划本部长	Pan Entertainment Producer/Executive Managing Director of Drama Planning Division
주요작품	- KBS '골든크로스', 신의 저울', '소문난 칠공주', '여름향기' 등 기획프로듀서 - MBC '킬미, 힐미', '마마', '전설의 마녀' 등 기획총괄 - SBS '열애', '찬란한 유산', tvN '갑동이' 기획총괄			
主な作品	- KBS『ゴールデンクロス』『神の天秤』『噂のチル姫』『夏の香り』など企画プロデューサー - MBC『キルミー、ヒールミー』『ママ～最後の贈りもの～』『伝説の魔女』など企画総括 - SBS『熱愛』『華麗なる遺産』, tvN『カプトンイ 真実を追う者たち』企画総括			
主要作品	- KBS《黄金交叉》、《神的礼物》、《传闻中的七公主》、《夏日香气》等企划总监 - MBC《杀了我治愈我 (Kill Me Heal Me) 》、《娘娘》、《传说的魔女》等企划总监 - SBS《热爱》、《灿烂的遗产》, tvN《岬童夷》企划总监			
Major Works	- KBS 'Golden Cross', The Scale of Providence', 'Famous Chil Princesses', 'Summer Scent', etc (General Management) - MBC 'Kill Me, Heal Me', 'Mama', 'The Legend of the Witch', etc - SBS 'Passionate Love', 'Brilliant Legacy', tvN 'Gap-dong'			

Participants' Profiles

- Japan -

Writers



Izumi FUJIMORI			
후지모리 이즈미		**藤森いずみ**	
フジモリ・イズミ		**(F) Drama**	
E-Mail : i.fuzimori@ap.wakwak.com			
일본방송작가협회 작가	**日本放送作家協会** **脚本家**	日本广播作家协会 编剧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of Japan Writer

약 력	- 일본대학 예술학부 방송학과 비상근강사
주요작품	- 극화 『꽃의 케이지』(점프 코믹스 외) 전 18권 - NHK 『중학생 일기』, 『상쾌한 3반』, 『무지개 빛 정기편』 - 『화요서스펜스 극장』 등 2시간 드라마 - NHK FM 시어터 『빨간버스』(예술제 참가) - 『읽으면 연기하고 싶어지는 극본』 - 『전국무사열전』
プロフィール	- 日大芸術学部 放送学科 非常勤講師
主な作品	- **劇画『花の慶次』(ジャンプコミック・その他) 全18巻** - **NHK『中学生日記』,『さわやか3組』,『虹色定期便』** - **『火曜サスペンス劇場』など２時間ドラマなど。** - **NHKFMシアター『赤いバス』(芸術祭参加)** - **『読んで演じたくなるゲキの本』(幻冬社)** - **『戦国武将列伝』(宝島社)**
简历	- 日本大学 艺术学院 传播系 非责任讲师
主要作品	- 漫画 『花的Keiji』 (Jump Comics) 全18册 - NHK 『中学生日记』, 『清爽的3班』, 『彩虹光定期篇』 - 『周二悬念剧场』等两个小时电视剧 - NHK FM 剧场 『红色公共汽车』(参加过艺术节) - 『阅读后使人表演的剧本』 - 『全国武士列传』
Profile	- Nihon Univercity College of Art Broadcasting Instructor
Major Works	- Comics 『Hana no Keiji』(Jump Comics etc.) Complete with 18 Volumes - NHK 『Diary of the Middle School Student』, 『A Refreshing Class 3』, 『Regular Service with Rainbow Color』 - 『Tueseday Suspense Theater』 Genre is 2 hours Drama - NHK FM Theater 『Red Bus』 (Participate Art Festival) - 『Read on this of it want to become Geki play』 - 『Samurai Retsuden』



Kemeko HAZUKI			
하즈키 케메코			
はづき·けめこ		**(F) Drama**	
E-Mail : kemeko@mti.biglobe.ne.jp			
일본방송작가협회 작가	**日本放送作家協会** **脚本家**	日本广播作家协会 编剧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of Japan Writer

주요작품	- 붉은 수염이 사는 마을 (BS-TBS) - 데라다야의 오래된 시계(라디오일본) - 와카토 대교 이야기 (2016봄 공연, 북큐슈 예술극장)
수상경력	- '청년해외협력단 창설50주년 기념영화 시나리오 콘테스트' 입상 - '라디오일본 제2회 스기사키 토모스케 각본상'연간최우수상
主な作品	- 赤ひげのいるまち(BS-TBS) - 寺田屋の古時計(ラジオ日本) - 若戸大橋物語(2016春公演 北九州芸術劇場)
受賞経歴	- 「青年海外協力隊創設50周年記念映画シナリオコンテスト」入賞 - 「ラジオ日本 第2回杉崎智介脚本賞」年間最優秀賞
主要作品	- 《红色胡须生活的村庄》(BS-TBS) - 《寺田屋的老手表》(广播日本) - 若户大桥物语(2016春演出)北九州艺术剧场
得奖经历	- 青年海外合作队创建50周年纪念电影剧本比赛获奖 - 广播日本 第2届杉崎智介集剧本奖年度最优秀奖
Major Works	- A village where a red beard lives (BS-TBS) - Teradaya's old clock(Radio Japan) - A story of Wakato Bridge (2016 Spring performance, Kitakyushu Performing Arts Centre)
Awards	- 'A film scenario contest in celeb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JOCV (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win the prize - 'Radio Japan the 2nd Sugisaki Tomosuke Best Screenplay': Grand prize of the year



Takashi KATSUKI			
카츠키 타카시		香月 隆	
かつき·たかし		(M) Drama	
E-mail : Katsuki01@gmail.com			
일본방송작가협회 각본가/큐슈지부감사	日本放送作家協会 脚本家/九州支部 監事	日本广播作家协会 编剧/九州支部 审计员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of Japan Script writer / The auditor of the Kyushu branch

주요작품	- 라디오 다큐멘터리 '탱자꽃(카라타치노 하나)-사랑하는 아기노 아야코에게-' - TV 다큐멘터리 '전쟁터에 계신 아버지로부터의 편지'
수상경력	- 문화청 예술작품상 - 상해 백목련상 다큐멘터리부문
主な作品	- ラジオ からたちの花・私の愛する荻野綾子へ - テレビ 戦場の父よりの手紙
受賞経歴	- 文化庁芸術作品賞 - 白玉蘭奨(上海マグノリア・アワード)・記録片最佳
主要作品	- 广播纪实剧《枸橘花-致我亲爱的荻野绫子-》 - 电视纪录片《父亲战场上的来信》
得奖经历	- 文化厅艺术作品奖 - 上海白玉兰奖 最佳纪录片奖
Major Works	- Radio Documentary 'flower of Trifoliate orange' (karatachi-no-hana)-to beloved Agino Ayako-' - TV Documentary 'A letter from my father at war'
Awards	- Agency for Cultural Affairs Award: Works of Art Prize - Magnolia Award Shanghai: Documentary Category



Chikako KOMORI			
코모리 치카코			
こもり·ちかこ		(F) Drama	
E-Mail : chikakokomori660807@gmail.com			
각본가	脚本家	编剧	Script writer

주요작품	- 라디오 '죠스 선생', 'Tour de 아버지' - TV '동급생'
主な作品	- ラジオ「ジョーズ先生」「ツールド・おとさん」 - テレビ「同級生」
主要作品	- 广播《大鲨鱼老师》，《Tour de 你爸爸》 - TV 《同学》
Major Works	- Radio 'Teacher Jaws', 'Tour de Father' - TV 'Classmate'



Yasuhiro KOSHIMIZU

코시미즈 야스히로	輿水泰弘
コシミズ·ヤスヒロ	**(M) Drama**

E-Mail : kosimizu@h6.dion.ne.jp

일본시나리오 작가협회 작가	**日本シナリオ作家協会 脚本家**	日本剧本作家协会 编剧	Japan Writers Guild Writer

약 력	- 1960년생 일본 사이타마 출신, 오사카 예술대학 문예학과졸업 - 카피라이터를 거쳐 시나리오 작가에 이름
주요작품	- <사랑도 2번째 라면>, <사랑의 바캉스>, <뜨거운 것이 좋아?>, <달콤한 생활>, <기쿠지로와 사키>, <파트너>
수상경력	- 제23회 하시다상 수상
プロフィール	- 1960年生まれ，埼玉県出身，大阪芸術大学文芸学科卒 - コピーライターを経て脚本家に
主な作品	- **『恋も2度目なら』、『恋のバカンス』、『お熱いのがお好き？』、『甘い生活』、『菊次郎とさき』、『相棒』**
受賞経歴	- **第23回橋田賞受賞**
简历	- 1960年出生于日本埼玉，毕业于大阪艺术大学文艺系 - 通过广告撰稿人，成为编剧
主要作品	- 《如果爱情也有第二次的话》、《爱情的休假》、《热情似火？》、《甜蜜的生活》、《菊次郎和早纪》、《伙伴》
得奖经历	- 第23届橋田賞获奖
Profile	- 1960 Born in Saitama, Graduated Literature Department at Osaka Art Univ. - Started his career as copywriter before became a screenwriter
Major Works	- 『Koi mo Nidome nara』, 『Koi no Bakansu』, 『Some Like It Hot』, 『La dolce vita』, 『Kikujiro and Saki』, 『Partner』
Awards	- The 23rd Hashida Award



Kyoko MATUO			
마츠오 쿄코		松尾恭子	
まつお きょうこ		(F) Drama	
E-Mail : kyokoesprit2000@yahoo.co.jp			
일본방송작가협회 각본가/제작자 /크리에이터	日本放送作家協会 脚本家/制作者 /クリエーター	日本广播作家协会 编剧/制片人/企划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of Japan Writer/Producer/Creator

주요작품	- 방송 구성 작가 : cross FM '아니 짱 후쿠오카' 코너 구성・대본, COMI TEN 'Clock Radio' 구성・라디오드라마 대본 등 - FM 에히메 '쿄우코의 즐겁게 가자': cross FM 'Hyper Saturday', 'Club CHAOS' FM 후쿠오카 '보건실' 등
수상경력	- 쿠로츠자키(黒津崎) 음악축제 그랑프리, Autorama 마린블루 음악 축제 심사위원특별상 등
主な作品	- 構成作家・出演番組 : クロスFM「あに★ちゅん福岡」コーナー構成・台本, コミ天「クラークレディオ」構成・ラジオドラマ台本 など - FM愛媛「杏子のファニーで行こう！」: クロスFM「ハイパーサタデー」「Clubカオス」 FM福岡「保健室」など
受賞経歴	- 黒津崎音楽祭 グランプリ オートラマ マリンブルー音楽祭 審査員特別賞 など
主要作品	- 广电编剧: cross FM《Ani chan Fukuoka》栏目编剧、剧本, COMI TEN《Clock Radio》编剧, 广播剧剧本等 - FM 爱媛《一起去杏子的funny吧！》: cross FM《超级星期六》, 《Club CHAOS》 FM福冈《保健室》等
得奖经历	- 黒津崎音乐节最高奖, Autorama Marine Blue音乐节评审委员特别奖等
Major Works	- Script writer: cross FM 'Ani chan Fukuoka' craft・script, COMI TEN 'Clock Radio' craft・radio drama scripts, etc - FM Ehime 'Kyoko's let's go to funny': cross FM 'Hyper Saturday', 'Club CHAOS' FM Fukuoka 'Infirmary', etc
Awards	- Kurotuzaki Music Festival (Grand Prize), Autorama Marine Blue Music Festival (Jury Special Prize),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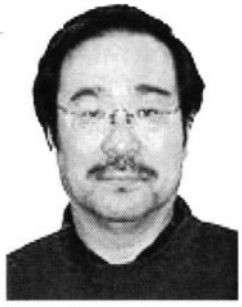
Kumiko MOTOYAMA			
모토야마 쿠미코			
もとやま くみこ		(F) Drama	
E-Mail : motoyamada@me.com			
일본방송작가협회 작가	日本放送作家協会 脚本家	日本广播作家协会 编剧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of Japan Writer

주요작품	- AKB라디오드라마 극장
主な作品	- AKBラジオドラマ劇場
主要作品	- AKB广播剧场
Major Works	- AKB Radio Drama Theatre



	Atsuko MORI			
	모리 아츠코 (모리 온코)			
	もり·あつこ		**(F) Drama**	
	E-Mail : onko@giga.ocn.ne.jp			
	일본방송작가협회 작가	**日本放送作家協会** **脚本家**	日本广播作家协会 编剧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of Japan Writer

약 력	- 영화홍보지 편집부, 일본 TV정보방송 구성대본, 광고 나레이션 원고, 하우스텐보스 메일 매거진, 나가사키 신문 지역정보판, 미나미노 시나리오 대상 각본 제1차 심사, 이키노쿠니마츠의 무대AD, 이사하야 시립도서관 시나리오 강좌 스텝
주요작품	- 도쿄FM 라디오드라마 'ON THE WAY COMEDY ~MICHIKUSA~' - FM세타가와 'PET FREAK 대백과' 라디오 드라마 '히메짱이 간다' - FM이시하야 라디오드라마 '지옥여행기'
プロフィール	- 映画広報誌編集部 日本テレビ情報番組構成台本 CMナレーション原稿 ハウステンボス·メールマガジン 長崎新聞地域情報版 南のシナリオ大賞脚本第一次審査 壱岐国まつの舞台演出補 諫早図書館シナリオ講座スタッフ
主な作品	- 東京FM ラジオドラマ「ON THE WAY COMEDY ～道草～」 - FM世田谷 ペットフリーク大集合 ラジオドラマ「ヒメちゃんが行く」 - FM 諫早 ラジオドラマ「地獄遊記」
简历	- 电影宣传杂志编辑部，日本电视资讯节目编播脚本，广告旁白稿，豪斯登堡每日杂志，长期新闻地域信息版， Minamino 剧本奖第一次评审， 壹岐国家matsuno舞台演出助理，谏早市立图书馆剧本讲座工作人员
主要作品	- 东京FM 广播剧《'ON THE WAY COMEDY ～MICHIKUSA～》 - FM世田谷《PET FREAK大百科》广播剧《公主就去》 - FM谏早广播剧《地域旅行记》
Profile	- Film PR brochures veditorial department, Script for Japanese TV information program, narration scripts for advertisements, Huis Ten Bosch mailzine, Nakasaki newspaper regional information sheets, a script for the Minamino Scenario Grand Prize - the first round screening, a stage AD for Ikinokunimatsu, a staff for scenario courses at the Isahaya municipal library
Major Works	- Tokyo FM Radio Drama 'ON THE WAY COMEDY ~MICHIKUSA~' - FM Setagaya Radio Drama 'PET FREAK' - FM Isahaya Radio Drama 'A travelogue of hell'



	Naotaka MORITA			
	모리타 나오타카		盛多直隆	
	もりた·なおたか		**(M) Drama**	
	E-Mail : morita@jc5.so-net.ne.jp			
	일본방송작가협회 각본가/큐슈지부장	**日本放送作家協会 脚本家/九州支部長**	日本广播作家协会 编剧/九州支部长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of Japan Script writer/The branch manager of Kyushu branch
주요작품	- 드라마 '내가 바로 사무라이다!'			
主な作品	- 「我こそサムライ！」			
主要作品	- 电视剧《我就是武士！》			
Major Works	- Drama 'I am the samurai!'			



	Haruka TANSE			
	탄세 하루카			
	タンセ·ハルカ		**(F) Drama**	
	E-Mail : funcrab_1978@yahoo.co.jp			
	일본방송작가협회 관계자/통역	**日本放送作家協会 関係者/通訳**	日本广播作家协会 相关人员/翻译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of Japan Official/Interpreter
주요작품	- 오디오 드라마 '아들을 위하여'			
主な作品	- オーディオドラマ『良子のために』			
主要作品	- 广播剧《为了儿子》			
Major Works	- Audio Drama 'For Son'			



	Chiho TSUNEMATSU			
	츠네마츠 치호			
	つねまつ·ちほ		**(F) Drama**	
	E-Mail : tsunechi@hotmail.com			
	일본방송작가협회 작가	**日本放送作家協会 脚本家**	日本广播作家协会 编剧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of Japan Writer
주요작품	- 「Cappabashidocia」, 「만두 군」			
主な作品	- 「合羽橋ドキア」·「まんじゅうくん」			
主要作品	- 《Cappabashidocia》、《馒头君》			
Major Works	- 「Cappabashidocia」, 「Manju Kun」			



Kei YAESE			
아야세 케이			
やえせ·けい		**(F) Drama**	
E-Mail : foru30mona@jcom.home.jp			
일본방송작가협회 각본가/제작자 /크리에이터	日本放送作家協会 脚本家/制作者 /クリエーター	日本广播作家协会 编剧/制片人/企划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of Japan Writer/Producer/Creator

주요작품	- '해바라기의 기억' - '야자나무 숲에 달이 뜬다'
수상경력	- 후쿠오카 시민 예술제상 - 오키나와 Movie Bank 영화각본심사위원 특별상
主な作品	- 「ひまわりの記憶」 - 「クバ林に月が昇る」
受賞経歴	- 福岡市民芸術祭賞 - 沖縄ムービーバンク映画脚本審査員特別賞
主要作品	- 《向日葵的记忆》 - 《椰子树林升明月》
得奖经历	- 福冈市民艺术季奖 - 冲绳Movie Bank电影剧本评审委员特别奖
Major Works	- 'Memory of the Sunflower' - 'There's a moon in the palm tree grove'
Awards	- Fukuoka Citizens Art Festival Award - Okinawa Movie Bank Jury Special Award for Scenario



Ritsuma YAMAMOTO			
야마모토 리츠마			
やまもと·りつま		**(M) Drama**	
E-Mail : ritsuyama_v_pc@yahoo.co.jp			
일본방송작가협회 작가	**日本放送作家協会 脚本家**	日本广播作家协会 编剧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of Japan Writer

주요작품	- 극단 카이 제 55회 공연 '해질녘의 방문자' 상연대본
수상경력	- 극단 카이 창작희곡 가작입상 - 제8회 미나미노시나리오 대상 후쿠오카 시장
主な作品	- 劇団櫂第55回公演『たそがれの訪問者』上演台本
受賞経歴	- 劇団櫂創作戯曲賞佳作入賞 - 第8回南のシナリオ大賞福岡市長賞
主要作品	- 剧团櫂第 55次演出《傍晚时分的访问者》演出剧本
得奖经历	- 剧团櫂创作戏曲奖 佳作奖 - 第8届南野剧本大奖 福冈市长奖
Major Works	- A script for the 55th performance of the threatre company KAI (Gekidan Kai): 'A visitor at sunset'
Awards	- A creative play for the threatre company KAI (Gekidan Kai): Honorable Mention - The 8th Minamino Scenario Grand Prize', 'Fukuoka Mayor Prize'



Junghee LEE

이정희 | **李正姬**

リ・ジョンヒ | **(F) Drama**

E-Mail : j.lee@mx3.ttcn.ne.jp

일본방송작가협회 작가	**日本放送作家協会 脚本家**	日本广播作家协会 编剧	Television and Radio Writer's Association of Japan Writer

주요작품	- NHK종합『한 밤중의 베이커리』, NHK BS 프리미엄『한탄의 미녀』 - 후지 테레비『사가의 대단한 할머니2』,『기묘한 이야기』 - TBS·MBS『어머니 선생님의 진료일기2&7』, TBS『호텔컨시어지』 - 테레비 아사히『과학수사연구원의 여자』,『교토인정수사파일』 - BS 재팬『마츠모토세이쵸 미스테리 시대극』
主な作品	- **NHK総合『真夜中のパン屋さん』, NHK BSプレミアム『嘆きの美女』** - **フジテレビ『佐賀のがばいばあちゃん2』,『世にも奇妙な物語』** - **TBS・MBS『おふくろ先生の診療日記2&7』, TBS『ホテルコンシェルジュ』** - **テレビ朝日『科捜研の女』,『京都人情捜査ファイル』** - **BSジャパン『松本清張ミステリー時代劇』**
主要作品	- NHK综合《深夜中的面包房》，NHK BS Premium 《悲叹的美女》 - Fuji TV《佐贺的很厉害的奶奶2》，《奇妙的故事》 - TBS・MBS《妈妈医生的诊疗日记2&7》，TBS《酒店礼宾部》 - 朝日电视《科技搜查研究院的女人》、《京都人情搜查文件》 - BS日本《松本清张不可思议时代剧》
Major Works	- NHK General『Midnight Bakery』, NHK BS Premium『Mourning Beauty』 - Fuji TV『Incredible Grandmother in Saga2』,『Tales of Unusual』 - TBS·MBS『Treatment Journal of Dr. Mother2&7』, TBS『Hotel Concierge』 - TV Asahi『Woman of the Crime Lab』,『Kyoto Ninjyo Sosa File』 - BS Japan『Matumoto Seicho Mistery Costume drama』

Participants' Profiles

- Japan -

Producers



Hitoshi KURAUCHI				
쿠라우치 히토시			倉内均	
クラウチ・ヒトシ			**(M) Drama**	
E-Mail : h.kurauchi@amalate.co.jp				
전일본TV프로그램 방송제작사연맹 이사장	**全日本テレビ番組 製作社連盟（ATP） 理事長**	全日本电视节目 制作公司联盟（ATP） 董事长	ATP Chairman	

주요작품	- 『불꽃의 요리인 키타오지로산진』, 『어머니와 엄마와 나』 - 영화 『겨울이야기』, 『사가의 대단한 할머니』
수상경력	- 2007년 ATP 상 드라마 부분 우수상 『어머니와 엄마와 나』 - 2007년 아오모리시 문화상
主な作品	- **『炎の料理人 北大路魯山人』, 『母とママと、私』** - **映画 『冬物語』, 『佐賀のがばいばあちゃん』**
受賞経歴	- **2007年 ATP賞ドラマ部門優秀賞 『母とママと、私』** - **2007年 青森市文化賞**
主要作品	- 『火厨师北大路鲁山人』, 『母亲、妈妈和我』 - 电影 『冬季恋歌』, 『佐贺的超级奶奶』
得奖经历	- 2007 年ATP赏 电视剧部分 优秀奖『母亲、妈妈和我』 - 2007 年 青森市文化赏
Major Works	- 『KitaojiRosanjin – The Flame Chef』, 『Mother, Mom and I』 - Film『Winter Story』, 『The Amazing Grandmother of Saga』
Awards	- 2007 ATP Awards, Excellent Prize 『Mother, Mom and I』 - 2007 Aomori City Awards, Cultural Awards



Akinori KOBAYAKAWA				
코바야카와 아키노리			小早川 明德	
コバヤカワ·アキノリ			**(M) Drama**	
E-Mail : kobayakawa@aie-kyushu.com				
지역기업연합회 큐슈연계기구 (AIE) 경제단체회장	**一般社団法人 地区企業連合会 九州連携機構** 経済団体会長	地区企业联合会 九州连带机构 经济团体会长	KYUSHU ASSOCIATIONS OF INDEPENDENT ENTREPRENEURS (AIE) The Chairman of Economic Organization	

주요작품	- (기획)'큐슈· 기업최전선' KBC큐슈아사히방송1991년6월1일 ~ 1992년6월27일(주1회) - (기획)'큐슈의 여인' TVQ 큐슈방송 1998년4월5일 ~ 2004년3월28일(주1회)
主な作品	- **(企画)「九州・企業最前線」KBC九州朝日放送1991年6月1日～1992年6月27日（週1回）** - **(企画)「九州の女」TVQテレビ九州1998年4月5日～2004年3月28日（週1回）**
主要作品	- （企划）《九州· 企业最前线》九州朝日广播电视台（KBC）1991年6月1日～1992年6月27日（每周1集） - （企画）《九州的女人》TVQ九州电视台1998年4月5日～2004年3月28日（每周1集）
Major Works	- (design&planning) 'Kyushu・a company in the frontline」KBC Kyushu Asahi Broadcasting: 1 Jun 1991 ~ 27 June 1992 (once in a week) - (design&planning) 'Kyushu Woman' TVQ Kyushu Broadcasting 5 April 1998 ~ 28 March 2004 (once in a week)



Mihoko ICHIKAWA			
이치카와 미호코		市川美保子	
イチカワ・ミホコ		**(M) Drama**	
E-Mail : sibata@pa2.so-net.ne.jp			
주식회사 유메노토모 대표이사	**株式会社 夢の友社 代表取締役社長**	(株)梦友社 董事长	Yume No Tomo Publishing Inc. 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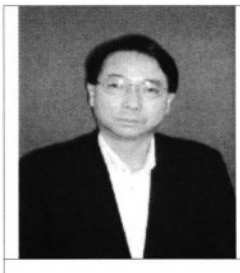
Kanako IWATANI			
이와타니 카나코		岩谷可奈子	
イワタニ・カナコ		**(F) Drama**	
E-Mail : iwatani-ka@nhk-ep.co.jp			
NHK 엔터프라이즈 드라마 방송부 부장	NHK エンタープライズ ドラマ番組部部長	NHK Enterprise 连续剧播出部部长	NHK Enterprise Drama Broadcasting Dept. Manager

주요작품	- 『타마모에!』, 『이어진 내일』, 『톱 세일즈』, 『료마전』, - 『야규쥬베 7번 승부 마지막 결투』, 『우메짱 선생』 등 제작
수상경력	- 『타마모에』 제33회 방송문화기금상 텔레비전 드라마 방송상 - 『료마전』 제37회 방송문화기금상 우수상
主な作品	- **『魂萌え！』, 『繋がれた明日』, 『トップセールス』, 『龍馬伝』,** - **『柳生十兵衛七番勝負～最後の闘い』, 『梅ちゃん先生』など プロデュース**
受賞経歴	- **『魂萌え！』 第33回放送文化基金賞テレビドラマ番組賞** - **『龍馬伝』 第37回放送文化基金賞優秀賞**
主要作品	- 『魂萌』, 『还有明天』, 『顶级销售』, 『龙马传』 - 『柳生十兵卫七番胜负～最后的战斗』, 『小梅医生』等制作
得奖经历	- 『魂萌》 第33届 放送文化基金赏 电视剧放送奖 - 『龙马传》 第37届 放送文化基金赏优秀奖
Major Works	- Produced 『Tamamoe!』, 『Tomorrow in Chains』, 『Top Sales』『Ryomaden』, - 『YagyuJubei And the 7th Fight – The Final Duel』, 『Ume, The Teacher』 and more
Awards	- The 33rd Hoso Bunka Foundation Awards, Best TV Series 『Tamamoe!』 - The 37thHoso Bunka Foundation Awards, Excellent Prize『Ryomaden』



Toru KAGATA			
카가타 토오루		加賀田透	
カガタ・トオル		(M) Drama	
E-mail : kagata.t-ks@nhk.jp			
NHK 프로듀서	日本放送協会 (NHK) プロデューサー	日本广播电视协会 (NHK) 制片人	NHK Producer

주요작품	- 연속 TV 소설 '하나코와 안' - 드라마10 '미녀와 남자'
수상경력	- 에란도르 프로듀서 상(2015년) - 하시다 상(2015년)
主な作品	- 連続テレビ小説 「花子とアン」 - ドラマ10「美女と男子」
受賞経歴	- エランドール プロデューサー賞(2015年) - 橋田賞(2015年)
主要作品	- 电视连续小说《花子与安妮》 - 10点电视剧《美女与男子》
得奖经历	- Élan d'or Awards (2015年) - 桥田奖 (2015年)
Major Works	- TV series 'Hanako and Anne' - Drama 'BEAUTY AND THE FELLOW'
Awards	- 2015 Élan d'or Awards (Best Producer) - 2015 Hashida Awards



Koji KANAZAWA			
카나자와 코지		金澤宏次	
カナザワ・コウジ		(M) Drama	
E-mail : kanazawa@unioneiga.co.jo			
전일본TV프로그램 방송제작사연맹 프로듀서	全日本テレビ番組 製作社連盟 (ATP) プロデューサー	全日本电视节目 制作公司联盟 (ATP) 制片人	ATP Producer

주요작품	- NHK 연속TV소설『히라리』,『쿄우, 두 사람』,『츄라상』 외 다수 - NHK 스패셜『모리미쓰코<방랑기> 위대한 여로』
수상경력	- 이탈리아상 그랑프리 - 문화청 예술제 대상 등 다수
主な作品	- NHK連続テレビ小説『ひらり』,『京、ふたり』,『ちゅらさん』ほか多数 - NHKスペシャル『森光子 "放浪記" 大いなる旅路』
受賞経歴	- イタリア賞グランプリ - 文化庁芸術祭大賞 ほか多数。
主要作品	- NHK连续TV小说 『飘落』, 『京,两个人』, 『水姑娘』外多数 - NHK special『森光子的'放浪记'伟大的旅路』
得奖经历	- 意大利奖 大奖 - 文化厅艺术节大奖等多数
Major Works	- NHK Series TV Novel『Hirari』,『Kyo - Two』,『Churasan』, etc. - NHK Special『Mori Mitsuko "Wandering" The Great Journey』
Awards	- Win the Grand Prize for Italian Award - Win the Grand Prize for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Art Festival



	Seungbok KIM			
	김승복		**金承福**	
	キム・スンボク		**(F) Drama**	
	E-Mail : sb-kim@cuon.jp			
	주식회사 쿠온 제작자/대표이사	**株式会社クオン** 制作者/代表取締役	(株) CUON inc. 制片人/CEO	CUON inc. Producer/CEO
주요작품	- 저서 '드라마틱 한국어', '사랑의 한국어' - 번역서 '토끼사냥', '기적은 없어' 등			
主な作品	- **著書 『ドラマチック韓国語』、『愛の韓国語』** - **翻訳書『ウサギ狩り』、『奇跡はない』など**			
主要作品	- 著作 《戏剧性韩国语》、《爱之韩国》 - 翻译著作 《猎兔》、《没有奇迹》			
Major Works	- Books: 'Dramatic Korean', 'Korean of Love' - Translations: 'Hare Huting', 'There is no miracle', etc			



	Akira, Nagao			
	나가오 아키라		**長生啓**	
	ナガオ・アキラ		**(M) Drama**	
	E-Mail : nagao@best.tbs.co.jp			
	TBS 텔레비젼 영상사업 프로듀서	ＴＢＳテレビ 映像事業プロデューサー	TBS电视台 视频编导	TBS Television Producer – Video Business
약력	- 1987년 TBS입사/2009년 영상사업부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일본 권리 출자 비즈니스를 시작 - TBS가 출자한 한국 드라마로써 <에덴의 동쪽>, <한국판 꽃보다 남자>, <매리는외박중>,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빅> 등의 일본 사업 담당			
プロフィール	- **1987年 TBS入社/2009年映像事業部において、韓国ドラマに対する日本権利出資ビジネスをスタート** - **TBSが出資した韓国ドラマとして『エデンの東』,『韓国版・花より男子』,『メリは外泊中』,『僕の彼女は九尾狐』,『ビッグ』などの日本展開を担当**			
简历	- 1987年入TBS/2009年在影像事业部开始推进对韩国电视剧的日本权利出资业务 - 担当TBS出资制作的韩国电视剧《伊甸园之东》、韩国版《花样男子》、《玛丽外宿中》、《我的女友是九尾狐》、《BIG》等作品的日本业务主管			
Profile	- 1987 Entered TBS/2009 Begun the business of producing Japanese-sponsored Korean Drama from Video Business Department. - Managed the in-country sales of TBS-sponsored Korean Drama including"East of Eden", "Boys over Flowers(Korean ver.)", "Mary Stayed Out All Night", "My Girlfriend Is a Nine-Tailed Fox"and"Big"			



	Kazuki, Nakayama			
	나카야마 카즈키		**中山和記**	
	ナカヤマ・カツキ		**(M) Drama**	
	E-Mail : k.nakayama@van8.co.jp			
	㈜반에이트 (후지테레비그룹) 대표이사	(株) バンエイト (フジテレビグループ) 代表取締役社長	(株) 巴纳特 (富士电视集团) 董事长	VAN EIGHT PRODUCTION, INC, (Fuji TV Group) CEO

주요작품	- <시간이여 멈춰라>, <김의 전쟁>, <29세의 크리스마스> 외 다수
수상경력	- 갤럭시 우수상 - 문화청 예술제 우수상 외 다수
主な作品	- 『時間よとまれ』,『金の戦争』,『29歳のクリスマス』 ほか多数
受賞経歴	- ギャラクシー優秀賞 - 芸術祭優秀賞 ほか多数
主要作品	- 《时间啊停下来吧》,《金之战争》,《二十九岁的圣诞节》 等多部作品
得奖经历	- 银河奖 优秀奖 - 文化厅艺术节 优秀奖
Major Works	- "StopThe Time", "Kim's War", "The Christmas in 29" and more
Awards	- Galaxy Awards : Runner-up Prize - Agency for Cultural Affairs Art Festival Award: Runner-up Prize



	Hiroko OKURA			
	오쿠라 히로코		**大倉寛子**	
	オオクラ・ヒロコ		**(F) Drama**	
	E-Mail : okura-h@ax-on.co.jp			
	닛테레 액스온 제작자/프로듀서	**日テレアックスオン プロデューサー**	Nippon Television AX-ON 制片人/监制	Nippon Television AX-ON Producer

주요작품	- 연속드라마 '요괴인간 벰'(니혼TV) - 연속드라마 '약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니혼TV) - 연속드라마 ' 명랑 개구리 뽕키치' (니혼TV)
主な作品	- **連続ドラマ「妖怪人間ベム」(日本テレビ)** - **連続ドラマ「弱くても勝てます」(日本テレビ)** - **連続ドラマ「ど根性ガエル」(日本テレビ)**
主要作品	- 电视连续剧《妖怪人间贝姆》'(日本电视放送网株式会社) - 电视连续剧《即使弱小也能取胜》(日本电视放送网株式会社) - 电视连续剧《根性青蛙》(日本电视放送网株式会社)
Major Works	- Drama series 'Yōkai Ningen Bem' (Nippon Television Network Corporation) - Drama series 'Even If We're Weak, We Can Win' (Nippon Television Network Corporation)



	Naoko SANO			
	사노 나오코		佐野・奈緒子	
	サノ・ナオコ		**(F) Drama**	
	E-Mail : sano.n@daiei-tv.co.jp			
	다이에이 TV 제작자/프로듀서	**大映テレビ** 制作者/プロデューサー	DAIEI TV 制片人	DAIEI TV Producer
주요작품	- 여자의 길 NHK BS 프리미엄 연속 드라마 - 핸드벨 졸업식 토카이TV 개국 55주년 기념 드라마 - 일곱명의 적이 있다 토카이TV 연속 드라마 - 빨간 영구차 시리즈 후지TV - 우미자루 NHK			
수상경력	- '일곱명의 적이 있다' ATP상 드라마부분 우수상			
主な作品	- 「オンナミチ」NHK BSプレミアム 連続ドラマ - 「ハンドベル卒業式」東海テレビ開局55周年記念ドラマ - 「七人の敵がいる」東海テレビ 連続ドラマ - 「赤い霊柩車シリーズ」フジテレビ - 「海猿」NHK			
受賞経歴	- 「七人の敵がいる」ATP賞ドラマ部門優秀賞			
主要作品	- 《女人的路》, NHK BS 高级电视连续剧 - 《的毕业典礼》, TokaiTV建台55周年纪念电视剧 - 《有七个敌人》, TokaiTV 电视连续剧 - 《红色灵车》系列, 富士TV - 《海猿》, NHK			
得奖经历	- 《有七个敌人》获ATP奖电视剧部分优秀奖			
Major Works	- NHK BS Premium Drama series 'A woman's road' - TokaiTV's 56th celebration drama 'Handbell Graduation Ceremony' - Tokai TV series 'There are seven enemies' - Fuji TV 'The Red Hearse' series - NHK 'Woomijaru'			
Awards	- 'There are seven enemies': ATP Awards (Best Drama)			



	Ken TADA			
	타다 켄		多田 健	
	タダ·ケン		**(M) Drama**	
	E-Mail : tadaken@htb.co.jp			
	㈜ HTB홋카이도 TV방송 제작자	HTB北海道テレビ放送株式会社 制作者	（株）HTB北海道广播电视台 制片人	Hokkaido Television Broadcasting Co., Ltd. (HTB) Producer

주요작품	- 제작 '그냥 보통의 사랑' (2013) 각본・마에다 시로우, 출연・카네코 타카토시, 안도 세이, 키타로우 - 감독'Solaputi' (2007) 각본・마에가와 요우이치, 출연・모리타 나오유키, 유우키 사야, 후카와 토시카즈, 혼다 히로타로 - 감독'보리밭에서 잡아줘' (2006) 각본・마에가와 요우이치, 출연・오이즈미 요우, 타카노 시호, 바이쇼 미츠코, 오타키 히데지
수상경력	- 'Solaputi' (2007) 몬테카를로 TV 페스티벌 TV영화부문 최종후보로 선정, 아시안 텔레비전 어워즈 우수상 - '보리밭에서 잡아라' (2006) 문화청 예술제 우수상, 방송비평간담회 갤럭시상 장려상, 뉴욕페스티발 파이널리스트
主な作品	- **プロデュース「別に普通の恋」(2013) 脚本・前田司郎, 出演・金子貴俊、安藤聖、きたろう** - **監督「そらぷち」(2007) 脚本・前川洋一, 出演・森田直幸、悠城早矢、布川敏和、本田博太郎** - **監督「大麦畑でつかまえて」(2006) 脚本・前川洋一, 出演・大泉洋、高野志穂、倍賞美津子、大滝秀治**
受賞経歴	- **「そらぷち」(2007)モンテカルロ・テレビ祭最終選考ノミネート、アジア・テレビジョン賞優秀賞** - **「大麦畑でつかまえて」(2006)文化庁芸術祭優秀賞、ギャラクシー奨励賞、ニューヨークフェスティバルファイナリスト**
主要作品	- 制作《也就是一般的爱情》(2013), 编剧:前田司郎, 出演:金子贵俊, 安藤圣、喜太郎 - 导演《Solaputi》(2007), 编剧:前川洋一 出演:森田直幸, 悠城早矢, 布川敏和, 本田博太郎 - 导演《麦田里的守望者》(2006), 编剧:前川洋一, 出演:大泉洋, 高野志穗, 倍賞美津子, 大滝秀治
得奖经历	- 《Solaputi》 （2007） 蒙特卡洛国际电视节电视电影部分最终提名，亚洲电视大奖优秀奖 - 《麦田里的守望者》 （2006） 文化厅艺术节优秀奖，、广播电视批评恳谈会galaxy鼓励奖，纽约节决赛入围
Major Works	- Producing: 'Betsuni Futsu no Koi' (2013) script・Maeda Shirô , casts・Kaneko Takatoshi , Ando Sei , Kitaro - Directing: 'Solaputi' (2007) script・Maekawa Yoichi, casts・Morita Naoyuki, Yuki Saya, Fukawa Toshikazu, Honda Hirotaro - Directing: 'Catch it the barley field' (2006) scrip・Maekawa Yoichi, casts・Oizumi Yo, Takano Shiho, Baisho Mitsuko, Ōtaki Hideji
Awards	- 'Solaputi' (2007) Monte Carlo TV Festival (Festival de Télévision de Monte-carlo): shortlisted for the TV Film category, Asian Television Awards: Excellence Award - 'Catch it the barley field' (2006) Agency for Cultural Affairs Art Festival: Excellence Award, Galaxy Honors for programs recommended by Japan Council for Better Radio and Television, New York Festival finalist



Setsuko UCHIMARU	
우치마루 세츠코	内丸 摂子
ウチマル・セツコ	**(F) Drama**
E-Mail : uchimaru@tohan-kikaku.co.jp	

토우한 기획 제작자/프로듀서	**東阪企画** **制作者/プロデューサー**	东阪企划 制片人	Touhan Producer

주요작품	- WOWOW TV 연속드라마 '주가폭락' (오다유지 주연) - NHK BS 프리미엄 ' 천사는 자루걸레를 들고' (키타노 키이 주연) - 후지TV 토요프리미엄 ' 벌거숭이 대장' (츠카지 무가 주연) - 후지TV 금요프레스티지 ' 경부보 사사키 죠타로' (테라와키 야스후미 주연) - TBS 월요골든 '세타가야 주재 형사' (아이카와 쇼우 주연) - TBS 다큐멘터리 드라마 '대한항공기 폭파 23년째의 진실'
수상경력	- 제2회 미나미큐슈PR대상(TV부문) '벌거숭이 대장' 미야자키 편 - 제3회 미나미큐슈매력발굴대상(TV부문) '벌거숭이 대장' 쿠마모토 편
主な作品	- **WOWOW 連続ドラマW「株価暴落」(織田裕二)** - **NHK BSプレムアム「天使はモップを持って」(北乃きい)** - **フジテレビ 土曜プレミアム 「裸の大将」(塚地武雅)** - **フジテレビ 金曜プレステージ「警部補・佐々木丈太郎」(寺脇康文)** - **TBS 月曜ゴールデン 「世田谷駐在刑事」(哀川翔)** - **TBSドキュメンタリードラマ 「大韓航空機爆破23年目の真実」**
受賞経歴	- **第二回南九州PR大賞(テレビ部門)「裸の大将」宮崎編** - **第三回南九州魅力発掘大賞(テレビ部門)「裸の大将」熊本編**
主要作品	- WOWOW TV 连续剧《股价暴跌》(織田裕二主演) - NHK BS Premium 《拿著拖把的天使》(北乃纪伊主演) - 富士TV Premium 周六《裸之大将》(塚地武雅主演) - 富士TV Premium周五《警视厅三星刑警 佐佐木丈太郎》(寺脇康文主演) - TBS 周一黄金剧场 《世田谷驻在刑事》(哀川翔主演) - TBS 纪实剧《大韩航空飞机爆炸事件23周年来的事实真相》
得奖经历	- 《裸之大将》(宮崎編) 获第2届 南九州PR 大奖 (电视部分) - 《裸之大将》(熊本編) 获第3届九州魅力发掘大奖 (电视部分)
Major Works	- WOWOW TV Drama series 'stock market crash' (leading actor: Oda Yuji) - NHK BS Premium ' The angel needs to have a mop' (leading actress: Kitano Kie) - Fuji TV Saturday Premium ' The naked leader' (leading actor: Tsukaji Muga) - Fuji TV Friday Prestige 'Sasaki Jotaro, the assistant police' (leading actor: Terawaki Yasufumi) - TBS Monday Golden 'Detective Setakaya' (leading actor: Aikawa Sho) - TBS Documentary drama 'The truth of Korean Air Flight 858: 23 years'
Awards	- The second Minamikyūshū PR Grand Prize (TV Awards) 'The naked leader': Miyazaki - The third Minamikyūshū Finding New Attraction Grand Prize (TV Awards) 'The naked leader': Kumamoto

Participants' Profiles

- China -

Writers



	Liping WANG			
	왕리핑		王丽萍	
	ワン·リピン		**(F) Drama**	
	E-Mail : WLP723@vip.sina.com			
	중국드라마작가 전문위원회부주임 상해시TV예술협회 부주석 국가일급 작가	**中国ドラマ脚本家 委員会副会長 上海テレビ芸術 協会副主席 国家一級脚本家**	中国电视剧编剧 专业委员会副主任 上海市电视艺术 协会副主席 国家一级编剧	TVSC Vice President TV Artists' Association Vice-president National 1st Grade Writer

주요작품	- 드라마『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두 도시 생활』 - 드라마『우리집의 봄, 가을, 겨울, 여름』,『생활계시록』,『대호시광』외 다수.
수상경력	- 제4회 동경 국제드라마 최고해외드라마상 - 중국드라마부분 최고상(비천상, 금옹상 등) - 상해드라마페스티벌 백옥란 최고작가상 - 국극성전10대최고드라마상(생활계시록), 상해문예가영예상 외 다수
기타	-『우리집의 봄, 여름, 가을, 겨울』2014년 4월미국중국어TV에방영됨 -『생활계시록』은 2014년 TV방영 이후, 인터넷 방영 10억 뷰 이상 기록
主な作品	- ドラマ『彼と私と両家の事情』、『双城生活』 - ドラマ『我が家の春、秋、冬、夏』『生活黙示録』『大好時光』ほか多数。
受賞経歴	- 第4回東京国際ドラマ最高の海外ドラマ賞 - 中国ドラマ部分最高賞(飛天賞、金鷹賞ほか) - 上海ドラマフェスティバル 白玉蘭 最高の脚本家賞 - 国劇聖殿10大最高ドラマ賞(生活黙示録)上海文芸家栄誉賞、ほか多数。
その他	- 2014年4月に うちの春、秋、冬、夏がアメリカの中国語テレビで放送された。 - 世界黙示録は2014年TV放送以来、インターネットで10億以上の視聴数記録。
主要作品	- 电视剧『媳妇的美好时代』、『双城生活』 - 电视剧『我家的春秋冬夏』、『生活启示录』、『大好时光』外多数
得奖经历	- 第四届东京国际电视剧最佳海外电视剧奖 - 中国电视剧最高奖飞天奖、金鹰奖等 - 上海电视节白玉兰最佳编剧奖 - 国剧盛典十佳电视剧《生活启示录》，上海文艺家荣誉奖，外多数得奖
其他	- 『我家的春秋冬夏』2014年4月在美国中文电视台播出 - 『生活启示录』播出后网络点击率突破10亿。
Major Works	- TV Drama『Doudou and her mother-in-law』,『Two city one family』 - TV Drama『Spring, Autumn, Winter and Summer of My House』,『Life Revelation』,『Good Time』and more
Awards	- The 4th Tokyo International TV Drama Awards, Best Foreign TV Drama - Win the Several Grand Prizes in Chinese TV Drama Field Like Flying Apsaras Award, Golden Eagle Award etc. - Shanghai TV Drama Festival "Magnolia Award", Best Writer - TV Drama Awards Made in China top10 dramas of the Year <Life Revelation>, shanghai Literature and Art Honorary Life Award and more
Other	- 『Spring, Autumn, Winter and Summer of My House』was aired on America's Chinese TV on April, 2014 - After aired on Television 2014,『Life Revelation』hits over a billion views on Internet.



	Li LIU			
	리우리		刘莉	
	リウ·リ		**(F) Drama**	
	E-Mail : laky530@126.com			
	북경TV예술가협회 시나리오 작가	北京テレビ芸術家協会 シナリオ作家	北京电视艺术家协会 编剧	Beijing Television Artists Association Scenario Writer
주요작품	- 2014년 34부작 도시를 소재로한 드라마<제3의 행복>시나리오 - 2016년 35부작 정글탐험을 소재로한 드라마<생존 암호>시나리오			
主な作品	- 2014年 都市を題材にした全34話のドラマ「第三の幸福」シナリオ - 2016年 ジャングル探検を題材にした全35話のドラマ「サバイバルの暗号」シナリオ			
主要作品	- 2014年 34集都市题材电视剧《第三种幸福》 编剧 - 2016年 35集丛林探险题材电视剧《生存密码》 编剧			
Major Works	- A script for the drama entitled <The third happiness>, which is about a city: a total of 34 episodes, aired in 2014 - A script for a drama called <Survival Cipher>, which is about a jungle expedition: a totla of 35 episodes, aired in 2016.			



	Yi LIU			
	리우이		刘益	
	リウ·イ		**(F) Drama**	
	E-Mail : 268070261@qq.com			
	북경TV예술가협회 작가	北京テレビ芸術家協会 作家	北京电视艺术家协会 编剧	Beijing Television Artists Association Writer
주요작품	- 드라마 <생존 암호>, <연꽃의 이별>, <제 3의 행복>, <건귁대장군(여자대장군)>, <쓰촨호인(쓰촨 좋은 사람)>시나리오			
主な作品	- ドラマ「サバイバルの暗号」「芙蓉の別れ」「第三の幸福」「巾幗代将軍～MULAN～」「四川のいい人」シナリオ			
主要作品	- 电视剧《生存密码》,《芙蓉诀》,《第三种幸福》,《巾帼大将军》,《四川好人》 编剧			
Major Works	- Scripts for 'Survival Cipher', 'Lotus Will', 'The Third Happiness', 'Mu Lan / Woman General', 'The Good Person of Szechwan'			



Kaikai LOU			
로우카이카이		娄开开	
ロウ·カイカイ		**(F) Drama**	
E-Mail : lkk915@163.com			
상해관일문화전보 유한공사 문학총감독	**上海貫一文化伝播 有限公司 文学編集者**	上海贯一文化传播 有限公司 文学总监	Shanghai Guanyi Media Co.,Ltd Literature Editor

주요작품	- 드라마『생활계시록』문학편집자 - 드라마『대호시광』기획 및 책임 편집자
主な作品	- **ドラマ『生活黙示録』文学編集者** - **ドラマ『大好時光』企画及び責任編集者**
主要作品	- 电视剧 『生活启示录』文学编辑 - 电视剧《大好时光》策划、责任编辑
Major Works	- TV Drama『Life Revelation』Literature Editor - TV Drama『Good Time』Planning & Representative Editor



Liansheng Zhang			
짱리엔셩		张连生	
ジャン·リエンション		**(M) Drama**	
E-Mail : laky530@126.com			
북경TV예술가협회 시나리오 작가/ 영상 경영 및 관리, 상임 부위원장, 비서장	北京テレビ芸術家協会 シナリオ作家/ メディア経営および 管理、常任副委員長、 秘書長	北京电视艺术家协会 编剧/影视经营与管理、常任副主席、秘书长	Beijing Television Artists Association Script writer/Media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Vice Chairman, Secretary General

주요작품	- 기획 및 제작에 참여한 주요 드라마 및 영화 등 영상 작품: <고리오 영감(Le Père Goriot, 1834-1835)의 모험>, <펑더화이 원수(총사령관)>, <화가(유흥가)>, <황하강을 따라 흐르다: 화가 리치>등
主な作品	- 企画および制作に参加した主要なドラマ、映画としては「ゴリオ爺さんの冒険」「彭徳怀元帥」「花街」「黄河に沿って流れる—画家 李琦」などがある。
主要作品	- **参与策划或摄制的主要影视作品有电视剧或电影《高老头奇遇记》、《彭德怀元帅》、《花街》、《延河水长流—画家李琦》等。**
Major Works	- Dramas and films he has involved in planning and production include: 'The Adventure of Père Goriot', 'Marshal Peng Dehuai', 'Flower street', 'Flowing down the Yellow River- painter Li Qi'.



	hui Zhao			
	짜오후이		赵晖	
	ジャオ·フィ		**(F) Drama**	
	E-Mail : 13552000551@163.com			
	중국드라마제작산업협회 시나리오 작가/창작총감독, 부교수	中国ドラマ制作産業委員会 シナリオ作家/創作総監督、副教授	中国电视剧制作产业协会 编剧/创作总监、副教授	China Television Drama Production Industry Association Script writer/creative director, senior lecturer

주요작품	- 드라마 <교통경찰>, <영원한 전야(들판, 벌판)>, <장한 대철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 <청명상하도>등
수상경력	- <교통경찰>, <영원한 전야(들판, 벌판)>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 선전부 '우거이'프로젝트상 및 중국 TV 'Golden Eagle Award' 수상
主な作品	- ドラマ「交通警察」「永遠の田野」「京漢大鉄道」「最も美しい愛」「清明上河図」など
受賞経歴	- 「交通警察」「永遠の田野」は中国共産党中央宣伝部「五つの建設」賞および中国テレビ「金鷹賞」を受賞した
主要作品	- 电视剧《交通警察》、《永远的田野》、《京汉大铁路》、《最美的爱恋》、《清明上河图》等
得奖经历	- 《交通警察》、《永远的田野》获得中宣部"五个一"工程奖，中国电视"金鹰奖"
Major Works	- Dramas: 'Traffic Police', 'Eternal Fields', 'Jing Han Railway', 'Beautiful Love', 'Along the River During the Qingming Festival', etc
Awards	- 'Traffic Police' and 'Eternal Fields' have won the Best Works Award, awarded by the Propaganda Departmen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Chinese TV 'Golden Eagle Award'.

Participants' Profiles

- China -

Producers



	Jun FAN			
	판쥔		范军	
	シャオ·クオチン		**(M) Drama**	
	E-Mail : fan_jun@sina.com			
	상하이영화제작 스튜디오 제작자/영상기획 제작, 영상사업제작	**上海映画製作スタジオ** プロデューサー/映画企画製作、メディア事業制作	上海电影制片厂 制作者/影视策划制作，影视项目制片	Shanghai Film(Group) Company Shanghai Fine Arts Film St Producter/ planning, producing for media businessudio
주요작품	- 드라마 <봄 강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네>, <시드니에서 (나를) 기다려줘>, <꼭 행복해야해>, <무대 자매>, <3,7 21과 우연히 부딪히다>, <개국전야>, <쇄청생활>, <우리 집의 춘추동하>, <라이프 계시록>, <좋은 세월>			
主な作品	- **ドラマ「春の河、東へ流る」「シドニーで待て」「きっと幸せになれ」「舞台姉妹」「三七、二十一とぶつかる」「開国前夜」「双城生活」「わが家の春秋冬夏」「生活黙示録」「ステキな時」**			
主要作品	- 电视剧《一江春水向东流》《在悉尼等我》《你一定要幸福》《舞台姐妹》《三七撞上二十一》《开国前夜》《双城生活》《我家的春秋冬夏》《生活启示 录》《大好时光》			
Major Works	- Dramas: <The spring river flows east>, <Wait for Me in Sydney>, <You surely must be happy>, <Two Stage Sisters>, <3,7 Zhuangshang 21>, <Night before last of found a state>, <A Tale of Two Cities>, <My family's spring and summer and winter>, <Life Revelation>, <Good Time>			



	Shuchao LU			
	루슈차오		鲁书潮	
	ル·シュチャオ		**(M) Drama**	
	E-Mail : lushuchao2007@163.com			
	상해SMG상세영업 유한공사 총편집장 국가일급제작자	**上海SMG商世営業 有限公司 総編集長 国家1級制作者**	上海SMG尚世 影业有限公司 总编辑 国家一级编剧	SMG Pictures Chief Editor National 1st Grade Producer
주요작품	- 『며느리의 아름다운 시대』, 『영광의 세월』 - 『우리집의 춘추동하』 영화 『남학생 지아 리』			
수상경력	- 중국드라마비천상『며느리의아름다운시절』, 『영광의 세월』 - 중국영화화표상『남학생 지아』 - 상해시우수영화드라마작품상『우리집의봄여름가을겨울』, 『상해상해』, 『만족스러운 생활』			
主な作品	- **『彼と私と両家の事情』,『光栄の年月』** - **『我が家の春、秋、冬、夏』, 映画 『男学生ジア·リ』**			
受賞経歴	- **中国ドラマ飛天賞 『彼と私と両家の事情』, 『光栄の年月』** - **中国映画華表賞 『男学生ジア·リ』** - **上海市優秀映像作品賞 『我が家の春、秋、冬、夏』, 『上海上海』, 『満足した生活』**			
主要作品	- 《媳妇的美好时代》、《光荣岁月》 - 《我家的春夏秋冬》、电影《男生贾里》			
得奖经历	- 中国电视剧飞天奖《媳妇的美好时代》、《光荣岁月》 - 中国电影华表奖《男生贾里》 - 上海市优秀影视作品奖《我家的春夏秋冬》、《上海上海》、《大生活》			
Major Works	- 『Doudou and her mother-in-law』, 『Days of Glory』 - 『Spring, Autumn, Winter and Summer of My House』, Movie『Boy Student Jia Li』			
Awards	- Chinese Drama Flying Apsaras Award 『Doudou and her mother-in-law』, 『Days of Glory』 - Chinese Movie Huabiao Award 『Boy Student Jia Li』 - Best Program for Outstanding Video in Shanghai City 『Spring, Autumn, Winter and Summer of My House』, 『Shanghai Shanghai』, 『Big Life』			



Shengtian SHI				
스셩티엔			施生田	
スションチエン			**(M) Drama**	
E-Mail : 13999966173@163.com				
중국드라마제작산업협회 제작자/비서장	**中国ドラマ制作産業協会** プロデューサー/秘書長	中国电视剧制作产业协会 制作者/秘书长	China Television Drama Production Industry Association Producer/ Secretary-general	

주요작품	- <영생양(영원히 사는 양)>, <설욕 쿤룬(눈으로 목욕한 쿤룬산)>, <우루무치>, <파미르(Pamirs) 의사>, <우루무치의 천공(하늘)>, <아판티>, <신장 속으로>, <형제>, <사랑아, 집으로 돌아와>등 10 여 편의 영상작품 출품제작
수상경력	- 중국 공산당 중앙 선전부 '우거이'프로젝트 상
主な作品	- **「永生羊」「雪を浴びた昆侖山」「ウルムチ」「パミール医師」「ウルムチの空」「アーファンティー少年」「新疆の中へ」「兄弟」「愛よ、家へ帰れ」など10作品余りの作品を出品**
受賞経歴	- **中国共産党中央宣伝部「五つの建設」賞**
主要作品	- 出品监制《永生羊》、《雪浴昆仑》、《乌鲁木齐》、《帕米尔医生》、《乌鲁木齐的天空》、《少年阿凡提》、《走进新疆》、《兄弟》、《让爱回家》等十余部影视剧作品
得奖经历	- 中宣部五个一工程奖
Major Works	- 'An Eternal Lamb', 'Snow bath Kunlun', 'Urumqi', 'Parmirs's doctor', 'Under the Sky of Urumqi', etc (He has produced more or less 10 porjects.)
Awards	- He has won the Best Works Award, awarded by the Propaganda Departmen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Xiaoyun XIA			
	씨아시아오윈		夏晓昀	
	シア·シアオウィン		**(M) Drama**	
	E-Mail : larryf@163.com			
	상해영화그룹공사 감독	**上海映画グループ公司** **監督**	上海电影集团公司 导演	Shanghai Film Group Corporation Director

주요작품	- 드라마『우리집의 춘추동하』 - 드라마『생활계시록』,『대호시광』외 다수
수상경력	- 2013년 중국드라마상 그해 시청률 공헌상, 중국광보TV협회 2013년도 우수 창작 작품 상『우리집의 봄가을겨울여름』
主な作品	- **ドラマ『うちの春秋冬夏』** - **ドラマ『生活黙示録』,『大好時光』ほか多数**
受賞経歴	- **2013年 中国ドラマ上海視聴率貢献賞、中国放送テレビ協会 2013年度 優秀創作作品賞『うちの春秋冬夏』**
主要作品	- 电视剧《我家的春秋冬夏》、《生活启示录》、《大好时光》外多数
得奖经历	- 获2013中国电视剧上海排行榜收视贡献奖、中国广播电视协会颁布的2013年度优秀原创作品奖《我家的春秋冬夏》
Major Works	- TV Drama『Spring, Autumn, Winter and Summer of My House』 - TV Drama『Revelation of Life』,『Good Time』and more
Awards	- 2013 Most High View Ratings of the Year at a Chinese Drama Awards, Best Creative Program at a China Broadcasting TV Association. <Spring, Autumn, Winter and Summer of My House>

Participants' Profiles
- Philippines-
Producers



	Hazel ABONITA			
	아보니타 헤이즐			
	アボニタ・ヘーゼル		**(F) Drama**	
	E-Mail : hazel_abonita@yahoo.com			
	엔터테인먼트 TV, (주)GMA네트워크 프로듀서	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TV、㈱GMAネットワーク プロデューサー	娱乐TV, (株)GMA 网络公司 制作总监	Entertainment TV, GMA Network Inc. Producer
주요작품	- <블러드 인 디스퓨트>: 2015년 11월 GMA에서 방송, 2015년 8월 캄보디아에서 방송 - <앙 리힘 안나산드라>: 2014년 10월 6일부터 2015년 2월 6일까지 - <야깃>: 2014년 10월 13일부터 2015년 7월 24일까지			
主な作品	- 〈Blood in Dispute〉: 2015年11月GMAにて放送、2015年8月カンボジアでも放送される - 〈Ang Lihim Annasandra〉: 2014年10月6日から 2015年2月6日まで - 〈Yagit〉: 2014年10月13日から2015年7月24日まで			
主要作品	- 《Blood in Dispute》：2015年11月在GMA播出，2015年 8月在柬埔寨播出 - 《Ang Lihim in Annasandra》：从2014年10月6日到2015年2月6日 - 《Yagit》：从2014年10月13日到2015年7月24日			
Major Works	- <Blood in Dispute>aired November 2015 in GMA / aired August 2015 in Cambodia - <Ang Lihim Annasandra> October 6, 2014 to Feburary 6, 2015 - <Yagit> October 13, 2014 to July 24, 2015			



	Roy IGLESIAS			
	이글레시아스 로이			
	イグレシアス·ロイ		**(M) Drama**	
	E-Mail : gmn7creatives@gmail.com			
	㈜GMA네트워크 크리에이티브디렉터	㈱GMAネットワーク クリエーティブ·ディレクター	(株)GMA网络公司 创意总监	GMA NETWORK, INC. CREATIVE DIRECTOR

약 력	- 2001 ~ 현재: 대체가능하며 의미있는 교육을 위한 센터, 파운데이션, 주식회사 (Center for Alternative and Relevant Education, Foundation, Inc., CARE) 총감독 및 설립자 - 2002 ~ 현재: 아시아 태평양의 창의적인 미디어 전문가 협회 (Creative Media Professionals Guild of Asia & the Pacific, CMPGAP) 법인단체 일원 및 이사회 임원 - 2013 ~ 2014년: 퀘존 시 세인트 조셉 대학 홍보 자문위원
수상경력	- 아니 낭 다브갈 뒈 시네마: 2014년 2월 리조트 월드에서 필리핀국가문화예술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NCCA)로부터 수상 - 피나카 파사동 나타탕잉 거프 (PinakaPASADong Natatanging Gurp): 2012년 4월 28일 팜페리쿠랑 사마한 낭 므가 드랄브구로 (Pampelikulang Samahan ng mga Dlalbguro, PAADO) 에서 수상.
プロフィール	- 2001年-現在 : 非伝統的で適切な教育のためのセンター、財団、株式会社 (Center for Alternative and Relevant Education, Foundation, Inc., CARE) 総監督および設立者 - 2002年-現在 : アジア太平洋の創意的なメディア専門家協会 (Creative Media Professionals Guild of Asia & the Pacific, CMPGAP) 法人団体一員および理事会役員 - 2013-2014年 : ケソン市セント・ジョセフ大学広報諮問委員
受賞経歴	- アニ ナング ダブガル ドエ シネマ(ANI NG DABGAL doe CINEMA): 2014年2月リゾートワールドでフィリピン国家文化芸術委員会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NCCA)により授与 - パナカ パサドング ナタナンギング ガープ (PinakaPASADong Natatanging Gurp): 2012年4月28日 パンペレクラング サマハン ナング ムガ ドラルブグロ (Pampelikulang Samahan ng mga Dlalbguro, PAADO) により授与
简历	- 2001年至今，教育中心，基金会、股份公司执行董事兼创办人。 - 2002年至今，亚洲太平洋创意型传媒专家协会创办人及董事会成员。 - 2013年-2004年 奎松市圣约瑟夫学院公关顾问。
得奖经历	- ANI NG DABGAL doe CINEMA，获2014年2月Resorts WorldANI NG DABGAL能源部电影，国家文化和艺术委员会奖 - PinakaPASADong Natatanging Gurp): 2012年 4月28日获Pampelikulang Samahan ng mga Dlalbguro, PAADO) 奖
Profile	- Executive Director and Founder, Center for Alternative and Relevant Education, Foundation, Inc.(CARE), 2001 to Present - Incorporator/Board Member, Creative Media Professionals Guild of Asia & the Pacific, (CMPGAP) 2002-ro present - Public Relations Consultant, st. Joseph's College of Quezon City, 2013-14
Awards	- ANI NG DABGAL doe CINEMA, awarded by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NCCA) at Resorts World, Febraury 2014 - PinakaPASADong Natatanging Gurp, awarded by the Pampelikulang Samahan ng mga Dlalbguro(PAADO) on April 28,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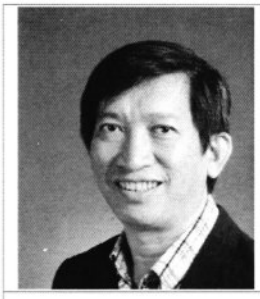
Participants' Profiles

- Singapore-



Yeow TANG				
탕유			陈耀	
陈耀			**(M) Drama**	
E-mail : tangyeow@mediacorp.com.sg				
미디어코프 작가/대본 감독	メディアコープ 作家/台本監督	新傳媒私人有限公司 作家	MediaCorp TV Singapore Pte Ltd Writer/Senior Script Supervisor	

주요작품	- '블레싱', '클리프 2&3', 텔레비전 시리즈 '난 바보가 아냐', '적당한 빈도'
수상경력	- '블레싱' : 2015 년 스타 어워드 "각본상" 수상 - '클리프 2' : 2014 년 아시아 레인보우 TV 어워드 "액션 드라마상"수상
主な作品	- 『祖先保佑』, 『警徽天职2&3』, テレビシリーズ『小孩不笨-テレビ版』, 『播音人』
受賞経歴	- 『祖先保佑』: 2015年スターアワーズ脚本賞受賞 - 『警徽天职2』: 2014年アジアレインボーテレビアワーズ アクションドラマ賞受賞
主要作品	- 《祖先保佑》、《警徽天职 2&3》、电视系列片《小孩不笨-电视版》、《播音人》
得奖经历	- 《祖先保佑》: 获 2015 年红星大奖剧本奖 - 《警徽天职 2》: 获 2014 年亚洲彩虹奖动作剧奖
Major Works	- <Blessings>, <CLIF2 & 3>, <I Not Stupid -TV series>, <Right Frequency>
Awards	- <Blessings> : "Best Script" -- 2015 Star Awards - <CLIF2> : "Best Action Drama" -- 2014 Asia Rainbow TV Awards



Kuangyong WONG				
웡쾅용			黄光荣	
黄光荣			**(M) Drama**	
E-Mail : wongky@mediacorp.com.sg				
미디어코프 제작자/ 총괄 프로듀서	メディアコープ 制作者/ 総括プロデューサー	新傳媒私人有限公司 制片人/责任编导	MediaCorp TV Singapore Pte Ltd Producer / Executive Producer	

주요작품	- 우리의 조국 (여행 3부작 중 3부)
主な作品	- 『私たちの祖国(Our Homeland)』(旅行3部作のうち3部)
主要作品	- 《我们的祖国》 三集(旅行作品中的第三部)
Major Works	- Our Homeland (part 3 of The Journey trilogy)

Participants' Profiles
- Thailand-
Producers



Arunosha BHANUPAN	
바누판 아루노샤	
バヌパン·アルノシャ	**(F) Drama**
E-Mail : bow-bo@hotmail.com	

브로드캐스트 타이 텔레비전 상무 이사	ブロードキャスト タイ テレビジョン 常務理事	泰国广播电视台 常务理事	Broadcast Thai Television Managing Director

수상경력	- TV 채널 9의 '나인 엔터테인 프로그램'으로 '무대 뒤 여성 상' 수상 - 2012년 아시아 미디어계 여성 리더 - 2015년 뛰어난 ASEAN 여성 기업인
受賞経歴	- テレビ局「チャンネル9」の「ナイン·エンターテイン·プログラム」で「舞台裏の女性賞」を受賞 - 2012年 アジアメディア界の女性リーダー - 2015年 優れたASEAN女性事業家
得奖经历	- 九娱乐节目"幕后女性奖"，TV频道9 - 2012年亚洲媒体界女性领导奖 - 2015年 东盟优秀女企业家
Awards	- The Behind the Scene Woman Award form Nine Entertain Program, TV Channel 9 - Asia's Leading Woman in Media 2012 - Outstanding ASEAN Woman Entrepreneurs 2015



Aukavut SUVANPRAKORN	
수반프라콘 아우카부트	
スバンプラコーン·アウカブット	**(M) Drama**
E-Mail : bow-bo@hotmail.com	

브로드캐스트 타이 텔레비전 (태국 TV 방송) 대표	ブロードキャスト タイ テレビジョン 代表	泰国广播电视台 台长（代表）	Broadcast Thai Television President

약 력	- 제작사 (드라마 시리즈, 텔레비전 프로그램, 만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이벤트 및 편성)
プロフィール	- プロデュース(ドラマシリーズ、テレビ番組、アニメーション、ドキュメンタリー、イベントおよび編成)
简历	- 制作公司（电视剧系列，电视节目，漫画动画片，纪录片，活动及编排）
Profile	- Production House(Drama Series, TV Program, Cartoon Animation, Documentary, Event & Organization)



Alisara WATTANA	
와타나 알리사라	
ワッタナ·アリサラ	**(F) Drama**
E-Mail : bow-bo@hotmail.com	

브로드캐스트 타이 텔레비전 홍보/어시스턴트	ブロードキャスト タイ テレビジョン 広報およびアシスタント	泰国广播电视台 公关/助理	Broadcast Thai Television Public Relation/ Assistant

Participants' Profiles
- Vietnam-
Producers



	Thanhtrang LE 레 탄 짱 レ タン チャン **E-Mail :** lethanhtrang@tvad-vtv.vn
(F) Drama	

베트남 텔레비전 - TV광고 및 서비스 센터 공무원/구매 및 판매 팀장	ベトナムテレビジョン - TV 広告およびサービスセンター 公務員/購入・販売マネージャー	越南电视台 电视广告服务中心 公务员	VIETNAM TELEVISION (VTV) – TV ADVERTISING AND SERVICES CENTER (TVAd) GOVERNMENT OFFICER/ACQUISITIONS AND SALES MANAGER

주요업무 & 약력	– 베트남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TV 프로그램, 게임 쇼 포맷, 드라마, TV 시리즈, 스포츠, 이벤트,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구매 – VTV의 프로그램을 해외 파트너에게 판매 – VTV 프로그램 PR – 회사의 해외 업무와 관련하여 임원진 고문 – 회사 비즈니스 전략과 관련하여 임원진 고문
수상경력	– 2008년 이후 매년 베트남 텔레비전 대표가 수상하는 최우수 사원상 수상
主な業務 & プロフィール	– ベトナムテレビジョン放送のためのTV番組、ゲームショーのフォーマット、ドラマ、TVシリーズ、スポーツ、イベント、ドキュメンタリー、アニメなどを購入 – VTVの番組を海外パートナーに販売 – VTVの番組のPR – 会社の海外業務に関する役員チーム顧問 – 会社のビジネス戦略に関する役員チーム顧問
受賞経歴	– 2008年以降毎年ベトナムテレビジョンの代表が授賞する最優秀社員賞を受賞
主要业务 & 简历	– 购入旨在发展越南广播电视事业的电视节目、游戏节目format、电视剧、TV系列、体育、纪录片、动画片等 – 将越南电视的节目向海外合作伙伴出口 – 越南电视节目 PR – 公司海外业务高管顾问 – 公司海外商务战略高管顾问
得奖经历	– 2008年以来连续获得越南电视代表颁发的最佳员工奖
Major Works & Profile	– Acquiring tv programs, gameshow formats, dramas, tv series, sports, events, documentaries, animations, etc. for Vietnam Television. – Selling VTV's programs to foreign partners. – PR for VTV's programs – Advise director about company's foreign works – Advise director about company's business strategy
Awards	– Awards from President of Vietnam Television for excellent staff every year since 2008



	Anhvu NGUYEN			
	응우옌 안 부			
	ウンウエン アン ブ		**(M) Drama**	
	E-Mail : nguyenanhvu@tvad-vtv.vn			
	베트남 텔레비전 - TV광고 및 서비스 센터 공무원/구매 및 판매 팀장	ベトナムテレビジョン – TV 広告およびサービスセンター 公務員/購入・販売マネージャー	越南电视台 电视广告服务中心 公务员	VIETNAM TELEVISION (VTV) – TV ADVERTISING AND SERVICES CENTER (TVAd) GOVERNMENT OFFICER/ACQUISITIONS AND SALES MANAGER
주요업무 & 약력	– 베트남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TV 프로그램 (특히 해외 드라마) 및 드라마 포맷 구매 – VTV 프로그램 PR – 해외 합작 프로젝트 – 회사 해외 사업과 관련하여 임원 고문 – 회사 사업 전략과 관련하여 임원 고문			
수상경력	– 2013: "TV 관련 구매 및 프로그래밍 전략" 지역 워크숍 참석을 위한 AIDB 및 프랑스 정부상 수상 – 2013: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해외 포럼			
主な業務 & プロフィール	– ベトナムテレビジョン放送のためのTV番組(特に海外ドラマ)およびドラマフォーマットの購入 – VTV番組のPR – 海外の合作プロジェクト – 会社の海外事業に関する役員チーム顧問 – 会社の事業戦略に関する役員チーム顧問			
受賞経歴	– 2013:「TV関連購入およびプログラミング戦略」地域のワークショップ参加のためのAIDBおよびフランス政府賞を受賞 – 2013: コリアドラマフェスティバル海外フォーラム			
主要业务 & 简历	– 旨在发展越南电视的电视节目（特别是海外电视剧）及电视剧formats进口。 – 越南电视的电视节目 PR – 海外合作项目 – 公司海外事务相关的高管顾问 – 公司发展战略方面的高管顾问			
得奖经历	– 2013：出席区域研讨会，《电视的采集及编程策略》获AIDB及法国政府奖 – 2013：出席韩国戏剧节国际论坛			
Major Works & Profile	– Acquiring TV programs, specially in foreign dramas, drama formats for Vietnam Television – PR for VTV's programs – Foreign co-operation projects – Advise director about company's foreign works – Advise director about company's business strategy			
Awards	– 2013: Award of AIDB and French Government for attending the Regional Workshop on "Acquisition and Programming Strategy for TV" – 2013: Korea Drama Festival International Forum			

Moderator



Chansouk KIM

김찬석

キム・チャンソク

(M) Drama

E-mail : luckyk55@naver.com

청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清州大学** 广告广报学科 **教授**	清州大学 广告宣传系 教授	Cheongju University Departments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Professor

주요논문	- 미국 TV 상업광고의 다양성 연구: 다문화 맥락을 중심으로(2013) - Chinese Immigrants in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Acculturation(2014) 등
수상경력	- 한국언론학회 학술상(2008) - SBS 문화재단 해외연구자(Visiting scholar) 선정(2012) - 대학생이 뽑은 베스트 PR 멘토상(2014)
主な論文	- アメリカ商業広告の多様性研究 : 多文化の流れを中心に(2013) - Chinese Immigrants in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Acculturation(2014) など
受賞経歴	- 韓国言論学会学術賞(2008) - SBS文化財団海外研究者(Visiting scholar)選定(2012) - 大学生が選ぶベストPRメンター賞(2014)
主要论文	- 《美国商业广告的多样性研究--多元文化脉络为中心》(2013) - 《在韩中国移民：人际沟通和文化之间的关系》(2014)等
得奖经历	- 韩国言论学会学术奖(2008) - 被选为 SBS 文化财团访问学者(Visiting scholar) (2012) - 大学生选择最佳公共关系（PR）导师奖(2014)
Selected Publications	- Study on Diversity of U.S. TV Commercial Advertisements Focusing on Multicultural Coherence (2013) - Chinese Immigrants in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Acculturation(2014), etc
Awards	- 2008: The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Academic Award - 2012: SBS Culture Stiftung Visiting scholar - 2014: Undergraduates' Choice Best PR Mentor Awards

Reference in Korean

Session 1. 한국 작가

드라마 <미생>

정윤정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드라마 미생의 작가 정윤정입니다.
우선, 이렇게 동 작품으로 아시아 유명 작가님들 및 제작자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드라마 미생은 한국의 케이블 채널인 tvN 에서 2014 년 10 월 17 일부터 12 월 20 일까지 방영된 20 부작 미니시리즈입니다.
한국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했으며, 방영 내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 많은 지지를 받았던 작품이었고 그에 따라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에서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목으로 쓰인 미생은 알려지다시피 대마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 있지 않음을 말하는 바둑용어입니다. 이는 계약직으로 고군분투하는 주인공 장그래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속 인물 장그래에 자신을 쉽게 투영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단어입니다.

드라마는 어릴 적부터 바둑만이 전부인 세상을 살던 주인공이 프로세계 입단에 실패한 후 바둑을 그만 두고 원인터내셔널이라는 종합무역상사에 인턴으로 입사해 적응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총 20 부작 동안 장그래가 회사에 입사하여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겪는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장그래와 원인터내셔널이 만나는 첫 시퀀스에서 아주 중요한 대사를 넣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원인터내셔널이라는 정글 속에 떨어진 장그래는 곧바로 직속 상사와 대면하게 됩니다.
30 대 초반의 김대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상사와의 첫 대면은 원인터내셔널의 시선을 그리고 세상의 일반적인 시선을 상징합니다.

장그래가 대학은 커녕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다는 사전 정보를 알고 있는 상사는 아주 삐딱한 태도로 장그래에게 묻습니다.

'고졸검정고시라고?', '직장생활 경험은?', '외국어나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1 급도 아닌 2 급 자격증이 고작이라는 장그래의 대답에 이 상사는 어이없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 참, 요즘 아주 보기 드문 청년일세'

한국에서 '보기 드문' 이라는 수식어는 주로 희소성을 가진 대상을 칭찬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쓰입니다. '예의 바르고 착하고 성품도 좋은 아주 보기 드문 아이예요' 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반어법으로 사용해 장그래처럼 능력 없는 인간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희소한지, 그러니까 장그래 같은 인간이 얼마나 희귀종인지 비꼬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썼습니다. 여기서의 능력이란 물론 지금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능력이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일명 그 능력 (한국에서는 요즘 스펙으로 부릅니다)은 정말이지 무시무시합니다. 모두가 그 기준을 넘어서기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다시 높아진 기준을 위해 밤낮 없이 달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인재를 솎아내야 하는 기준은 또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레이스는 엄마 뱃 속에서 나온 순간부터 시작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를 지옥이라고 느끼고 있고, 이 시대에 태어나 이들과 같이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얼마나 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고 능력 쌓기에 혈안이 될 수 밖에 없는지 에둘러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가치들을 잃어가는 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소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거 참, 요즘 아주 보기 드문 청년일세'

이 짧은 한마디로 그런 거창한 의도가 완전하게 전달될 리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든지 말든지 라고요.

'스펙' 이란 단어는 기계나 전자제품의 사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평가지수로 사용하는 이 끔찍한 세상에 대해 작가나름의 불평을 한 셈입니다.

드라마 〈미생〉 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대, 사회적 평가 잣대로는 턱없이 부족한 함량미달의 주인공은,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개인 능력을 발휘해 이 난국을 돌파하고 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환타지가 시작됩니다.

드라마 미생이 방영되는 내내 사람들과 모든 언론은 이 드라마를 생생한 리얼리티의 세계를 보여준 드라마, 극사실주의 드라마, 다큐멘터리같은 드라마라고 입을 모아 말했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직장 경력도, 그 흔한 자격증 하나, 외국어 한마디 못하는 주인공이 외국어가 필수인 종합무역상사에 입사해서 버틴다는 설정 자체가 판타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드라마는 시작부터 판타지라는 생각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장그래가 험난한 여정을 돌파해가는 과정에는 현실 세계에서는 실존하기 어려운 조력자 혹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드라마 미생이 판타지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노력이 보상받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나 상사를 만난다는 전개 자체가 판타지인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 판타지 세계로 무혈입성한 주인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걸음을 걸어야 하는 지점에서 모두가 응원하고 동의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타지를 걷어 낸, 정말 현실 그대로의 면면만을 갖고 드라마를 만들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을 수 있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드라마를 만드는 얘기만 하는 우리는 종종 그런 드라마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하니까요.

"그럼 드라마를 왜 봐? 다큐멘터리를 보지" 라고요.

기획부터 방영까지

미생은 기획부터 방영까지 꼬박 1 년이 걸렸습니다.

원작인 웹툰 '미생' 은 좋은 작품이었지만 60 분짜리 20 회에 달하는 드라마로 만들기에는 인물과 이야기의 얼개가 많이 부족하다는 장르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대본을 위해 전체는 물론 각 회별 이야기 속에서도 기승전결 구성과 에피소드를 새로 짜야 했습니다.

다행히, 상세한 자료 조사와 실제로 상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현실 그대로의 '상사맨' 의 모습을 잡기는 했습니다.

다음은 작품의 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문제였습니다.

현실의 팍팍함과 냉정함을 그대로 그려내는 것에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연민과 용기를 남길 것이냐.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드라마를 함께 만든 김원석 감독과 어떤 의미에서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보다 더 현실의 팍팍함과 냉정함을 그대로 그려내기를 원한 쪽이었던 김감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연민과 용기를 남기길 원하는 저는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했고 팽팽하게 서로 줄을 당기면서 적당한 어느 지점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내내 감독과 저는 희망을 강요하지도, 작위적인 희망의 메세지를 전하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이렇게 시멘트 덩어리 같이 삭막하니 그냥 받아들이라고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계약직인 장그래가 결국엔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장그래의 상사이자 멘토인 상식에게 이런 말을 자조적으로 내뱉게 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책 없는 희망이, 무책임한 위로가 무슨 소용이냐구요.

맞는 말입니다. 어디에서도 만나기 힘든 희망과 어설픈 위로는 절망과 슬픔을 아주 잠깐 잊게 해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사 동기이자 소울메이트인 선차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그 대책 없는 희망, 무책임한 위로 한마디 못 건네는 세상이란 게 더 무섭네요. 대책 없는 그 말 한마디라도 절실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내버려 두면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고, 어떤 누군가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서 구원을 얻기도 하니까요.

이 두 마디가 드라마를 20 회 동안 끌어 오는 톤 앤 매너가 되었습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회에서는 결국 장그래를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무리한 수를 두던 상식은 20 여년간 몸 담아 온 회사를 떠났고, 정규직이 되지 못한 장그래 역시 회사를 떠납니다. 상식은 개인 회사를 창업하고 기존 영업 3 팀의 인력들이 합류한 후 마지막으로 장그래가 합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에필로그에 감독과 저는 그때까지 끌어 온 톤과 사뭇 다른 요란한 희망을 마지막 돌로 놨습니다.

말 그대로 있을 법한 판타지, 바라마지 않는 판타지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판타지로 시작했으니 판타지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판타지 마무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시청자들과 평이 없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세상이지만 그래도 그 상자 안에 이것 하나는 남아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판도라 상자 안을 확인한 바는 없지만 남아 있다고 하니 믿고 싶었습니다. 선차장의 대사처럼 말입니다.

대체 작가가 희망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얘기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소통과 공감의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는 이미 '바둑'이라는 길에서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친구입니다. 남들이 대학에 진학해 스펙을 쌓을 동안 전념했던 '바둑'을 더 이상 못하게 되면서 장그래는 길을 잃습니다. 후원자의 소개로 들어간 회사에서 그는 고졸에 낙하산일 뿐인, 조직 내 버틸래야 버틸 수 없는 존재로 낙인찍힙니다.

하지만, 장그래는 그저 묵묵히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며 하루하루를 절실히 살아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출발선은 다르지만, 또 다른 절실함으로 살아나가는 '동료'들을 만나고, '내 새끼'라고 불러주는 상사를 만나면서 꾸준히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무시와 경멸 혹은 호기심으로 시작됐던 장그래에 대한 조직 내 시선이 점차 놀라움과 인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작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미생'은 '장그래'의 성장 스토리가 기본 줄기로 전개되지만, 사실 '미생'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인물들은 비단 '장그래'뿐 만이 아닙니다. '장그래'가 일하게 된 영업 3 팀의 수장으로 실질적인 멘토가 되는 '오상식' 차장, 믿음직한 선배 '김동식' 대리, '장그래'와 동기 4 총사인 능력 있는 홍일점 '안영이', 냉철한 엘리트 '장백기', 열정적인 수다쟁이 '한석율' 등 원인터내셔널 구성원들 하나 하나가 서로 대립하면서, 혹은 서로 끌어주면서 20 회가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서로 엮이며 변화해 나갑니다. 결국은 조직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안에서는 이들도 장그래와 다름없는 미생들이기 때문에 주인공 외의 다른 인물의 성장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특히, '미생'은 직장 내에서 맺어지는 '관계'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변화'와 '성장'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희노애락과 성장통은 인물 스스로의 '간절함'과 타인과의 '진실된 관계' 속에서 위로가 되고 앞으로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드라마 미생은 많은 시청자들이 유난히 등장인물에 자신을 투영해 바라보며 울고 웃은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용불안과 직장 내 무한경쟁에 지친 대중들이 '미생' 속 인물들로부터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나'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 감정이입을 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생 속 인물들은 모두 구직을 위해 그 '스펙' 쌓기에 급급한 동생일 수도,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신일 수도, 육아냐 일이냐를 고민하는 친구일 수도,

바가지 긁는 아내에게 내가 술 마시는 이유를 아냐고 되묻고 싶은 술 취한 아버지일 수도 있으니까요.

'미생' 이란 작품을 겪으면서 드라마란 결국 시청자들과의 '소통'과 '공감'이란 당연한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물론 '미생' 은 직장을 배경으로 그 속의 인물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감정 이입이 쉬울 수 있었던 장점을 갖고 있는 작품이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청자들과 '소통' 하고 '공감' 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캐릭터 설정과 캐릭터 플레이들이 드라마의 기본 틀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TV 드라마의 트렌드와 인기 요인' 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 요즘 드라마 만드는 사람들은 자주 '멘붕' 을 겪습니다.

한국에서의 유행어인 '멘탈붕괴' 라는 조어의 줄임말인데 직역하자면 '정신이 무너짐, 즉 정신 나감' 의역하자면 '판단 불가'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주변에서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야 할 지 모르겠다는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마찬가지의 심정입니다.

그 만큼 TV 드라마의 트렌드는 따라가기 힘든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줄 알았더니 저렇고, 저런 줄 알았더니 이렇기 때문에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있습니다.

애초에 TV 드라마의 트렌드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드라마는 여전히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게 본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한 드라마를 쓰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환타지의 외피를 쓰든 현실의 외피를 쓰든, 그 감정이 사회적인 담론을 끌어 낼 만큼 의미가 있는 감정이든 개개인에 집중한 작은 감정이든, 결국은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건을 끌고 가는 드라마가 아닌, 사건이 인간을 끌고 가면서 이해 불가의 캐릭터, 이해 불가의 개연성, 이해 불가의 사건 등이 난무하는 드라마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미생 역시 항상 그런 기본을 되새기면서 1 년 간의 지난한 작업을 끌고 갔습니다.

드라마 미생을 집필 하는 중에도 마찬가지지만 방송을 끝낸 후에도 작품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제 의견을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작가가 말하는 드라마 미생에 대한 유일무이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잊고 있었던 집필 당시의 생각과 의미들을 되새겨 볼 수 있었고, 그때 어떤 씬을 어떤 의도로 썼는지 다시 생각해 내면서 마음의 작은 진동까지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무척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또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 작가님들을 뵙고 더 많은 걸 배워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내용이었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미생> 시놉시스

장그래는 어릴 때 바둑을 시작해 프로기사를 목표로 살았지만, 결국 입단에 실패한 후 지인의 도움으로 원인터네셔널이라는 회사의 영업 3 팀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된다.

고졸 검정고시가 전부인 학벌에 낙하산이라고 알려지자 인턴들 사이에서 소외되고, 영업 3 팀의 오차장도 탐탁지 않아 한다. 하지만 성실하게 노력하는 장그래의 모습에 오차장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인턴 PT 시험을 훌륭히 통과한 장그래는 2 년 계약직 사원으로 영업 3 팀에 합류한다. 그리고 함께 합격한 동기 장백기, 안영이, 한석률 역시 각 부서에 배치되어 신입사원으로서 고군분투하기 시작한다.

네 사람은 회사에서 수많은 일을 겪고 다양한 사람들을 보며 성장한다.

장그래는 영업 3 팀에서 신념을 지닌 워커홀릭 오차장, 능력 있고 사람 좋은 김대리,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천과장과 함께 다른 부서와 이해관계에 얽혀 부딪히기도 하고, 비리와 부조리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팀원이 똘똘 뭉쳐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하고, 야근을 자처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바둑을 두다보니 혼자 하는 일이 익숙했던 장그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장인으로서 능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소속감과 동지애를 느끼며 점차 함께 하는 일에 익숙해져간다.

외모 학력 스펙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엘리트였던 장백기는 철강팀에 배치된 후 상사인 강대리로부터 단순한 업무만 받자,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직을 하려 한다. 하지만 출장 간 강대리를 대신하여 중요한 서류 작성을 하던 백기는 타 부서 상사들 및 동기들과의 대화를 통해 실무 기본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배우는 자세를 다잡는다.

당장 실무에 투입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안영이는 여자라는 점 때문에 자원팀에 쉽게 녹아들지 못 한다. 담배심부름이나 사무실, 쓰레기통 청소 같은 허드렛일 은 기본이고 잘해보려고 한 일에 쌍욕을 먹기도 한다. 하지만 끝까지 근성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는 영이의 모습에 결국 상사들은 마음을 열고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일을 맡기기 시작한다.

한석률은 겉보기에는 뻔뻔하고 능글맞아 보여도, 블루 컬러 아버지 덕분에 노동 현장에서 실무를 배워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 처음에는 사람 좋아보였지만 점점 일을 떠넘기고 미루는 상사 성대리와 대립하여 감정적이고 미성숙하게 대처했다가

오히려 화를 입고 침울해진다. 하지만 과도한 요구에 반발하는 공장 직원들을 무시하는 성대리 태도에 결국 폭발하고, 회사의 요구와 현장 직원의 만족 양 쪽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며 능력을 발휘해 성대리 보란 듯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네 사람은 크고 작은 역경들을 거치고, 동료들과 협력도 하고 부딪치기도 하며 원인터네셔널의 한 사람으로서 성장한다. 그러나 그 중 2 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장그래는 누구보다 우수한 업무 태도와 성과에도 부구하고 정직원으로 전환되지 못할 상황에 처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차장은 장그래를 정직원으로 만들기 위해 최전무의 무리한 업무 지시를 받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장그래의 실수로 인해 사업은 수포로 돌아가고 회사에는 큰 타격을 입힌다. 결국 오차장은 책임을 지고 퇴사하며 장그래에게 어떻게해서든 무조건 살아남으라고 당부한다. 오차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장그래는 마음의 짐을 진 채 계약직 사원으로서의 마지막 날을 맞는다.

회사에 남은 사람들, 영업 3 팀 사람들과 타부서 상사, 동기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 한 장그래는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되고...

다시 백수로 돌아 간 장그래, 그러나 예전과 확실히 달라진 장그래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으며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한다.

그러던 어느날..

퇴사 후 작은 상사를 창업한 오차장이 찾아오고 장그래를 스카웃한다.

그리고 뒤이어 퇴사한 김대리가 합류하며 영업 3 팀은 다시 함께 일하게 된다.

Session 2. 중국 작가

<전세계 인기 드라마 스토리 패턴이 중국 드라마 창작에 주는 시사점>

리우이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북경 TV 예술가 협회에서 저를 청년 작가로 추천해 주셔서 영광스럽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 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젊은 작가로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특히 한중일 3개국 인기 드라마 스토리 패턴의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 이것이 중국 드라마 창작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할 드라마 스토리 패턴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스토리 패턴이란 통속적으로 좋은 스토리를 서술하는 고유한 패턴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 손에는 제 발표문의 번역본이 들려져 있을 것입니다. 발표문에 있는 통계 자료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에 쓰인 작품들은 주로 2009년부터 2015년 초까지 큰 사랑을 받은 드라마입니다. 총 30편의 드라마를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국가별로 나누고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높은 시청률만을 가지고 선정한 드라마가 아닌 각 작품만의 특색, 사회적 반향과 예술적 함양까지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작품 리스트: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한국 드라마	중국 드라마
라이 투 미	싸이코빌	보이스- 생명 없는 자의 목소리	아이리스	잠복 (潛伏)
워킹 데드	스킨스	솔직하지 못해서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여명지전 (黎明之前)
왕좌의 게임	굿 와이프	마더	뿌리 깊은 나무	보보경심 (步步驚心)
뉴스룸	다운튼 애비	고독한 미식가	옥탑방 왕세자	궁쇄심옥 (宮鎖心玉)
브레이킹 배드	셜록	한자와 나오키	상속자들	옹정황제의 여인 (後宮甄嬛傳)
하우스 오브 카드	비셔스	메꽃 평일 오후 3시의 연인들	별에서 온 그대	최찬인생 (璀璨人生)

<표1> 인기 드라마 작품 리스트(2009~2015)

이 30편의 드라마들은 방송 기간 동안 높은 시청률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작품이 되었다는 것은 높은 제작 수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캐치하여 시청자의 이목을 사로잡고 공감대를 형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감대는 드라마 스토리와 주인공들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대한 반응이자 피드백입니다. 이는 드라마가 현대 경제와 사회 생활의 면면을 비춰주는 일종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언급한 30편의 작품을 살펴보면 현재 인기 드라마 스토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유형을 살펴보면 적어도 8가지 유형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인물 유형	주요 작품	주요 인물	등장 횟수
추적	보이스-생명 없는 자의 목소리	카지 다이키, 이스즈에 료스케	20
	아이리스	김현준, 최승희	
	잠복	위저청, 리야	
	여명지전	류신제, 탄종수	
	라이 투 미	칼 라이트만, 질리언 포스터	
	싸이코빌	애스턴 부부	
	굿 와이프	알리시야, 칼린다	
	셜록	셜록, 왓슨	
	뿌리 깊은 나무	세종 이도, 강채윤	
	별에서 온 그대	도민준, 천송이	
타임슬립	보보경심	뤄시 / 장샤오	16
	궁쇄심옥	청천, 량비 / 혁사리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구미호 / 길달	
	옥탑방 왕세자	이각과 신하들, 부용	
	별에서 온 그대	도민준, 천송이 / 이화	
통치/지배	왕좌의 게임	롭, 티윈 라니스터, 렌리	14
	다운튼 애비	로버트 크롤리, 코라	
	뉴스룸	윌 맥어보이, 맥켄지	
	옹정황제의 여인	견환, 옹정황제, 효경헌황후	
	하우스 오브 카드	프랭크, 클레어	
	뿌리 깊은 나무	세종 이도, 정기준	

배신	옹정황제의 여인 최찬인생 한자와 나오키 상속자들 브레이킹 배드 왕좌의 게임	견환, 안릉용, 심미장 위페이, 장허판 한자와 나오키, 콘도 나오스케 차은상, 김탄 월터 화이트, 제시 핑크맨 대너리스, 존 스노우, 티리온	14
도망	워킹 데드 솔직하지 못해서 마더 고독한 미식가 메꽃 평일 오후 3시의 연인들	릭, 로리 나카지마, 미즈노 스즈하라 나오, 미치키 레나 이노가시라 고로 사사모토 사와, 다키가와 리카코	9
변화	워킹 데드 브레이킹 배드 스킨스 별에서 온 그대	데릴, 캐럴, 가버너 월터 화이트, 제시 핑크맨 토니, 시드 도민준, 천송이	9
복수	한자와 나오키 옹정황제의 여인 뿌리 깊은 나무 왕좌의 게임 브레이킹 배드	한자와 나오키, 다케시타 키요히코 견환, 단비, 녕빈 강채윤, 정기준 존 스노우, 브란, 아리아 월터 화이트, 제시 핑크맨	12
탈출	워킹 데드 브레이킹 배드 왕좌의 게임 옹정황제의 여인 마더 별에서 온 그대	릭, 유진 월터 화이트, 스칼라 제이미, 이그리트 과군왕 윤례, 온실초 스즈하라 나오, 미치키 레나 도민준, 이휘경	12

<표2> 인기 드라마 등장 인물 유형

추적, 타임슬립, 통치, 배신, 도망, 변화, 복수, 탈출 등 총 8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유형을 염두에 두고 드라마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8가지 유형의 인물이 모든 드라마의 인물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유형의 인물이 최근 드라마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난 5년 동안 이 유형의 등장인물이 전세계 TV 브라운관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또한 이 중 일부 유형은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인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추적, 통치, 배신, 복수, 탈출 유형은 최근 드라마에서만 보인 것이 아니라 과거 고

전주의 시대부터 문학과 희곡 작품에서도 심심찮게 등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지만 이러한 인물들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얻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바람과 감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인기 드라마의 스토리 패턴 역시 추적, 타임슬립, 통치, 배신, 도망, 변화, 복수, 탈출이라는 8가지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점은 저도 중국 드라마 작가로서 앞서 말씀 드린 모든 드라마에 관심을 갖고 챙겨 보았습니다. 제 주변의 비(非) 드라마 업계 지인들도 저와 같은 드라마 장르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은 중국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았거나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사랑 받는 드라마들은 한국, 일본 드라마와 같은 스토리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더 많은 제작비를 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나라에서는 같은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점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일본 드라마의 창작이 중국 드라마 작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제가 직관적으로 판단한 결과 일본 드라마는 디테일한 감정적 표현을 중시하고 한국 드라마는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시각적인 자극을 중시합니다.

최근 들어 중국 드라마 역시 한국과 일본 드라마를 따라 했지만 중국 시청자가 좋아하는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시청 스타일과 결합시키지 못해 오히려 극단화 현상만 빚어졌습니다. 특히 몇 년 사이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일본 드라마를 넘어섰고 중국 드라마들도 앞다투어 한국 드라마를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긴장감을 남용하고 합리성을 잃으면서 '막장 드라마'를 생산했습니다. 작가들은 스토리는 신경 쓰지 않고 각종 에피소드만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따라서 에피소드는 많아 보이지만 겉돌고 비슷한 대립 관계는 많지만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작가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몇 개 안 되는 에피소드를 뒤죽박죽 섞어놓은 것에 불과하며 힘든 것은 피하면서 집필한 결과입니다.

같은 스토리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시청자, 평가 방식, 제작 방식에 따라 창작 방향과 테크닉에도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저의 석사 지도교수님이신 중국 중앙 희극 학원 루민 교수님은 다정다감한 중년 여성입니다. 드라마 창작 교수이자 일류 드라마 작가이기며 한국 드라마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루 교수님이 '도민준'의 열혈팬이라는 점입니다. '도민준'을 사랑하는 마음에 일부러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도 다녀오셨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교수님은 제게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민준 서재만하더라도 6백만 위안이 넘는 제작비를 들였고 안에 있던 책들도 모두 진짜였다고 합니다. 중국이었다면 아마도 저렴한 가짜 책들을 꽂아두었겠지요. 그러나 한국 제작진은 가짜로 세팅하면 화면의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에 진짜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도민준의 서재가 그의 마음이라면 천송이만이 그의 서재로 들어갈 수 있고 천송이만이 그의 마음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서재만 보더라도 한국이 드라마 제작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드라마의 결함투성이인 장면을 보면 관련 스태프들이 세심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는 중국 청년 드라마 작가의 일원으로 제가 몸 담았던 세상에 단연코 실망을 한 적은 없습니다. 드라마는 상업적 특성상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경제·정치 발전과 동고동락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고 일인 평균 GDP가 상승하면서 정부도 문화 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관련 드라마 제작사, 투자회사, 제작진의 수준도 높아지고 드라마 제작 산업 구조 역시 선진화하고 있으며 시청자의 소양과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보고 저 역시 미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게 중국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끊임없이 변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충만한 원동력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제게 작가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수많은 중국 시청자, 나아가 전세계 시청자가 제가 쓴 드라마를 본다는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중국 드라마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또한 중국 시청자 역시 전세계 드라마를 보면서 시야를 넓히고 남다른 생활을 영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발표문을 위해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루민 교수님, 천스위안 박사, 리리 작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드라마 〈생존암호〉 시놉시스

열한 명의 승객을 태운 어선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사고를 당한다. 바다를 표류하던 그들은 다행히 무인도에 이르게 되지만 사람 하나 살지 않는 무인도에는 수풀만 무성하고 스산한 분위기마저 감돈다. 도시 생활에 길들여진 그들이최악의 상황에 속수무책인 가운데 가이드 친랑톈(秦郎天)은 사람들을 이끌고 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애교 많고 세련된 원원(文文)은 친랑톈과 완전히 다른 성격이지만 잇따른 돌발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미운 정 고운 정이 들기 시작한다. 어떤 위험이 닥쳐도 원원은 사람들에게 늘 따스한 미소를 보이지만 오직 친랑톈에게 만큼은 얼음처럼 차갑다. 사실 두 사람은 진작부터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다만 누구 하나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

허린(何林)은 전형적인 '기술 덕후'이다. 무인도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게임에 빠져 있던 그가 무인도에 온 뒤에는 원원에게 빠지게 된다. 허린의 시선은 항상 원원을 좇고 그녀를 보호하려 한다. 그러나 원원은 허린의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와 단순한 친구로 지낸다. 원원의 마음은 줄곧 친랑톈에게 가 있지만 그의 복잡한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친랑톈은 모두를 이끌고 해안을 벗어나 먹을 것과 깨끗한 물이 있는 숲으로 향한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도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험난한 길이 놓여 있을 뿐이다. 친랑톈은 모두를 독려하며 각자의 장점과 경력을 활용해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하늘을 뒤덮을 만큼의 수많은 모기떼와 사투를 벌이고 탈수 증세를 보이는 일행을 위해 물 한 방울을 쥐어짜며 서로 의지하기 시작한다.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독사를 잡아 먹기까지 한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발생한 산사태에 기적적으로 도망치지만 친랑톈은 여덟 살 난 왕샤오예(王曉野)를 구하다 흙더미에 갇히게 된다. 뜻밖의 사고를 겪으며원원은 자신이 친랑톈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깨닫는다. 슬픔에 빠진 원원을 보며 허린은 고백을 하지만 원원은 그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원원은 하염없이 친랑톈을 불렀고 그녀의 울부짖음을 들은 친랑톈은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가 되살아났다. 어렵사리 흙더미에서 살아나온 친랑톈이지만 웬일인지 원원의 사랑을 자꾸만 거부한다. 그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씨를 홀로 삭일 뿐이다. 이 둘의 마음을 알아차린 허린은 친랑톈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다.

허린은 원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그녀를 웃게 하기 위해 반딧불이로 빛을 비춰주고 나무덩굴로 그네도 만들어준다. 원래 괴팍한 외톨이었던 허린도 원원 덕분에 점점 활발해지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기술 덕후'의 장기를

발휘하기 시작한다. 차가운 눈빛으로 독설을 퍼붓는 친랑톈과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허린을 두고 혼란에 빠진 원원. 결국 누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일까.

친랑톈은 라이벌 허린의 등장에 당황하지만 무인도에서의 생존을 위해 마음을 다잡는다. 생존에 대한 모두의 희망이 친랑톈에게 걸려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사랑하는 원원을 돌볼 겨를이 없다. 결국 그의 선택은 원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친랑톈은 뛰어난 리더십으로 일행을 인솔하고 모두의 신임을 얻는다. 바로 그 때, 일행은 친랑톈이 원래 가이드가 아니라는 것과 사고 역시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건의 진상은 무엇일까?

친랑톈의 직업은 펀드 매니저이다. 10 년 전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그는 아버지의 죽음에 깊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친랑톈은 사고의 진상과 아버지의 행적을 알기 위해 친구 이수(曆術)에게 뒷조사를 부탁한다. 함께 배에 탄 일행들은 모두 그 때 사고와 관련된 인물들이었던 것.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일행들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을 받은 친랑톈은 사고의 진상과 이수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친구 이수의 음모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수는 친랑톈 명의의 사업을 가로채기 위해 조사를 빌미로 그를 속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던 친랑톈은 이수의 계획에 따라 스스로 가이드가 되어 모두를 데리고 바다로 향했다.

친랑톈은 친구의 배신에 충격을 받는다. 일행들도 더 이상 그를 믿지 못한다. 생존을 위한 믿음이 무너지자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원원의 사랑과 지지로 친랑톈은 정신을 차린다. 다시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모두를 하나로 모으고 위기를 극복한다. 이수와 친랑톈이 최후의 결전을 벌일 때 생사를 넘나들며 이미 하나가 된 일행은 이수와 대적하고 승리를 거머쥔다. 이수도 마지막엔 잘못을 뉘우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이 났다.

허린은 원원의 마음을 얻지 못했지만 우울했던 '덕후'에서 밝은 청년으로 성장했다. 친랑톈과 원원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연인이 되었다. 구조선 갑판 위에 선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잊었던 자신의 비밀번호(코드)를 되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비밀번호는 아주 단순했다. 바로 서로간의 믿음과 사랑이다.

Session 3. 베트남 제작자

<베트남의 TV 드라마 트렌드와 인기 요인>

응우옌 안 부

베트남 텔레비전 **(VTV)**

목차

1. 간단한 소개
2. 드라마 트렌드와 인기 요인
3. VTV의 해결방안 및 활용방안

VTV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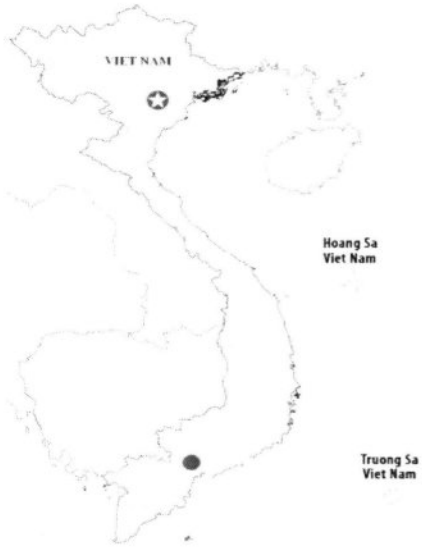
- 국영방송국
- 규모가 가장 큰 텔레비전 방송국
- 규모가 가장 큰 텔레비전 회사

드라마 시간대 소개

채널	시간대	요일	제작
VTV1	**13**시	매일	해외
	20시**30**분	월요일-금요일	베트남
	21시	일요일	해외
VTV2	**11**시	매일	해외
	19시	매일	해외
	20시	매일	해외
VTV3	**12**시	월요일-금요일	해외
	18시	월요일-금요일	해외
	21시	월요일-금요일	베트남
	22시**30**분	월요일-금요일	해외
VTV6	**19**시	매일	해외

광고 시장에 대한 간략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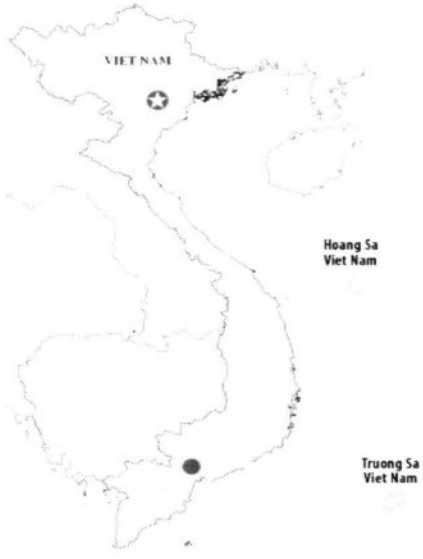
- 가장 큰 시장 두 곳: 하노이 (북쪽)와 호찌민 시 (남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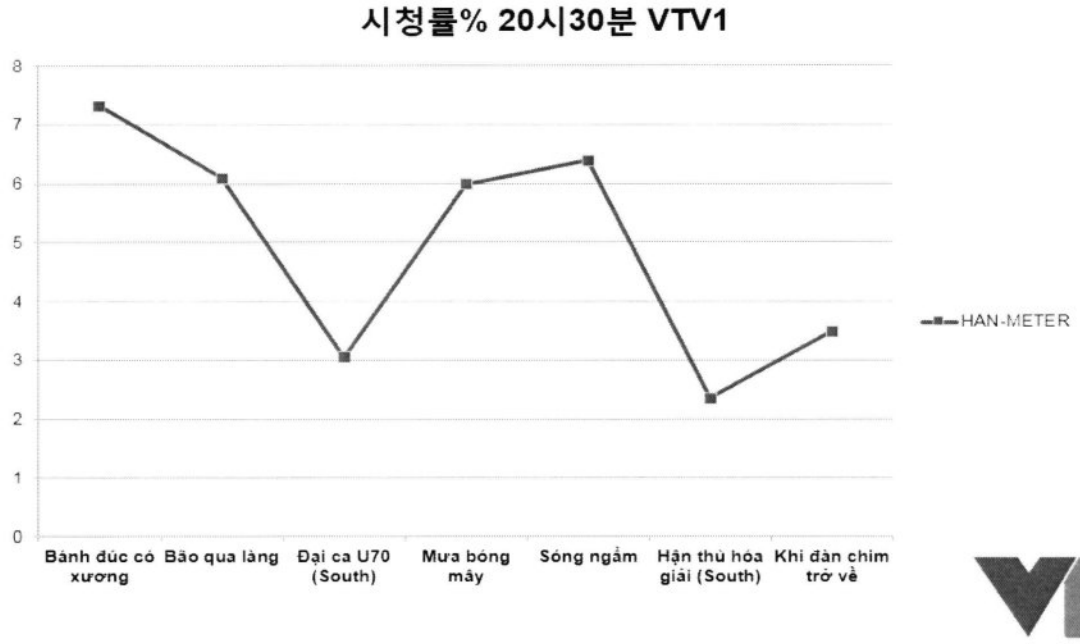
TV 드라마 트렌드 및 인기요인

- 북쪽과 남쪽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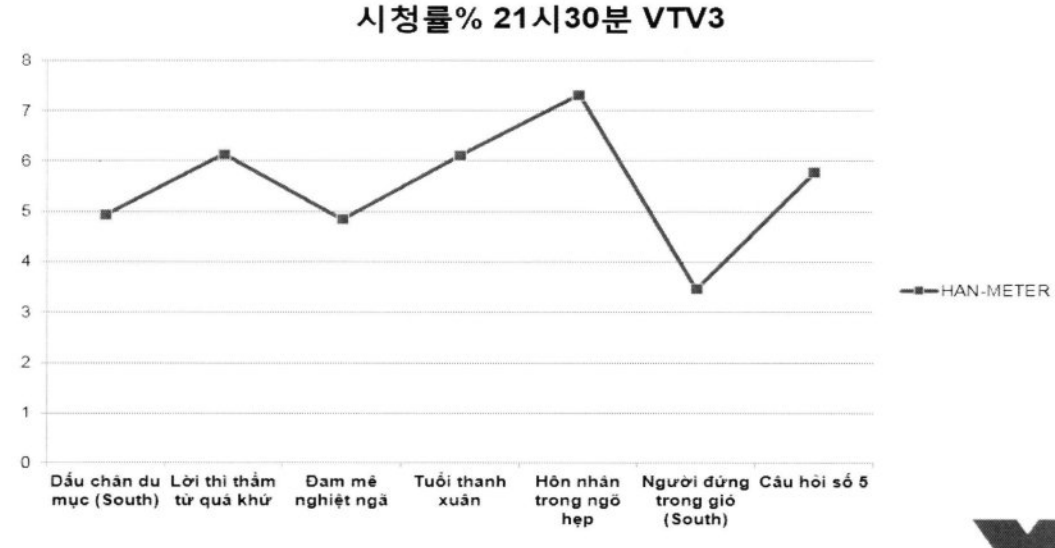
북쪽
≠
남쪽



TV 드라마 트렌드 및 인기요인



TV 드라마 트렌드 및 인기요인



TV 드라마 트렌드 및 인기요인

❖ 선호 콘텐츠:

- 북쪽: 평범한 가족 생활, 경찰, 옛 촌락, ...
- 남쪽: 오락물을 더 선호

❖ 새로운 스폰서 방식: 간접광고 (PPL)

→VTV는 베트남 드라마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베트남 드라마는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고 있음.

TV 드라마 트렌드 및 인기요인

❖ 드라마 제작에 첨단기술을 도입한 나라:
미국, 한국.

❖ 음악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됨:
많은 OST (배경음악)가 히트작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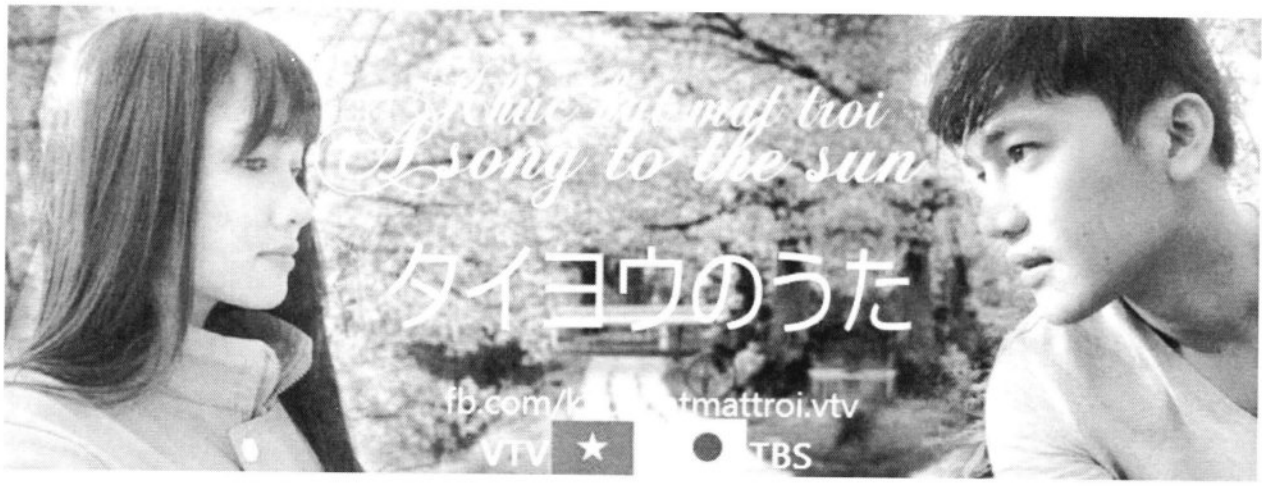
TV 드라마 트렌드 및 인기요인 해외 드라마

- 경쟁이 매우 치열한 환경.
- 한국 및 중국 드라마는 라이센스 가격이 높지만 아직 인기가 있음.
- 인도, 태국 드라마가 상승 추세.
- 한국 단편드라마는 광고 스폰서를 찾기 어려움.
- 사극 및 시대극은 북쪽에서는 별 인기가 없으나 남쪽에서는 아직 인기가 있고 특히 중국 드라마가 그러함.

VTV의 해결방안 및 활용방안

- 해외 포맷 구매를 통한 각본력 향상.
-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제작.


VTV
CJ E&M
Tuổi thanh Xuân
Forever Young


Song to the sun
タイヨウのうた
VTV
TBS

VTV의 해결방안 및 활용방안

- 수익 증대: 드라마 속 간접광고 (PPL)가 가능하도록 방침을 책정.
- 온라인과 오프라인 프로모션 병행. VTV의 드라마 커뮤니티 생성.
- 드라마를 통한 부가가치를 개발 및 창출하고 시청자 화합을 꾀한다.
- 기술 투자: 비디오 화질 (4K), 색감, 음악, ...

베트남 텔레비전 (VTV)

감사합니다!

Session 4. 일본 작가

<파트너>

코시미즈 야스히로

〈파트너〉는 2 시간짜리 단편 드라마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첫 방송은 2000 년입니다. 단편 드라마로서는 3 편이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이 시기를 프리시즌(pre seas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2 시간짜리 서스펜스 드라마는 주부층을 타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운 주제는 피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마추어 탐정물이 주류였습니다. 아마추어 탐정물이라는 것은 경찰관이 아닌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파트너〉는 그런 조류를 거스르는 형태로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경시청 형사였고, 내용도 나름대로 무거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제 스스로가 당시 2 시간 서스펜스 드라마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먼 옛날 (제가 어렸을 때), 2 시간 서스펜스 드라마는 남자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내용도 무겁고 때로는 선정적이며 때로는 기괴하거나 하였으니 분명 남성 시청자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시청자는 여성, 게다가 주부층이 되었으며 내용도 가벼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2 시간 서스펜스 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서스펜스 드라마 각본을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코미디 드라마만 썼기 때문에 서스펜스 드라마는 완전히 문외한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부 취향이 되어 있던 2 시간 서스펜스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거나 답습하여 쓰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기야 당시 2 시간 서스펜스 드라마와 비슷한 것을 원했다면, 일부러 프로듀서도 문외한인 저를 지명하지 않았겠지요. 이왕이면 현재와는 전혀 다른 것을 프로듀서도 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꽤나 자유로운 발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저는 딱히 그리 생각하지 않았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색적인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래 남자 콤비물 (이른바 버디물)은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던 데다 아마추어 탐정물이 주류였던 시기에 주인공을 굳이 경시청 형사로 설정하고 내용도 경찰 조직 내의 불화 등을 그리거나 하여 꽤 남성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실제로 방송국 내 시사회에서 "재미있지만 시청률은 나오지 않겠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재 방송에서는 예상을 뒤엎고 17%가 넘는 좋은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그 덕분에 2 번째 작품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저는 "이번에는 연쇄살인범을 등장시키고 싶다"고 신나서 프로듀서에게 제안했습니다. 주부층이 타깃인데 연쇄살인범이 등장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입니다. 실제로 프로듀서는 방송국 내 회의에서 극심한 반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로듀서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하라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물론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듯한 음산한 연쇄살인범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주부층을 배려하는 형태로 다소 순화된 연쇄살인범을 등장시킨 2 번째 작품은, 다시 예상을 뒤엎고 22%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은 이 2 편의 방송 당일, 관동지방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눈 때문에 외출을 삼가 한 만큼 운 좋게 시청률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운도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웃음). 그 후 3 편도 제작되었으며 그것도 17%를 넘는 시청률을 올리며 2001 년에 프리시즌이 끝났습니다. 2002 년 10 월 <파트너>는 연속 드라마로 시작했습니다. (시즌 1 만 1 분기 동안 방영, 이후는 2 분기 동안 방영). 프리시즌 시기는 좋은 시청률을 올렸지만 기본적으로 1 시간 1 회 완결 형식으로 연속 드라마화된 <파트너>는 당초 그만큼 시청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즌 1 의 평균 시청률은 13.1%였습니다. 그러나 시즌이 지날 때 마다 세간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재미도 알려졌는지 결과적으로 전 시즌 (시즌 13)의 평균 시청률은 17.4%를 올렸습니다.

<파트너>가 프리시즌부터 15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이유 중 하나는 다채로운 내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시리즈물의 1 회 완결 드라마에는 포맷이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시리즈물로서 통일된 색을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은 <파트너>에서는 그 포맷이 상당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규칙 같은 것도 특별히 없습니다. 시즌 1 이후, 저도 포함해서 35 명의 작가가 집필해왔는데, 각자의 장점을 살린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진지함은 물론 코미디도 있습니다. 본격추리도 있고 스릴러와 서스펜스 그리고 사회문제는 물론 일상생활을 그린 감동적인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포맷 덕에 다양한 장르의 다채로운 작품이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인기의 이유를 들자면 파트너의 교체가 아닐까요? 스기시타 우쿄 (미즈타니 유타카)를 부동의 자리로 두고 그 파트너가 초대 가메야마 가오루 (데라와키 야스후미 / 프리시즌~시즌 7 제 9 화)부터 2 대인 간베 다케루 (오이카와 미츠히로 / 시즌 7 최종화~시즌 10) 그리고 3 대가 가이 도오루 (나리미야 히로키 / 시즌 11~시즌 13)등 구체적으로 교체하고 올해 10 월부터 시작한 시즌 14 부터는 4 대째 파트너인 가부라기 와타루 (소리마치 다카시) 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을 교체시키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하지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스기시타 우쿄가 각각 파트너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는 15 년 동안 텔레비전 드라마만이 아니라 영화를 3 편 (<파트너-극장판 - 절체절명! 42.195㎞ 도쿄 빅 시티 마라톤>,<파트너-극장판 II- 경시청 점거! 특명계의 가장 긴 밤>, <파트너-극장판 III - 거대밀실! 특명계 절해의 고도로>)와 스핀오프 무비를 2 편 (<파트너 시리즈 감식・요네자와 마모루의 사건부>,<파트너 시리즈 X DAY>) 공개하여 파트너 월드의 확대를 꾀하였습니다.

○ 상영작품에 대해서

올해 2 월에 방영된 시즌 13 <아유카와 교수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3 대 파트너인 가이 도오루의 최종 시즌 제 15 화・제 16 화, 전 후편입니다.

이하, <파트너>의 홈페이지에서 줄거리를 인용하겠습니다.

우쿄 (미즈타니 유타카)는 도오루 (나리미야 히로키)의 꼬드김도 있고 대학시절 은사의 고희를 축하하는 파티에 참석한다. 참가자는 은사인 아유카와 (시미즈 코지) 외에 변호사와 대학교수, 재무성의 간부 등 특히 우수했던 제자들이 모였다. 그 중에는 마지막 제자였다는 야시로 미야코 (나카마 유키에)의 모습도 있었다. 일동은 아유카와의 수발을 들고 있는 가정부 레이코 (이시노 마사코)의 요리를 맛있게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유카와가 생각지도 못한 물음을 던진다.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될까?". 다음 순간, 참가자들은 견딜 수 없는 졸음이 밀려오면서 의식을 잃고 만다. 정신을 차리니 그곳은 외부와는 차단된 지하실로, 그 일각에는 명제의 대답을 요구하는 메모가 있다. 잠시 후, 지하실의 문이 열리지만 거기에는 엽총을 든 아유카와의 모습이 있었다. 아유카와는 왜 제자들을 감금하고 살인의 시비를 묻는 것 인가. 붙잡힌 제자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막힌 공간에서 목숨을 건 극한의 두뇌전이 시작된다!

미스터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클로즈드 서클을 이야기의 중심무대로 긴장감 넘치는 전개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 특징을 들어보자면, 스기시타 우쿄와 가이 도오루의 파트너 콤비를 굳이 안과 밖에 배치하여 이야기 중반 이후까지 개인 행동을 시키고 그 대신 우쿄는 같은 포로의 몸이 된 야시로 미야코를 일시적인 파트너로서 그녀와의 콤비네이션을 통해 어려움에 맞서는 전개라고 할까요.

야시로 미야코 (나카야마 유키에)는 이 시즌의 첫 회 스페셜 (2 시간)에 등장한 새로운 캐릭터입니다. 경찰청의 공무원이며 내각 정보 조사실 근무를 거쳐 경시청에 홍보과장으로서 파견되어 왔다는 설정입니다. 세미 레귤러로서 이후에도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회에 그녀의 존재를 시청자에게 각인시켜야겠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시즌 13 은 올해 제 41 회 방송문화기 금상 텔레비전 드라마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선정 대상 작품이『아유카와 교수의 마지막 수업』(전 후편) 이었습니다.

Session 5. 한국 제작자

<한국드라마 트렌드의 핵, '복합장르'에 관하여>

윤고운

최근 한국 대중문화계에서 화두로 떠오른 세 편의 작품이 있다. 바로 영화 '암살'과 '베테랑', 그리고 드라마 '용팔이'. 같은 시기 '쌍끌이 천만 영화'로 극장가를 열광케 했던 두 영화와 근래 한국 미니시리즈 시장에서 '꿈의 시청률' 혹은 '마의 벽'이라 일컬어지는 '시청률 20% 돌파'를 이루어 낸 드라마 '용팔이', 이 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키워드는 바로 '복합장르'라는 장르적 특성이다. '역사물+액션+드라마'의 장르를 혼합한 '암살', '사회물+수사물+액션+코미디'의 장르를 혼합한 '베테랑', 그리고 '메디컬+스릴러+멜로+기업물'의 장르를 혼합한 '용팔이'는 모두 '복합장르'로써 관객과 시청자에게 어필하며 매우 흡족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한국드라마 트렌드의 핵'으로써의 '복합장르'를 설명함에 있어, 위의 세 작품과 같은 '특별한' 케이스보다 더욱 가치가 있는 데이터는 인기드라마의 장르 분류상 드러나는 분포도에서 드러난다. 올해 방송된 미니시리즈 드라마 중 시청률 상위 20 위까지의 작품리스트는 다음 표와 같다. (※ 주제 키워드가 '트렌드'인 만큼, 전통적인 가족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50 부작 이상의 연속극은 조사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닐슨 전국 기준)

순위	작품명	방송사	로그라인
1	용팔이	SBS	'창소불문 - 환자불문' 고액의 돈만 준다면 조폭도 마다하지 않는 실력 최고의 돌팔이 외과의사 '용팔이'가 병원에 잠들어 있는 저별 상속녀 '잠자는 숲속의 마녀'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2	미세스캅	SBS	경찰로는 박점, 엄마로선 항점 정의롭고 뜨거운 심장을 가진 경찰 아줌마의 활약을 통해 대한민국 워킹맘의 의대함과 애환을 그린 드라마
3	펀치	SBS	다시는 오지 못할 이 세상을 건너가면서 인생과 작별하는 남자.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 박정환 검사의 성어 마지막 6개월 기록을 그린 드라마
4	빛나거나 미치거나	MBC	고려시대 저주받은 황자와 버려진 공주가 궁궐 안에서 펼치는 로맨스를 담은 드라마
5	착하지 않은 여자들	KBS	3대에 걸친 착하지 않은 여자들이 휘청거리는 인생을 버티면서 겪는 사랑과 성공, 행복 찾기를 담은 드라마
6	가면	SBS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세상, 그 물질을 위해 가족도 등지고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한 남녀가 가면 속 서로의 진실된 모습을 보게 되면서, 결국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과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는 모습을 그린 드라마
7	풍문으로 들었소	SBS	제왕적 권력을 누리며 부와 혈통의 세습을 꿈꾸는 대한민국 초일류 상류층의 속물의식을 통렬한 풍자로 고집는 블랙코미디 드라마
8	킬미, 힐미	MBC	일곱 개의 인격을 가진 다중인격 재벌 3세와 그의 비밀주치의가 된 레지던트 1년 차 여의사의 사랑, 그리고 처참했던 과거의 상처로부터 서로를 구원하며 치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9	넘새를 보는 소녀	SBS	3년 전 바코드 살인사건으로 여동생을 잃은 무감각적인 한 남자와 같은 사고를 당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이전의 기억을 모두 잃은 초감각 소유자인 한 여자의 이야기
10	힐러	KBS	정치나 사회 정의 같은 건 그저 저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여 살던 청춘들이 부모세대가 남겨놓은 세상과 맞싸우는 통쾌하고 발칙한 액션 로맨스 드라마
11	상류사회	SBS	황금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재벌딸과 황금사다리를 오르려는 거천용. 두 사람의 불평등한 계급 간 로맨스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오포 세대 청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청춘 멜로 드라마
12	앵그리맘	MBC	한때 '날라리'였던 젊은 엄마가 다시 고등학생이 돼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헤쳐나가는 통쾌활극
13	왕의 얼굴	KBS	서자 출신으로 세자에 올라 16년간 폐위와 살해 위협에 시달렸던 광해가 관상을 무기 삼아 운명을 극복하고,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드라마
14	맨도롱 또똣	MBC	황명 걸린 개미와 애정결핍 베짱이의 사랑이라는 기발한 발상에서 시작하는 로맨틱 코미디.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레스토랑 '맨도롱 또똣'을 꾸려 나가는 청춘 남녀의 이야기
15	하이드 지킬, 나	SBS	한 남자의 전혀 다른 두 인격과 사랑에 빠진 한 여자의 삼각로맨스를 다룬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16	밤을 걷는 선비	MBC	남장을 하고 책과 일을 하며 살아가는 조양선이 옴석골에 사는 신비로운 선비 김성열을 만나게 되고, 그가 뱀파이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판타지 멜로 사극
17	오 나의 귀신님	TVN	용탕한 처녀 귀신이 씽의 된 소심한 주방 보조 '나봉선'과 자뻑 스타 셰프 '강선우'가 펼치는 응큼발칙 씽의 로맨스
18	후아유-학교 2015	KBS	KBS 대표 브랜드 '학교' 시리즈의 2015년 버전.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열여덟 살 여고생을 주인공으로 학생들이 겪는 솔직하고 다양한 감성을 담아낼 청춘 학원물
19	복면검사	KBS	검사라는 신분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가면을 쓴 채 주먹으로 해결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
20	블러드	KBS	뱀파이어 의사의 활약상과 멜로를 담은 판타지 메디컬 드라마

위의 표에서 색깔이 채워진 작품이 이른 바 '복합장르 드라마'라 할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드라마를 구성하는 장르적 특성이 3 가지 이상 혼합된 작품들로, 상위 20 위 안에 무려 11 편의 작품이 이 범주 안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드라마들은 멜로와 스릴러라는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각각의 주제와 컨셉에 따른 장르들, 즉 법정, 수사, 추리, 메디컬, 사극, 액션, 판타지, 호러, 코믹 등의 장르들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팬엔터테인먼트에서 올해 초 제작하여 방송된 '킬미, 힐미(Kill me, Heal me)' 역시 복합장르적 성격이 뚜렷했던 작품 중 하나로써, 수많은 팬덤을 양산하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킬미, 힐미'는 우선,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남자주인공(지성 분)과 그의 비밀주치의인 여자주인공(황정음 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드라마인 만큼 그 두 인물의 관계성과 치료 과정을 통해 멜로와 메디컬 장르를 동시에 다루었고, 다중인격이라는 소재의 리얼리티를 최대한 담보한 상태에서 TV 드라마에서는 다소 낯설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격 교대와 인격 융합의 공식 등에 판타지 요소를 가미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이 두 인물의 과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로 스릴러 장르로써의 묘미를 선사하기도 했다.

특히, '킬미, 힐미'는 남자주인공이 가진 일곱 개 인격의 캐릭터 플레이를 통해 그야말로 '복합장르의 향연'을 펼칠 수 있었다. 주(主)인격이었던 '도현'을 통해서는 멜로를, 서브 인격이었던 '세기'를 통해서는 액션과 스릴러를, '희대의 요물 캐릭터'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요나'와 '페리박'을 통해서는 코미디를, '요섭'과 '나나'는 휴머니즘과 힐링 스토리를 운반하는 캐릭터로서 드라마의 한 부분을 차지했으며, 마지막으로 등장하게 되는 '미스터 X'를 통해서는 판타지적인 요소로 드라마를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2014 년 방송되어 큰 인기를 모았던 '별에서 온 그대'와 '너희들은 포위됐다', '닥터 이방인' 등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작인 '용팔이'까지, 최근 2 년 사이 그 편수가 급증하여 '대세'임을 입증시키고 있는 복합장르 드라마의 인기 요인은 무엇일까. 그 요인을 크게 내적 요인, 외적 요인의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내적 요인으로는 '다양한 장르적 욕구의 충족'을 들 수 있겠다. 과거 한국드라마 시장에서는 특별한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장르의 도전 자체가 외면 받아왔던 것이 사실. 실제로 앞서 언급되었던 '킬미, 힐미'의 경우도 애초에 2008 년 '아무도 모른다'라는 제목으로 기획되었었으나, 당시 방송가 분위기상 소재적 접근성이 용이치 않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포기를 했던 전력이 있던 작품이었다. 이뿐 아니라, 불과 7~8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드라마에서 장르적 색채가 짙은 작품들은 '매니아 드라마'라는 미명 아래 대중적으로 소외가 되기도 했었고, 기획단계에서 무산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그러던 것이 미드로 대표되는 해외드라마들의 유입과 그에 이은 케이블 시장의 성장이 동반되면서 한국 드라마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장르드라마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이에 드라마 창작자들이 내재되어 있던 장르 구현에 대한 소구를 분출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드라마 고유의 정서와 결에 다양한 장르적 요소를 절묘하게 결합, 화학 작용을 일으키면서 '한국형 복합장르 드라마'가 그 틀을 갖추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에 시청자들이 열렬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점점 더 진화된 형태의 복합장르 드라마가 완성되어가고 있는 단계가 지금의 한국드라마를 바라보는 가장 적합한 시각이 아닐까 한다.

다음으로 복합장르 드라마 인기의 외적 요인은 시청 패턴의 변화, 더 포괄적으로는 컨텐츠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타이밍과 몰입의 편리함'를 들 수 있겠다. 이른 바 '본방사수'가 관건이었던 아날로그 TV 시대에는 채널 역시 한정적이었고, 그 어떤 것도 TV 를 대체할 만큼 위력적인 오락매체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때문에 채널 충성도가 높고, 보편적으로 일정 수준의 몰입도가 담보되었던 한국드라마의 정통 작법은 '호흡이 길고, 전 회차를 관통하는 핵심 줄기가 생명'인 드라마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아날로그 TV 시대를 지나 HDTV, UHDTV 시대로 발전하면서 인터넷, IPTV 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들의 성장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모바일이라는 가장 진화된 디바이스가 TV 시장을 맹렬히 공격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중들은 '감정적 몰입도'보다는 '시각적 몰입도'에 보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단계적으로 감정을 설득하는 스토리보다는 에피소드 위주의 폭풍전개와 밀도 높은 캐릭터 플레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장르의 혼합에 더 열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클립형 컨텐츠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들이 늘어갈수록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TV 본방송 시청에 집착하지 않는 패턴이 고착화될수록 드라마의 작법과 제작방식에도 매우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요구될 것이다.

현재의 고전적인 시청률 집계 방식 하에서 미니시리즈들이 체감 인기에 비해 연속극보다 상대적으로 시청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도 이러한 흐름에서 일부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위의 표에 리스트업 되어 있는 작품들은 화제성을 기반으로 시청 패턴에 있어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와 TV 가 호환되는 상호 작용이 가능했기에 시청률 면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곧 한국드라마가 점진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른 매커니즘 변화에 적응해가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복합장르에 대한 정의, 복합장르에 대한 기준, 그리고 복합장르의 전망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시각적 차이와 이견이 존재할 것이다. 또한 여러 장르를 하나의 작품 안에서 구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기술적인 면에 치중한 나머지 개연성과 설득력 면에서 허점을 노출하며 단일 장르의 드라마에 비해 완성도가 빈약해 보이는 한계를 드러낸 작품들도 존재해 왔다. 하지만 이는 현재 한국드라마에서 복합장르가 아직 완성형이라기보다는 과도기 혹은 시험대에 있기 때문이며, 거품처럼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그야말로 한국드라마의 트렌드로써 시대적 흐름에 궤를 같이 하고, 나아가 대중문화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진화된 형태의 '한국드라마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렇듯 시대적 흐름을 민첩하게 수용하고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한국드라마의 미래는 언제나 밝다.

Session 6. 중국 제작자

<중국 드라마 산업 발전을 위한 독창성>

스셩티엔(施生田)

지난 10여년간 중국 드라마의 연간 생산량은 만 편이 넘습니다. 이제 중국은 세계적으로 드라마 생산과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4년 중국에서 제작되어 방송 허가를 받은 드라마는 총 429편, 15983회에 달합니다. 그 중 현실적인 내용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243편, 8335회로 각각 56.64%와 52.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극은 178편, 7338회로 각각 41.49%와 46.19%, 대작 드라마는 8편, 265회로 각각 1.86%와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드라마의 제작량과 방송량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드라마 산업은 질적인 면에서 발전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드라마 방송 시장입니다. 2015년 6월 현재 통계를 보면 중국 현(縣)급 방송국은 1998곳, 지급(地級)시[1] 이상의 방송국은 517곳에 달하며 전국 32개의 채널에서는 고화질 표준 방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제작사가 2878곳에서 6175곳으로 증가했고 연 평균 16.5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이미 다소 우수한 드라마 투자 모델을 구축했고, 정부 기금, 자기자본, 업계 외 자금, 방송국 참여 투자 선급 구매, 금융 대출, 상장 공모 등 6개의 루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금융 대출과 상장 공모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중국 영상 산업 시장에 핫머니가 몰려드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드라마 산업이 발전하면서 중국은 우수한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천여 곳에 달하는 대학에서 영상 관련 학과를 개설했고 그 중 베이징 전영 학원(北京電影學院), 중앙 희극 학원(中央喜劇學院), 중국 전매 대학(中國傳媒大學), 상하이 희극 학원(上海喜劇學院) 등의 대학이 핵심이 되어 걸출한 드라마 제작 인재와 경영인을 배출하여 중국 드라마 산업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드라마 산업 관련 협회들도 인재 양성과 업계 내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며 중국 드라마 산업 발전에 큰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드라마 제작 산업 협회는 그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중국 드라마 제작 산업 협회는 2013년 5월 중화인민공화국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설립된 일급

[1] 지급시: 지급(地級) 행정구에 속하는 제2급 지방행정단위. 성급 행정구(省级行政区)와 현급 행정구(县级行政区)의 중간에 있는 성(省), 자치구(自治区)의 행정분구이다.

법인 단체로 드라마 제작 기관들의 자율, 협력, 교류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협회입니다. 본 협회는 드라마 제작 산업 서포트를 핵심으로 회원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며 회원의 합법적 권익 보호와 산업 제휴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400곳에 달하는 회원사의 드라마 생산량과 황금 시간대 방송 점유율이 90%에 달할 만큼 모두 중국 드라마 제작 업계에서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주력 업체들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데이터를 통해 여러분께서는 중국 드라마 산업의 발전 상황을 대략적으로나마 엿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 드라마는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가령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드라마 제작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렇다 할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연 생산량으로 계산해 볼 때 6175곳의 제작사 연 평균 드라마 생산은 3회 정도에 불과해 일정 규모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능력이 있는 대기업에서는 매년 최대 7-10편의 드라마를 발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소기업들은 2-3년에 겨우 한 편을 제작할 뿐입니다. 물론 그 원인은 복잡합니다. 배우들의 높은 개런티가 드라마 제작 비용의 상승 원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드라마 콘텐츠의 독창성 결여입니다. 좋은 시나리오와 훌륭한 작가진의 부족은 현재와 미래의 중국 드라마 산업 발전의 장애물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시아 각국의 우수한 관계자 여러분과 교류하고 협력하길 희망합니다. 자금·기술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드라마 인재 양성 및 콘텐츠 개발과 작가들의 독창성을 위한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0년간의 노력을 통해 중국 드라마의 규모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자금 투입 루트 역시 규모가 커졌으며 드라마 촬영 기술도 4K 동영상 촬영을 구현했습니다. 자금과 기술은 부족함이 없으나 제작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 드라마는 콘텐츠의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고 타 작품의 리메이크와 줏대 없이 트렌드만을 좇는 풍토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문화 예술의 창작 문제를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14일 시진핑 주석은 문예 좌담회에서 문화와 예술은 시대 발전을 알리는 나팔이며 한 시대의 풍모를 가장 잘 대변하고 한 시대의 풍조를 가장 잘 이끄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문예 창작이 양적인 발전만 이루고 질적인 발전이 더딘 상황을 언급하며 타 작품을 표절하고 천편일률이며 기계적인 생산과 즉흥적인 소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문학 예술 종사자는 시장 경제 조류 속에서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하며 사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드라마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 합니다. 이는 예로부터 장편소설을 좋아하던 중국의 전통 문화와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드라마를 제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드라마의 문화적 특성과 예능적 기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절과 리메이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드라마 창작 역시 막다른 길에 접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 한해 지적재산권에 관한 뜨거운 반응만 보더라도 원래 기껏해야 수만 부에 불과했던 문화적 함량이 미달된 인터넷 소설이 수 백, 수 천 만 부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 드라마 제작의 작품 창작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드라마 창작은 중국 역사의 계승이자 재인식이며 현실에 대한 이해와 진실의 반영입니다. 작품 창작은 생활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창작자는 생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예술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작품 창작 활동의 독창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자 인류 창작 정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현재 중국 드라마 창작은 극단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훌륭한 역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드라마에는 역사, 트렌디, 전쟁, 가정, 농촌 등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장르가 있습니다. <북평무전사(北平無戰事)>, <청년의생(青年醫生)>, <반테러 특전대(反恐特戰隊)>, <이혼 변호사(離婚律師)>, <노농민(老農民)>, <부모의 사랑(父母愛情)>, <대장부(大丈夫)> 등 수준 높은 문화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반면 상당수의 제작사들은 자본시장의 노예가 되어 인기만 좇는 작품을 생산하면서 수많은 작품의 '동질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창성이 결여된 드라마는 곧 시장에서 도태되고 시청자들로부터 등한시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 문화는 '창의 정신'이 시급합니다. '창의력'은 중국 문화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는 현대 중국 문화 예술의 주요 매개체로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모든 드라마의 창작은 전복적인 측면과 구성주의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독창'은 기존의 시각과 관념에 대한 전복이자 광활한 인류 사유에 대한 공통된 예술적 심미관이며 함께 지켜야 할 준칙이자 다양한 차원의 확장입니다. 독창력의 구성은 기법상, 스토리상의 독창일 뿐만 아니라 창작자의 경지와 심경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며 드라마 예술을 담당하는 작가, 연출, 배우 및 모든 스태프들의 창의 정신을 자극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드라마 창작의 독창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새롭고 기발하고 시선을 사로잡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창의 정신'이란 창작자의 서술 방식과 기교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창작만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울릴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는 자신이 인류 도덕과 심미관, 나아가서는 문화적 계몽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탁월한 예술적 창의력을 바탕으로 생활의 면면을 그려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국과 일본의 우수한 드라마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배우며 콘텐츠 산업에 관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중국 드라마 제작 산업 협회는 각국 관계자와 예술계 인사에게 평등하고 자유로운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류 문화의 교류는 영원한 화두입니다. 저희는 드라마 관계 동료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업계 내 장기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한중일 협력 사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인재 양성 기관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중국 드라마 관계자들도 교류와 배움을 통해 아시아 드라마 산업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의 아시아, 하나의 꿈', 아시아의 드라마산업이 협동, 발전하는 내일이 더욱더 아름답길 기원합니다!

Session 7. 일본 제작자

< 일본의 아침은 아침드라마로부터 시작된다
- 55년의 역사와 현재>

카가타 토오루

2015/11/6



① 아침드라마=TV소설이란?

매주 월요일~토요일 주 6회방송 아침8:00~8:15 1회당15분

반년 동안 25주150회 or 26주156회 의 연속극

도쿄・오사카 에서 번갈아 가며 제작

지금도NHK를 대표하는 킬러콘텐츠



<아침이 온다>주연 하루

1961년에 시작.
현재 방송중인
93번째 작품 <아침이 온다>

1983~84년 방송 <오싱>



평균 시청률

26.6%

NHK

② 아침드라마＝TV소설이란? "아침 드라마의 주역 · 여주인공"

기본내용은 '여주인공의 일대기' → 여주인공은 일본의 '국민배우'가 된다 → 여주인공 오디션은 신인등용문

→ 약2000명중 에서 뽑히는 여주인공

기존 여배우 중에서 캐스팅 하기도 한다



<우메짱 선생님> 호리키타 마키
<순수한 사랑> 나츠나
<아마짱> 노넨 레나
<잘 먹었습니다> 안
<하나코와 앤> 요시다카 유리코
<맛상> 샬롯 케이트 폭스
<마레> 쓰치야 타오

다뤄진 여주인공의 직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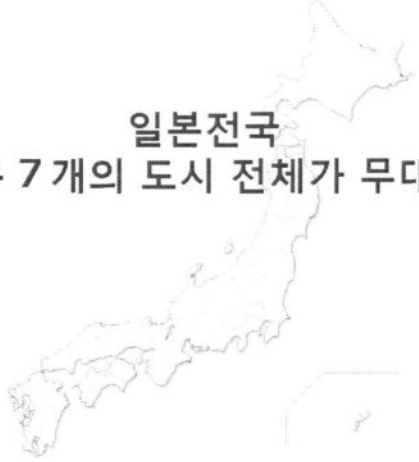
주부 · 교사 · 간호사 · 가수 · 여배우 · 요리사 · 아나운서 · 신문기자 · 편집자 · 의사 · 각본가
미용사 · 소설가 · 여관주인 · 화과자 장인 · 호텔종업원 · 기사(棋士) · 목수 · 파일럿 · 영화감독
우주비행사 · 만담가 · 여행설계사 · 정원사 · 패션 디자이너 · 해녀 · 번역가 · 파티셰

가정을 지키는 여주인공, 남성사회에 뛰어든 여주인공 등

NHK

③ 아침드라마＝TV소설이란? "시대를 넘어, 일본 전국이 무대"

배경이 된 지방에 관심이 집중되다.



일본전국
47개의 도시 전체가 무대

150년에 걸친 시대를 그려내다.



<아침이 온다>
1857년~

江戸(에도)
明治（메이지）
大正（타이쇼）
昭和（쇼와）
成（헤이세이）



<마레>
~2015年

NHK

아침드라마・최신히트작









<아마짱>의 매력 (시대 배경은2008년~2012년)

1 : 어머니의 고향・이와테에서 해녀가 된 여주인공



2 : 도쿄에서 아이돌 가수가 되다





3 : 시청자에게 눈물과 웃음을 주는 '삼대'이야기

4 : 정말을 뜻하는 사투리 '제제제' 가 대유행

<잘 먹었습니다>의 매력 (시대배경1911년~1947년)

1 : 도쿄에서 태어나 오사카로 시집가는 여주인공



2 : 부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3 : 주제는 '식사는 곧 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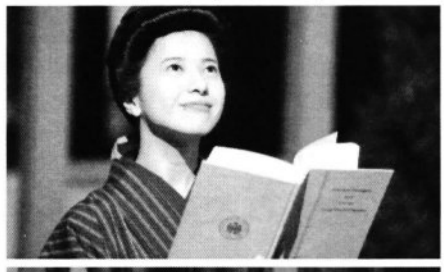
4 : 화제가 된 다양한 요리들의 등장

<하나코와 앤>의 매력 (시대배경1900년~1952년)

1 : 여주인공은 '빨간 머리 앤'의 번역가



2 : 농촌 야마나시에서
도쿄 여학교로 오다





3 : 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



4 : 여성들의 우정 이야기

<맛상>의 매력 (시대배경1920년~1971년)

1 : 위스키 제조에 힘쓴 부부의 이야기



2 : 아침드라마 최초의 외국인 여배우





3 : 무대는 히로시마・오사카・홋카이도



4 : 위스키 매상에 공헌함

NHK

앞으로의 '아침드라마'가 지향 할 점

시대극・・・<잘 먹었습니다>, <하나코와 앤>, <맛상>

여성에게 다양한 제약이 있던 시대

지진 등의 재해・전쟁・・・여주인공이 이겨내야만 하는 장벽과 드라마틱한 설정을 만들기 쉽다



<아침이 온다>에서는
시대극 사상 가장 오래된 과거,
에도시대 묘사에 도전하다.



NHK

앞으로의 '아침드라마'가 지향 할 점

현대극・・・<아마짱>

직업도 지역도 이미 나올 만큼 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전개가 필요하다.

<아마짱>의 경우, 여주인공 어머니가 가진 과거의
비밀이 밝혀지는 과정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NHK

아시아를 공략하는 장편드라마 <미녀와 남자>



<미녀와 남자>
2015년 4～8월　매주 (화) 밤10시～

연속20회라는 이례적인 장편 시리즈
연예계의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신인
매니저와 신인 여배우의 이야기

연상의 '미녀'와 연하의 '남자'의 로맨틱 코미디이자
성공 스토리 이다

또 연예계의 뒷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휴먼 드라마로
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여주인공은 아시아에서도
<고쿠센>으로 인기가 많은
나카마 유키에



주제곡은 아시아의 디바
하마사키 아유미

NHK

Reference in Japanese

セッション 1. 韓国 脚本家

ドラマ〈未生〉

チョン・ユンジョン

こんにちは。 韓国ドラマ「未生」を制作しました作家チョン・ユンジョンと申します。

はじめに、このように同作品においてアジアの有名作家の皆様、および製作者の方々の前で発表をさせていただけますことを、光栄に思います。

ドラマ「未生」は、韓国のケーブルチャネルであるtvNで、2014年10月17日から12月20日まで放映された、20部作のミニシリーズです。

韓国の同名のインターネット漫画を原作にしたこの作品は、放映中にも作品を通して伝えたいメッセージに対し、多くの支持を受けました。このことで、視聴率と話題性共に成果を挙げることができました。

題名で使われた「未生」とは、ご存知かも知れませんが、大石がまだ完全に生きていないという囲碁用語です。

契約社員として孤軍奮闘する主人公チャン・グレの姿と同じような状況の中で、今の時代を生きぬく多くの人々が、ドラマの中のチャン・グレに自身を重ね合わせる鍵となった重要な単語です。

幼い時から囲碁だけが全てだった世の中を生きた主人公が、囲碁のプロ世界の入団に失敗した後、囲碁の道を断ちワン・インターナショナルという総合貿易商社にインターンとして入社し、そこで適応して成長していく過程を表現しました。合計20部作の間で、チャン・グレが会社に入社して出会う人々、そして彼らと共に遭遇する事件を描きました。

私はチャン・グレとワン・インターナショナルが出会う初めてのシークエンスで、とても重要な台詞を入れました。生存するための最小限の準備もなく、ワン・インターナショナルというジャングルの中に放り込まれたチャン・グレは、すぐに直属の上司と対面することになります。

30代前半のキム・デミョンという上司との初めての対面は、ワン・インターナショナルの視線、それから世の中の一般的な視線を象徴しています。

チャン・グレは、大学はもちろん高等学校の卒業証書もないという事前情報を知っている上司は、ひねくれた態度でチャン・グレに尋ねます。

'高卒検定試験だって?' '職場での経験は?' '外国語や資格は?'パソコン活用能力資格証、それも1級でもなく2級資格証が全てというチャン・グレの返事に、この上司はあきれてこのように話します。

'最近ではめったに見かけない青年だな'

韓国では'めったに見かけない'という修飾語は、主に希少性を持つ対象を褒めたり、反対に肯定的に評価する時に使われます。

'礼儀正しく優しくて性格も良い、めったに見かけることができない子供です'というように使います。

しかし、私はこれを反語法で使い、チャン・グレのように能力がない人間が、現代社会でどれくらい稀な存在なのか、チャン・グレのような人間がどれくらい貴重な人材なのかを皮肉っていることを

表現する目的で使いました。ここで言う能力とは、現代の韓国社会が要求する評価の基準に値する能力であり、私は個人的にその基準に同意しません。

今の韓国社会が若者に要求する、いわゆるその能力(韓国ではスペックと呼びます)は、本当に凄まじいものがあります。皆がその基準を越えようとするために、基準はますます高まっていきます。すると若者たちは、再び高まった基準に達するため、昼夜関係なく邁進していくので、そこで人材探しの基準は、更に高まっていきます。その競争は、母親のお腹から外に出た瞬間から始まります。

私は個人的にこのような現象を地獄だと感じていて、この時代に生まれたのにも関わらず、彼らのように競争する必要がないことが、どんなに幸いなことなんだろう、と思っています。

現代社会に生きる若者たちが、どんなに競争の中で追われ、能力を身につけるために血眼になる必要があるのかを、遠まわしに言いたかったのです。その過程の中で、どんな価値が失われるのか、そして社会がその消失を当然に受け入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掘り下げてみたかったのです。

'最近ではめったに見かけない青年だな'という短い一言で、そのような大きな意図を完全に伝えることは難しいですが、それでもそのように表現してみたかったのです。分かる人には分かる、分からない人にはしょうがない、という感じでした。

'スペック'という単語は、元々機械や電子製品の仕様を現わす単語です。この単語を、個人の能力を客観的に証明するための評価指数として使っている、この恐ろしい世の中に対して、作家自身の不満を表現したわけです。

ドラマ「未生」は、こんな話から始まります。

時代や社会的な評価の物差しで測れば、あまりにも能力が至らない、基準に達しない主人公は、真の意味の個人能力を発揮して、この難局を突破して成長していきます。ここからファンタジーが始まります。

ドラマ「未生」が放映されている間、視聴者と全ての報道陣は、このドラマを生き生きした現実の世界を見せたドラマ、超写実主義のドラマ、ドキュメンタリーのようなドラマだと口を揃えて言いましたが、私は考えが違いました。

職場の経歴も、そのありふれている資格や、外国語が一言もできない主人公が、外国語が必須である総合貿易商社に入社して持ちこたえるという設定自体がファンタジーなので、私はこのドラマを初めからファンタジーだと考え執筆しました。

チャン・グレが険しい道のりを突破していく過程には、現実世界では実存しにくい助っ人が現れます。私はこれがドラマ「未生」がファンタジーである決定的な証拠だと思っています。

努力が補償を受け、頼れる同僚や上司に出会うという展開自体が、ファンタジーの世界を生きているからです。

そして･･･

まさにそのことが、多くの人々の心を動かしたと思っています。

そのファンタジーの世界へ汚れなく踏み込んだ主人公が、そう簡単には進まない道を歩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ろでは、みんなが応援して同情したことだと考えます。

ファンタジーを整理して表現した、本当に現実そのままの面々だけを持ってドラマを作ったとすれば、そんなに多くの人々が泣いて笑うことができたでしょうか、私は分かりません。

一日中ドラマを制作する話に専念する私たちは、たびたびそのようなドラマを頭に描いて、このように話したりします。

"それでは、なぜドラマを見るのだろう？ ドキュメンタリーを見ればいいのに"

企画から放映まで

「未生」は企画から放映まで1年かかりました。

原作であるネット漫画「未生」は、良い作品でしたが、60分を20話分放映するドラマを制作するには、人物と話の展開がかなり不足しそうだという、ジャンル的な限界が存在しました。

台本作りのために全体はもちろん、各回の話の中でも起承転結の構成とエピソードを新しく組み立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幸いにも詳細な資料調査と、実際に商社で仕事をしていらっしゃる方々のサポートによって、現実そのままの‘商社マン’の姿を捉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

次は、作品のトーンをどのように捉えることかが問題でした。

現実のサバサバした点と、冷静さをそのまま描き出せばいいのか? あるいは‘それにもかかわらず’生きていくことに対する憐憫と勇気の部分を残すか。私は後者を選択しました。

この点では、ドラマを共に作ったキム・ウォンソク監督と、ある意味で呼吸がぴったり合ったようです。より現実的なサバサバしている点と、冷静さをそのまま描き出すことを望んでいたキム監督と、それにも関わらず生きていくことに対する憐憫と勇気を表現することを願う私は、絶えず意見を交換し、互いに押し合いへし合いしながら、適度な地点に行き着くことができました。

作品を制作する間は、監督と私は終始希望を強要することも、作為的な希望のメッセージを伝えようと思うこともありませんでした。しかし、現実はこのようにセメントの塊りのように寂しいものだからと、そのまま受け入れようと話すこともありませんでした。

私は契約社員であるチャン・グレが、結局正社員になれない状況に置かれると、すぐにチャン・グレの上司であり、助言者でもあるサンシクに、このような話を自嘲的に吐きだすようにしました。

「こういう世の中で、対策のない希望が、無責任な慰めが、何の意味になるのだろうか」

もっともな言葉です。めぐり合うことが難しい希望と適当な慰めは、絶望と悲しみをほんの少しの間は忘れることができても、根本的な解決策はなりません。

すると、彼の入社動機でありソウルメイトでもあるソン次長は、次のように話します。

「私は、その対策ない希望や、無責任な慰めの一言さえも言えない世の中が、もっと恐ろしいですね。

対策のないその一言でも、切実な人々が多いですから」

それも、もっともな言葉です。世の中が放っておけば、世の中はますますそういう雰囲気になっていきますし、その中で誰かが他人の一言で助けを得たりもするからです。

この二つの節が、20話のドラマで展開していくトーン アンドマナーとなりました。

ドラマの最終回では、結局チャン・グレを正規社員に採用させるため、無理をしたサンシクは、20余年間勤務してきた会社を離れ、正社員になれなかったチャン・グレも、同じく会社を離れます。サンシクは個人会社を創業して、既存の営業3チームの人材が合流した後、最後にチャン・グレが合流することで終わります。

そして···

最後のエピローグに、監督と私はその時まで引いてきたトーンと全く違う、騒々しい希望を最後の石として置きました。言葉どおり、よくありがちなファンタジーや、希望を見つめ続けるファンタジーで終えたのです。ファンタジーで始めたので、ファンタジーで仕上げたのです。

ファンタジーのような仕上げに対して、不満を持った視聴者や感想がなくもありませんでしたが、敢えてそのようにしました。パンドラの箱が開かれた世の中ですが、それでもその箱の中に、このことが一つくらいは残っていないのかと言いたかったのです。

パンドラの箱の中を確認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が、残っているというと信じたかったのです。ソン次長の台詞のように。

「作家が希望を話さないならば、何を話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ですか?」

疎通と共感のドラマ

「未生」の主人公チャン・グレは、すでに囲碁の道で一度失敗を経験した人物です。他の人々が大学に進学してスペックを積む間に、専念した囲碁をこれ以上できなくなり、チャン・グレは路頭に迷います。後援者の紹介で入った会社で、彼は高卒のコネ入社であるだけで、組織の中では生き残れない存在だと烙印を押されます。

しかし、チャン・グレはただ黙黙と未熟な点を満たしていき、毎日を切実に生き延びることを選択します。スタートラインは違っていても、自分とは別の切実な思いで生きていく同僚たちに出会い、また'俺の息子'と呼んでくれる上司にも巡り合い、着実に変化して成長していきます。 無視と軽蔑、あるいは好奇心で始まったチャン・グレに対する組織内の視線が、次第に驚きと信頼に変わる過程で、視聴者は小さいカタルシスを感じました。

「未生」はチャン・グレの成長ストーリーが基本の柱となり展開しますが、実際には「未生」の中で成長して変化する人物は、チャン・グレだけではありません。チャン・グレが仕事をすることになった営業3チームのトップで、実質的な助言をするオ・サンシク次長、信頼できる先輩のキム・ドンシク代理、チャン・グレと同期4人組の能力ある紅一点のアン・ヨンイ、冷徹なエリートのチャン・ベッキ、熱情的でおしゃべり好きなハン・ソクユルなど、ワン・インターナショナルの社員が互いに対立し、あるいは互いに引っ張りあって20話が進行され、絶え間なく互いに変化していきます。結局は組織という巨大な歯車の中では、これらもチャン・グレと同じく未生たちですので、主人公以外の他の人物の成長にも大きな比重を置きました。

「未生」は、特に職場内で結ばれる'関係'という点に、より一層集中しました。変化と成長の過程で見える喜怒哀楽と成長痛は、登場人物自らの切実な思いと、他人との真の関係の中で癒され、前進する原動力になりました。

聞いた話によると、未生は多くの視聴者が、とりわけ登場人物に自身を重ね合わせ、泣きもあり笑いもあるドラマになったといいます。実際に雇用への不安と職場内の限りない競争に疲れた人々が「未生」の登場人物から過去や現在、未来の自分の姿を見ることで、自らが主人公になって感情移入ができて共感したようです。

「未生」の登場人物は、求職のためにスペックを積むのに焦っている弟かも知れないし、会社で生き残るために孤独に奮闘する自分自身であるかも知れないし、育児か仕事かの選択で悩む友達であるかも知れないし、更には 小言を言う妻に私が酒を飲む理由を知っているか、と問い直したい、酒に酔った旦那であるかも知れません。

「未生」という作品を通して、結局ドラマというのは視聴者との'疎通'と'共感'であるという当然の事実を再確認しました。 もちろん「未生」は職場を背景に登場人物が中心となったので、より感情移入が容易だという長所を持っている作品でしたが、何より重要なことは視聴者に'疎通'と'共感'

を呼び起こすことができるキャラクター設定とキャラクタープレーが、ドラマの基本枠組みぐらい重要だということを再確認した作品になりました。

今回のカンファレンスの主題は 'TVドラマのトレンドと人気要因' です。

惜しくも韓国で最近ドラマを制作する人々は、しばしばメンタルの崩壊を体験します。

韓国での流行語である'メンタル崩壊'という造語の略語「メン崩」は、直訳するなら'心が崩れる、すなわち気が抜ける'意訳しようとするなら'判断不可'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最近では、私の周りでもどんなドラマを制作すればいいのだろうか、という言葉をよく耳にします。私も同じ心境です。

それだけ、TVドラマのトレンドはついて行くのが難しい程の速度で変化しています。
こうだと思っていたのに違って、ああだと思っていたのに違った、という風ですので、トレンドがないということがトレンドだ、という笑い話もあるほどです。

元々、TVドラマのトレンドというものはよく分かりません。 しかし私は、ドラマは相変らず人間の感情を扱うのが本質だと見ていますので、それに忠実なドラマを書くのが答えだと考えています。

それがファンタジーの皮を使おうが、現実の皮を使おうが、その感情が社会的な会話を引き出せる位に意味があるものでも、一人一人に集中した小さな感情でも、結局は人間の感情を扱うことだと見ています。 そのために人間が事件を引っ張っていくドラマでない、事件が人間を引っ張ってしまって理解不能のキャラクターや、理解できない可能性、理解できない事件などが乱舞するドラマにならないように、努力するだけです。

「未生」の制作も、やはり常にそのような基本を再確認しながら、1年間に渡り至難の作業をしてきました。

執筆中もそうでしたが、放送終了後にも作品に対してこのように詳しく私の意見を話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おそらく作家が話すドラマ「未生」に関する唯一の時間になるかと思っています。

この発表を準備しながら、私自身も忘れていた執筆当時の考えと意味を再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し、あの時どんなシーンをどんな意図で使ったのかを考え直しながら、心の小さい振動まで感じることになった時間でした。

そのような意味でも、今日のこの席が私にとって非常に意味深い席となりましたし、また今回のカンファレンスを通じて多くの作家の皆様にお目にかかることで、更に多くのことを学ぶことができると期待しています。

拙い内容ではありましたが、ご清聴を感謝申し上げ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ドラマ〈未生〉シノプシス

チャン・グレは、幼くして囲碁と出会い、プロ棋士を目標にしてきたのだが、結局プロ入団に失敗してしまう。その後、知人のコネでワン・インターナショナルという会社の営業 3 チームにインターンとして働き始める。高卒認定試験が学歴の全て、コネ入社だということが周囲に知られるや否や、すぐにインターンの同僚から仲間外れにされ、営業 3 チームのオ次長もこの状況が好ましくない。しかし誠実に努力するチャン・グレの姿に、オ次長は少しずつ心を開き始め、インターン能力試験を立派に通過したチャン・グレは、2 年の契約社員として営業 3 チームに合流する。 そして共に合格した同期のチャン・ベッキ、アン・ヨンイ、 ハン・ソクユルも同じく各部署に配置され、新入社員として孤軍奮闘し始める。4 人は会社で数多くのことを体験し、多様な人々を見て成長していく。

チャン・グレは営業 3 チームの中で、信念を持った仕事の虫のオ次長、能力があってよい人柄のキム代理、無愛想だが考えが深いチョン課長と共に、他の部署との利害関係に巻き込まれたり、不正と不条理に対抗して戦ったり、チーム全員がみな団結し契約を成功させたり、自主的に夜勤しながらプロジェクトを進めたりもする。碁を打ってきたこともあり、一人で解決することに馴染んできたチャン・グレは、このような過程を通じて会社員としての能力を育てるのはもちろん、所属感と同志愛を感じながら次第に共同作業をすることを習熟していく。

容貌、学歴、能力のどれ一つ陥らないエリートのチャン・ベッキは、鉄鋼チームに配置されたが、上司のカン代理から単純な業務だけ受け続け、自身の能力を認められないと考え離職をしようとする。しかし出張に行ったカン代理に代わり重要な書類を作成をしたベッキは、他部署の上司や同期との対話を通じて実務の基本の重要性を理解し、気を引き締め学ぶ姿勢を持った。

即戦力として使える程の能力を持ったアン・ヨンイは、女性であるために資源チームに簡単に溶け込むことができない。タバコのお使いや、事務室、ごみ箱の清掃のような雑用は基本で、上手く解決しようとしたことにも悪口を言われたりする。しかし、最後まで根性を持って努力をつくすヨンイの姿に、結局上司は心を開きチームの一員に受け入れて仕事を任せ始める。

ハン・ソクユルは、見かけは厚かましくふてぶてしく見えるが、現場の作業員である父親の影響で、労働現場で実務を習い、しっかりした基本技を備えている。最初は人が良く見えたのだが、次々に仕事を押し付けてくる上司のソン代理と対立し、感情的かつ不器用に対処してしまい、かえって災いを被り落ち込んでしまう。 しかし過度な要求に反発する工場の職員を無視するソン代理の態度に結局爆発し、会社の要求と現場職員の満足という両側を満たすために手を尽くして能力を発揮し、ソン代理をこれ見よがしに問題を解決する。このように四人は様々な逆境を経て、同僚と協力し、衝突もしながらワン・インターナショナルの一員として成長する。しかし、その中でも 2 年の契約で入社したチャン・グレは、誰よりも優秀な業務態度と成果にも関わらず、正社員としての登用ができない状況に置かれてしまう。この事実を知ったオ次長は、チャン・グレを正社員として雇用させるため、チェ専務の無理な業務指示を受けて進めたのだが、その過程でチャン・グレの失敗で事業は水の泡となり、会社には大きい打撃を与えてしまう。結局、オ次長は責任を負って退社し、チャン・グレには何とかして絶対に生き残れと頼む。オ次長との約束を守るため、チャン・グレは心に荷を負ったまま契約社員としての最後の日を迎える。

会社に残った人々、営業 3 チームの人々と他の部署の上司、同期たちの努力にもかかわらず、結局正社員に登用されなかったチャン・グレは、結局会社を離れることになり…

再び失業者に戻ったチャン・グレだったが、以前と確かに変わり、自身の短所を補いながら、社会に出て行く準備をする。そんなある日。退社後に小さな商社を創業したオ次長が訪ねてきて、チャン・グレをスカウトする。その後チャン・グレに続いて退社したキム代理が合流し、営業 3 チームはまた一緒に仕事をすることになる。

セッション 2. 中国 脚本家

＜世界の人気ドラマのストーリーのパターンが中国ドラマ創作に与える示唆点＞

リ ウ·イ(劉益)

業界関係者の皆様、こんにちは。

中国の北京テレビ芸術家協会から若手作家として推薦いただき、光栄にも今日この場で発表させていただく機会を頂戴しました。若い作家の1人として、日中韓3か国を中心に現在、世界的に人気を集めているドラマのストーリーのパターンの発展について分析し、これが中国ドラマ創作に何を示唆するかをお話ししたいと存じます。

まず今日お話するドラマのストーリーのパターンについて定義します。ストーリーのパターンとは通俗的によいストーリーを叙述する固有のパターンの方式ではないかと私は思います。

皆様のお手元に私の発表文の翻訳版があると思います。中にある統計資料を一緒にご覧ください。

このデータにある作品は主に2009年から2015年初までに大人気を博したドラマです。計30本のドラマはアメリカ、イギリス、日本、韓国、中国と国別に多様なジャンルとスタイルをすべて網羅しています。単に高視聴率のドラマを選んだのではなく、各作品ならではのユニークさ、社会的反響や芸術性も考慮して選びました。

作品 リスト:

アメリカ ドラマ	イギリス ドラマ	日本ドラマ	韓国 ドラマ	中国 ドラマ
ライ·トゥ·ミー	Psychoville	VOICE[ヴォイス] ～命なき者の声～	IRIS -アイリス-	潜伏
ウォーキング·デッド	Skins	素直になれなくて	僕の彼女は 九尾狐＜クミホ＞	黎明之前
ゲーム·オブ·スローンズ	グッド·ワイフ (傲骨贤妻)	Mother(マザー)	根の深い木- 世宗大王の誓い-	宮廷女官 若曦 (ジャクギ)
ニュースルーム	ダウントン·アビー	孤独のグルメ	屋根部屋の プリンス	宮 パレス～時をかける宮女～
ブレイキング·バッド	SHERLOCK シャーロック	半沢直樹	相続者たち	宮廷の諍い女
ハウス·オブ·カード野望の階段	Vicious	昼顔～平日午後3時の恋人たち～	星から来たあなた	璀璨人生

〈表1〉 人気ドラマ作品リスト(2009～2015)

この30本のドラマは放送期間中に高い視聴率を誇っただけでなく、各種のセンセーションを巻き起こしました。1本のドラマがセンセーションを巻き起こすということは、それだけ作品の制作水準が高かったことも意味しますが、同時に時代のニーズをキャッチし視聴者の注目を集めてコンセンサスを得るのに成功したとも言えます。このような共感を生むのは、ドラマのストーリーと主人公に対する単なる反応ではなく、自分の生活に対する反応でありフィードバックです。これはドラマが現代の経済と社会生活の面々を映し出す一種の鏡のような役割をしていることの裏づけにもなります。

この30本の作品を見ると現在の人気ドラマのストーリーでよく見られるパターンが分かります。

まず繰り返して登場する主要人物の類型を分析すると少なくとも8つの類型の人物が登場します。

人物 類型	主要 作品	主要 人物	登場回数
追跡	VOICE[ヴォイス]～命なき者の声～	加地大己、 石末亮介	20
	IRIS -アイリス-	キム·ヒョンジュン、チェ·スンヒ	
	潜伏	余則成 、黎強	
	黎明之前	劉新杰、 顧晔佳	
	ライ·トゥ·ミー	カル·ライトマン博士、ジリアン·フォスター博士	
	Psychoville	アストン夫婦	
	グッド·ワイフ	アリシア、カリンダ	
	SHERLOCK シャーロック	シャーロック、ワトソン	
	根の深い木-世宗大王の誓い	世宗 イ·ド、カン·チェユン	
	星から来たあなた	ト·ミンジュン、チョン·ソンイ	
タイムスリップ	宮廷女官 若曦(ジャクギ)	胤禛 / 張暁	16
	宮 パレス～時をかける宮女	洛晴川、 良妃 / 赫舎里皇后	
	僕の彼女は九尾狐<クミホ>	九尾狐 / 吉達	
	屋根部屋のプリンス	イ·ガクと臣下たち、プヨン	
	星から来たあなた	ト·ミンジュン、チョン·ソンイ/イ·ファ	
統治/支配	ゲーム·オブ·スローンズ	ロブ、タイウィン·ラニスター、レンリー	14
	ダウントン·アビー	ロバート·クローリー、コーラ	
	ニュースルーム	ウィル·マカヴォイ、マッケンジー	
	宮廷の諍い女	甄嬛 、雍正帝、孝敬憲皇后	
	ハウス·オブ·カード 野望の階段	フランク、クレア	
	根の深い木-世宗大王の誓い	世宗 イ·ド、チョン·ギジュン	
裏切り	宮廷の諍い女	甄嬛、安陵容、沈眉荘	14
	璀璨人生	余非、 章赫凡	
	半沢直樹	半沢直樹、近藤直弼	
	相続者たち	チャ·ウンサン、キム·タン	
	ブレイキング·バッド	ウォルター·ホワイト、ジェシー·ピンクマン	
	ゲーム·オブ·スローンズ	デナーリス、ジョン·スノウ、ティリオン	
逃亡	ウォーキング·デッド	リック、ローリ	9
	素直になれなくて	中島圭介、水野月子	
	Mother(マザー)	鈴原奈緒、道木怜南	
	孤独のグルメ	井之頭五郎	
	昼顔～平日午後3時の恋人たち～	笹本紗和、滝川利佳子	

変化	ウォーキング·デッド ブレイキング·バッド Skins 星から来たあなた	ダリル、キャロル、ガバナー ウォルター·ホワイト、ジェシー·ピンクマン トニー、シド ト·ミンジュン、チョン·ソンイ	9
復讐	半沢直樹 宮廷の諍い女 根の深い木-世宗大王の誓い ゲーム·オブ·スローンズ ブレイキング·バッド	半沢直樹、竹下清彦 甄嬛、端妃、寧貴人 カン·チェユン、チョン·ギジュン ジョン·スノウ、ブラン、アリア ウォルター·ホワイト、ジェシー·ピンクマン	12
脱出	ウォーキング·デッド ブレイキング·バッド ゲーム·オブ·スローンズ 宮廷の諍い女 Mother(マザー) 星から来たあなた	リック、ユージン ウォルター·ホワイト、スカイラー·ホワイト ジェイミー、イグリット 果郡王、 胤禛、温実初 鈴原奈緒、道木怜南 ト·ミンジュン、イ·フィギョン	12

〈表2〉 人気 ドラマ 登場人物 類型

追跡、タイムスリップ、統治、裏切り、逃亡、変化、復讐、脱出と計8つの類型に分けることができます。興味のある方はこの類型を念頭に置いてドラマを見比べてください。

もちろんこの8つの類型にすべてのドラマの人物が含ま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ただ1つだけ確かなのは、この類型の人物が最近ドラマでよく見られるパターンだということです。少なくとも過去5年間この類型の登場人物が世界中のテレビによく登場しました。

またこのうちの一部の類型は今後かなり長い時間、人気を保つものと思われます。例えば追跡、統治、裏切り、復讐、脱出の類型は最近のドラマにだけ見られるものではなく過去の古典主義の時代から文学と悲劇の作品でもしばしば登場しました。

時が流れて時代が変わりましたが、このような人物はいまだに生命力を持ち、今までも多くの視聴者たちの共感を得ています。彼らは時代を問わず多くの人の願いと感情を代弁しています。

したがって最近人気ドラマのストーリーパターンも追跡、タイムスリップ、統治、裏切り、逃亡、変化、復讐、脱出という8つの類型で分析できます。

私も中国のドラマ作家として、先に申し上げた全ドラマを楽しみながら拝見しました。私の周囲のドラマ業界外の知人も私と同じジャンルのドラマが好きです。しかし調査の結果、アジアの国のうち日本と韓国の若者たちは中国ドラマをほとんど見ず関心すらないというのは興味深い点です。

中国で愛されるドラマは日本や韓国ドラマのようなストーリーパターンで、しかもより巨額の制作費を投入したりもします。それなのになぜ中国の外では同じように人気を得られないのでしょうか? まさにこの点が私の好奇心を刺激しました。日本や韓国のドラマ創作が中国のドラマ作家たちに示唆するのは何でしょうか?

私の個人的な意見ですが、日本のドラマはディテールな感情表現を重視しており、韓国のドラマは緊張感あるストーリー展開と視覚的な刺激を重視します。

最近になって中国のドラマも日本や韓国のドラマに追従してきましたが、中国の視聴者が好むポイントを見つけ出せず視聴スタイルとマッチせず、逆に極端に走る現象を引き起こしました。特にこの数年の間で中

国での韓国ドラマ人気が日本ドラマを超え、中国ドラマも我先にと韓国ドラマを模倣し始めました。しかし緊張感を乱用して合理性を失い泥沼ドラマを生産しました。作家はストーリーには気を遣わず各種のエピソードを並べ立ててばかりでした。よってエピソードは多く見えても空回りし、似た対立関係は多くても視聴者の注目を集められませんでした。これは作家があまり頭をひねらずエピソードを乱用ばかりして、苦労せず執筆した結果です。

同じストーリーを設定したとしても視聴者、評価や制作の仕方によって創作の方向性とテクニックにも変化を与えなくてはなりません。

私の修士課程の指導教授である中国中央喜劇学院の盧敏教授は優しい中年の女性です。ドラマ創作教授であり一流ドラマ作家であり、韓国ドラマ研究者でもあります。1つお話したいことは盧教授が韓国ドラマ「星から来たあなた」のト·ミンジュンの大ファンだという点です。ト·ミンジュンを愛するばかりに、わざわざ韓国に行きドラマのロケ地の見学もしてきました。帰国した教授は、ト·ミンジュンの書斎だけに600万元を上回る制作費をかけて、しかもセットの中の本はすべて本物だったと私に驚くべき話をしてくれました。中国だったらおそらく安い偽物の本で済ませていたでしょう。しかし韓国の制作陣は偽物を使えば画面の雰囲気がなくなると判断し、本物を用意して制作したそうです。

ト·ミンジュンの書斎が彼の心ならチョン·ソンイだけが彼の書斎に入ることができ、彼女だけが彼の心の中にも入れます。この書斎だけを見ても、韓国のドラマ制作の涙ぐましい努力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反対に中国ドラマの欠点だらけのシーンを見るとスタッフたちが細心の注意を払えていないことが分かります。

しかし幸いにも私は中国の若手ドラマ作家の1人として、私が身を置いてきた業界に一度も失意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ドラマは産業的な特性上、ほかの市場と同じように自国の経済·政治の発展と苦楽をともにする運命を持って生まれました。

中国の国力が高まり1人当たりの平均GDPが上昇する中で、政府も文化産業に対する関心と投資を増やしています。関連ドラマ制作会社、投資会社、制作陣のレベルも高くなりドラマ制作産業の構造も先進国化しており、視聴者の素養と視点も高まっています。このような点からして私も未来への信頼と期待を持っています。

中国に暮らして何が最も幸せかと聞かれたら、私は絶えず変化し続ける未来への期待と満ちあふれる原動力だと答えます。中国の作家としてどんな時が最も幸せかと聞かれたら、私は多くの中国の視聴者、さらには世界中の視聴者が私が描いたドラマを見る時だと答えます。

今後さらに多くの中国ドラマグローバルな舞台で活躍することを心から願っています。また中国の視聴者も世界中のドラマを見ながら視野を広めて価値のある生活を送ってほしいです。

最後に私の発表文のために多くの資料を提供してくださり物心ともにサポートしてくださった盧敏教授、陳斯遠博士、作家の李莉先生に感謝の言葉を伝えたいと思います。最後までご傾聴くださり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ドラマ〈サバイバルの暗号(原題: 生存密碼)〉あらすじ

11人を乗せた漁船が海の真ん中で事故に遭う。彼らは海を漂流したあと幸いにも無人島に到達するが、誰もいない無人島は草木が鬱蒼としており荒れた雰囲気すら漂っている。都会の生活に慣れた彼らが最悪の状況に途方に暮れるなか、ガイドのチン·ランティエン(秦朗天)はみんなを引率しながら生きる道を模索し始めた。

愛きょうがあり洗練されたウェン·ウェン(文文)はチン·ランティエンと全く違う性格だが、相次ぐアクシデントを共に乗り越えるなかで、よくも悪くも情が湧き始めた。いかなる危険が襲ってもウェン·ウェンは周囲にいつも優しく笑いかけるが、唯一チン·ランティエンにだけは氷のように冷たい。実は2人はもう互いに引かれ始めていたのだ。だがどちらもその事実を認めていないだけ。

ホー·リン(何林)は典型的な「オタク」だ。無人島に来る前まではゲームにハマっていた彼は無人島に来てからはウェン·ウェンにゾッコンになった。ホー·リンはいつもウェン·ウェンを目で追っていて、彼女を守ろうとする。しかしウェン·ウェンは、ホー·リンのそんな心を全く気にせず彼とはただの友達として過ごす。ウェン·ウェンの心はずっとチン·ランティエンに向かっているが、彼の複雑な行動は理解できない。

ここで生き残るためにチン·ランティエンは全員を率いて海岸をあとにし食料ときれいな水がある森へ向かう。しかし、彼らの前には都会では想像すらできなかった険しい道が立ちはだかっていた。チン·ランティエンはみんなを励まし各自の長所と経験をうまく活用して、無人島で生き残るために努力する。彼らは空を覆い尽くすほどの莫大な数の蚊の群れと死闘を繰り広げ、脱水症状が出た仲間たちのために水1滴を絞り出すなど、互いに頼り始める。スタミナをつけるために毒蛇を捕まえ食べたりもした。そんななか、突然土砂崩れが発生し奇跡的に逃げ切るが、チン·ランティエンは8歳のワン·シャオイエ(王暁野)を助けて砂の山の下敷きになってしまう。想定外の事故に遭い、ウェン·ウェンは自分がいかにチン·ランティエンを愛していたかに気付く。悲しみに暮れるウェン·ウェンを見てホー·リンは告白するが、ウェン·ウェンは彼の気持ちを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ウェン·ウェンはチン·ランティエンをしきりに呼び続け、彼女の叫び声を聞いたチン·ランティエンは生き残ろうとする意志を取り戻した。何とか土の中から生き返ったチン·ランティエンだが、なぜかウェン·ウェンの愛をしきりに断り続ける。心の奥底で燃え上がる愛の火種を必死に1人で消そうとする。2人の気持ちに気付いたホー·リンはチン·ランティエンに誰にも言えない秘密があることに気付く。

ホー·リンはウェン·ウェンの心をつかむために精いっぱい努力をする。彼女を笑わせようと蛍で光を照らしてみたり木の蔓でブランコを作ってあげたりした。もともと変わり者でアウトサイダーだったホー·リンもウェン·ウェンのおかげで次第に快活になり、彼らと親しく過ごすうちに「オタク」の長所を発揮しはじめる。冷たい視線で毒舌を吐き続けていたチン·ランティエンと優しく近づくホー·リンをめぐって混乱に陥るウェン·ウェン。彼女の心を最後につかむのは誰か。

チン·ランティエンはライバルホー·リンの登場に戸惑うが無人島でのサバイバルのために心に誓った。みんなの生き残りへの希望はすべて自分に懸かっていることを知るチン·ランティエンは、ウェン·ウェンを愛していてもかまってあげる暇がない。彼の選択はウェン·ウェンに深い傷を残すことになる。チン·ランティエンはずば抜けたリーダーシップで一行を引率してみんなから信頼される。しかし、チン·ランティエンがもともとガイドではないことと事故が偶然のものではなかったことを一行は知る。事件の真相は一体何か?

チン·ランティエンの職業はファンドマネージャーだ。10 年前、父親が不慮の事故でこの世を去り彼は父親の死に深い疑問を持ち始めた。チン·ランティエンは事故の真相と父親の足取りを知るために友達のイ·シュ(暦術)に内密に調査を頼んだ。一緒に船に乗った一行は全員その当時の事故に関連した人たちだったのだ。しかし彼らと一緒に過ごすなかで一行の善良な心に感動したチン·ランティエンは、事故の真相とイ·シュの話が食い違うことを知り、すべては友人のイ·シュの陰謀だということに気付く。イ·シュはチン·ランティエン名義の事業を横取りするために調査を口実に彼をだましていたのだ。しかし何も知らなかったチン·ランティエンは、イ·シュの計画に従ってみずからガイドになり、みんなを連れて海に向かった。

チン·ランティエンは友人の裏切りに衝撃を受け、一方の一行ももう彼を信じられなくなった。サバイバルのための信頼が崩れた瞬間、互いを疑い始め団結心が消えバラバラになってしまった。しかしウェン·ウェンの愛とサポートでチン·ランティエンは正気を取り戻す。再び勇気を出して自分ならではの方法でみんなを一つにまとめて危機を乗り越える。イ·シュとチン·ランティエンが最後の決戦を繰り広げる時、生死をさまよいながらすでに一つになった一行は、イ·シュと戦い勝利を手に入れる。イ·シュも最後には自分の過ちに気付くが、すべてはあとの祭りだ。

ホー·リンはウェン·ウェンを振り向かせられなかったが、陰険だった「オタク」から明るい青年に成長した。チン·ランティエンとウェン·ウェンは死すら引き裂くことのできない恋人になった。救助船の甲板に立つ2人が死を目前にして生き残れたのは忘れていた自分のコードを取り戻したためだということを悟る。そのコードとは至って単純だった。それは互いの信頼と愛だ。

セッション3. ベトナム 制作者

＜ベトナムのテレビドラマのトレンドと人気要因＞

ウンウエン アン ブ

ベトナムテレビジョン(VTV)

目次

1. 簡単な紹介
2. ドラマのトレンドと人気要因
3. VTVの解決法および活用法

VTVの紹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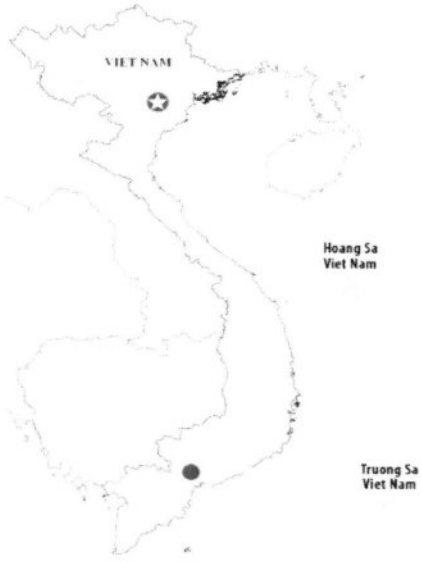
- 国営放送局
- 最大規模のテレビ局
- 最大規模のテレビ会社

ドラマ の時間帯の紹介

チャンネル	時間帯	曜日	制作
VTV1	13時	毎日	海外
	20時30分	月曜日-金曜日	ベトナム
	21時	日曜日	海外
VTV2	11時	毎日	海外
	19時	毎日	海外
	20時	毎日	海外
VTV3	12時	月曜日-金曜日	海外
	18時	月曜日-金曜日	海外
	21時	月曜日-金曜日	ベトナム
	22時30分	月曜日-金曜日	海外
VTV6	19時	毎日	海外

広告市場の簡単な紹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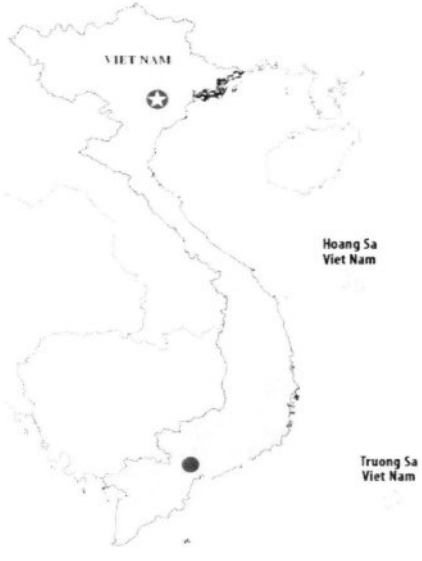
- 最大の市場2か所: ハノイ（北側）とホーチミン（南側）



テレビドラマのトレンド および人気要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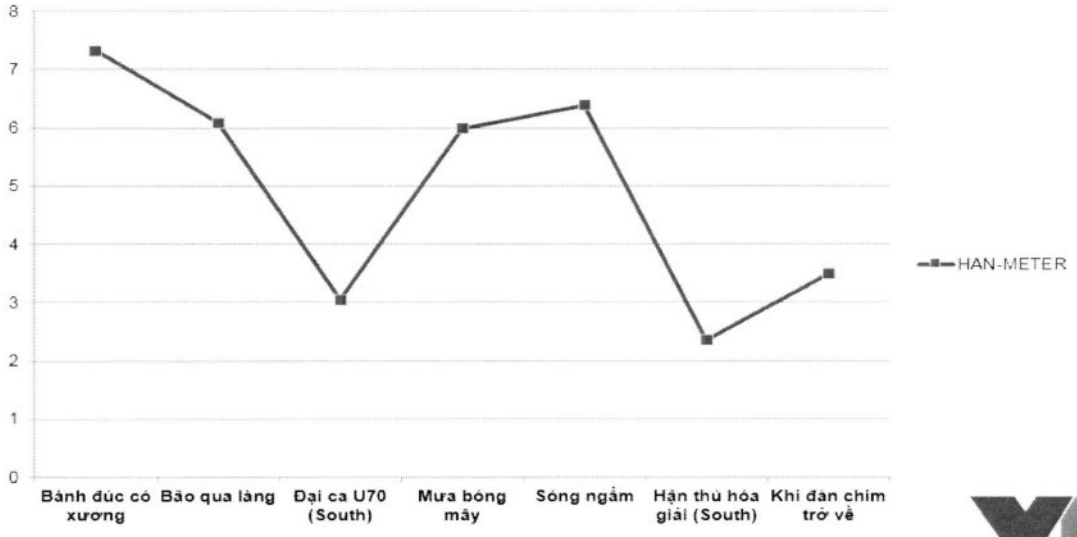
- 北側と南側の違い

北側
≠
南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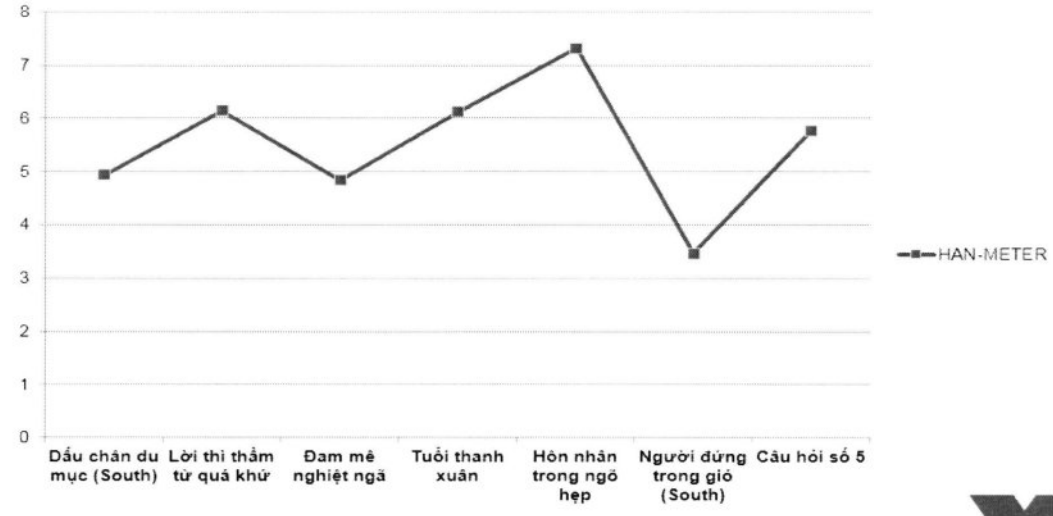
テレビドラマのトレンド および人気要因

視聴率% 20時30分 VTV1



テレビドラマのトレンド および人気要因

視聴率% 21時30分 VTV3



テレビドラマのトレンド および人気要因

- 好む コンテンツ:
  - 北側: 平凡な家族の生活、警察、昔の村落 …
  - 南側: 娯楽性の高い物をより好む
- 新しいスポンサーモデル: 間接広告

→VTVはベトナム のドラマ市場でトップを占めている

→ベトナム のドラマはゴールデンタイムに放映されている

VTV

テレビドラマのトレンド および人気要因

- ドラマ制作に先端技術を導入した国: アメリカ、韓国
- 音楽が新しい次元にグレードアップしている:
  多くのサントラ (BGM)がヒット作になる

VTV

テレビドラマのトレンド および人気要因 海外ドラマ

- 競争が熾烈な環境
- 韓国および 中国のドラマは
  ライセンス価格が高いが未だに人気がある
- インド、タイのドラマが上昇傾向
- 韓国の短編ドラマは広告スポンサーを見つけづらい
- 時代劇は北側ではあまり人気がないが
  南側では今でも人気があり特に中国ドラマが人気だ

VTVの解決法および活用法

- 海外フォーマットの購入により脚本力を向上
- 海外フォーマットと共同制作


VTV
CJ E&M
Tuổi thanh Xuân
Forever Young


Bài ca mặt trời
Song to the sun
タイヨウのうた
VTV
TBS

VTVの解決法および活用法

- 収益の増大: ドラマの中の間接広告が可能なように方針を策定
- オンラインとオフラインのプロモーションを並行。Vテレビのドラマコミュニティーの生成
- ドラマを通した付加価値の創造および全視聴者の共感を引き出すこと
- 技術投資: ビデオ画質(4K)、色感、音楽 …

ベトナムテレビジョン (VTV)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セッション 4. 日本 脚本家

<相棒 (について)>

コシミズ·ヤスヒロ

『相棒』は2時間の単発ドラマからスタートしました。初放送は2000年です。単発ドラマとしては3本制作されました。(現在、この時代をpre seasonと呼んでいます)。

当時、2時間のサスペンスドラマは主婦層をターゲットとしていました。ですから内容も余りハードな物は避ける傾向にありました。また素人探偵物が主流でした。素人探偵物というのは、警察官ではない主人公が事件を解決する物語です。

そんな中、『相棒』は、そういう潮流に逆らう形で誕生しました。主人公は警視庁の刑事、内容もそれなりにハードでした。

なぜそうなったかというと、私自身が当時の2時間サスペンスドラマに不満を感じていたのがその理由のひとつです。

遠い昔(私の子供時代)、2時間サスペンスドラマは男が観るものでした。内容もハードで、時にエロチックであり、また時にはグロテスクであったり、明らかに男性視聴者をターゲットにしていました。それがいつ頃からか、視聴者は女性、しかも主婦層ということになって、内容もソフト路線にシフトされていったのです。そのため当時の私は2時間サスペンスドラマを殆ど観ませんでした。

ふたつ目の理由は、私がサスペンスドラマの脚本を初めて書くということでした。

それまで私はコメディードラマばかり書いていたので、サスペンスドラマは全くの門外漢。しかも主婦向けになっていた2時間サスペンスドラマを殆ど観ていなかったため、それを手本として(踏襲して)書くということは出来ませんでした。もっとも、当時の2時間サスペンスドラマと同様の物で良いならば、わざわざプロデューサーも門外漢の私を指名することはなかったでしょう。むしろ現状とは異なる物をプロデューサーも欲していたのです。そんな訳で私は、かなり自由な発想を許されました。

そうして出来上がったのが『相棒』だったのです。

私は特にそうは思いませんでしたが、当時としては、かなり異色作だったようです。

そもそもが男のコンビ物(いわゆるバディ物)は視聴率が取れないと言われていた上に、素人探偵物が主流の中で主人公をあえて警視庁の刑事に設定し、内容も警察組織の中の確執などを描いたりと、かなり男臭い物でした。

実際、局内の試写では「面白いけど、これは視聴率が取れないな」という評価だったそうです。

ところがOAしてみると、予想に反して17%を超える好視聴率をあげました。お陰で2作目も制作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気を良くした私は「今度はシリアルキラーを登場させたい」と調子に乗ってプロデューサーに提案しました。主婦層をターゲットとしているのに、シリアルキラーは相当の冒険です。実際、プロデューサーは局内の会議で猛反対にあったそうです。

しかしプロデューサーはその反対を押し切り、ゴーサインを出しました。もちろんハリウッド映画に登場するような陰惨なシリアルキラーそのままでは、さすがに無理ということで、多少は主婦層に配慮する形で、やや穏やかなシリアルキラーを登場させた2作目は、これまた予想に反して22%という高視聴率を記録したのです。

実はこの2作目のOA当日、関東地方は大雪でした。雪で外出が控えられた分が、運良く視聴率に反映され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が、運も実力の内ということで良しとしたいと思います（笑）

その後、3作目も制作されて、それも17%を超える視聴率をあげ、pre season時代は終わります。2001年でした。

2002年10月、『相棒』は連続ドラマとしてスタートしました。（season1のみ1クールで以降は2クール）。pre season時代は好視聴率をあげましたが、基本的に1時間の一話完結形式で連ドラ化された『相棒』は、当初、それほど視聴率を取れませんでした。ちなみにseason1の平均視聴率は13.1%です。

しかしシーズンを重ねる毎に世間の認知度も高まり、その面白さも浸透したのか、結果、前シーズン（season13）の平均視聴率は17.4%になっています。

『相棒』が、pre seasonから15年という長きにわたって多くの人々から支持をいただいている理由のひとつは、その多彩な内容にあると思います。

通常、シリーズ物の一話完結ドラマにはフォーマットが存在します。それによってシリーズ物としての色合いも統一されるのです。

が、実は『相棒』に関しては、そのフォーマットが非常に緩いのです。決まり事といったものも特にありません。

season1以降、私も含めて35人の脚本家が執筆していますが、それぞれ持ち味を生かした作品を書いています。シリアスはもちろん、コメディーもあります。本格推理もあればスリラーやサスペンス、そして社会派から人情噺に至るまで、緩いフォーマットのお陰で多種多様、まさしく多彩な作品が『相棒』という名の下に連なっているのです。

さらにもうひとつ人気の理由を挙げるとするならば相棒の交代劇でしょうか。

杉下右京（水谷豊）を不動のものとして、その相棒が初代の亀山薫（寺脇康文／pre season～season7第9話）から二代目の神戸尊（及川光博／season7最終話～season10）、そして三代目が甲斐享（成宮寛貴／season11～season13）といった具体に交代し、今年の10月からスタートしたseason14からは四代目相棒の冠城亘（反町隆史）が登場しています。

主要な登場人物を交代させるというのは大いにリスクを伴いますが、新たな息吹を吹き込むために敢行しました。その結果、杉下右京がそれぞれの相棒と化学反応を起こし、新境地を切り拓いていったのです。

『相棒』は、この15年の間にテレビドラマだけでなく、映画を3本（『相棒－劇場版－絶体絶命！42.195km 東京ビッグシティマラソン』『相棒－劇場版II－警視庁占拠！特命係の一番長い夜』『相棒－劇場版III－巨大密室！特命係 絶海の孤島へ』）と、スピンオフ・ムービーを2本（『相棒シリーズ 鑑識・米沢守の事件簿』『相棒シリーズ X DAY』）公開し、相棒ワールドの拡大を図って来ました。

○上映作品について

今年の2月に放映されたseason13『鮎川教授最後の授業』です。三代目相棒、甲斐享の最終シーズン第15話・第16話、前後篇物です。

以下、『相棒』のHPから、あらすじを引用します。

＊　　＊

右京（水谷豊）は、享（成宮寛貴）の後押しもあって、大学時代の恩師の古希を祝う会合に出席する。参加者は、恩師の鮎川（清水綋治）のほか、弁護士や大学教授、財務省の幹部など、特に優秀だった元教え子たち。その中には、最後の教え子だったという社美彌子（仲間由紀恵）の姿もあった。一同は、鮎川の身の回りの世話をしている家政婦の黎子（石野真子）の手料理に舌鼓を打ちながら会話を楽しんでいたが、鮎川は突然、思ってもみなかった疑問を投げ掛けてくる。「なぜ人を殺してはいけないのだろうか？」。次の瞬間、参加者たちは、強烈な睡魔に襲われ意識を失ってしまう。気がつくと、そこは外界から遮断された地下室で、その一角には命題への回答を求める書き置きが。しばらく後、地下室の扉が開かれるが、そこには猟銃を手にした鮎川の姿があった。

鮎川はなぜ教え子たちを監禁し、殺人の是非を問うのか。

捕らわれた右京たちは、この危機にどう対処するのか？

閉ざされた空間で、命を懸けた極限の頭脳戦が始まる！

＊　　＊

ミステリーの定番ともいえるクローズド・サークルを物語の中心舞台として、緊張感溢れる展開を目指しました。

この回の特徴として挙げるとするならば、杉下右京と甲斐享の相棒コンビをあえて内と外に配し、物語の中盤以降まで別行動をさせ、代わりに右京は同じく囚われの身となった社美彌子を一時的に相棒として、彼女とのコンビネーションによって苦境に立ち向かうという展開でしょうか。

社美彌子（仲間由紀恵）は、このシーズンの初回sp（2時間）に登場した新キャラクターです。警察庁のキャリアであり、内閣情報調査室勤務を経て、警視庁へ広報課長として出向してきたという設定です。セミレギュラーとして今後も登場する予定だったので、彼女の存在をこの回で視聴者に印象づけるという狙いもありました。

その目論見は成功したと思っています。

ちなみに『相棒』season13は、今年、第41回放送文化基金賞テレビドラマ部門の最優秀賞を受賞しました。その選考対象作品が『鮎川教授最後の授業』（前後篇）でした。

セッション5. 韓国 制作者

＜韓国ドラマのトレンドの核、’複合ジャンル’について＞

ユン·ゴウン

最近、韓国の大衆文化界で話題に挙がった三編の作品がある。映画‘暗殺’と‘ベテラン’、そしてドラマ‘ヨンパリ’だ。同じ時期に観客数1000万人を動員し、劇場街を熱狂させた二つの映画と、最近韓国のミニシリーズ市場で夢の視聴率、あるいは魔の壁と呼ばれる視聴率20%突破を成し遂げたドラマ‘ヨンパリ’の三つの作品が持つ共通したキーワードは‘複合ジャンル’というジャンル的特性だ。‘歴史物+アクション+ドラマ’のジャンルを混合した‘暗殺’‘社会物+捜査物+アクション+コメディ’のジャンルを混合した‘ベテラン’そして‘メディカル+スリラー+メロー+企業物’のジャンルを混合した‘ヨンパリ’は、全ての作品において‘複合ジャンル’で観客と視聴者にアピールし、非常に満足な成績を挙げた。

しかし‘韓国ドラマ トレンドの核’として‘複合ジャンル’を説明するということにあたり、上の三作品と同様の‘特別な’ケースよりも、一層価値があるデータは、人気ドラマのジャンル分類上に表れた分布図で示される。今年放送されたミニシリーズ ドラマのうち、視聴率が上位20位までの作品リストは次の表のとおりだ。（※主題キーワードが‘トレンド’であるだけに、伝統的な家族劇を中心に展開する50部作以上の連続ドラマは調査対象に含ませていない。ニールセン全国基準）

順位	作品名	放送会社	ログライン
1	ヨンパリ	ＳＢＳ	場所問わず''患者問わず'高額の金さえくれれば組織暴力団も拒まない、実力最高の闇の外科医者ヨンパリが、病院で寝ている財閥の常宿女'眠れる森の美女'に出会ったことから展開される話を描いたドラマ。
2	ミセス・コップ	ＳＢＳ	警官としては100点、母親としては0点、正義正しく熱いハートを持つ婦人警官の活躍を通して、大韓民国のワーキングマザーの偉大感と哀歓を描いたドラマ
3	パンチ	ＳＢＳ	再び戻ることができないこの世界を渡りながら、人生と決別する男。大検察庁反腐敗部 捜査指揮課長のパク・ジョンファン検事の生涯の最後の6ヶ月の記録を描いたドラマ
4	輝くか、狂うか	ＭＢＣ	高麗時代に呪われた皇子と、捨てられた王女が、宮中で繰り広げるロマンスを描いたドラマ
5	優しくない女たち	ＫＢＳ	3世代に渡る優しくない女たちが、波乱に満ちた人生に耐えながら経験する、愛と成功、幸福探しのドラマ
6	仮面	ＳＢＳ	物質万能主義に陥った世の中。その物質のために家族に背を向け、愛の無い結婚を選んだ男女が、仮面の中の互いの真の姿を見たことで、結局人生で一番大切なものは愛と家族だということを悟る姿を描いたドラマ

7	風の便りに聞きました	ＳＢＳ	帝王的な権力を受け、富と血統の世襲を夢見る、大韓民国の超一流上流層の俗物意識を、痛烈な風刺で皮肉ったブラックコメディー
8	キルミー・ヒールミー	ＭＢＣ	7つの人格を持つ多重人格の財閥3世と、彼の秘密主治医になったレジデント1年目の女医師との愛、そして非常に悲しい過去の傷から互いを救い、治癒と幸福を探し出す人々の話を描いたドラマ
9	匂いを見る少女	ＳＢＳ	3年前にバーコード殺人事件で妹を亡くした無感覚なある男と、事故に遭い奇跡的に生き延びたが以前の記憶を全てなくしてしまった超感覚の所有者である女性との物語
10	ヒーラー	ＫＢＳ	政治や社会や正義などは、単に意味の無い単語だと考えて生きる青少年たちが、両親の世代が残していった世界とぶち当たる、痛快で爽快なロマンスドラマ
11	上流社会	ＳＢＳ	黄金の匙を口にくわえながら産まれた財閥の娘と、鳶が鷹を産めないのに黄金のはしごを登ろうとする者。2人の不平等な階級の間のロマンスを通して、真の愛の意味と、5つの事を諦めようとする若者たちに希望のメッセージを贈る、青春メロドラマ
12	アングリーママ	ＭＢＣ	一時は遊び人だった若い母親が、再び高校生になり韓国の教育の問題点を正面から受けながら解決していく痛快活劇
13	王の顔	ＫＢＳ	庶子の出身で世子となり、16年もの間、廃位と殺害の危険にさらされた光海が、観相を武器に運命を克服し、王になるまでの過程を描いたドラマ
14	メンドロントット	ＭＢＣ	火病にかかったアリと愛情不足のキリギリスの愛という奇抜な発想から始まるロマンチックドラマ。美しい島、済州島でレストラン'メンドロントット'を経営していく若い男女の話
15	ハイド・ジキル、私	ＳＢＳ	ある男の全く異なる2つの人格と恋におちた女の三角ロマンスを扱った、ロマンチックコメディードラマ
16	夜を歩く士（ソンビ）	ＭＢＣ	男装をして本を売りながら生活するチョ・ヤンソンが、ウンソク谷に住む神秘の士（ソンビ）キム・ソンヨルに出会い、彼がヴァンパイアであることを知りながら繰り広げるファンタジーメロ史劇
17	ああ、 私の幽霊さま	ＴＶＮ	淫乱な処女幽霊にとりつかれた厨房補助のナ・ボンソンと、自称スターシェフのカン・ソンウが繰り広げる、不埒に乱れた憑依コメディ
18	Who are you－学校2015	ＫＢＳ	ＫＢＳの代表ブランド'学校'シリーズの2015年バージョン。一夜にして人生が変わってしまった18歳の女子高生を主人公に、学生たちが遭遇する正直で様々な感性を込めた青春学園もの
19	覆面検事	ＫＢＳ	検事という身分でも解決できない事を、仮面を被ったまま拳で解決する、ある男の話
20	ディア・ブラッド	ＫＢＳ	ヴァンパイア医師の活躍と、メルトを表現したメディカルドラマ

上の表の中で色が塗られた作品が、いわゆる‘複合ジャンル ドラマ’ということができる。基本的にドラマを構成するジャンル的特性が三つ以上混ざり合った作品で、上位20位中で何と11作品がこれに該当しているのを確認できる。これらのドラマは、メロとスリラーという共通分母をベースに、それぞれの主題とコンセプトに伴うジャンル、すなわち法廷、捜査、推理、メディカル、史劇、アクション、ファンタジー、ホラー、コミックなどのジャンルが細部的に分けられている形式を取っている。

この中で、PANエンタテインメントで今年の初めに制作して放送された‘キルミー・ヒールミー’も、やはり複合ジャンル的な性格が明確だった作品の中の一つで、数多くのファントムを量産し、大きな話題を呼び起こした。

‘キルミー・ヒールミー’は、多重人格を有する男主人公(チソン 演)と、彼の秘密主治医である女主人公(ファン・ジョンウム 演)を中心に進行されるドラマである。この二人の関係性と治療過程を通じてメロとメディカル ジャンルを同時に扱い、多重人格という素材のリアリティーを最大限に担保した状態で、TVドラマでは多少見慣れない限界を克服するために、人格交代と人格融合の公式などにファンタジーの要素を加味し、視聴者にわかりやすく表現した。また、この二人の人物の過去を追跡する過程で、ストーリーを覆す展開を繰り返し、スリラージャンルでの妙味も与えた。

特に‘キルミー・ヒールミー’ は、男主人公が持つ七個の人格のキャラクタープレーを通じ、まさに‘複合ジャンルの饗宴’を繰り広げることができた。柱となる人格のドヒョンを通じてはメロを、サブ的な人格のセギを通じてはアクションとスリラーを、‘希代の妖物キャラクター’で爆発的な人気を集めたヨナとフェリー・パクを通じてはコメディを、ヨソプとナナはヒューマニズムとヒーリングストーリーを運ぶキャラクターとしてドラマの一部を占め、最後に登場する‘謎の人格X’を通じては、ファンタジー的な要素によりドラマを暖かく終えることができた。

では2014年に放送され大人気を集めた‘星から来たあなた’‘君たちは包囲された’‘ドクター異邦人’などを筆頭に、最近の作品‘ヨンパリ’まで、最近の2年間で作品の数が急増し、トレンドであることを立証中の複合ジャンルドラマの人気要因は何だろうか。その要因を大きく内的要因、外的要因の二種類で整理してみる。

まず内的要因では、‘多様なジャンル的欲求の充足’が挙げられる。過去の韓国ドラマ市場では、特別な場合を除き多様なジャンルへの挑戦自体が避けられていたのが事実だ。実際、前で言及した‘キルミー・ヒールミー’の場合も、初めは2008年に‘誰も知らない’というタイトルで企画されたが、当時の放送関係者の雰囲気上、素材的アクセシビリティが容易ではなという理由から、早々に放棄をした前歴がある作品だった。これだけではなく、わずか7～8年前までも韓国ドラマでジャンル的色彩が濃厚な作品は‘マニア ドラマ’という美名の下、大衆的に疎外されたり、企画の段階で白紙になる場合も一度や二度ではなかった。しかしながらアメリカドラマに代表される海外ドラマの流入と、それに続いてケーブル市場の成長が伴い、韓国ドラマの視聴者が、自然にジャンルドラマに対する偏見から抜け出し、多様なジャンルに慣れ始めた。これに対し、ドラマ創作者に内在していたジャンルの実現に対する訴求を噴出し始めたと考える。ここからもう一歩踏み込んで、韓国ドラマ固有の情緒と、実に多様なジャンル的要素を絶妙に結合させ、化学作用を起こしながら‘韓国型複合ジャンル ドラマ’の枠組みができ始め、このような変化に視聴者たちが熱烈な反応を見せることで、ますます進化した形態の複合ジャンル ドラマが完成されていきつつある段階が、今の韓国ドラマを評価する上で最も適合した見解ではないだろうかと思う。

次に、複合ジャンルドラマの人気の外的要因は、視聴パターンの変化、より包括的にはコンテンツ消費パターンの変化に伴う‘タイミングと没入の便利さ’が挙げられる。見逃せないことがカギだっ

たアナログTV時代には、チャネル数も限定的であり、TVを越える程に威力的な娯楽媒体の機能を有するものがなかった。よってチャネル忠誠度が高く、普遍的に一定水準の没入感が担保された韓国ドラマの正統作法は‘呼吸が長く、前回の放送を貫く核心となる幹が生命’であるドラマが主をなした。

しかし、アナログTV時代を過ぎ、HDTVやUHDTVの時代に発展すると、インターネット、IPTVをはじめとする多様なプラットホームの成長が急に続き、モバイルという最も進化したデバイスがTV市場を猛烈に攻撃する時代が到来し、人々は‘感情的没入度’より‘視覚的没入度’に、より即刻に反応を見せ、段階的に感情を説得するストーリーよりは、エピソード中心の嵐のような展開と、密度の高いキャラクタープレー、立体的で複合的なジャンルの混合に、より熱狂を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このような現象は、クリップ型コンテンツに馴染んだデジタル世代が増えるほど、より一層確実なものとなると予想され、TVの本放送の視聴に執着しないパターンが固定化されるほど、ドラマの作り方と制作方式にも非常に決定的なターニングポイントが要求されるだろう。

現在のような旧式の視聴率集計方式の下で、ミニシリーズが体で感じる人気に比べ、連続ドラマより相対的に視聴率が低くなる理由も、このような流れに一部起因すると見ることもできるが、上の表に挙げられた作品は、話題性をベースに視聴するパターンにあり、多様なプラットホームおよびデバイスとTVが互換される相互作用が可能だったため、視聴率でも所期の成果を挙げることができたと判断できる。このことは、韓国ドラマが徐々に時代の流れに伴ったメカニズムの変化に適応していきつつあるという傍証であろう。

複合ジャンルに対する定義、複合ジャンルに対する基準、そして複合ジャンルの展望などに対しては、まだ様々な視覚的な違いと異見が存在するだろう。また様々なジャンルを一つの作品の中で実現する過程で、速度と技術的な点に重点を置いたあげく、蓋然性と説得力の点で短所を露出し、単一ジャンルのドラマに比べて完成度が貧弱に見える限界を表わす作品も存在してきた。しかし、これは現在の韓国ドラマにおいて、複合ジャンルが完成型というよりは、まだ過渡期あるいは試験台の上であって、泡のようにあっという間に膨らんでは消えるという一時的な流行でなく、韓国ドラマのトレンドとして、時代の流れに軌を一つにし、進んで大衆文化をリードしていける、進化した形態の‘韓国ドラマの力’を見せる可能性が大きいという事実には、異見がないだろう。

このように、時代の流れを敏捷に受け入れ、絶えず自身の発展を追求する韓国ドラマの未来はいつも明るい。

セッション6. 中国 制作者

＜中国ドラマ産業発展のための独創性＞

スションチエン

過去10数年間、中国ドラマの年間生産量は1万本以上です。今や中国は世界的にドラマ生産と消費が最も多く行われる国になりました。

2014年、中国で制作され放送許可が下りたドラマは計429作で15,983話にもなります。 そのうち現実的な内容をモチーフにしたドラマが243作、8,335話で、それぞれ56.64%と 52.52%の比重を占めています。歴史ドラマは178作、7,338話でそれぞれ41.49%と46.19%、大河ドラマは8作、265話でそれぞれ1.86%と1.66%を占めています。10年前と比べるとドラマの制作量と放送量は下降線を描いているものの、中国ドラマ産業は質的な面で発展中であることが分かります。

中国は現在、世界で最も大きなドラマ放送市場です。2015年6月現在の統計を見ると中国の県級テレビ局は1,998局、地級市[2]以上のテレビ局は517局にもなり、全国32のチャンネルでは高画質の標準放送を行っています。2008年から2013年の間に<放送番組制作 経営許可証>を取得した制作会社の数が2,878社から6,175社へ増加し、年平均16.52%の成長率を見せています。また中国はすでに優れたドラマの投資モデルを築き、政府の基金、自己資本、業界外の資金、テレビ局参加型投資の前払購入、貸付、上場公募と6つのルートにより資金を調達しています。そのうち貸付と上場公募の比重が日に日に増して中国映像産業市場にホットマネーが集まっていることは周知の事実です。

過去50年間のドラマ産業の発展に伴い、中国は優秀な人材を輩出しました。1,000校にも上る大学で映像関連学科を開設しており、そのうち北京電影学院、中央喜劇学院、中国伝媒大学、上海喜劇学院などの大学が中心となり、傑出したドラマ制作の人材と経営人を輩出し中国ドラマ産業発展に輝かしく貢献しました。またドラマ産業関連の諸協会も人材の養成と業界内の交流のためのプラットフォームを築き、中国ドラマ産業の発展に大きく寄与しています。中国ドラマ制作産業協会はその中でも規模が最も大きく最も活発に活動している協会です。

中国ドラマ制作産業協会は2013年5月中華人民共和国政府の承認を受けて設立された一級法人団体で、ドラマ制作機関との自律、協力、交流および権益保護を目的とした協会です。本協会はドラマ制作産業のサポートを中心に、会員のニーズに耳を傾けて会員の合法的権益保護と産業提携および発展のために努めています。約400社の会員会社のドラマ生産量とゴールデンタイムの放

[2] **地級市**: 地級の行政区分に属する第2級地方行政単位。省級行政区と県級行政区の間にある省、自治区の行政区分。

送占有率が9割に達するだけあって、みな中国ドラマ制作業界で実力と影響力を兼ねそなえた主力業者と言えます。

先にご紹介したデータから中国ドラマ産業の発展状況を大まかに把握されたかと思います。しかし中国ドラマは多くの問題を抱えています。たとえ中国が世界で最も多くのドラマ制作会社を保有しているとしても、特別に秀でた会社は多くありません。年生産量で計算すると6,175社の制作会社の年平均ドラマ生産量は3本程度に過ぎず、一定規模の市場占有率に到達しておりません。しかし制作能力のある大企業では毎年最大7～10本のドラマを制作しており、大多数の小企業は2～3年でせいぜい1本を制作するに留まっています。もちろんその原因は複雑です。俳優たちのギャラの高さがドラマ制作費用の上昇要因でもありますが、最も大きな問題はドラマコンテンツの独創性の欠如です。よいシナリオと立派な作家陣の不足は現在そして未来の中国ドラマ産業発展の大きな壁となります。そこで私たちはアジア各国の優秀な関係者の皆様との交流と協力を望んでいます。資金面や技術面での交流だけでなくドラマ人材養成およびコンテンツ開発と作家の独創性のための交流が活性化することを願います。過去50年間の努力により中国ドラマの規模は驚くべき速さで急成長を遂げ、資金投入ルートも規模が拡大し、4K動画撮影の技術の導入も実現しました。このように資金と技術には不足していませんが、制作陣が足りない状況にあり、中国ドラマはコンテンツの独創性が欠如してしまい、ほかの作品のリメークやしっかりした土台がなくトレンドだけを追い求める風土が深刻化しています。

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も文化芸術の創作問題を注意深く見守っています。2014年10月14日、習主席は文芸座談会で文化と芸術は時代の発展を知らせるラッパであり、その時代の風貌を最もよく代弁し、その時代の風潮を最もうまく導くものだと言いました。習主席は最高の文芸創作が量的な発展だけで質的な発展が遅れている状況について言及し、ほかの作品を盗作してどれも一本調子であり、機械的な生産と即興的な消費に問題があると指摘しました。文学芸術の従事者は市場経済の流れの中で方向性を失ってはならず、人の心をつかめなければ生命力を失うことになると強調しました。

中国の国民はドラマを見て話すのが好きです。これは昔から長編小説を好む中国の伝統文化と相通じるとも言えます。したがってどんなドラマを制作するかがとても大事な問題です。私たちはドラマの文化的特性と芸能的機能をよく知っています。しかし盗作とリメークの問題を解決できないかぎりドラマ創作も行き詰まってしまうでしょう。例えば、ここ1年で見られた、知的財産権に関する熱い反応を見ても、もともとせいぜい数万部に過ぎず文化的なシェアが小さかったオンライン小説が、数百万～数千万部に増えました。これは現在中国ドラマ制作の作品の創作にも深刻な問題があるということを如実に表したケースです。

ドラマ創作は中国の歴史の継承および再認識であり、現実に対する理解と真実の反映です。作品創作は生活に基づいていなくてはならず、創作者は生活について深く理解して、それを芸術的に表現できなくてはいけません。私たちが作品創作活動の独創性を追求するのは、人類の普遍的な価値を求めるからであり、人類の創作精神に対する尊重であると言えるでしょう。

現在、中国のドラマ創作は極端な現象を見せています。まず立派な力作が大量に出現しています。中国のドラマには歴史、トレンディー、戦争、ホーム、農村など多様なモチーフをもとにしたジャンルがあります。〈北平無戦事〉、〈青年医生〉、〈反恐特戦隊〉、〈離婚律師〉、〈老農民〉、〈父母愛情〉、〈大丈夫〉 などレベルの高い文化を見せる作品が多いです。一方で相当数の制作会社は資本市場の奴隷となり人気だけを求める作品を生産することで、数多くの作品の「同質化」現象を引き起こしています。しかし独創性を欠如したドラマはすぐに市場で淘汰され視聴者から目を背けられると自信を持って言えます。

中国文化は「創意精神」が急がれます。「創意力」は中国文化の発展に活力を与えられます。特にドラマは現代中国文化芸術の主要な媒体です。

ある意味ですべてのドラマの創作は転覆的な側面と構成主義的な側面の両方を持っています。「独創」は既存の視覚と観念を覆す、広大な人類の物語に対する共通の芸術的審美観であり、共に守っていくべき準則であり、多様なレベルでの拡張です。独創的な構成は技法上、ストーリー上の独創に留まらず、創作者の境地と心境を表さなくてはならず、ドラマ芸術を担当する作家、演出、俳優およびすべてのスタッフの創意精神を刺激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それでこそドラマ創作の独創性を具現できます。単に目先の新しさや奇抜さで視線を集めることに満足してはいけません。いわゆる「創意精神」とは創作者の叙述方式と技巧の独創性を言うもので、このような創作だけが人の心と魂を動かすことができるのです。

ドラマに従事する全関係者は、自分が人類のモラルと審美観、ひいては文化的啓蒙の責任を担っていることを認識し卓越した芸術的創意力をもとに生活の面々を描き出さなくてはならなりません。したがって私たちは日本と韓国の優秀なドラマ関係者と交流して学び、コンテンツ産業に関する協力事業を行いたく存じます。中国ドラマ制作産業協会は各国の関係者と芸術界の人材に平等かつ自由にプラットフォームを提供いたします。

人類文化の交流は永遠のテーマです。私たちはドラマ関係の仲間たちとの幅広い交流を通して業界内の長期的な市場づくりを目指し、日中韓の事業協力にさらに多くの機会を提供し、長期的に人材を養成する機関を設立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中国ドラマ関係者たちも交流と学びを通してアジアのドラマ産業に大きく貢献することを願います。

「1つのアジア、1つの夢」、アジアのドラマ産業の協力と発展が進み、明日がさらに輝きますように！

セッション 7. 日本 制作者

<日本の朝は朝ドラから - 55年の歴史と今>

カガタ･トオル



① 朝ドラ＝連続テレビ小説とは？

毎週月曜～土曜　週6回放送　朝8:00～8:15　1回15分

半年間　25週150回 or 26週156回　の連続ドラマ

東京・大阪　で交互に制作

今もNHKを代表するキラーコンテンツ


「あさが来た」主演
波瑠

1961年スタート
現在放送中の
「あさが来た」で93作目

1983~84年放送「おしん」



平均視聴率
2 .
6 %

NHK

② 朝ドラ＝連続テレビ小説とは？ 「朝ドラの主役・ヒロイン」

基本は「ヒロインの一代記」 ➡ ヒロインは日本の「朝の顔」に ➡ ヒロインオーディションは新人の登竜門

➡ 約2000人から選ばれるヒロイン　キャスティングによるヒロインも



描いてきたヒロインの職業はこんなに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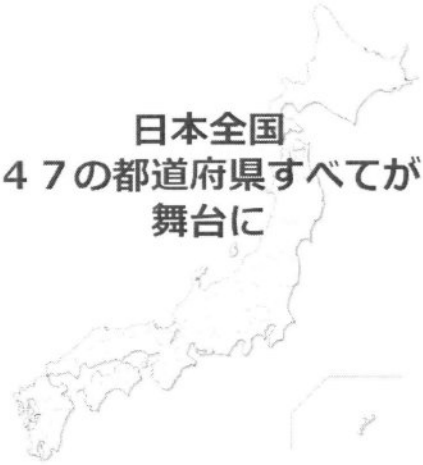
主婦・教師・看護師・歌手・女優・料理人・アナウンサー・新聞記者・編集者・医師・脚本家
美容師・小説家・旅館の女将・和菓子職人・ホテル従業員・棋士・大工・パイロット・映画監督
宇宙飛行士・落語家・ツアープランナー・造園士・ファッションデザイナー・海女・翻訳家・パティシエ

家庭を守るヒロイン、男性社会に飛び込んでいくヒロイン、さまざま・・・

NHK

③ 朝ドラ＝連続テレビ小説とは？ 「時代を超えて、日本全国が舞台」

舞台となった地方に注目が集まる



日本全国
４７の都道府県すべてが
舞台に

150年にわたる時代を描く



「あさが来た」
１８５７年～

江戸
明治
大正
昭和
平成



「まれ」
～２０１５年

NHK

朝ドラ・最近のヒット作









『あまちゃん』の魅力（描かれた時代は2008年～2012年）

その１：母の故郷・岩手で海女になったヒロイン



その２：東京でアイドル歌手に





その３：泣いて笑える「女三代」の物語

その４：「じぇじぇじぇ」が流行語に

『ごちそうさん』の魅力（描かれた時代は1911年～1947年）

その１：東京生まれで大阪に嫁ぐヒロ



その２：夫婦の愛の物語





その３：「食べることは生きること」がテーマ



その４：たくさんの料理が登場し話題に

NHK

『花子とアン』の魅力（描かれた時代は1900年～1952年）

その１：ヒロインは「赤毛のアン」の翻訳者



その２：山梨の農村から東京の女学校





その３：許されない恋



その４：女性たちの友情の物語

NHK

『マッサン』の魅力（描かれた時代は1920年～1971年）

その１：ウィスキー作りにかけた夫婦の



その２：朝ドラ史上初の外国人ヒロイ





その３：舞台は広島・大阪・北海道



その４：ウィスキーの売上増に貢献

これからの『朝ドラ』は何をめざしていくか…

時代もの・・・「ごちそうさん」「花子とアン」「マッサン」

女性にとってさまざまな制約があった時代

震災・戦争・・・ヒロインの乗り越えるべき壁やドラマチックな設定を作りやすい



「あさが来た」では
これまで最も古い
江戸時代を描くチャレンジ



これからの『朝ドラ』は何をめざしていくか…

現代もの・・・「あまちゃん」

職業も地域も、やりつくしてしまった？

だからこそ視聴者をひっぱる、ドラマ上の強い軸が必要

「あまちゃん」の場合、ヒロインの母の過去の秘密が明らかになっていく過程が視聴者をひきつけた





NHK

アジアを目指す長期連続ドラマ『美女と男子』



『美女と男子』
２０１５年４～８月　毎週（火）夜１０時～

連続２０回という異例の長期シリーズ
芸能界の頂点を目指してともに闘う、
新人マネージャーと新人俳優の物語。

年上の「美女」と年下の「男子」のラブコメであり、
サクセスストーリー。

また芸能界の裏側がかいま見れるヒューマンドラマとしても人気に。



ヒロインはアジアでも「ごくせん」で人気が高い仲間由紀恵



主題歌はアジアの歌姫浜崎あゆみ

NHK

Reference in Chinese

项目 1. 韩国 编剧

关于《未生》

郑允贞

大家好，我是韩国电视剧《未生》的作家郑允贞。

首先，以同一作品亚洲著名作家及制片人面前发表，感到非常荣幸。

电视剧《未生》是 2014 年 10 月 17 日到 12 月 20 日期间，在韩国有限频道 TVN 播出过的 20 集迷你系列。是以韩国同名在线漫画为原作制作的作品，播出的整个过程中，关于作品要传达的信息，曾得到大力支持，因而在收视率和话题性两方面都取得了可喜的成果。

众所周知，《未生》这个剧名是围棋术语，意思是解围的关键一步还没完全到位。这与剧中主人公张克莱以临时工的身份孤军奋战的样子很相似，也是为了让生活在这个时代的许多人与剧中张克莱比照自身而创造的词汇。

这部剧讲述的是从小视围棋为生活的全部的主人公入段失败后，罢手围棋，以实习生的身份进入一个名为 ONE INTERNATIONAL 的综合贸易公司适应、合成长的过程。在整部 20 集的电视剧中讲述张克莱进入公司遇到的人以及和他们经历的事件。

我在张克莱和 ONE INTERNATIONAL 相遇的第一个戏中，加入了一个非常重要的台词。“没有为生存而做好最起码的准备，就掉进 ONE INTERNATIONAL 这样一个丛林里的张克莱将马上面对他的顶头上司。”与 30 出头的叫金大明这个上司的以一次照面，是表现 ONE INTERNATIONAL 的视线，象征着这个世界一般性的视线。

张克莱别说是大学毕业证，就连高中毕业证的没有。事先知道这些信息的上司以十分刁难的态度向张克莱发问，“是说高中毕业自学考试吗？”，“有职场经历吗？”，“外语或者资格证呢？”。电脑应用能力资格证， 一级都不是，仅有二级资格证的张克莱，他的回答令这个上司感到十分无奈，“呵，这可真是最近罕见的年轻人诶！”。

在韩国，“罕见”这一修饰语主要用于很少见的对象，而且是表示称赞、肯定的评价时使用，比如说“有礼有节、本分、品性好的罕见的孩子”这样。

不过我在这里运用反语修辞法，是为达到讽刺“像张克莱这样没有能力的人在我们国家是多么的奇缺”，也就是说“像张克莱这样的人是多么稀少的‘物种’”而使用的。这里说说的能力，不可否认它是符合当今韩国社会要求的评价标准的，但我个人不赞同这个标准。

现今韩国社会对我们的年轻人要求的所谓能力（在韩国最近被称 spec）真的是十分可怕的。因为所有的人都为了超过这一标准而努力往前奔，这个标准也越来越高。那么，又因年轻人要再次为已经拔高了的标准而没日没夜地努力，在这个基础上选拔出人才的标准又再次提高了。这场比赛从妈妈肚子里出来的那一瞬间就已经开始了。

我个人认为这是地狱，很万幸出生于这个时代，不必和他们竞争也可以活得下去。

我很想围绕我们社会的年轻人是怎样地被赶入竞争的漩之中，又是怎样地在积累 Spec 的过程中不得不争红了眼说几句。也是想指出在这一过程中又失去了哪些价值，我们的社会又是如何不以为然地接受这样的轶失。

“呵，这可真是最近罕见的年轻人诶！”

就这样短短短一句话，虽不足以完全传达多么宏大的意图，但是我就是想试一试，“知之为知之，不知为不知”……

Spec 这个词是用来表示机械或电子产品配置的，将这样的一个词汇用作客观性地证明个人能力的评价指数的一个可怕的世界。这个作品也算是作者对于这一可怕的世界的一番牢骚吧。电视剧《未生》就是这样开始了。

按照时代性的、社会性的评价尺度显得无比匮乏的低能屌丝主人公，却发挥真正意义上的自身能力，突破困境而逐渐成长。奇幻就是从这里开始的。在电视剧《未生》播出的整个过程中，虽然观众和所有的言论都异口同声地说这部电视剧是展现了活生生的现实、超写实，像纪录片一样的电视剧，但我的想法有所不同。没有职场经历、仅有一个不能再普通的资格证、不会说一句外语的主人公，进入必须需要外语的综合贸易商社挺过难关这样的设定本身就是奇幻要素所在，所以这部电视剧从一开始就按照奇幻的思路执笔的。

张克莱突破艰难的旅程中，有一个或一些帮助他的人，但在现实世界中是实际难以存在的。我认为这就是电视剧《未生》之所以被称为奇幻剧的决定性的根据。那是因为努力能得到回报，遇到可以依赖的同事和上司这样的叙事本身就是生活在奇幻世界里了。

还有……

我认为正这是这一点打动了很多人的心。

我想，尽管主人公没有付出任何代价就进入这奇幻世界，但当他处于艰难行进的困境中时，所有人都鼓励他、支持他。如果仅是拿着现实中原有的几个碎片创造了奇幻，那么会不会也有那么多人一起哭一起笑，这我就不得而知了。一天到只晚聊电视剧制作的我们，往往多这样的电视剧这样说：“那为什么要看电视剧？看纪录片就行了”。

从企划到播出

《未生》从企划到播出整整用了一年时间。

在线漫画原作《未生》虽是好的作品，要想制作成每集 60 分钟，达到 20 集的电视剧，却存在人物和故事的结构上有很大的不足这一题材性的极限。

为了剧本，不要说整体上，就是在每一集里也要重新编排起承转合和事件。庆幸的是，因详细的资料调查和实际在商社工作的人提供的帮助，倒是抓住了现实中的商社 man 原型。

继之而来的问题是如何确定作品的语调。是要止于将现实的沉重与冷漠如实地刻画出来吗？要不就是 “尽管如此”也要保留对生活的怜悯和勇气,我是选择了后者。

在这方面好像与共同制作《未生》的金元硕导演从某种意义上取得了积极的共识。

更希望刻画和表现现实的沉重和冷漠的金导演，与主张保留生活下去的怜悯和勇气的我，曾无数次交换意见，在紧张的拉锯战之后，最终在某个适当的立场确定了下来。

在整个电视剧制作的过程中，导演和我都没有强求自己的意愿，也没有过传递无理要求的想法。但是既然现实就像水泥块儿一样如此凄凉，也就没有说希望只是一味地接受。

当签约制职员张克莱最终处于没不能成为正式职员的处境时，我让既是张的上司，又是导师的尚植这样自嘲："在这样的世道，没有对策的希望，不负责任的安慰会有什么用呢？"

这句话很正确。到哪里都很难到的希望和轻率的安慰或许会令绝望和悲伤极其短暂的被遗忘，但绝不会成为根本性的解决对策。

这样一来，他的同期职员、梦中情人善次长如是说："我倒是觉得就连没有对策，不负责任的一句话都说不出来的这个世道更可怕呀！因为就算是没有对策的一句话，迫切需要它的人很多。"

这句话也很对。因为这个世道已经如此而任由它，那将会越来越严重，而有的人可能会因为他人的一句话而得到拯救。这两句话成为了引领全剧 20 集的语气与态度。

最后一集里为了让张克莱转正，采用了不当方法的尚植最终离开了工作 20 多年的公司，没有转正的张克莱也离开了公司。尚植创立了自己的公司，原来的经营 3 组聚首后，以最终张克莱的加入而全剧终。

之后……

最后的尾声部分，导演和我与引领到全剧最后的语气完全不同的绚烂的希望作为最后一块石子放置。也就是说，似乎是会有的奇幻性，但却以观众并不期望的奇幻性收尾。由奇幻开始的，就要以奇幻结束。

对奇幻性的结局表示不满的观众和牢骚并不是没有过，但还是那么做了。我想说，虽然是潘多拉的盒子打开了的世界，但那个盒子里是否至少还有这样一个东西？虽然未曾确认过，既然说保留了，那我就愿意相信之，正如善次长的台词那样。

如果作家不言希望，那又应该言什么呢？

沟通和共鸣之电视剧

《未生》中的主人公张克莱是已经在围棋之路上经历过一次失败的朋友，当他不能再继续自己曾经在别人上大学积累 spec 期间专注过的围棋之时，他开始迷失去路。在经支助者介绍进入的公司里，他只是高中毕业空降兵，被盖之义任凭怎么努力都无法继续支撑下去烙印。

但是，张克莱只是默默地弥补自己的不足，选择了踏踏实实度过每一天。后来，他与起跑线谁然不同，却以别的方式努力上进的同事们相识，和叫他们"我的孩子"上司相遇，得到持续不断地发展。组织内对张克莱的看法由原来的无视、蔑视或好奇逐渐向认可接纳转变的过程中，观众们能感受到一点感情净化。《未生》虽然以张克莱的成长故事为基本故事线索，事实上《未生》里成长变化的人物并不是张克莱一个。

张克莱工作的营业 3 组老大，实际成为导师的吴尚植次长，可以信赖的金东植代理，和张克莱同期的四剑客、有能力的洪一点，冷静的精英组张白启，热情的话唠韩石律等 ONE INTERNATIONAL 公司成员一个一个相互对立，或者互相提携，在全剧 20 集的播出过程中，一直是相互交错、变化。结果在组织这样一个巨大齿轮里，因为他们也是与张克莱相同的"未生"们对主人公外其他人物的成长，也赋予了较大比重。

特别是《未生》更集中于职场内形成的关系，在变化和成长的过程中，所表现出的喜怒哀乐和成长之痛，成为了人物自身的"迫切感"，在与他人的"真实的关系"中得到安慰，并成为继续前行的原动力。

据说电视剧《未生》成了很多观众专门将剧中人物与自身对照并一起苦笑等等电视剧。实际上已经疲于不稳定和职场内竞争的大众，从《未生》中的人物中，无论是过去、现在还是未来，都能看到自己的影子，让自己成了主人公而感情投入其中，过多地产生了共鸣。

《未生》中的人物都为了求职而急于基于积累“Spec”的人，或许是你的急不可待的弟弟，或许是为了在公司生存下去而孤军奋战的自己，或许是因育儿还是深造而苦恼的朋友，或许是对着拿水瓢的妻子反为自己喝酒的理由的爸爸。

通过经历《未生》这一作品，使得我对电视剧就是与观众的沟通和共识这样一个极其显然的事实进行了再一次的确认。当然《未生》是以职场为背景，因让其中的人物成为中心而易于使感情投入进去这一优势的作品，但更重要的是设定了能够与观众沟通，唤起共鸣的角色形象和角色形象演绎，这些如同电视剧的结构框架一样重要的事实得到再一次确认的作品。

本次研讨会的主题是“电视剧的发展趋势和受欢迎的原因”。

非常遗憾的是最近在韩国制作电视剧的人经常遭遇“囧”。

是韩国一句流行语“精神崩溃”的缩写，直译就是精神完全垮掉了，即精神失常，程度轻一点就是失去判断力。

最近经常听到周围有人说不知道应该创作什么样的电视剧。

我的心情也是如此。

说明电视剧的发展趋势变化之快已经快到难以跟上的程度了。

原以为是这样，实际是那样，本以为是那样，结果是这样，所以也就有了“没有发展趋势恰是趋势”这样的玩笑话。

当初我对电视剧发展趋势也并不了解，不过因为我本人依然认为电视剧的本质是探讨人的感情，所以我想，写出忠于这样一种本质的电视剧就是答案。

无论写奇幻的外皮，还是现实的外皮，无论这个这样一种感情是足以社会性话语的、有意义的感情，还是集中于个体的小感情，终究都是处理人之感情的问题。因此，只是为避免“不是人引领着事件向前推进的电视剧，而是事件牵引着人走，从而不可理解的角色形象、不可理解的盖然性、不可理解的事件等肆意的电视剧”而不懈努力而已。

《未生》也始终在反腐印证这样一种根本中熬过了极难的一年时间。

在执笔《未生》的过程中也好，电视剧播出结束后也好，从未对作品如此细说过。

我想是不是应该成为作家诠释电视剧《未生》的独一无二的时间呢？

在准备这次发表的过程中，让我有机会重新回味自己都忘记了的、执笔当初的想法，回想当时写什么样的镜头是以什么样的意图写的，还引起了内心小小的振动。

从这种意义上，我期待这样一个机会对于我来说会有深刻的意义，同时通过这次研讨会，与各位作家见面，学到更多地东西。

感谢各位的聆听，不足之处请多指正。

谢谢大家！

电视剧《未生》剧本梗概

张克莱自小开始下围棋，虽然成为棋手的目标一直伴随着他的生活，但入段失败后经人介绍，进入一个名为 ONE INTERNATION 的公司营业 3 组。因自学考试高中毕业学历是他的全部，而被误会为“空降”，在实习生中间被孤立。3 组的吴主任也看他不顺眼。不过因张克莱诚实而努力的样子，吴主任渐渐开始接纳他。以优异的成绩通过实习 PT 考试的张克莱成为 2 年签约制员工，进入营业 3 组。还有同时通过考试的同期张白启、安永怡、韩锡律也被安排到各部门开始了他们孤军奋战的职场生活。

四个人在公司里经历许许多多的事，遇到形形色色的人，在这个过程中他们渐渐成长。

张克莱与营业 3 组里的工作狂吴次长（助理经理），有能力、心眼儿好的金代理（副主任）、呆板发木但城府很深的千科长（主任）一起，有与其它部门在利害关系上的纠缠碰撞，也有与腐败和不正之风面对面的斗争，有组员抱成团成功实现签约，也有主动申请夜班共同完成项目。曾因下围棋而谙于独自做事的张克莱，作为一个上班族，不仅通过这些事不断提高了能力，感受到归属感和同志情谊，而且正逐渐熟悉与他人一起做事。

曾经外表、文凭没有哪一项瘸腿的精英族张白启，被分配到钢铁组之后，认为自己的上司姜主任只给自己简单的业务，不认可自己的能力，要辞职。但是在代替出差的上司重要的弄一个重要材料的过程中，通过别的部门上司和自己的同期职员的对话，理解了实际业务基本功的重要性，便开始摆正自己学习的姿态。安英具备可以即刻投入实际业务的能力，但因为是女孩，融入资源组并不那么容易。跑腿买烟、打扫办公室、清理垃圾桶之类的杂活是家常便饭，也会因事情弄巧成拙而被臭骂。但是安英尽全力执着努力的样子，最终让上司们开诚相见，接受她成为小组的一员，并开始交给她任务。韩锡律表面上没脸没皮、油头滑脑，但借蓝领爸爸的光，在生产一线学习了业务，具有扎实的业务功底。他和一开始感觉人还不错，但遇事推诿的上司成代理产生对立，处理问题感情用事、不够成熟，以致惹火上身，抑郁不快。不过，因无视抗拒过分要求的工厂员工的态度，矛盾终于爆发。为了公司要求和员工满意两头兼顾，多方打听，以自己的实力在成代理面前神气十足地解决了问题。就这样，四个人经历了大大小小的逆境，和同事们有合作也有磕碰，逐渐成长为 ONE INTERNATION 的一员。但是，其中以两年签约职员身份进入公司的张克莱，尽管具备比他们当中任何人都端正的业务态度和优秀的业绩，却处于不能转为正式职员的境况。知道了这个事实的吴次长为了给张克莱转正，接受了崔专务不合理的业务安排，在进行过程中，项目因张的失误而前功尽弃，给公司以巨大的打击。结果吴次长承担了责任，辞职的时候叮嘱张克莱无论如何一定要生存下来。为了坚守和吴次长的约定，张带着沉重的思想包袱，迎来作为签约职职员的最后一天。

尽管留下的人，包括营业 3 组的人和部门上司、同期职员都努力争取，但最后还是没能转正的张克莱，最终只能离开公司…… 重新成为无业游民的张克莱，但是一个完全不同于以往的张克莱，正弥补自身的不足,为再次向社会迈进做着准备。有一天…… 辞职后创立了一个小商社的吴次长找上门，物色人才来了。后来，辞了职的金代理也加入，营业三组重新开始一起工作。

项目 2. 中国 编剧

《各国受欢迎电视剧情节模式对中国电视剧创作的启示》

刘益

尊敬的各位与会同业者，你们好。

很荣幸，今日作为中国北京电视艺术家协会推荐的青年编剧参会，并代表发言。

作为一名年轻的编剧，我想围绕着当代世界，尤其是中日韩亚洲三国受欢迎电视剧情节模式的发展，谈一些对中国编剧的启示。供大家共同探讨。我想首先定义一下今天所讨论的电视剧情节模式，我觉得可以通俗地将其理解为，如何叙述好一个故事的固有模式。相信大家手里已经有了我这篇发表文的翻译文。从各位手中的文章，可以看到这一组统计数据。这里所选取研究的电视剧作品样本，主要来自于2009年至2015年初的受欢迎电视剧作品，以美英日韩中为地域划分，囊括了不同题材、不同风格的电视剧作品，共计30部。样本选择的依据，不仅仅只是该作品的高收视率，更突出强调了该作品的制作成色、社会反响以及艺术质量。

具体的作品名录如下表所示：

美剧	英剧	日剧	韩剧	中剧
别对我说谎	疯城记	亡者之声	IRIS	潜伏
行尸走肉	皮囊	无法坦诚相对	我的女友是九尾狐	黎明之前
权力的游戏	傲骨贤妻	母亲	树大根深	步步惊心
新闻编辑室	唐顿庄园	孤独的美食家	屋塔房王世子	宫锁心玉
绝命毒师	神探夏洛克	半泽直树	继承者们	甄嬛传
纸牌屋	极品基佬伴	昼颜	来自星星的你	璀璨人生

表1：当下受欢迎电视剧作品名录（2009-2015）

这30部电视剧作品，不仅在其播出的档期内具有较高的收视率，而且都或多或少引起了一种“现象级”的关注。当一部电视剧能够成为一种现象级的作品，那说明该剧不仅具备了较高了制作水准，更重要的是，它迎合了一种时下的思潮，让受众在观摩的同时，获得了更多的共鸣。这种共鸣，不仅仅是受众对剧中情节与人物的一种简单反应，更是一种受众对自我生活的，最大程度的关照与反馈。这也电视剧对当下经济、社会生活方方面面的“镜象式”表现。

有理由相信，在这30部受欢迎的中外电视剧作品中，已经基本涵盖了当下各国受欢迎电视剧情节的几种常见模式。

首先，我们来看看，这30部作品中，反复出现的主要人物类型，究竟是哪些。可以看到，至少有八种人物类型，会经常出现于当下的受欢迎电视剧之中。

具体内容如下表2 所示：

人物类型	代表作品	代表人物	出现次数
追索者	《亡者之声》 《IRIS》 《潜伏》 《黎明之前》 《别对我说谎》 《疯城记》 《傲骨贤妻》 《神探夏洛克》 《树大根深》 《来自星星的你》	加地大己、石未亮介 金贤俊、崔胜熙 余则成、李涯 刘新杰、谭忠恕 莱特曼、福斯特 阿斯顿夫妇 阿丽西娅、卡琳达 夏洛克、华生 世宗李祹、姜采允 都敏俊、千颂伊	20
穿越者	《步步惊心》 《宫锁心玉》 《我的女友是九尾狐》 《屋塔房王世子》 《来自星星的你》	若曦/张晓 洛晴川、良妃/赫舍里 九尾狐/吉月 李恪与臣子、芙蓉姐妹 都敏俊、千颂伊/宜花	16
统治者	《权力的游戏》 《唐顿庄园》 《新闻编辑室》 《甄嬛传》 《纸牌屋》 《树大根深》	罗勃、泰温、蓝礼 罗伯特、柯拉 威尔、麦肯锡 甄嬛、雍正、宜修 弗兰克、克莱尔 世宗李祹、李准基	14
逆袭者	《甄嬛传》 《璀璨人生》 《半泽直树》 《继承者们》 《绝命毒师》 《权力的游戏》	甄嬛、陵容、眉庄 余非、章赫凡 半泽直树、近藤直弼 车恩尚、金叹 沃尔特、平克曼 龙女、雪诺、小恶魔	14
逃离者	《行尸走肉》 《无法坦诚相对》 《母亲》 《孤独的美食家》 《昼颜》	瑞克、洛莉 中岛圭介、水野月子 铃原奈绪、道木怜南 井之头五郎 笹本纱和、泷川利佳子	9
变形者	《行尸走肉》 《绝命毒师》 《皮囊》 《来自星星的你》	达里尔、卡萝尔、总督 沃尔特、平克曼 托尼、希德 都敏俊、千颂伊	9
复仇者	《半泽直树》 《甄嬛传》 《树大根深》 《权力的游戏》 《绝命毒师》	半泽直树、竹下清彦 甄嬛、端妃、叶澜依 姜采允、郑准基 雪诺、布兰、阿莉娅 沃尔特、平克曼	12
救赎者	《行尸走肉》 《绝命毒师》 《权力的游戏》 《甄嬛传》 《母亲》 《来自星星的你》	瑞克、尤金 沃尔特、斯盖拉 詹米、耶格蕊特 果郡王、温实初 铃原奈绪、道木怜南 都敏俊、李辉京	12

表2：当下受欢迎电视剧中常见人物类型

这八种主要人物类型，分别是：追索者、穿越者、统治者、逆袭者、逃离者、变形者、复仇者、救赎者。有兴趣的朋友，可以根据这个分类，对比着看看这些电视剧。

也许这八种人物类型，并不一定能涵盖当下所有的电视剧人物类型，但有理由相信，这八种人物，已经是当下受欢迎电视剧中相对较为常见的几种基本模型。至少在过去五年的时间里，这些人物类型频繁地出现在了世界各地的电视荧屏之中。同时，我也相信，其中的某些人物类型，会在很长一段时间内继续存在下去。诸如追索者、统治者、逆袭者、复仇者、救赎者这些人物类型，并非只存在于当下的电视剧作品之中，从古典主义时期开始，文学与戏剧的作品中，就已经有了这些人物类型。在历经了时代的变迁和思潮的洗刷之后，他们依然具有生命力，依然是当下观众会产生普遍共鸣的人物类型，因为他们满足了人类亘古不变的心理愿景与情感诉求。因此，我相对应地将这八种人物类型，推演出八种当下各国受欢迎电视剧共有的情节模式：追索、穿越、统治、逆袭、逃离、变形、复仇、救赎。

好了，有趣的是，作为中国编剧，我熟悉、甚至看过上面的几乎每一部片子。我身边的很多非电视剧行业从业者、年轻人也跟我一样，有同样的选片爱好。但是同在亚洲的韩国、和日本，我却通过调查，应证了我的猜想。日韩的本土年轻人，很少或从来不关注中国电视剧内容。明明在中国受欢迎的电视剧，也有跟日、韩电视剧相同的情节模式设置，甚至高于日韩某些电视剧的制作费用，为什么不能在其他国家，拥有同等的受欢迎程度呢？这引发了我巨大的兴趣。日剧和韩剧在创作上，给我们中国编剧带来了怎样具体的启示呢？

我的直观感受，日剧中注重细节感受，韩剧注重情节紧张，视觉冲击。

近年来，中国电视剧也在大量学习日韩剧，但是并没有结合中国观众的观影角度和观影习惯，所以中国电视剧学习日韩两国相对极端化。尤其是近几年，韩剧在中国的受欢迎程度超越了日剧，国剧对于韩剧的模仿，将情节的紧张夸张扩大，失去了合理性，从而有“雷剧”的产生。编剧习惯于戏不够，事件凑。看似事件很多，却一直流于表面，相似的冲突很多，却没有一个让观众印象深刻。这就是编剧没有下苦功夫，把不多的事件表现得跌宕起伏，是自己规避困难的描写。一样的情节设置，根据不同的受众，不同的定位，不同制播方式的电视剧，创作方向和技巧也都应该有不同的侧重。

我的硕士生导师，中国中央戏剧学院的卢敏教授，是一位古道热肠的中年妇女。她教授电视剧创作，本人也是国内一流的电视剧编剧，同时还是资深的韩剧研究者，尤其值得一提的是，她是“都敏俊教授”的铁杆粉丝。她因为热爱“都教授”，特意前往韩国，参观了《来自星星的你》的拍摄现场。回来之后，她告诉了我很多让人震惊的细节。比如，韩国工作人员介绍，“仅都教授的书房，便造价高达六百万人民币。里面的每一本书都是真的。”如果换在中国，最可能用造价低廉的假书作为拍摄背景。但韩国工作人员认为，那样便失去了画面的质感。如果说，都敏俊教授的书房就是他的内心，只有千颂尹一个人可以走进他的书房，走近他的内心。那么这一间书房，也是韩国电视剧制作的内心，可以窥探到韩国电视剧制作的精良用心。反观中国，我们在细节方面的粗糙缺失，则直接反映了相关从业人员内心的浮躁。

值得欣喜的是，我作为中国青年编剧的一员，我从来不曾对我从事的行业失望。电视剧的商业属性，注定了它将和任意的产业市场一样，随着本国经济与政治的发展同生共死、同衰共荣。随着中国国力的增强，人均GDP的提升，政府对文化产业关注与投入的增大，与之相关联的电视剧制作公司、投资公司、制编导演素质的提高、电视台制播产业结构升级，以及观众的观影素质、社会生活水平、心理接受程度的提高，都让我对未来充满了信心和期待。如果问我，生活在中国，最让我幸福的是什么，就是每一天都对变化的未来，充满着期待和奋斗的动力。如果问我，作为编剧，最让我幸福的是什么，就是能有机会让千百万的观众、甚至世界的观众都爱看我写的电视剧。

我由衷地希望，有越来越多的中国电视剧，走出国门，走上世界的舞台。也希望中国观众，能看到更多来自世界范围的电视剧，扩宽大家的视角，感受不一样的生活。

感谢为我的发表文，无私提供帮助与资料的卢敏教授、陈斯远博士、编剧李莉女士。再次感谢在座的诸位，谢谢大家。

电视剧《生存密码》故事大纲

一艘载着十一人旅行团的渔船，在海上发生事故遇险。团员们幸运地漂流到荒岛上。在这座无人岛上，丛林密布、环境险恶，这群毫无野外求生经验的城市人，对此毫无招架之力。为了活下去，导游秦朗天只好带着团员们，开始了一条不同寻常的孤岛求生路。

秦朗天与甜美、干练的女孩文文性格迥异，二人在岛上是一对不断冲突的欢喜冤家。在岛上，不论状况何等危难，文文都不忘给予别人阳光般的微笑与温暖关心，唯独对秦朗天冷若冰霜。其实，二人早已互相吸引，只是谁也不愿意承认这个事实。

何林是一个标准技术宅，上岛前沉迷于游戏，上岛后却对文文一见钟情。他的目光追随着文文，无时无刻不在关心、保护她。对于何林的追求，文文不为所动，只把何林当成好友。文文的心，一直都在秦朗天那里。只是文文一直不明白，为何眼前的秦朗天，性格复杂得让她看不透。

为了生存，秦朗天带领着大家离开海岸，进入食物、淡水丰富的丛林。大家面临着在都市无法想象的磨难考验。在秦朗天激发下，大家学着利用各自的职业特点、经历，尽力求生。他们穿越遮天蔽日的蚊群，只为取得一点淡水，挽救已脱水的人；他们勇战毒蛇，生啖蛇肉，只为补充能量，赢得等待救援的时间；他们在突然崩塌的山体中奇迹逃生，可秦朗天却为了保护八岁男孩王晓野，自己被埋在泥灰中。这意外，让文文意识到，她已情陷秦朗天无法自拔。面对悲痛欲绝的文文，何林忍不住表达了爱意。可文文无法接受何林，坚持呼喊，终于用声音将秦朗天的求生意志唤醒，使他活着爬出了废墟。但秦朗天仍然排斥着文文的关爱，这让文文一次次失望。秦朗天独自忍受着内心爱情之火燃烧的痛苦，对文文想爱而不敢爱。而这一切，都被敏感的何林觉察到，他猜测在秦朗天的身上，隐藏着不为人知的秘密。

何林为追求文文使出浑身解数：以萤火虫做灯取亮，以树藤制作秋千，只为博她一笑。原本孤僻的何林，因文文渐渐开朗，终于融入集体，在野外求生中技能渐显。摆在文文面前的，一边是冷眼毒语的秦朗天，一边是深情温柔的何林，她也迷惑了，究竟谁才值得付出。秦朗天没想到半路会杀出何林这个情敌，可荒岛上，求生乃第一要务。所有人生存的希望都寄托在秦朗天身上，他根本无暇去挽回深爱的文文。秦朗天的选择，让她彻底伤透心。

秦朗天以超群的能力，带大家经历种种磨难，赢得了大家的信任，拥他为领队。就在此时，大家突然发现，秦朗天的真实身份并非导游，船难也不是意外。到底什么是真相？原来，秦朗天本是期货操盘手。十年前父亲蹊跷地意外之死让他难以释怀。他为了找出真相，还父亲公道，委托好友易术帮他调查。这旅行团里的人，都与当年的意外有关。但秦朗天在与他们相处中渐渐发现，真相与易术的调查结果大相径庭。团员们身上的真、善、美，一次次感动着秦朗天。他意识到，是易术从中捣鬼。事实上，易术为吞并秦朗天名下产业，借助调查，设计蒙骗了他。秦朗天依易术设计，装扮成导游，带着大家沦陷荒岛，正中易术下怀。易术要让秦朗天永远没有回到现实社会的机会。

秦朗天难以承受好友的背叛而精神崩溃。其他人也因秦朗天的真实身份而无法再信任他。人们生存信心的崩塌，引发了相互猜疑，队伍分崩离弃。最终，是文文的爱与坚持，重新唤醒了秦朗天。秦朗天终于再次鼓足勇气，用自己的方式，用曾经学习过的技能，带领大家团结一心，化解危难。当易术前来与秦朗天一决雌雄时，大家早已结为生死与共的整体，正义战胜了邪恶。而易术，也在懊恼的自责中，结束了一切。

何林没有得到文文，但终于走出性格阴霾，成长为阳光男孩。秦朗天和文文，历尽艰辛后结为生死伴侣。当所有人站在救援船甲板上时终于明白，让他们得以生存，找回迷失自我的密码，其实很简单，正是他们相互间的信任与爱。

项目 3. 越南 制片人

《越南的电视剧发展趋势和受欢迎因素》

Anhvu NGUYEN

越南电视台

目次

1. 简介
2. 电视剧发展趋势和受欢迎的因素
3. 越南电视的解决方案及适应性改变方案

VTV 介绍

- 国家电视台
- 规模最大的电视台
- 规模最大的电视公司

电视剧时段介绍

频道	时段	星期	制作
VTV1	13点	每日	海外
	20点30分	星期一星期五	越南
	21点	星期日	海外
VTV2	11点	每日	海外
	19点	每日	海外
	20点	每日	海外
VTV3	12点	星期一星期五	海外
	18点	星期一星期五	海外
	21	星期一星期五	越南
	22点30分	星期一星期五	海外
VTV6	19点	每日	海外

广告时间简介

- 最大的两个市场: 河内(北部)和胡志明市(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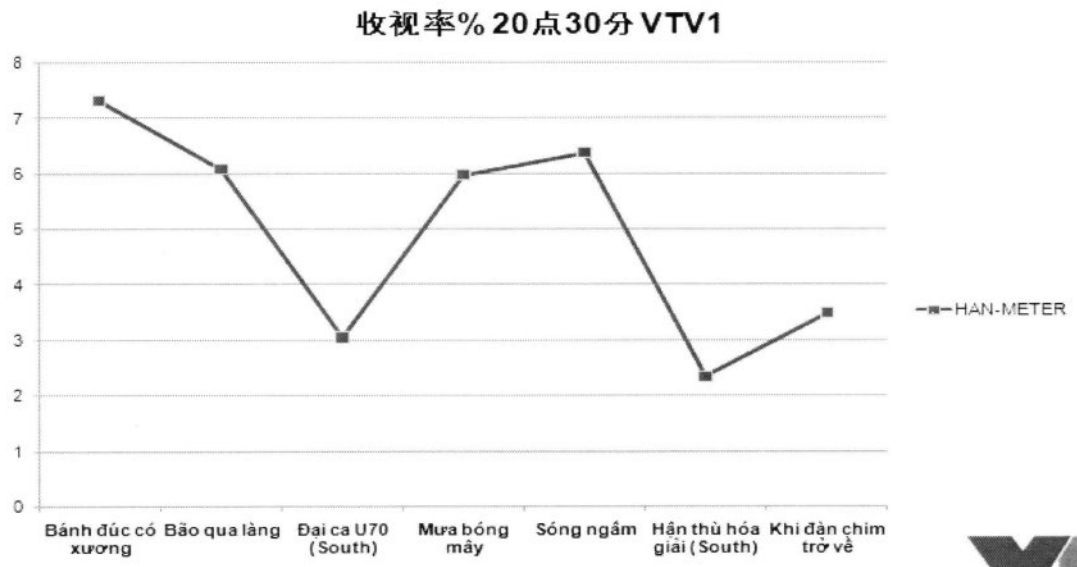
电视剧的发展趋势和受欢迎因素

北部和南部的差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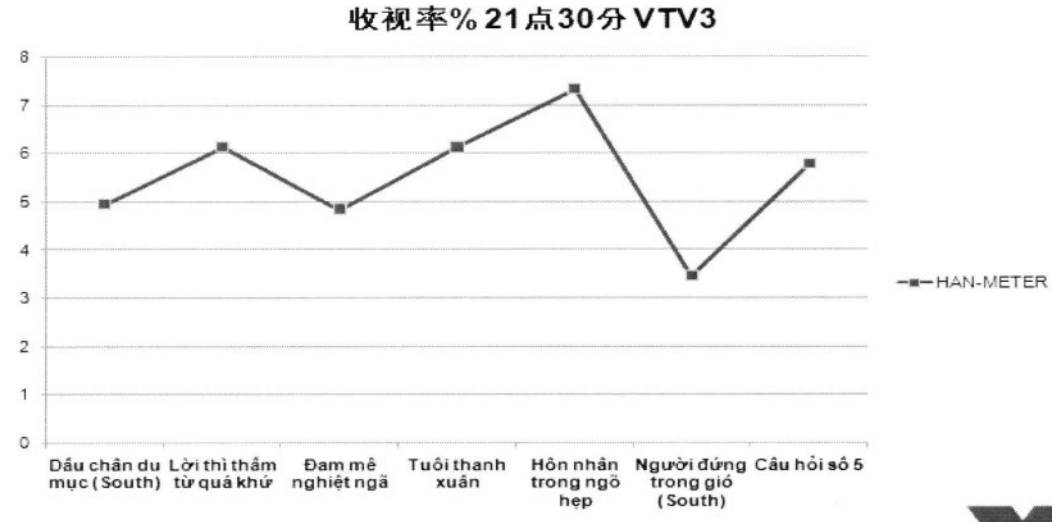
北部
≠
南部



电视剧的发展趋势和受欢迎因素



电视剧的发展趋势和受欢迎因素



电电视剧的发展趋势和受欢迎因素

- 特别受欢迎的内容:
  - 北部: 平凡的家庭生活, 警察, 老村庄.....
  - 南部: 更喜欢消遣娱乐性的
  - 新的赞助方式: 植入广告 (PPL)

→VTV占据着越南电视剧市场第一位的位置。

→越南电视剧在黄金时段播出。

电视剧的发展趋势和受欢迎因素

- 电视剧制作中引进高科技的国家：美国, 韩国。
- 音乐已经提升到一个全新的水平: 很多 OST 成为热门曲目。

电视剧的发展趋势和受欢迎因素
海外电视剧

- 竞争极其激烈的环境
- 韩国和中国因高授权费依然强劲。
- 印度、泰国戏剧正呈上升趋势。
- 韩国电视短剧很难赢得广告赞助商。
- 历史剧在北方不受欢迎，但在南方还很受欢迎，尤其是中国电视剧。

越南电视的解决方案及适应性改变方案

- 国外购买节目版权，以增强剧本资源。
- 与国外合作伙伴共同制作。


VTV
CJ E&M
Tuổi thanh Xuân
Forever Young


Song to the sun
タイヨウのうた
VTV
TBS

越南电视的解决方案及适应性改变方案

- 增加收益: 调整策略, 使电视剧中植入广告成为可能。
- 在线营销和线下营销相结合, 建立VTV电视剧收视群。
- 通过电视剧实现增加附加值和观众利益的整合。
- 技术投资: 视频信号质量 (4K), 色彩, 音乐.....

越南电视台

谢谢大家!

项目 4. 日本 编剧

关于《相棒》

舆水泰弘

《相棒》是从制作两小时短片电视剧开始的。首播是在2000年。共制作过3部短篇电视剧。（现在称为季前试播preseason）。当时2小时的悬疑剧主要是针对主妇阶层。因此内容也有避开沉重话题的倾向。并且当时业余侦探作品是主流。所谓业余侦探作品是指不是由警察而是由主人公来解决案件的故事。在那种情况下，《相棒》作为逆流作品而诞生。主人公是警视厅警察，内容也有些沉重。对于为什么那样设定，是因为我本身对2小时悬疑电视剧感到不满，这是其原因之一。很久以前(我小时候)，2小时悬疑剧是男人看的片子。内容也很沉重，有时是煽情的，有时是诡谲的，所以其主要针对的收视者肯定是男性。不知从何时起，随着收视者成了女性，而且是主妇阶层，内容也变得轻快了。所以我当时并不看2小时悬疑电视剧。

第二个原因是我当时是首次写悬疑电视剧剧本。由于那之前一直在写喜剧电视剧，所以悬疑剧对我来说完全是个门外汉。再加上由于几乎没有看过针对主妇的两小时悬疑剧，所以根本不可能参考（承袭）其他作品来写作。说真的，要是当时真的渴求2小时悬疑剧的话也不会选我这个门外汉作为制作人。反而是想要一个与现在不同的，制作人也想要的一种东西。所以我当时非常自由的想法得到了许可。

《相棒》就是那么完成的。虽然我当时并没有觉得很特别，但是在当时好像是非常另类的作品。本来男性搭档作品（所谓男性密友作品）都知道不会有好的收视率，再加上业余侦探作品是主流的时期，而硬是把主人公设为警视厅警察，内容也是描述警察组织内部矛盾等极具男性化的作品。实际上，曾在国内首映式上获得过“虽然很有意思，但是收视率应该不会很高”的评价。然而播映后出乎意料，竟然获得了超过17%的收视率。所以第二部作品的制作也得益于此。我兴奋得向制片人提出“这次我想让连环杀人犯上场”的建议。以主妇为主要目标观众，却出现连环杀人犯确实是一个很冒险的创意。而实际上，制作人说在广播电台内部会议上有也曾有极大的反对声。但是制片人一扫反对，获得了进行拍摄的签字。当然，像在好莱坞电影中出场的那种阴森的连环杀人犯，仍然是有些牵强，所以为照顾主妇阶层而让多少温和一些的杀人犯出现在了第二部中。这次仍然是出乎意料，获得了22%的高收视率。

事实上，在第二部播映当日，关东地区下了大雪。虽然甚至有是否是人们因大雪减少出门而使电视剧幸运的获得好收视率这样的想法，但是我认为运气也是一种实力（笑…）。

此后又制作了第三部，其也获得了超过17%的收视率，季前试播于2001年结束。2002年10月《相棒》作为连续剧开播。(只有第一季是在第一个季度播放,以后的都是在第二个季度播放)。虽然在季前试播时获得了好的收视率，但是被化作每集一小时的连续剧《相棒》后，当时并未获得那么好的收视率。另外第一季的平均收视率是13.1%。但不知是否是因每季过后，在社会上的知名度也随之增高的原因，最终全季（13季）的平均收视率达到了17.4%。

我认为《相棒》从试播季开始至今15年的漫长岁月里获得许多人支持的原因是其多姿多彩的内容。通常每集完结的系列片电视剧中都存在一个制式。因此作为同一系列都带有同样的色彩。但事实上，在《相棒》中，那种制式算是非常自由的。连特别的规则之类的东西都没有。自第一季以后，则由包括我在内的35名编剧共同执笔，每位编剧都在写着发扬各自长处的作品。作品不仅内容真挚还带有喜剧性。得益于作品充满既有正式推理又有惊悚、悬疑和从社会成员那里感受到的人情味这种自由制式，才使多种体裁的精彩作品在《相棒》的名义下延续。

另外一项受欢迎的原因应该不外乎是搭档的替换。把杉下右京（水谷丰饰）放在固定的位置，他搭档的具体替换则是从最初的龟山薰（寺协康文饰/从试播季~7季的第9集）开始，到第二任的神户尊（及川光博饰/7季末回~10季）及到第三的任凯彻（成宫宽贵饰/11季~13季）；从今年10月开始的14季开始，他的第四任搭档可否的涉（反町隆史饰）将会出场。

替换主要角色虽然伴随着很大的风险，但是为了给作品注入新的气息还是果断的决定了。更换角色的结果是杉下右京与各位搭档发生化学反应，开辟了新的境界。

《相棒》在15年间，不仅只是电视剧领域，另外还把搭档公开扩散到了3部电影（《相棒-剧场版-绝体绝命！42.195km东京大城市马拉松》，《相棒-剧场版II - 占领警视厅！特命界最长之夜》，《相棒-剧场版III-大型密室！特命界远海的孤岛 》）和2部续集电影（《相棒系列鉴识米泽守事件簿》，《相棒系列X DAY》）中。

○ 关于上映作品

今年2月上映的13季《相川教授的最后一课》。是身为3大搭档凯彻的最终季第15、16集前后篇。以下故事梗概引自《相棒》主页。

右京（水谷丰饰）被凯彻（成宫宽贵）唆使去参加大学恩师的古稀宴参加宴会的人除了恩师相川（清水齐饰）以外，还聚集了律师、大学教授、财务省干部等特别优秀的弟子。其中老师最后一个学生矢代都（仲间由纪惠饰）也出现在了宴会上。大家都正在一边津津有味的品尝由伺候相川的保姆所提供的美味，一边聊天时，相川突然提出了一个意想不到的问题。“为什么杀人是不可以的呢？”说完这句话的下一个瞬间，与会者都因陷入了沉睡而失去了意识。当他们恢复意识时，却发现他们被关到了与外面隔绝的地下室中，在地下室的一角有被要求解答命题的留言条。过了一会儿，地下室的门虽然被打开了，但是手持猎枪的相川教授却出现在了他们面前。相川教授为什么监禁弟子们并向他们提问杀人的问题呢？ 被监禁的弟子们怎样对付这个危机呢？在密闭的空间中展开了拼命的头脑大战。

以被称为悬疑之基本的秘密社团为中心舞台，把充满紧张的剧情展开作为目标。若要说本集的特点，应该是杉下右京和凯彻的搭档关系被设置到里面和外面，一直到故事展开的中间阶段，他们都是各自行动，取而代之的是右京把同为俘虏的矢代都作为临时搭档，通过他们俩人的搭档关系来克服困难的这种展开方式。

矢代都（仲间由纪惠饰）是本机第一季特辑（两小时）中出场的新角色。她被设定为警察厅的公务员，是经过在内阁信息调查室工作后被派遣为警视厅宣传科长。由于她将作为半终身角色在以后剧集中继续出场，所以在本集中有意图地把她植入到观众的印象中去。

我认为那个计划成功了。并且《相棒》13季获得了今年第41界广播文化基金奖电视剧部分最佳奖项。其宣传的对象作品是《相川教授的最后一课》（前后篇）。

项目 5. 韩国 制片人

《关于韩国电视剧发展趋势的核心——“复合题材”》

尹高云

最近有三部在韩国大众文化界成为热门话题的作品，那就是电影《暗杀》和《老手》，还有电视剧《龙八夷》。同一时期曾共同完成“狂卷千万电影”，使整个影院街狂热起来的两部电影和近来韩国迷你系列电视剧市场上，突破了被称为“梦幻收视率”、“魔鬼之墙”的20%收视率的电视剧《龙八夷》，这三部作品所拥有的共同关键词正是“复合题材”这一题材上的特征。混合了“历史题材+动作+剧情”的《暗杀》，融合了“社会题材+动作+喜剧”的《老手》，还有集合了“医疗+恐怖+言情+公司题材”的《龙八夷》，都是因“复合题材”引起观众强烈反响,进而获得相当令人满意的成绩。

但是要说明“韩国电视剧发展趋势的核心”----“复合题材”，比起上面提到的“特殊”案例，更有价值的资料可以从受欢迎电视剧的题材分类分布图中体现。今年播出过的迷你系列电视剧中，收视率前20名的作品一览表如下：（※因为主题关键词是“发展趋势”（当下流行），所以未将传统的家庭剧为主的50集以上的连续剧包括在调查范围之内。Nielsen 全国范围的统计。）

排名	作品名	电视台	核心剧情
1	《龙八夷》	SBS	“不论场所,不论患者”只要给巨款,就连黑社会也不嫌弃的最有实力的冒牌外科医生“龙八夷”，与睡在医院的财阀继承女“熟睡的森林魔女”相遇而展开的故事。
2	《警察夫人》	SBS	作为警察是满分，作为妈妈是零分；通过拥有一颗正义而火热之心的警察夫人的行动，刻画了大韩民国职场妈妈的伟大和悲欢。
3	《信》	SBS	讲述的是走过这个再也无法重返的世界，与人生诀别的男人----最高检察院反腐部调查指挥科科长朴正焕的人生最后6个月记录。
4	《要么发光， 要么疯狂》	MBC	讲述的是高丽时代受到诅咒的皇子和被抛弃的公主在宫阙内展开的罗曼蒂克故事。
5	《不善良的女人们》	KBS	讲述3代不善的女人们艰难支撑摇摆不定的人生过程中，经历的爱情、成功、幸福的故事。
6	《假面》	SBS	讲述的是身陷物质万能主义的世界里，为了物质而背叛家人，选择没有爱情的婚姻的男女,开始看到假面背后彼此真实的面目,最终才领悟悟，最可宝贵的是爱和家人的故事。
7	《听到传闻》	SBS	通过尖刻的讽刺，揭露梦想着享受帝王般的权利，并世袭财富和血统的大韩民国超级上流社会的、俗不可耐的意识的黑色幽默电视剧。
8	《杀了我，治愈我》	MBC	讲述的是具有7个人格的多重人格富三代和成为他的秘密主治医师的第一年实习医生相爱，彼此将对方从曾经悲凉的伤痛中拯救出来，寻找治愈和幸福之路的故事。
9	《看见味道的少女》	SBS	讲述的是三年前因条形码杀人事件失去妹妹的无感觉男孩，与遭遇同样的事故但奇迹般生还却丧失了以前所有记忆的、有超感觉女孩的故事。
10	《治疗师》	KBS	讲述把政治和社会正义之类只看成倒霉词汇的青春男女,与父辈留下的这个世界所展开的大快人心但很放肆无礼的故事，是动作、言情剧。

11	《上流社会》	SBS	通过自出生就衣食无忧的富家女和一直渴望攀高枝的盖天龙两个不平等阶层间的罗曼史，揭示真爱的意义所在，并向“五抛族”青春男女传递希望的青春言情剧。
12	《愤怒的妈妈》	MBC	曾经是学校小混混的年轻妈妈重返高中校园,与韩国教育的诸多问题正面交锋,冲破教育桎梏的痛快淋漓的活剧。
13	《王的面孔》	KBS	庶子出身成为世子的光海，16年间饱受废位和被杀威胁，以“观相”为武器，战胜命运直至登上王位的过程。
14	《心情好又暖》	MBC	受抑郁成疾的蚂蚁和似织螽之爱的启发而展开的浪漫喜剧。在美丽的济州岛筹建“心情好又暖”西餐厅的青春男女的爱情故事。
15	《海德、吉柯尔和我》	SBS	一个女孩身陷一个男人的两个人格之中的三角恋浪漫喜剧。
16	《夜行书生》	TVN	女扮男装、以抄书为生的赵阳善和住在阴城谷的书生金城烈相遇，后又发现他是吸血鬼而展开的奇幻言情历史剧。
17	《哦，我的鬼神大人》	TVN	淫荡女鬼附身的、小心谨慎的厨房助理罗奉仙和孤芳自赏自鸣得意的明星厨师姜善宇展开的，阴险、别有用心、放肆无礼的浪漫剧。
18	《你是谁，学校2015？》	KBS	KBS代表性品牌节目“学校”系列2015版。以瞬间改变了命运的18岁女高中为生主人公，讲述学生们所经历的率直而丰富感性的青春校园剧。
19	《蒙面检察官》	KBS	以检察官的身份也解决不了的事，戴着面具用拳头解决的一个男人的故事。
20	《血液》	KBS	讲述吸血鬼医生的活跃相及其爱情的医学电视剧。

上面涂色部分作品就是所说的“复合题材电视剧”，可以看到这些电视剧基本上都具有复合三种以上题材的特征，而且在收视率排名前20位中，有11部属于这个范畴。这些电视剧都以言情和惊悚这一共同分母为基础，根据由各自不同的的主题和设想来设定不同的题材类型，即法庭、调查、推理、医疗、历史剧、动作、奇幻、恐怖、搞笑等具体细化的题材。

其中，Pan Entertainment今年年初制作并播出的《杀了我，治愈我》正是复合性特征突出的作品之一，曾推生出一大批粉丝，成为热门话题。

《杀了我，治愈我》是通过具有多重人格的男主人公（智星饰）和他的秘密主治医，女主公（黄静茵饰）为中心展开的电视剧，是通过这两个人物的关联性和治疗过程，使言情和医疗这两个题材得到了处理。剧中在最大限度地确保多重人格这一素材的现实性的同时，为了突破其在剧中会显得陌生这一局限性，在人格交替和合璧上附以奇幻要素，使观众易于理解。此外，在追踪两个人物过去的过程中反复逆转的故事，呈现了惊悚这一题材的妙趣。

特别值得一提的是，《杀了我，治愈我》正是通过男主人公七个人格角色形象的演绎，摆下了一场“复合题材之盛宴”。通过主人格“道贤”----爱情；派生人格“世纪”——动作和惊悚；通过以“无可替代(空前绝后)的妖物角色”获得超高人气的“姚娜”和“斐利伯”——搞笑；“耀燮”和“娜娜”则作为传递人道主义和“心灵鸡汤”故事的角色形象，占据剧中一部分戏份;通过最后登场的“X先生”,则以奇幻性因素使电视剧变得温暖并以此收尾。

从2014年播出的《来自星星的你》和《你们被包围了》、《异乡医生》等曾引发超高人气的作品，到最近新作《龙八夷》，近两年间其作品数剧增，已经充分印证了复合题材类型的发展势头。那么，复合题材类型电视剧之所以如此受欢迎的原因是什么呢？不妨将其从大的方面分为内因和外因两部分。

首先，应该是满足了观众对题材多样性的需求。事实上，过去韩国电视剧市场中，除了几个特别关注的类型之外，追求多种题材本身的挑战一直遭受冷遇。其实前面提到的《杀了我，治愈我》就是一个先例。虽然当初在2008年的时候就已经以《谁都不知道》的剧名企划出来了，但因影视界整体氛围上，这种素材不易出结果的理由而早早地被搁置。不仅如此，就是

7、8年前为止，韩国电视剧中题材类型特征鲜明的作品在“狂热电视剧”美名之下遭到大众的冷淡，且在企划阶段就流产的情况还比比皆是。可如今以美剧为代表的海外电视剧的流入和继之而来的有线电视市场齐头并进，使得韩国的电视观众自然地从题材电视剧的偏见中逃脱出来，开始熟悉更加多样的题材。于是电视剧创作者们积聚内心多时的多样题材表现诉求开始迸发，进而在韩国电视剧固有的情结中,让多样的题材性要素巧妙地结合,并引发化学反应，使得“韩国复合题材电视剧”开始建立其框架。对这样的变化，观众反响强烈。正因如此，说韩国电视剧正处在逐渐得到完善的“复合题材剧”阶段，是否应该是目前看待韩国电视剧应有的视角呢？

其次，复合题材电视剧受欢迎之外因是收视方式的变化，更广义上，可以说是随着内容（视听产品）消费方式的变化而来的“时机和便于投入其中”。正所谓“死守频道”才是关键的模拟电视时代，频道也极为有限，没有任何东西可以替代电视作为媒体的强大功能，所以频道忠实度较高。当时观众收视普遍比较投入的电视剧正统制作方法，是本着“节奏缓慢、可以贯通前一集的核心线索是生命”这一条，这样的电视剧曾经是主流。

但如今，经过模拟电视时代，向HDTV、UHDTV时代发展，诸如网络、IPTV等多种多样的平台极速发展。随着手机这样的进化最快的设备猛烈攻击TV市场的时代的到来，大众比之“情感性的投入程度”，对“视觉性的投入”显示出更迅速的反应；比起阶段性地左右情感的故事，似乎更热衷于逸事为主的狂飙推进和高密度的角色形象表演，以及立体性的、复合性的题材类型。这样的现象将随着习惯于“回形针型”视听内容的数码一代的增加，变得更趋稳固。不囿于TV收视的视听内容消费模式越稳固，电视剧的写法和制作方式也越需要决定性的转折点。

目前固定化的收视率统计方式之下，迷你系列比起实际人气，收视率相对要低于连续剧的理由，也可以归因于这样的潮流。上表中收录的作品中，以话题性为基础，在收视模式上因为多种平台和设备与TV互换成为可能，所以取得了预期成果。这也正是韩国电视剧正在渐进性地紧跟时代潮流，适应机制变化的佐证。

对于复合题材的定义、标准，以及对复合题材剧的未来展望等方面，目前还会有多种不同视角上的差异和想法存在。而且，在一部作品里体现多个题材的过程中，除了侧重速度和技术性的一面之外，可能性、说服力上暴露出弱点，和单一题材电视剧相比，作品的艺术性、完整性不尽如人意的作品也一直存在。但是，目前韩国电视剧中复合题材还不是完成型，而是还处在过渡阶段或干脆是在新起点上。韩国的“复合题材电视剧”不是瞬间膨胀、上升或消失的一时性的流行，而是作为韩国电视剧新的发展趋势，紧跟时代脉搏，进而成为能够引领大众文化的发展、展示进化形态的“韩国电视剧之力量”，对于这些具有极大可能性的事实，恐怕不会有异议吧。

项目 6. 中国 制片人

《中国电视剧产业发展呼唤原创力》

施生田

中国电视剧的年生产量连续十余年在万集以上；已经成为全球生产和消费电视剧最多的国家。2014 年，中国生产完成并获准发行的电视剧共计 429 部 15983 集，其中，现实题材剧目 243 部 8335 集，分别占 56.64%和 52.52%；历史题材剧目 178 部 7383 集，分别占 41.49%和 46.19%；重大题材 8 部 265 集，分别占 1.86%和 1.66%。与过去十年比较，电视剧的制作量与播出量出现了理性回落，同时也预示着中国的电视剧产业进入了质量升级期。

中国是目前全球最大的电视剧播出市场。截止 2015 年 6 月的统计，中国县级广播电视播出机构共计 1998 家，地级以上广播电视播出机构共计 517 家；全国共计有 32 套电视频道进行高清标清同播。从 2008 年至 2013 年，国内取得《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证》的制作机构数量从 2874 家增长至 6175 家，复合年均增长率达到 16.52%。同时，中国已经建立起相对完善的电视剧投资模式，资金主要来自政府基金、自有资金、业外资金、电视台参与投资或预付款购买、金融贷款、上市融资等六类。其中，金融机构贷款、上市融资所占比重日益提高，热钱源源不断的涌入国内影视产业市场已经是不争的事实。

在近 50 年的电视剧发展历程中，我们培养了一批高素质、高水平且稳定的电视剧产业队伍，全国有近千所高校开设了与影视相关的专业课程，其中以北京电影学院、中央戏剧学院、中国传媒大学、上海戏剧学院等高校为核心，它们为中国电视剧产业的发展源源不断地输送高质量的制作人才与经营管理人才。同时，我们也形成了以电视剧产业社团为辅助的人才培养与行业交流平台，这些社团极大地凝聚了电视剧产业人才，促进了中国电视剧产业的大发展。中国电视剧制作产业协会就是其中最为活跃，最具凝聚力，规格最高的社团之一。

中国电视剧制作产业协会成立于 2013 年 5 月，是经中华人民共和国民政部批准成立的一级法人社团组织，是全中国电视剧制作机构自律、合作、交流、维权的行业团体；协会坚持为制作业服务的宗旨，注重反映会员的诉求，维护会员的合法权益，联手办产业，合力求发展，为创建良好的市场环境而努力。协会目前拥有会员近 400 家，均是我国电视剧制作业最具实力和影响力的骨干企业，其电视剧产量和黄金时段播放占有率均占全国总量的 90%。

从以上介绍的数据中应该可以对中国电视剧产业的发展有一个概况的了解。中国电视剧在自己产业的发展中也面临着许多问题，比如：中国拥有几乎是全球最多的电视剧制作机构，但是在这众多的电视剧制作机构中，真正能叫得响的却很少。如果按照年生产量折算，6175 家制作机构年平均生产电视剧只在 3 集左右，并未形成一定规模的市场占有率。但实际情况则是，制作能力较强的大公司每年最多可以发行 7-10 部左右的剧目，而众多的小公司两三年才能出 1 部。当然这其中的原因是复杂的，除了演员片酬过高哄抬电视剧成本等因素外，最需引起重视的应该是电视剧内容的原创乏力。好的剧本以及优质创作团队的缺乏已经困扰当前以及未来中国电视剧产业的发展。

我们非常希望与亚洲各国同仁的交流与合作，不仅仅停留在资金、技术等方面，还应该在电视剧人才的培养、内容产品的开发、编剧创作的深度交流等方面有所加强。经过 50 年的努力，中国电视剧的总体规模体量飞速提升，资金投融资渠道逐步拓宽，电视拍摄技术也已经实现 4K 拍摄。在不差钱也不差技术乃至不缺制作人员的情况下，中国电视剧在内容上表现出了原创力的匮乏，翻拍剧、跟风剧的兴起严重扰乱了电视剧市场的有序。

我国最高元首习近平总书记对于文艺的创作问题高度重视，他在 2014 年 10 月 15 日的文艺座谈会上的讲话中强调，文艺是时代前进的号角，最能代表一个时代的风貌，最能引领一个时代的风气。习近平总书记指出，近些年来文艺创作方面出现了数量缺质量、“高原”缺“高峰”的现象，还存在着抄袭模仿、千篇一律，机械化生产、快餐式消费等的问题。近平总书记要求文艺工作者不能在市场经济大潮中迷失方向，不能在为什么人的问题上发生偏差，否则文艺就没有了生命力。

当今的中国，看电视剧、聊电视剧已经成为普通民众生活中的重要内容，这跟中国传统文化中，国人喜欢听章回体小说的习惯是一脉相承的。正因为如此，制作什么样的电视剧就显得尤为重要。我们承认电视剧的文化属性与娱乐功能，但如果电视剧的创作不能突破抄袭与翻拍，那么电视剧的创作也就走进了没有原创的死胡同。比如，今年一直被热炒的 IP 热，原来一部几万或者几十万版权毫无文化含量的网络小说被炒到了几百万甚至上千万，这恰恰反映出了当前中国电视剧在原创作品方面存在严重问题。

呼唤影视剧的创作作品，既是对历史的坚持与再认识，也是对现实的理解与真实反映。原创作品需要植根生活，需要创作者对生活的深入认识和对认知的艺术表现。我们呼唤创作的原创力是基于对人类普世价值的追寻，也是基于对人类创造精神的尊重。

当前中国电视剧的创作出现两个极端现象，一方面不乏精品力作，我国电视剧类型丰富，古装、偶像、战争、家庭、农村等各种题材在市场中都有叫得响的作品，涌现了诸如《北平无战事》、《青年医生》、《反恐特战队》、《离婚律师》、《老农民》、《父母爱情》、《大

丈夫》等一批具有文化追求的原创作品；另一方面，还有相当多的制作机构在资本市场中甘当市场的奴隶，以媚俗讨巧的创作制造了众多“同质化”严重的垃圾剧。我们敢说，这些缺乏原创力的剧目早晚都会被市场淘汰，甚至被人类文明所不屑。

中国文化的整体发展，亟需“原创精神”，“原创力”为中国文化发展注入活力，电视剧作为中国当代文化艺术的一个重要载体，当然更不能例外。

从某种意义上讲，所有的电视剧原创都具有颠覆性，同时又必须是建构性的。在艺术的创作中，“原创”既意味着对已有视觉样式乃至观念的颠覆，同时还意味着对更宏阔人类思维基础上的艺术审美共性、共同规律的遵守和多维度拓展。而原创力的创建，不仅仅是技法上和故事情节上的原创，还应体现创作者的境界与情怀，激活每一个电视剧艺术工作者包括编剧、导演、演员和一切造型艺术工作者的创造精神。只有这样才能真正实现电视剧创作的原创力，而不是简单地以新、奇、特博人眼球。所谓的原创精神，还应体现在创作者在叙事方式、表现手法上的创新，这种创新足以震撼心灵、激活灵魂。

每一个电视剧从业人员需要充分认识到自己肩负的人类道德、审美乃至文化的启蒙责任，以卓越的艺术创作力表现生活，反映生活。在这方面，我们希望能与日、韩两国优秀的电视剧同仁进行充分的交流与学习，并达成相互间针对于内容产业开发的合作项目。中国电视剧制作产业协会愿意与各国同仁、各位艺术家并肩奋斗，愿意为大家提供更为平等、自由的平台。

人类文化的交流是永恒的话题，我们希望通过电视剧同仁之间的广泛交流，能够建立起行业长期有效的市场行为，为中国与韩国、日本同行之间的合作提供更多的机会和条件，共同建立长期有效的人才培养机制。中国电视剧的从业人员将会在不断地学习与交流中为亚洲电视剧产业贡献力量。

“同一个亚洲，同一个梦想”，祝愿亚洲电视剧产业协同发展的明天更加美好！

项目 7. 日本 制片人

《日本的早晨从早间电视剧开始
——55 年的历史和今天》

加賀田透

2015/11/6



① 为什么早间电视剧 = TV小说?

每周一~周六　每周播放 6集 早8:00 ~ 8:15　1集15分钟

半年期间　25周150集 or 26周156集　的连续剧

东京· 大阪　两地轮番制作

至今仍是可以代表NHK的杀手锏节目



《早晨来到》主演
波瑠

1961年开始，
现在播映中的
第93个作品《早晨来到》

1983～84播出的《阿信》



平均收视率

2 6 %

NHK

② 为什么早间电视剧 = TV小说？

基本内容是"女主人公的传记" → 女主人公会成为日本的"国民演员" → 女主人公的海选试镜是新人跳龙门

约2000人中脱颖而出的女主人公　也从现职演员中选定



剧中女主人的职业

主妇、教师、护士、歌手、女演员、厨师、主持人、新闻记者、编辑、医生、剧作家、美容师、小说家、旅馆主人、和果子匠人、酒店服务员、棋手、木匠、飞行员、电影导演、宇宙飞行员、相声演员、旅行设计师、园艺师、服装设计师、海女、翻译家……

坚守家庭的女主人公，投身男性社会中的女主人公

NHK

③ 为什么早间电视剧 = TV小说？

成为故事背景的乡下成为关心的焦点



表现了150年的时代变迁.



《早晨来到》
1857年～

江戸
明治
大正
昭和
平成



《希》
～2015年

NHK

晨间电视剧· 最新成功作品









《小海女》的魅力（时代背景 2008年～2012年）

1：在妈妈的故乡岩手町成为海女的女主人公



2：在东京成为偶像歌手





3：给观众带来眼泪和欢笑的三代人的故事

4：代表"真的"之义的土话 'jie jie jie' 大流行

《多谢款待》的魅力（时代背景1911年～1947年）

1：东京出生嫁到大阪的女主人公





3：主题是“用餐即生活”

2：关于夫妻相爱的故事





4：出现了多种后来成为热门话题的菜品

《花子与安妮》的魅力（时代背景1900年～1952年）

1：女主人公是翻译《绿山墙的安妮》的翻译家





3：无法实现的爱情

2：从农村山梨市来到东京女校





4：女人们的友情故事

《阿政》的魅力（时代背景1920年～1971年）

1：倾力酿造威士忌的夫妇的故事



2：晨间剧中首位外国女演员





3：背景设在大阪、广岛、北海道



4：引起威士忌酒热销

NHK

今后的"晨间剧"走向

时代剧· · · 《多谢款待》，《花子与安妮》，《阿政》

对女性有过很多制约的时代

地震等灾害、战争……易于做出女主人公必须攻克的壁垒和戏剧性的设定



《早晨来到》挑战了时代剧史上
最久远的江户时代.



NHK

今后的"晨间剧"走向

现代剧……《小海女》

职业也好，地域也好，该出来的都出来过?

所以，能够吸观众的、有冲击性的故事情节展开就变得尤为必要了.

《小海女》，女主人公的母亲曾经的秘密
被揭开面纱的过程紧紧抓住了观众





NHK

旨在面向亚洲的长篇电视剧《美女与男子》



《美女与男子》
2015年 4 ~ 8 月　每周（二）晚10点~

连续20集的超乎常规的长篇系列。
为了占据演艺界的顶峰孤军奋战的
年轻经纪人和新人女演员的故事。

既是年长"美女"和"年少"男子"的浪漫滑稽戏，
又是关于成功的励志故事。

此外，作为可以窥视演艺界背后故事的人情剧，
也备受欢迎。



主人公是因《极道鲜师》
在亚洲也很有人气的
仲间由纪惠



主题曲是由亚洲女神
浜崎步担纲

NHK

Reference in English

Session 1. Korea (Writer)

On <Misaeng>

Yoonjung JUNG

Good morning (afternoon,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 am Jung Yoon Jun, the screen-writer for the Korean drama, Misaeng. It's a great honor and privilege for me to talk about my workin front of famous writers and producers fromaround Asia.

Misaeng is a 20-episode mini-series drama that was aired from Oct. 17 to Dec. 20 in 2014 on the Korean cable network, tvN.

It is based on a web-toonof the same title. When it was aired, people showedgreat support for the message it delivered, which resulted in high viewer ratings and popularity. Misaeng is a term used in the game of Go, which means a large number of stone is not yet alive (this is a specific reference to game terminology). It reflects the situation of the main protagonist, Jang Geurae, a struggling contract worker. It is also an important term that allowsviewers, who also spend every day in this world,to easily relate to Jang Geurae.

The drama shows how the protagonist, who played the game of Go since he wasvery young butfailed to join a professional Go league, enters One International, a general trading company, as an intern, adapts, and grows as a person and member of society.Over the course of 20 episodes, the drama tells stories about the people Jang Geurae meets and theseries of events that he goes through with them.

I wrote a significant line for the first sequence where Jang Geurae and One International encounter each other. Without any preparation for survival, Jang Geurae immediately faces his immediate superior in the jungle called One International.

The first encounter with Kim Daemyeong, Jang Geurae's superior, a man in his thirties, symbolizes the perspective of One International and the world.

Knowing that Jang Geurae doesn't have a college degree, let alone a high-school diploma, Daemyeong asks Jang Geurae in a sarcastic manner.

'So you only have a GED?' 'Any work experience?' 'Do you havelanguage proficiency or any othercertifications?'

When Jang Geurae answers that he has a certification as aComputer Specialist in Spreadsheet & Database Level-II, not even Level-I,Kim Daemyeongexpresses his amazement.

'Good gracious, what a rare young man.'

The word 'rare' in Korean, like in English,is often used to compliment or give positive evaluations to a person in scarcity. For example, one would say 'The boy ispolite, good-hearted, and kind. He's a rare one.'

I, however, wanted to use the wordwithirony in a bid to show how hard it is to find an incompetent person in today's society. The competency in this context refers to the standardsdemanded by current Korean society, which I personally don't agree with.

The abilities that Korean society asksour young people to have are horrendous. By the way, we call those abilities 'specs' as in specifications in Korea. Because everyone runs to reach the standard, it keeps getting raised.Then, young people run day and night to exceed the higher standard once again, which leads to more difficult standards. The race begins as soon as one comes out of theirmother's womb.

In my opinion, I think this is a nightmare. I am so relieved that I wasn't born in this era, andthat I don't have to compete with these young people.

I wanted to point outhow our young people are forced into this competition and why they are desperate to build more abilities. I wanted to point out the values that they are missing in the process and how our society is accepting the loss as a matter of course.

'Good gracious, what a rare young man.'

Maybe this sentence is too short to deliver mygrand intentions, but I wanted to try it anyway. If some get it, they get it. If they don't, they don't.

'Spec' is a word used as a description of a machine or electronic good. As a writer, I wanted to comment on the terrible world that uses such a word as an evaluation indexto verifyone's ability.

And, that's how the drama Misaeng begins. Way below the standard set by the times and society, the protagonist displays the true meaning of the ability to overcome difficulties and grow. Then, this is when the fantasy begins.

While Misaengwas on air, people and the media called it a drama that showed reality, a hyper-realistic drama, or a documentary-like drama. Well, I had a different opinion.

From the beginning, I wrote the script and treated it as a fantasy because it is fantasy for a protagonist without any work experience, certifications, or language proficiency to enter a general trading company and survive.

On the rough road to overcoming his difficulties, Jang Geurae meets facilitators who are hard to find in real life. They are the decisive evidence that proveMisaeng is a fantasy.

And, I believe this is what touched many people's hearts.

When a protagonist who won his way into the world of fantasy has to go through a journey filled with difficulties, people agreed and showed their support for him.

I don't know if that many viewers would have laughed and cried with the protagonist like they did, if I wrote the drama without fantasy and depicted the reality as is.

We, whotalk about making dramas all day long, often talkabout that kind of drama, saying, "Why do you watch dramas, then? Watch documentaries instead."

From pre-production to broadcasting

It took one full year from pre-production to broadcasting Misaeng.

Even though the original web-toonwas excellent, the character and framework of the story wasn't enough to make 20 sixty-minute episodes due to the barrier between genres.

For the script, I had to not onlyrewrite the overall story, but also each episode to ensur e it had the four steps of composition: introduction, development, turn, and conclusion.

With detailed research and the help of employees who work at trading companies, I was able to build realisticcharacteristics of a trading company employee.

The next question was how I was going to set the tone of the drama.

Do I stop at depicting the dry and cold reality as is? Or do I includesympathy and courage to continue on 'nonetheless'. I chose the latter.

In this sense, the director Kim Wonseok and I had good chemistry. Director Kim wanted to portray the dry and cold society as is, while I wanted to leave hope and sympathy for continuing on nonetheless. We shared our opinions and argued constantly until we found theright place to settle down.

Duringthe production of the drama, the director and I didn't shove hope in front of one's face or try to give contrived messages of hope. However, we also didn't bluntly say to accept the cold cement-like reality.

When Jang Geuraefinds himself in the situation of not being able to be a full-time employee in the end, I made his boss and mentor, Sangsik, sneer and say,

'What is the use of hope without measures and consolation, without responsibility,in this kind of world?'

It's true. An unreachable hope coupled with a clumsy consolation can make despair and pain go away for a moment, but it won't be a fundamental solution.

Then, his co-worker and soulmate Deputy Manager Seon replies.

'It's scarier that the world has become a place where one can't even tell us that there ishope,even if its meaningless hope. There are people who are still desperate for those words.' It's also true.If we leave the world as is, saying that it is how it is, it will become more and more like this while someone may be savable withjust afew hopeful words from others. This conversation holds the tone and manner that penetrates all 20 episodes of the drama.

In the last episode, Sangsik, who made irrational moves to turn Jang Geurae into a full-time employee,leaves the company that he had worked at for 20 years or so. Jang Geurae, who couldn't be a full-time employee, also leaves the company. Sangsikstarts his own firm,joined by former members of Sales Team 3. In the end, Jang Geuraealso joins the firm.

Then...

The director and I put a loud hope in a different tone within the epilogue as a last move. It is literally a fantasy that one dreams of. Since we started off as a fantasy, we ended it as a fantasy.

Some viewers were not happy about the fantasy ending. But I wanted to say that even in aworld where Pandora's Box is opened, we still have have one thing left.

I haven't looked into Pandora's Box myself, but I wanted to believe hope was still therebecause the mythsays it's true.

As Deputy Manager Seon said,

If a writer doesn't speak about hope, what should he talk about?

Drama of communication and shared sentiment

The protagonist of Misaeng, Jang Geurae, is a person who has already experienced failure on the path of the game of Go. When he can no longer play the game of Go, which he had devoted himself to while others were busy building up 'specs' in college, Jang Geurae is lost. In the company that he enters with the help of a sponsor, he is branded as someone who won't survive as heonly has ahigh-school diploma and special connections.

However, Jang Geurae quietly, yet desperately continues on day by day, building up his weaknesses. He meets other colleagues who also live everyday lives of desperation, though they got off to a better start, and a boss who calls him 'my boy', and continues to change and grow. The eyes of the company men, filled with neglect, contempt, and curiosity,turn to surprise and acknowledgement and that process gives viewers a small catharsis.

Jang Geurae's growth is the main story of the drama, buthe is not the only one who is growing. The head of Sales Team 3 and a substantial mentor, Deputy Manager Oh Sangsik, a reliable superior,Assistant Manager KimgDongsik, three colleagues of Jang Geurae, the only female An Yeongi, level-headed elite Jang Baekgi, and passionate talker Han Seokryul, and other members of One International sometimes oppose one another and sometimes lead one another to change. In the giant saw-toothed wheel called a corporation, they are also the ones who have 'not yet lived' and therefore I spent much time emphasizing their growth as well.

Misaeng focuses especially on the relationships formed within a company. Joy, anger, sorrow, happiness, and growing pains from the process of 'change' and 'development' become consolations in the desperate and true cordial relationships held between coworkers, and are a driving force to continue forward.

According to what I've heard, Misaeng was a drama in which viewers laughed and cried while reflecting themselves onto the characters. Tired from employment instability and unlimited competition within a company, people saw themselves in the past, present, or future in the characters of the drama and became the protagonist,sharing the same sentiments.

They can be their little brothers or sisters who are busy building up 'specs' to find a job, or themselves struggling to survive in a workplace, or their friends worrying whether to choose work or childcare, or their fathers who want to respond to questions about his drinking by asking why they think he is doing it.

Through Misaeng, I re-confirmed that a drama is all about communicating and empathizingwith the viewers. It was easier for people to relate to Misaeng as its background was set in a company. However, I realized once again that building a character that viewers can communicate and relate to is as important as the basic frame of a drama.

Unfortunately, we, the makers of TV dramas in Korea, often experience mental breakdowns where we are out of our minds and become indecisive.

People around me often tell me that they don't know what kind of drama they should make anymore. Well, I feel the same.

The trend is changing so fast that it's almost impossible to catch up.

It's ever-changing. Some joke that the trend of TV drama is to have no trend.

I don't know what trends there are in TV drama. I think the answer is to write a drama that handles human emotions because I believe that is the essence of drama.

It can be in the form of fantasy or reality; it can be big to arouse a social discourse or small to focus on an individual. In the end, it is all about dealing with human emotions. Therefore, I try not to write a drama filled with incomprehensible characters, probabilities, and episodesas a result ofa character driven by an event and not the other way around.

I ruminated on such fundamentals while working on Misaeng for a year.

I have never talked about my thoughts onMisaeng while I was working on it and even after it was finished. I think today is the first and the last time that I, as a writer, will talk about Misaeng.

While preparing for today's speech, I was able to ruminate over the thoughts and intentions that I had when I was writing the script.Thinking again about the meaning of a certain scene brought back memories to resonate in my heart.

In that sense, it's truly meaningful for me to be here. I look forward to meetingdifferent writers and learning a lot during the conference.

I appreciate your time while listening to my speech. Thank you.

TV Drama <Misaeng> Synopsis

After failing to realize his life-long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Go player, Ja ng Geuraejoins Sales Team 3 at One International as an intern with the help of an a cquaintance. When other interns find out that Geuraeonly has a general equivalency diploma (GED) and won the internshipusing a special connection, they keep their dist ance from him. Deputy Manager Oh of Sales Team 3 isn'tparticularly fond of him, eit her. But Geurae's hardworking and sincere efforts moved Deputy Manager Oh to ope n up his mind. After passing the presentation test, Geuraesigns a two-year contract t o work at Sales Team 3. Other interns, Jang Baekgi, An Yeongi, and Han Seokryul, als o pass the test to become full-time employees at different teams.

The four of them go through various troubles and meet different people as they g rowintomembers of society. At Sales Team 3, Geurae works with Deputy Manager Oh, who is a workaholic with principles, good-hearted Assistant Manager Kim, and curt but considerate Manager Cheon. Hesometimesfaces conflicts with other teams, fights corruption and irrationalities, wins contracts using teamwork, and works day and nigh t to concludesuccessful projects. Through this process, Geurae, who is used to workin g alone after playing go for a long time, not only strengthens his job competency, b ut also builds a sense of belonging and camaraderie.

Jang Baekgi is elite. He has good looks, an excellent academic background, and m ultiple qualifications.Because his superior Assistant Manager Kangat Steel Team only gi ves him simple tasks, he feels unappreciated and thinks of changing to another com pany.Whilehe prepares an important document on behalf of Assistant Manager Kang, who is on a business trip, he realizes the importance of basic skills through conversa tions with other team's superiors and employees.

Even though An Yeongiis competent enough to execute any business at anytime, s he has a hard time adapting to the Resource Team becauseof the way she is viewed as a woman. All she does is odd jobs such as buying cigarettes for other employee s, cleaning up the office, and emptying out the trash. She works hard, but all she ge ts in return is insults.However, she continues to do her best until her boss finally tak es her in as a team member and entrusts her with more important business tasks.

Seemingly shameless and careless,Han Seokryulhas strong basic skills because he ha s learned them from his blue-collar father at workplaces. He is loud and outgoing at first, but when his poor response to Assistant Manager Seong, whoalways thrusts his work on him, backfired,he falls into a gloomy mood. When he sees Assistant Manag er Seongignoring factory workers who are angry at his excessive demands, he cannot take it anymore. He makes every effort to satisfy both the company's needs and the workers, and shows Manager Seong how he can solve problems with grace.

All four of them grow as members of One International by going through hardship s great and small, facing conflicts with others, and collaborating with other employee s.Even though Jang Geuraeshows exceptional business competence, it's not enough fo r him to become a full-time employee. After realizing Geurae's situation, Deputy Man ager Oh takes an unfeasible project from Senior Managing Director Choe in a bid to change Geurae's contract-working position to a permanent and full-time one. Howev er, due to a mistake made by Geurae, the project goes down the drain and has a cri tical impact on the company.Deputy Manager Oh takes the responsibility and leaves t he company, while urgingGeurae to survive no matter how hard things become. To k eep his promise to Deputy Manager Oh, Geuraefaces his last day as a contract work er at One International with a heavy-heart.

Despite the efforts of theemployees and superiors of Sales Team 3 and other depa rtments, Geuraefails to be a full-time employee and leaves the company.

Now, Jang Geuraeis unemployed again. Unlike before, Geuraeprepares himselfto go back into the world by making efforts toimprovehis capabilities.

One day, Deputy Manager Oh, who started a small trading firm, visits Geuraeand o ffers him a job. Assistant Manager Kim also leaves One International and joins them to work together as a team once again.

Session 2. China (Writer)

<The discursive patterns that can be found in popular drama story lines around the world and their implications for Chinese dramas>

Yi LIU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an, and colleagues. It is my honour and pleasure to be here, thanks to the Chinese Television Artists Association who invited me as a young writer. As a young writer, I would like to discuss the discursive patterns that can be found in popular drama story lines in today's world, particularly in three countries, i.e.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o see the implications they have for Chinese dramas.

To begin with, I would like to define the 'story pattern', the topic of today's talk. I think a 'story pattern' can be defined as 'the unique way of narrating a popular story'.

I assume the translation of my talk were distributed and by now you all have it in your hands; so please refer to the table in the translation, where you can find some statistical data. Dramas appearing in the table are the acclaimed ones from 2009 to early 2015. A total of 30 dramas appearing in the table were produced in five different countries – the US, the UK, Japan, South Korea, and China; they cover various genres; and each features a distinctive style. These dramas are not selected solely based on its popularity (i.e. 'the most-watched') but its originality, artistic values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had an impact on the society.

Work list:

American Drama	British Drama	Japanese Drama	South Korean Drama	Chinese Drama
Lie to Me	Psychoville	Voice	Iris	Lurk
Walking Dead	skins	SunaoniNarenakute	My Girlfriend Is a Nine-Tailed Fox	Before the Daylight
Game of Thrones	The Good Wife	Mother	Deep Rooted Tree	Scarlet Heart
The Newsroom	Downton Abbey	Kodoku No Gurume	Rooftop Prince	Palace
Breaking Bad	Sherlock	Hanzawa Naoki	The Heirs	Empresses in the Palace
House of Cards	Vicious	Love Affairs In The Afternoon	My Love from the Star	Shining Days

<Table1>The list of acclaimed dramas (2009-2015)

These 30 dramas were not only the most-watched but also they caused great sensations. The fact that one drama could create a great sensation in a society means the high level of the drama production.But it also means that the drama caught and met the demand of the day and so could be able to attract the audience's attention and make them sympathized with the story. This bond of sympathy that the drama has created is not theaudience's simple reaction to the drama stories and main characters but is the reaction to their own lives, and feedback on their own lives. In other words, dramas are like a mirror, reflecting various aspects of contemporary economy and the modern society. The 30 dramas mentioned above reveals the discursive patterns that can be found in popular drama story lines these days. First of all, main characters appearing in that dramas can be categorised into 8 different types.

Character type	Major works	Main characters	Frequency of appearance
Chase	Voice	Kaji Daiki, YizsyeRyoske	20
	Iris	Hyun-joon Kim, Seung-hee Choi	
	Lurk	WyiJeo Cheung, Li Ya	
	Before the Daylight	RyuXinje, Tan Jongsoo	
	Lie to Me	Dr. Cal Lightman, Dr. Gillian Foster	
	PSYCHOVILLE	Joy and George Aston	
	The Good Wife	Alicia Florrick, Kalinda Sharma	
	Sherlock	Sherlock, Dr. Watson	
	Deep Rooted Tree	King Sejong Yi Do, Kang Chae-yoon	
	My love from the Star	Do Min-joon, Cheon Song-yi	
Time-slip	Scarlet Heart	Ruoxi/ Zhang Xiao	16
	Palace	Qingchuan, Imperial Consort Liang/ Lady Heseri	
	My Girlfriend Is a Nine-Tailed Fox	Gumiho/Gil-dal	
	Rooftop Prince	Prince Lee Gak and his retainers, Hong Bu-yong	
	My Love from the Star	Do Min-joon, Cheon Song-yi/Lee Hwa	
Rule/ Control	Game of Thrones	Robb, Tywin Lannister, Renly	14
	Downton Abbey	Robert Crawley, cora	
	The Newsroom	Will McAvoy, MacKenzie	
		Zhen Huan, Yongzheng Emperor,Empress	

	Empresses in the Palace House of Cards Deep Rooted Tree	Xiaojingxian Frank, Claire King Sejong Yi Do, JeongGi-joon	
Betrayal	Empresses in the Palace Shining Days Hanzawa Naoki The Heirs Breaking Bad Game of Thrones	Zhen Huan, An Lingrong, Shen Meizhuang Yu Fei, Zhang He Fan Hanzawa Naoki, Naosuke Kondo Cha Eun-sang, Kim Tan Walter White, Jesse Pinkman Daenerys, Jon Snow, Tyrion	14
Run away	Walking Dead SunaoniNarenakute Mother Kodoku No Gurume Love Affairs In The Afternoon	Rick, Lori Nakajima, Mizuno Nao Suzuhara, Reina Michiki GoroInagashira SawaSasamoto, RikakoTakikawa	9
Changes	Walking Dead Breaking Bad Skins My Love from the Star	Daryl, Carol, The Governor Walter White, Jesse Pinkman Tony, Sid Do Min-joon, Cheon Song-yi	9
Revenge	Hanzawa Naoki Empresses in the Palace Deep Rooted Tree Game of Thrones Breaking Bad	Hanzawa Naoi, DakeshitaKiyohiko Zhen Huan, Danbi,Nyongbin Kang Chae-yoon, JeongGi-joon Jon Snow, Bran, Arya Walter White, Jesse Pinkman	12
Escape	Walking Dead Breaking Bad Game of Thrones Empresses in the Palace Mother My Love from the Star	Rick, Eugene Walter White, Skyler Jamie, Ygritte Yunli, Onsilcho Nao Suzuhara, Reina Michiki Do Min-joon, Lee Hwi-kyung	12

<Table 2>8 types of the characters appearing in popular dramas

They can be categorised into a total of eight types; chase, time-slip, rule/control, betrayal, run away, change, revenge and escape. Please bear these types in your mind when you look at the dramas.

Of course these 8 types do not cover all characters appearing in all dramas. However, one thing is clear that these are the characters who are most discursively found in recent dramas. At least over the last five years characters of these types appear quite frequently in TV dramas around the world.

Moreover, some of those types seem to continue to maintain its public interest. For example, it is not recent that run away, rule, betrayal, revenge and escape types have been shown in dramas; they have often appeared in literary works and plays from the age of classicism. Time has changed but these characters have won people's attention to this day. They represent hopes, emotions and feelings of people all time. Thus the story patterns of recent popular dramas can be discussed following those 8 types; chase, time-slip, rule, betrayal, run away, change, revenge and escape.

Yes, as a Chinese drama writer, I had great interests in all dramas mentioned above and of course watched all of them. Colleagues from outside the drama industry love the drama genre I love. However, it is interesting to see that the analysis has shown that few South Korean and Japanese young audience watch Chinese dramas, or they are not interested in the Chinese dramas at all.Dramas being loved by Chinese audience feature the same story patterns as that of South Korean and Japanese dramas, and the production costs are even higher than that of Korean and Japanese dramas. If so, why can't those Chinse dramas that have similar story lines to South Korean and Japanese dramas and that costed more enjoy public popularity in other countries? It stimulated my curiosity. What are the South Korean and Japanese dramas telling to the Chinese drama writers? My intuition says Japanese dramas put more emphasis on the details of emotional expressions; whereas Korean dramas are very much concerned with tense and suspenseful story lines and visual stimulation.

In recent years Chinese dramas have attempted to follow the styles of South Korean and Japanese drama but they failed to find the point of attractions and they failed to combine the particular styles of the foreign dramas with the attitudesor the styles with specific to Chinese audience, either; this rather resulted in Chinese dramas running to extremes. In particular, as South Korean dramas have gained more favour with Chinese audience than Japanese dramas over the past few years, Chinese drama writers have rushed to copy South Korean dramas. The problem is, however, they have produced irrational, illogical, far-fetched stories. They do not care about the whole story line, the backbone of the drama; but are prone to dwell on separate individual episodes. As a result, Chinese dramas may look full of episodes but stories are not to the point; and similarly, Chinse dramas also have complex, intertwined relationships among the characters but they failed to attract audience's attentions, mainly because Chinese writers have simply relied on few episodes without much effort, avoiding all hard, demanding works. However, even when the same story line is adopted, the production direction and techniques have to be changed according to the type of audience, production system and the evaluation systems.

Ru Min, my MA supervisor at The Central Academy of Drama,is a middle-aged sweet woman. She is a professor in drama writing, the first-class drama writer, and a researcher in Korean dramas. One thing I would like to add is that she is a huge fan of 'Min-Joon Do'. She is such a huge fan that she paid a visit to the filming site of 'My Love from the Star'. On her return she shared one story with me which took me by surprise: according to her,more than 6,000,000 RMB were put into Do's library, and every books in the library was the real McCoy. However, cheap fake books would have been used if it were in China. The Korean production staff used the real ones because they knew the fake ones would not bring the same effect on screen.

If Min-Joon Do's library represents his heart, only Song-yiCheoncan enter into his library, and into his heart. This one example of his library shows the extent to which South Korean production companies devote themselves to the drama. On the contrary, a scene from a Chinese drama, which is full of flaws, tells the production staff's gross negligence.

However, thankfully, as a young Chinse drama writer, I have never felt disappointed at the world I have been a part of. Like any other business markets, commercial dramas in nature are also influenced by the country's development of economy and politics. With the increase of Chinse national power and GDP growth, the Chinese government has shown more interest in, and has increased their investment in, the cultural industry. Drama production companies, investment companies and production staff as well as the production structures have been advanced, and audience and viewers became more cultured; and this enabled me to have hope and expectations for the future.

If you ask me what makes me the happiest while living in China, I will say the expectations for the ever-changing future and full driving force we all have. If you ask me what makes me the happiest as a writer, I will say it is when people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to many Chinese people, watch the drama I wrote.

I do hope more and more Chinese dramas will be able to stand out in the world market and lead world stage. I also do hope Chinese viewers can widen their minds and perspectives and enjoy their times throughan array of dramas produced around the world.

Last but not lea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thanks to Professor Ru Min, Dr. Chen Si Yuan, Writer Li Li, who have spared no effort to prepare this material and help me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ank you all for listening and for engaging in my material.

TV Drama <Survival Cipher> Synopsis

A fishing boat carrying 11 passengers has an accident at sea. Being cast away in the sea, the passengers finally find one bleak, deserted island. Among those helpless townies who do not know what to do in this worst case scenario was the tour guide Chin Liang Tian. Leading the others, he starts to find a way to make a living. Chin Liang Tian and Wen Wen, the adorable and sophisticated lady, have very different personalities but they became attached to each other as they overcome various trials and hardships together. Whereas Wen Wen always gives smiles to others even when they are in danger, she gives the cold shoulder only to Chin Liang Tian. In fact they were attracted to each other long time ago but none of them so far has admitted it.

He Lin, a typical 'techno geek' who had been indulged in games before he found himself in this deserted island, is now fell in love with Wen Wen. He always chases her around and wants to protect her, while Wen Wenputs him in the Friend Zone, ignoring his feelings. Wen Wen is completely in love with Chin Liang Tian, but she cannot understand his complex behaviors.

Chin Liang Tian leads the others from the coast to the forest where something eatable and fresh water can be found,only to find out that bumpy and rocky roads are lying ahead of them. He encourages all passengers and makes most out of each person's strong points and work experiences, in order to survive in the desert island. They start to rely on each other, fighting together against a huge swarm of mosquitoes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they share the last drop of water for the people who are dehydrated. They even have a poisonous snake to survive. One day an avalanche strikes, and everybody else is miraculously safe but Chin Liang Tian is buried as he was saving an eight year old child Wang Xiao Ye. This enables Wen Wen to realise how much she has loved him. He Lin confesses his ardent love for Wen Wen, but she, being heartsick over the loss of ChinLiang Tian, cannot accept He Lin's love. She endlessly cries out for Chin Liang Tian. Hearing her wailing, Chin Liang Tian starts to have a strong will to survive, and finally made himself out of the landslide. However, somehow he keeps distances himself from Wen Wen and does not show his feelings for her. Knowing that Chin Liang Tian and Wen Wen are being in love, He Lin finds out that Chin Liang Tian has a secret.

He Lin does his best to win her mind: he finds the lighting bugs and makes a swing using vine trees for her. Thanks to Wen Wen, He Lin – the bad tempered odd man out – starts to hang out with others and proves himself by showing his skills as a techno geek. Wen Wenis now torn between Chin Liang Tian, who gives the cold shoulder and makes biting remarks to her, and warm-hearted He Lin. Who would win her heart?

Chin Liang Tian is confused to find He Lin next to Wen Wen, but soon starts to collect himself to survive in the island. Knowing that everybody's hope is hanging on him, he has no time to spare for his beloved Wen Wen. But his decision deeply hurts Wen Wen.

Equipped with his excellent leadership, Chin Liang Tian leads the party and earns their trust; but it is revealed that he disguised himself as a tour guide and it was not by chance that the accident was occurred. Then, what is the truth behind all the events?

The truth is that, Chin Liang Tian is a fund manager, and he became suspicious about his father's death when his father was died from an accident. He asked his friend, Li Soo, for a secret investigation into his father's past and the details about the accident. All people who went aboard a ship were the same people who were involved in father's accident. However, as Chin Liang Tian spends days with those people and becomes impressed by them, he realises that there is difference between what actually happened in father's accident and what Li Soo reported him. Not knowing that Li soo plotted against him and deceived him to embezzle Chin Liang Tian's business, Chin Liang Tian himself became a tour guide and headed to the sea.

While Chin Liang Tian is shocked by his friend's betrayal, the rest passengers can no longer trust him. As their trust vanishes, they start to question each other and dispersed in all directions. However, Wen Wen's support and love brings Chin Liang Tian back to reality, and he unites minds and overcomes the crisis. When the moment of show down war between Li Soo and Chin Liang Tian arrives, the crowd who had already been united while going through the life and death situations, together stand against Li Soo, resulting in Chin Liang Tian's victory.At the end of the day, Li Soo regrets his mistakes but it is too late.

He Lin could not win Wen Wen's heart but he is changed from a depressed techno-geek to a jolly fellow. Chin Liang Tian and Wen Wen became a pair of inseparable lovers. Standing on the deck of the salvage boat, they think the simple passwords (codes) saved them from the jaws of death are 'trust and love' for each other.

Session 3. Vietnam (Producer)

<Trend of TV Drama and Popularity Factors in Vietnam>

Anhvu NGUYEN

VIETNAM TELEVISION

Table of contents

1. Brief Introduction
2. Trend of TV Drama and Popularity Factors
3. VTV's Solutions and adaptations

Brief Introduction - VTV

- The national television
- The biggest television station
- The largest television company

Brief Introduction Drama timeslot

Channel	Time	Day	Produced by
VTV1	13h	All days	Foreign
	20h30	Mon to Fri	Vietnam
	21h	Sun	Foreign
VTV2	11h	All days	Foreign
	19h	All days	Foreign
	20h	All days	Foreign
VTV3	12h	Mon to Fri	Foreign
	18h	Mon to Fri	Foreign
	21h	Mon to Fri	Vietnam
	22h30	Mon to Fri	Foreign
VTV6	19h	All days	Foreign

Brief Introduction
Advertising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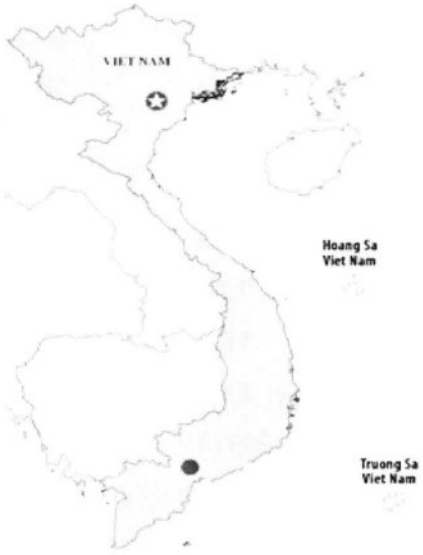
- 2 biggest markets: Hanoi (north) and Ho Chi Minh city (s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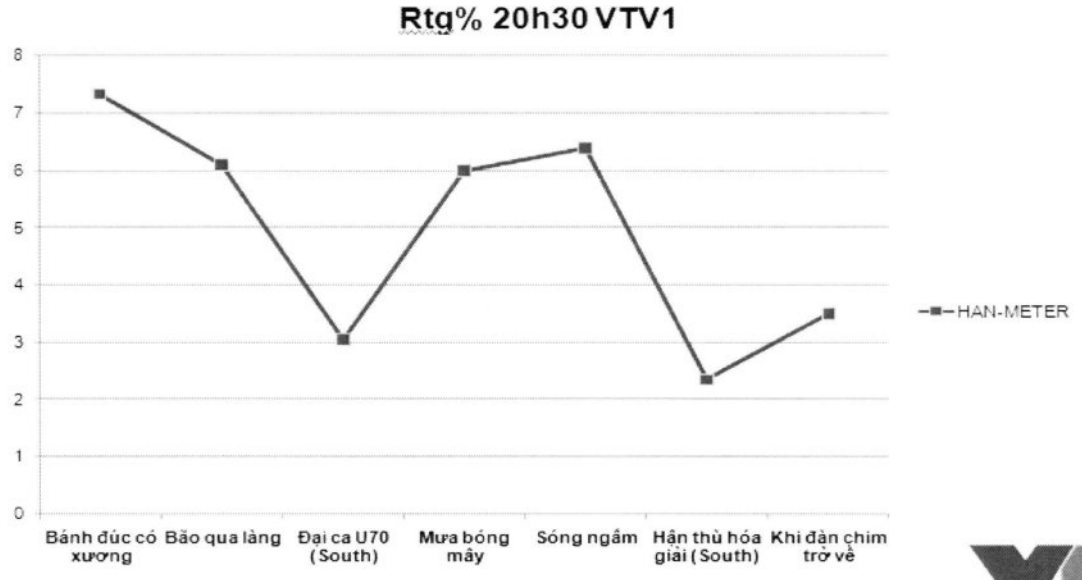
Trend of TV Drama
and Popularity Factors

- The difference between North and S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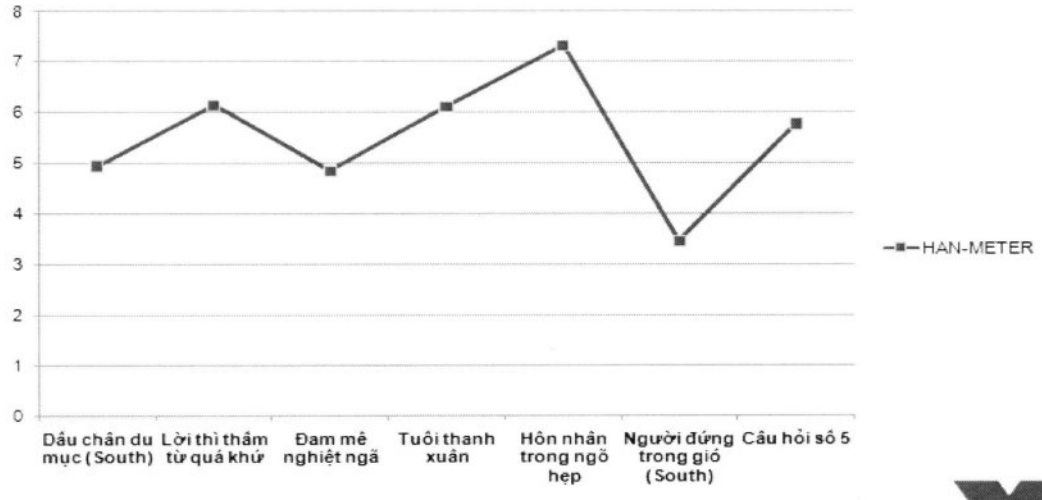
North
≠
South



Trend of TV Drama and Popularity Factors



Trend of TV Drama and Popularity Factors



Trend of TV Drama and Popularity Factors

- Favorite content:
  - North: Normal family life, police, old village, ...
  - South: More entertainment
- New sponsor way: Product Placement (PPL)

→VTV is taking 1st place in Vietnamese Drama.

→Vietnamese Drama is broadcasted in Golden Timeslot



Trend of TV Drama and Popularity Factors

- Applying hi-tech in making drama: America, Korea.
- Music is upgraded to a whole new level: many OST become hit.



Trend of TV Drama and Popularity Factors Foreign Dramas

- High competitive environment
- Korean and Chinese are still strong with high license fee.
- Indian, Thailand drama is going up.
- Short Korean drama is hard to gain advertising sponsor.
- Customs drama is not work in the North but still work in the South speacially is Chinese drama.

VTV's Solutions and Adaptations

- Aquiring foreign format to enchance script resouce.
- Co-production with foreign partners.


VTV
CJ E&M
Tuổi thanh Xuân
Forever Young


A song to the sun
タイヨウのうた
VTV
TBS

VTV's Solutions and Adaptations

- Increase revenue: create policy to apply PPL in drama.
- Combination of online and offline promotion. Create VTV's drama community.
- Develope added value in drama and audience intergration.
- Investing in technology: video quality (4K), color, music, ...

VIETNAM TELEVISION

THANK YOU!

Session 4. Japan (Writer)

About <Partners>

Koshimizu YASUHIRO

Partners first started as a 2 hour-long short drama in 2000. A total of three episodes were produced, which now is referred to as a 'pre-season'.

At that time, housewives were the main target of those two hour-long suspense dramas; therefore, the contents naturally tended to be less heavy. In addition, they mainly dealt with amateur detective stories, in which a main character who is not a professional detective solves cases.

However, Partners was created to go against the tide: the protagonist was a detective from the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and the issues were serious enough; the reason being is that, first of all, I, myself, was not satisfied with those two hour-long suspense dramas of the time.

A long time ago, when I was a kid, a two hour-long suspense drama was primarily for male audience. They definitely targeted them given that the contents were dark, sometimes sexual, and sometimes bizarre. At some point, however, the females, especially housewives, became main audience and the content started to deal with lighter subjects. From that point, I stopped watching the two hour-long suspense dramas.

The second reason is the fact that I started writing a script for a suspense drama for the first time.

As I had written comedies only, I was new to the genre of suspense dramas. On top of that, because I stopped watching suspense dramas geared toward housewife-viewers, it was impossible for me to treat them as a point of reference. And of course, I believe the producer wouldn't have chosen me to work with him if he wanted that kind of suspense dramas. I guess he also wanted something different from the works of the time. On that note, I was guaranteed to think outside of the box.

That is how Partners came into being. It seems it was rather an unusual piece of work at the moment, though I didn't think so.

A male-duo-oriented drama was known to earn less viewer ratings. In addition, the work piece was significantly more masculine since the protagonist was a detective from the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and it dealt with conflicts within the police department.

In fact, during the domestic screening, the reviewers said, 'it is fun, but it won't score high viewer ratings.'

However, when it was aired, it achieved an unexpectedly high viewer rating of over 17 percent. Thanks to that result, we were able to produce a second piece.

Pleased with the results, I told the producer that I wanted to create an episode with a serial killer this time. It is utterly bold to have a serial killer in a drama that targets housewives. In fact, the producer had to face strong opposition to the idea.

Despite the fierce opposition, the producer gave me the green light. Of course, it was impossible to make a serial killer as gory as those in Hollywood films; so I created a rather toned-down version in for our housewife audience. Against all the odds, the second episode earned a 22% viewer rating. In fact, the Kanto area in Japan had a tremendous amount of snow on the day the second episode was aired. Since people had to stay at home, I think we were able to achieve higher viewer ratings. Well, luck is a part of one's competence, I guess. The third episode was then produced, earning more than 17% to wrap up the pre-season in 2001.

In Oct 2011, Partners began as a series (Season 1 was aired only in the first quarter, and the subsequent seasons were aired in the second quarters). Despite the success of the preseason, the new series with one complete episode every hour didn't do as well. The average viewer rating for season one was 13.1%. However, as each season aired, it drew more attention and became more popular than the one before. As a result, Season 13 achieved an average viewer rating of 17.4%. I believe one of the factors that made Partners popular for the 15 years since its pre-season is its diverse topics. Generally, a certain formula exists when making a series consisting of each episode having one full, complete story. This is why a series as a whole has a consistent tone. Partners, however, has a very loose formula that doesn't necessarily have rules to follow.

After Season 1, a total of 35 screen writers, including myself, have written Partners, bringing out the best in each of them. There are serious, dramatic episodes and there are comedies. There are genuine detective stories, thrillers and suspenseful episodes. It deals with social issues, and there also exist heart-warming stories of the members of society. The free format has allowed Partners to inhabit various genres and to explore diverse topics.

Another factor in its popularity would be changes in partners.

With Ukyo Sugishita, played by Yutaka Mizutani, as a fixed center, his partners have changed: the first partner was Kaoru Kameyama, played by Terawaki Yasufumi from the preseason to the 9th episode of Season 7; the second partner was Takeru Kanbe, played by Mitsuhiro Oikawa from the final episode of Season 7 to Season 10; the third partner was Toru Kai, played by Hiroki Narimiya from Season 11 to Season 13; and the fourth and current partner of Season 14, which started this October, is Wataru Kaburaki, played by Takashi Sorimachi.

Changing main characters can be risky, but we did it to bring new life to the drama. As a result, Ukyo Sugishita was able to create different chemistry with each partner, breaking new ground.

During the course of 15 years, the drama has been adapted into three films (Partners: The Movie I, II, and III) and two spin-off films (Partners: Investigator Mamoru Yonezawa's Case File and Partners: X Day), expanding the world of Partners.

○ About today's screening

It is 'The Last Class of Prof. Ayukawa' from Season 13, which was aired in February this year. It is the 15th and 16th episodes of the third partner Toru Kai's final season.
I will quote the synopsis from the Partners webpage:

As suggested by Toru (played by Hiroki Narimiya), Ukyo (played by Utaka Mizutani) goes to a party to celebrate his former college professor's 70th birthday. His former professor Ayukawa (played by Koji Shimizu), as well as other excellent students, including lawyers, college professors, and executives of the Department of Treasury, are also at the party. Amongst them is Miyako Yashiro (played by Yukie Nakama), who is known to be the professor's last student. When they are enjoying food that the housekeeper Reiko (played by Masako Ishino) has cooked, Ayukawa suddenly asks a question, 'why should we not kill a person?', which nobody has never thought about, at which point all the participants suddenly lose their consciousness. When they recover their consciousness, they find themselves in a secluded basement with a note, asking for an answer to a proposition. After a while, the door of the basement opens, where Prof. Ayukawa is standing with a hunting rifle on his hands.

Why does Prof. Ayukawa lock his students in a basement and ask about the ethics of murder?
How will the confined students handle the situation?
An extreme brain game with lives in the balance in the confined space begins!

Placing the closed circle at the center, which is fundamental to a mystery, our goal was to carry out a suspenseful narrative.

What is interesting about this episode is that the detective duo is separated: Ukyo Sugishita is in the basement and Toru Kai is outside, thereby Ukyo has to fight through the challenges in collaboration with Miyako Yashiro, who is also imprisoned, as his temporary partner.

Miyako Yashiro, played by Yukie Nakayama, is a new character who first appeared in this season's first two hour-long special episode. She is a government official at the Cabinet Intelligence and Research Office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o has been dispatched to the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as a PR manager. Our intention was to leave a strong impression of her on the audience through this episode, as she will return as a semi-regular guest in following ones.

I believe our intention was successfully achieved.

Partners Season 13 has won a grand prize in the television drama category at the 41st Hoso Bunka Foundation Awards. The episodes that won the prize were the two episodes of 'The Last Class of Prof. Ayukawa'.

Session 5. Korea (Producer)

<On 'Hybrid Genres': Core Trends in KoreanDramas>

Gowoon YUN

Three pieces of work have been the talk of the Korean pop culture industry recently: the film Assassination, the film Veteran, and the drama Yong-pal, also known as The Gang Doctor. Both Assassination and Veteran have drawn more than 10 million viewers each. Yong-pal broke the 20% viewer-rating barrier, which is considered 'a dream viewer rating'. What do they have in common? They are all 'cross-genre' works: Assassination is a mixture of historical film, action film, and drama. Veteran mixes social drama, detective fiction, action, and comedy genres. Yong-pal is a hybrid of a medical drama, thriller, melodrama, and business drama. All three cross-genre works have much appeal to the viewers and receive satisfying results.

When explaining the hybrid genre as a core trend in Korean dramas, more meaningful data can be found in the distribution chart of popular dramas than in the aforementioned three distinguished cases. The list of the top 20 mini-series dramas aired in 2015 are the followings: (Because the keyword of the article is 'trend', the scope of inquiry does not include traditional family-oriented dramas with more than 50 episodes. The following chart is based on the national viewer rating measured by Nielsen.)

Rank	Name	Channel	Logline
1	Yong-pal	SBS	The drama tells the story of when 'Yong-pal', a rather dexterous quack surgeon who will take anyone as a patient – even gangsters- if they pay him well, meets a 'sleeping witch', the inheritor of a fortune who is in a coma in a hospital.
2	Mrs. Cop	SBS	The drama depicts both the greatness and sorrows of a working mother through a middle-aged female protagonist who is the best police officer and worst mother.
3	Punch	SBS	A man says goodbye to the world and his life. *Punch* depicts the last six-month of Park Junghwan's life. He was the chief of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team for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before he passed away.
4	Shine or Go Crazy	MBC	A romance between a cursed imperial prince of Goryeo and an abandoned princess.
5	Unkind Ladies	KBS	A drama about love, success, and happiness among the faltering lives of three generations of unkind ladies.
6	Mask	SBS	In this materialistic world, a man and a woman marry each other, choosing material wealth over love and family. When they find out who is hiding under the mask, they realize the importance of love and family.

7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	SBS	A black comedy that satires the materialistic families in Korea's highest circles who wish to pass on wealth while enjoying absolute power.
8	Kill Me, Heal Me	MBC	A love story between a wealthy man with seven different personalities and his first-year resident doctor who has a secret. A human drama where the two save each other from the wounds of the past and find happiness.
9	The Girl Who Sees Smells	SBS	An apathetic man who lost his sister in the'barcode murder case' three years ago meets a woman with extrasensory perception who survived the same incident but lost her memories.
10	Healer	KBS	This action-romance drama is about young people who don't believe in politics or justice and how they fight against the world their parents' generation has left them.
11	High Society	SBS	A man from a humble family who tries to better his social status meets a daughter from a super-wealthy family. The romance between unequal classes reveals the true meaning of love and gives a message of hope to the '5-po generation' which gives up courtship, marriage, childbirth, relationship, and homes.
12	Angry Mom		Ex-troublemaker mom returns to high school as a student and faces the issues in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13	The King's Face		Gwanghae, the child of a concubine, becomes a crown prince. For sixteen years, his life and crown is threatened. Then, he uses physiognomy to overcome hardship and become a king.
14	Warm and Cozy		This romantic comedy is about an anger-filled woman and a man who suffers from a lack of affection. The two run a restaurant called Warm and Cozy on the beautiful island of Jeju.
15	Hyde, Jekyll, Me		A romantic comedy about a woman who is in a love triangle with the two personalities of one man.
16	Scholar Who Walks the Night		Disguised as a man, Jo Yangsun sells books for a living. She runs into a mysterious scholar, Kim Sungyeol. This historical melodrama fantasy depicts what happens when she finds out the scholar is a vampire.
17	Oh My Ghostess		A timid assistant chef, Na Bongsun, is possessed by a lascivious ghost. A romance between her and a snobby celebrity chef Shin Kang Sunwoo unfolds.
18	Who Are You		School 2015: Year 2015 version of KBS's famous School series. The 18-year-old protagonist's life turns upside down in one day. A youth drama about what she and her high school friends are going through.
19	Masked Prosecutor		A man wears a mask to solve problems in a way that he shouldn't as a prosecutor.
20	Blood		Medical drama about vampire doctor and his achievements and love.

The highlighted works in the chart above are the hybrid genre dramas which combine at least three different genres. Out of 20 of them, 11 works are hybrid-genre dramas. Based on the combination of melodrama and thriller, each drama adds different genres in accordance with its theme and concept. The additional genres include court drama, investigation, mystery, medical, historical, action, fantasy, horror, and comedy.

Produced by Pan Entertainment, Kill Me, HealMe also had distinctive hybrid-genre qualities to it and it was beloved by a great number of fans.

Because the story of Kill Me, Heal Me unfolds around a male protagonist with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played by Ji Sung, and his secret doctor, played by Hwang Jeongeum, it chose the genres of romance and medical drama in a bid to depict their relationship and the process of treatment. In addition to vivid depictions of the realities of multi-personality disorder, we added elements of fantasy, such as a rotation of personalities and a fusion of personalities, so that the viewers can understand this relatively unfamiliar disease. When the backgrounds of the two characters are tracked down, the twists of the story deliver the beauty of a thriller genre.

With each character of the male protagonist's seven personalities, Kill Me, Heal Me was a hybrid-genre fest: The main personality, Dohyun, for romantic drama; sub-personality 'Segi' for action and thriller; Yona, who won the most popularity, and Perry Park for comedy; Yoseob and Nana for humanism and healing; and Mr. X for the elements of fantasy.

Starting from My Love from the Star, You're All Surrounded, and Doctor Stranger in 2014 to the recent Yong-pal, the hybrid-genre dramas have become the mainstream in the industry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productions over the past two years. So, what are the factors that make a hybrid-genre drama so popular? They can be divided into two factor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e internal factor is that one can satisfy the desire for various genres. Except for a few occasions, it used to be very hard to produce different genres in the market of Korean dramas. In fact, the aforementioned Kill Me, Heal Me was first planned in 2008 with a different title, Nobody Knows. However, we had to give it up in the early stages because the material was found to be hard to approach, considering the atmosphere of the broadcast circles. In addition, not so long ago, about seven or eight years back, if a drama had a strong pull toward a genre, it was often denounced as a 'drama for maniacs' and was ignored by the audience or foundered in the pre-production stage. However, thanks to the inflow of foreign dramas, especially the ones from the US, and the growth of the Korean cable channels, Korean viewers naturally broke the stereotypes of genre dramas. Once people became familiar with them, the creators' desire to create our own genre dramas increased. Furthermore, when Korean sentiment was combined with the various elements of genres, it created 'the Korean-style hybrid genre' which was fervently received by the viewers. A more advanced Korean-style hybrid genre is now taking shape which reflect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dramas.

The external factor of hybrid-genre dramas' popularity is the change in viewing patterns, or more extensively, 'being easy to access at any time and being more immersive' due to the changing contents-consumption pattern. During the era of analogue TVs, there were a limited number of channels, and no other media could overtake the entertaining functions of televisions. Therefore, a traditional writing technique for Korean dramas that could guarantee a certain level of viewers' absorption involved long duration with a core story penetrating all episodes.

However, as we move on from the era of analogue TVs into the era of HDTV and UHDTVs, the era of various platforms, including internet and IPTV, and with the most advanced mobile devices that aggressively attack the market of television, people are more responsive to 'visual absorption' than 'emotional absorption'. In addition, they are more excited about three-dimensional and complex mixtures of genres with episode-based and fast-paced stories and denser characters than the stories that try to persuade viewers' hearts step by step. This tendency will continue, propelled by the growth of the digital generation who are more familiar with content in video clip form. As people are no longer obsessed with watching the premiere, a turning point in production methods is required.

This is why seemingly popular mini-series dramas have relatively lower viewer ratings compared to soap operas under the classical audience measurement method. The works listed on the chart above were able to achieve their desired results in viewer ratings based on popularity based on the viewing pattern involving various platforms and devices compatible with televisions. This proves that the Korean TV drama industry is gradually adapting to the new mechanisms paralleling the stream of the times.

People have different perspectives and opinions about the definition, standard, and outlook for a hybrid genre drama. In fact, there were hybrid-genre dramas that felt less complete than a single-genre drama because they lacked probability and persuasiveness as a result of focusing too much on speed and technical aspects when combining different genres. This is because the hybrid-genre in Korea is still in a transition period, or on a test bed. Nevertheless, there is no doubt that the hybrid-genre drama - as a part of the trend in Korean dramas- meets the demands of the times and has the potential to lead pop culture as an advanced form of 'Power Korean dramas'.

As a result of quickly accepting the trends of the time and continuously pursuing improvement, the future of Korean dramas is looking bright.

Session 6. China (Producer)

<Creativity and originality for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TV drama industry>

Shengtian SHI

We have witnessed more than 10,000 Chinese TV dramas being produced every year over the last decade. China is now the largest consumer of TV dramas in the world, and, at the same time, it is also the world's largest drama broadcaster.

In 2014, a total of 429 dramas and 15,983 episodes were produced, authorized and permitted for broadcast, among which 243 dramas and 8,335 episodes dealt with reality, accounting for 56.64% and 52.52% respectively. A total of 178 dramas and 7,338 episodes dealt with history, accounting for 41.49% and 46.19% respectively; and there were 8 blockbuster dramas, a total of 265 episodes, accounting for 1.86% and 1.66%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e number of dramas produced and aired a decade ago, the volume and size of drama production are now on a downturn; however, the Chinese drama industry has advanced in terms of quality.

China is the world's largest TV drama market. Statistics of June 2015 show that there are 1,998 county-sized TV stations and 517 prefecture-level-sized TV stations; and 32 national broadcasters offer high-definition.

From 2008 to 2013, the number of production companies who acquired 'license for production and management for TV program' had been increased from 2,878 to 6,175, showing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16.52%.

In addition, China has already established a fine investment model for dramas, and has raised funds through six different routes, including government funds, equity capital, financial loan, funds from other resources outside the field, advance purchase for broadcasting station participation investment andthe initial public offering. It is well known thatfinancial loan and initial public offeringbecame of great importance day by day, and there has been the inflow of hot money into the Chinese audiovisual market.

The drama industry has continuously been developed over the last 50 years, and, as a result, many men of distinguished talent were also fostered. Almost 1,000 universities have opened courses and established departments relating to the audiovisual industry, among which are Beijing Film Academy, The Central Academy of Drama, Communication University of China and Shanghai Theatre Academy, who have much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 drama industry through many talented drama producers, managers and directors. Also, various associations in the drama industry have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to large extent by educating, training and managing human resources, buildinga platform for cooperation, and encouraging communication within the field.China Television Drama Production Industry Association is the biggest, largest and the most active association.

Being ratifi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s the first class body corporate, China Television Drama Production Industry Associationwas established on May 2013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 autonomy, cooperation and mutual exchange. Being mainly to support the drama production industry, the association gives careful attention to the trends of members' demands and exerts every effort for the protection of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as well as for the development of cooperation and partnership in the industry. The number of dramas they produced and 90% broadcast share they have at the prime-time clearly show that the member companies that amount to 400 are indeed powerful and influential in the Chinese drama production industry.

I believe various data I have shown you above give you a glimpse of the status quo of the Chinese drama industry. And yet, at the same time, Chinese dramas also have a number of problems. For example, although China boasts the largest number of drama production companies in the world, it has no business enterprises to speak of. Annual production of 6,175production companies is limited to mere three dramas, showing the poor market share. While a number of small-sized enterprises can barely produce one drama every 2-3 years, big conglomerates have consistently produced 7 to 10 dramas every year. The reasons for this are complex. Rise of production cost is due in part to high-paid actors but the most serious problem is lack of originality and creativity in the contents of dramas. Short of sophisticated and well-written scripts and lack of the group of experienced and qualified writers hinder development of present and future of the Chinese drama industry. We thus would like to communicate and cooperate with outstanding and experienced professionals dispersed in various countries in Asia like you. Through this, we hope not only financial and technical cooperation but also exchanges

for trainings, content 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originalities can be vitalized.Efforts we have put over the last 50 years resulted in the rapid growth in the scale of Chinese drama, in the expansion of the routes for financial investments; and filming techniques have also been advanced enough to present 4K videos.There is no shortage of funds and technique, but short of staff members resulted in lack of originality and creativity in drama contents. Relying solely on remakes and simply following trends without critical perspectives became more serious.

Jin-Ping Xi, the President of China, has shown his immense interests in the originality of culture and arts. At the round table talk for literature held on 14 October 2014, he mentioned that the arts is what reflects the extent to which the era is developed; what speaks for the presence of the age; and what leads the trend of the period the best. President Xi pointed out that (1) recent creative writings has shown its growth in quantity, but not in quality; (2) Chinese dramas are monotonous, and writers tended to copy others; and (3)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mechanical drama productions and instant consumptions as well. He added that artists and writers should keep their balance even in the market economy, and they will lose their holds and vitality if they fail to manage their people. Chinese love watching and talking about dramas. This has a thread of connection with the Chinese traditional culture that Chinese love reading full-length novels from old times. It thus is clear that what kind of dramas should be produced is the crux of the matter. We are well aware of the cultural peculiarities and entertaining functions of dramas. However, drama writings would face a dead endif we cannot solve the issues of plagiarism and remakes. If we take the enthusiastic response about the intellectual propoerty rights for example, the sales of internet novels whose cultural levels still have long way to go have been increased several times from thousands copies at most to tens of millions of copies.This example holds up a mirror to the serious problems we currently have in drama productions and writings in China. Drama writing is a succession of, and a new interpretation on, Chinese history, and the reflection of the truth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Writings should be based on a daily life; a writer should have a deep understanding about life, and express those understandings artistically. Our pursuit of creativity in writings can be interpreted as the pursuit of the universal values of mankind, and it also shows our respect for human creative spirit.

Current Chinese drama writings show extremes. There are greatest masterpieces. There are various genres in Chinese drama, based on a variety of materials such as history, trendy, war, family, and rural communities. Many dramas such as <All Quiet in Peking>,

<The Young Doctor>, <Ultimate Force>, <Marriage and Lawyers>, <The Chinese Farmers>, <Romance of Our Parents>, <May-December Love>show advanced culture.On the contrary, a considerable number of production companies became slaves of a capital market and produce works that only chase after public interest, as a result of which, Chinese dramas are becoming monotonous. However, I can assure you that dramas that are lack of originality and authenticity will die out in the market, will be ostracized, and die the death. The most pressing issue in Chinese culture is 'creativity', which I think will be able to give a boost to the development of Chinese culture. Dramas in particular are no exceptions to this, as it is the main medium for the modern Chinese culture and arts.

In one sense, all drama creation are subversive and constructive. 'Original' is to subvert existing ideas and perspectives, but it also is the common artistic view about vast human knowledge, the regulation we follow, and it means the expansion of different and diverse dimensions. Originality means not only the originality in techniques and story lines, but it also means something where the stages the writer is in is shown and the feelings of the writer are revealed. Originality should also something that can excite the creativity of all staff including a writer, a director, an actor and actress. That is the only way to materalise the authenticity of drama writings. We must not settle for something that is simply new and catching your eyes.So-called 'creative spirit' means the particular narrative style of a writer, and the originality of the skills, which is the only way to make people's heart leap or their souls resonate.

All the partakers involved in drama have to understand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ethics, esthetics, and cultural enlightenment; and they have to describe every aspect of daily lives using their excellent artistic creativity. Having said that, we would like to communicate with, and learn from, outstanding colleagues in the drama industry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we also would like to have joint projects regarding contents business. China Television Drama Production Industry Associationwants to provide a platform that is free and equal to everyone in every country and art communities.

Cultural exchange is an eternal topic. Through the broad exchanges with other colleagues in this drama field, we want to build a long-term market in this field, and to offer more opportunities to the South Korea-China-Japan's joint projects; and in the long run, we would like to build training institutions. Colleagues in Chinese drama filed will be able to be a great asset to the Asian drama industry through this cooperation and trainings.

'One Asia, One dream'I sincerely hope that further development and bilateral cooperation will bring a brighter and more prosperous future to Asian drama industry.

Session 7. Japan (Producer)

<Morning dramas that start the morning in Japan

~ its 55-year history and present ~ >

Toru KAGATA



2015/11/6

Morning dramas
that start the morning in Japan

~its 55-year history and present~

NHK Drama Department
Executive Producer
KAGATA TORU



NHK

① Morning dramas = TV Novels?

Monday~Saturday, 6 times a week, 8:00am ~ 8:15am 15 mins per one episode

Over half a year: 150 episodes over 25 weeks or 156 episodes over 26 weeks of soap operas

Alternately produced in Tokyo and Osaka

Killer Contents that still symbolise NHK



< Asa ga Kita >' s heroine, Haru

Started in 1961.
The 93th series < Asa ga Kita > is still airing

Aired 1983~84, < Oshin >



Average viewership

2 . 6 %

NHK

② Morning dramas = TV Novels?

Main plot: 'the life story of the heroine' → The heroine becomes the 'nation's top actress' in Japan → The audition for the lead actress is the gateway for rookies

The lead actress beats the odds of 1 in 2,000

Existing actresses are also often cast as heroines



Various professions of heroines

House wife· teacher· nurse· singer· actress· chef· announcer· journalist· editor· medical doctor· script writer· hairdresser· novelist· innkeeper· master of flower cake· hotel clerk· Go (Baduk) player· carpenter· pilot· film director· astronaut· comic storyteller· travel planner· gardener· fashion designer· female diver· translator· -patissier

Heroines who guards her family, who joins the masculine (or male-dominated) society, etc

NHK

③ Morning dramas = TV Novels?

Viewers' interests are on the setting of the story.



47 cities and the whole of Japan, all can be a stage

Describe different periods of 150 years.



< Asa ga Kita >
1857～

江戸(Edo)

明治(Meiji)

大正(Taishō)

昭和(Shōwa)

平成(Heisei)



<Mare>
～2015

NHK

Morning dramas' the latest popular dramas









The points < *Amachan* > appeal to viewers (historical context: 2008 ~ 2012)

1 : The heroine became a female diver in her mother's hometown, Iwate.



2 : She becomes a pop idol in Tokyo





3 : A story of three generations that brings tears and laughter to audience

4 : 'Jojole', a dialect which means 'really', or 'indeed', became the craze

The points < Gochisōsan > appeal to viewers (historical context: 1911 ~ 1947)

1 : The heroine was born in Tokyo, but moved to Osaka to get married





3 : The main theme is: 'Meal equals life'

2 : A story of love between husband and wife





4 : Various foods, dishes, and cuisine were introduced, all of which made headlines

The points < Hanako to Anne > appeal to viewers (historical context: 1900 ~ 1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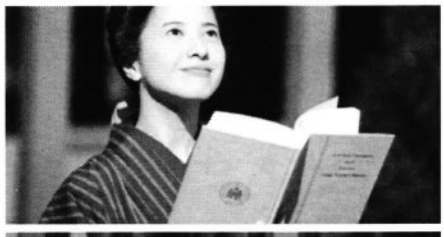
1 : The heroine is the translator of 'Ann of Green Gables'





3 : Hopeless love

2 : She comes to the girls school in Tokyo from the farm village, Yamanashi





4 : The story of female friendships

The points < Massan > appeal to viewers (historical context: 1920 ~ 1971)

1 : The story of a couple who strived to make whiskey



2 : The first non-Japanese heroine in the history of Japanese morning drama





3 : Hiroshima· Osaka· Hokkaido are the settings for the drama



4 : They contributed to the sales of whiskey

NHK

What 'morning dramas' should aim for

Costume dramas· · · <Gochisōsan >, <Hanako to Anne >, <Massan >

The period when various restrictions were opposed against women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wars· · · they make it more easier to set the obstacles and challenges that the heroine has to overcome, and to set the dramatic scenes



<Asa ga Kita> attempts to describe the Edo period, the oldest time set in all-time Japanese costume dramas.



NHK

What 'morning dramas' should aim for

A drama of present-day life · · · <Amac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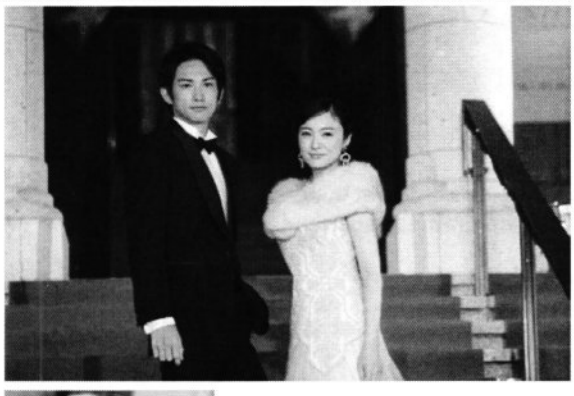
Are heroines' professions and regions in Japanese dramas running out?
Thus there is a need for the development of plot that has enough significant impact on the story to attract audience

In terms of <Amachan>, the process where the secret of the past that the heroine's mother has kept is revealed is the point that captivated the audience





<Beauty and the Fellow>: A feature-length drama targeting Asian markets



<Beauty and the Fellow>
April ~ August 2015, Tuesdays 10:00pm ~

Unprecedented feature-length series providing a series of 20 episodes
A story of a new face actress and her manager who strive to make it to the top

A romantic comedy and a success story about a 'beauty', and her younger 'fellow'

It wins popularity as a 'human drama genre' (one of the drama genres which refers to 'humanistic drama'), as it also delivers the behind story of the entertainment world.



Nakama Yukie plays the lead. She is well-known in Aisa for her role in < Gokusen >.



Asia's Diva, Hamasaki Ayumi recorded the theme song